

제 64 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석독구결문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일시

2023년 6월 28일^수 ~ 29일^목

장소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주최

구결학회·청주고인쇄박물관

후원

청주고인쇄박물관

구결학회

청주고인쇄박물관

2023년 제64회 구결학회 여름 학술대회 일정

2023.6.28.(수)

시간	발표 내용 및 발표자/토론자	사회자
12:00~12:30	참가자 등록	
12:30~12:40	축사 :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문현수 (인하대)
12:40~12:50	개회사 : 김성주(구결학회장)	
[기획 주제 발표]		
기획 주제 :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석독구결문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13:00~13:30	합부금광명경의 호국성과 호법성 발표자 : 고영섭(동국대)	김지오 (동국대)
13:30~14:00	금광명경의 전래와 판본 발표자 : 박광현(대구대)	
14:00~14:30	자토석독구결 자료로서 합부금광명경 권3이 가진 의의 - 자토와 점토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 발표자 : 문현수(인하대)	이용 (서울시립대)
14:30~15:00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2 발표자 : 장경준(고려대)	
15:00~15:20	휴식	
15:20~16:40	〈종합 토론〉 권인한(성균관대), 김희종(동국대), 장윤희(서울대), 정제규(문화재청)	좌장: 정재영 (한기대)
16:40~17:00	휴식	
[초청 발표]일본 훈점어학회 학자 초청		
17:00~17:40	중세 이후의 오음・한음에 대하여 오시마 히데유키(大島英之, Oshima Hideyuki) 도쿄대학(東京大学)	통역: 신웅철 (단국대)
17:40~18:20	일본어사에서 한자사전 『字鏡集』의 자리매김에 대하여 이토 도모히로(伊藤智弘, Ito Tomohiro) 오사카대학(大阪大学)	통역: 허인영 (인하대)
18:20~	저녁 식사	

2023.6.29.(목)

시간	발표 내용 및 발표자/토론자	사회자
[개인 연구 발표]		
09:00~09:30	조선관역어의 '噴[靑]' 과 '則卜論[寅]'에 대하여 발표자 : 전한솔(고려대) / 토론자 : 신현규(성균관대)	박진호 (서울대)
09:30~10:00	신소설에 나타난 종결 어미 '-구나' 계열 어미의 분포와 감정적 태도 양태에 대하여 발표자 : 이정원(단국대) / 토론자 : 이홍구(서울대)	
10:00~10:30	현대 국어 조사 '-에, -에서' 등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에 대하여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순홍(단국대) / 토론자 : 최성규(거례말큰사전)	
10:30~10:50	휴식	
10:50~11:20	《진언집》 '홍무운도'의 청탁체계에 대하여 - '훈민정음 표기'의 배열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이찬식(대구가톨릭대) / 토론자 : 안영희(운남민족대)	하정수 (동국대)
11:20~11:50	周本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 ㅅ -'의 기능에 대한 연구 발표자 : 성우철(고려대) / 토론자 : 김태우(부산대)	
11:50~12:20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와 형성과정 발표자 : 배진솔(서울대) / 토론자 : 김경혜(인하대)	
12:20~12:30	〈임시총회〉	
12:30~12:35	〈폐회식〉 폐회사 : 김성주(구결학회장)	문현수 (인하대)

제 64 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 학술대회

목차

| 기획 주제 발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석독구결문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합부금광명경의 호국성과 호법성	고영섭(동국대)	09
금광명경의 전래와 판본	박광현(대구대)	11
자토석독구결 자료로서 합부금광명경 권3이 가진 의의 - 자토와 점토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	문현수(인하대)	33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2	장경준(고려대)	53

| 초청 발표 일본 훈점어학회 학자 초청

중세 이후의 오음·한음에 대하여	오시마 히데유키(도쿄대학)	77
일본어사에서 한자사전 『字鏡集』의 자리매김에 대하여	이토 도모히로(오사카대학)	89

| 개인 연구 발표

조선관역어의‘噴[靑]’과‘則卜論[寅]’에 대하여	전한솔(고려대)	103
〈토론문〉〈조선관역어의‘噴[靑]’과‘則卜論[寅]’에 대하여〉	신현규(성균관대)	117
신소설에 나타난 종결 어미 ‘-구나’ 계열 어미의 분포와 감정적 태도 양태에 대하여	이정원(단국대)	119
〈토론문〉신소설에 나타난 종결 어미 ‘-구나’ 계열 어미의 분포와 감정적 태도 양태에 대하여	이흥구(서울대)	141
현대 국어 조사 ‘-에, -에서’ 등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순홍(단국대)	145
〈토론문〉현대 국어 조사 ‘-에, -에서’ 등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최성규(거례말큰사전)	163
《진언집》‘홍무운도’의 청탁체계에 대하여 -‘훈민정음 표기’의 배열을 중심으로-	이찬식(대구가톨릭대)	167
〈토론문〉《진언집》‘홍무운도’의 청탁체계에 대하여 -‘훈민정음 표기’의 배열을 중심으로-	안영희(운남민족대)	187
周本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 ㅅ -’의 기능에 대한 연구	성우철(한국기술교육대)	189
〈토론문〉周本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 ㅅ -’의 기능에 대한 연구	김태우(부산대)	221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와 형성과정	배진솔(서울대)	223
〈토론문〉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와 형성과정	김경혜(인하대)	243

기획 주제 발표

기획 주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석독구결문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합부금광명경의 호국성과 호법성

고영섭(동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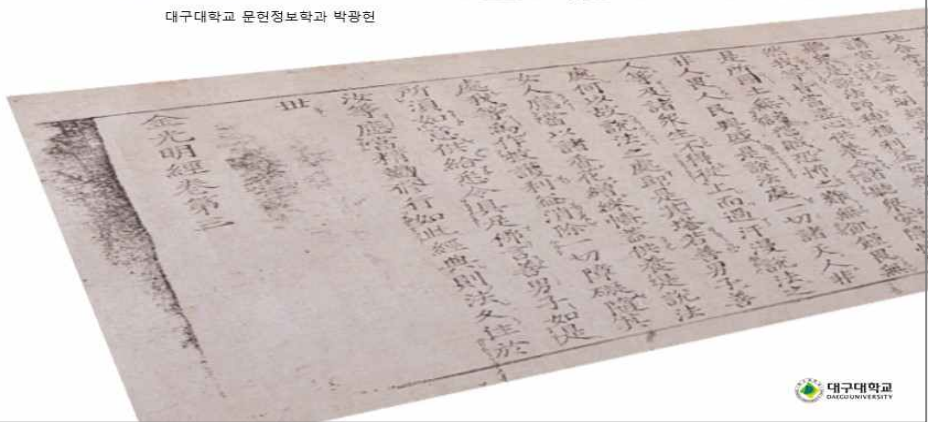
(별지 참조)

금광명경의 전래와 판본

박광현(인하대)

금광명경의 전래와 판본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광현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 목록에 수록된 『금광명경』

• 『정원신정석교목록』 6권

담무참(曇無讖) 금광명경(金光明經) 4권

[처음 번역된 것으로 1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도조의 『하서록(河西錄)』과 『승우록』에 보인다. 새로 번역된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과 동본이다. 지금은 8권의 『금광명경』 안에 넣게 하였고, 이 4권의 『금광명경』은 『산번록(刪繁錄)』에 남아 있다.]

• 『정원신정석교목록』 9권

바라말타(婆羅末陀) 금광명경(金光明經) 7권

[혹 6권 22품으로 된 것도 있다. 승성(承聖) 원년(552)에 정관사(正觀寺) 및 양웅(楊雄)의 저택에서 번역되었다. 서량(西涼) 시대에 무참(無讖)이 번역한 4권 80품이 있었는데 진제(真諦)가 이를 다시 번역하였는데 4품을 더하여 앞의 18품과 합쳐 22품으로 만들고 7권으로 나누었다. 지금은 『산번록(刪繁錄)』에 실려 있다.]

■ 목록에 수록된 『금광명경』

- 『정원신정석교목록』 10권

야사굴다(耶舍崛多)

금광명경광수량대변다라니경(金光明經更廣壽量大辯陀羅尼經) 5권

[귀성사(歸聖寺)에서 번역하였으며 지선(智僊)이 붓으로 받아썼다. 이 다섯 권은 『금광명경』의 완전한 번역이 아니다. 다만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경 4권 속에 「수량품(壽量品)」과 「대변품(大辯品)」의 두 품을 이은 것으로 지금은 『산번록(刪繁錄)』에 기재되어 있다.]

- 『정원신정석교목록』 13권

석의정(釋義淨)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10권

[다섯 번째 번역된 것으로 북경(北京)의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4권으로 된 『금광명경』과 동본이다. 장안(長安) 3년(703) 10월 4일 서명사에서 번역을 끝냈다. 사문 파륜(波崙)과 혜표(惠表)가 붓으로 받아썼다.]

■ 목록에 수록된 『금광명경』

- 『정원신정석교목록』 17권

수(隋)나라 때 굴다(崛多)가 번역한 「은주품(銀主品)」·「촉루품(囑累品)」을 합친 한 권은 『금광명경(金光明經)』 안에 합쳐 넣었다.

그 가운데 서량[涼] 시대에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4권으로 된 『금광명경』과 양(梁)나라 때 진제(真諦)가 번역한 7권의 『금광명경』, 북주[周] 시대에 굴다(崛多)가 번역한 5권의 『금광명경』은

수(隋)나라 때 사문 보귀(寶貴)가 앞의 두 원본을 취하여 합쳐서 8권의 『금광명경』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위에 말한 세 종류의 『금광명경』은 『산번록(刪繁錄)』에 실려 있다.

■ 간행의 기록

- 『현화사비음기』

특별히 공인(工人)을 명하여 『대반야경』, 『삼본화엄경』, 『금광명경』, 『법화경』 등을 새겨 그 경판을 현화사에 보존하고 그 시설에 「般若經寶」의 칭호를 붙여 잘 간직하며 길이 사방에 찍어 베풀도록 하였다.

※ 1020~1022년 사이에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

■ 금광명경의 이역본

	한역시기	나라	이름	경 명	권수	품수	현존	비고
1	412~421년	北涼	曇無讖	金光明經	4卷	18品	有	舊譯
2	552년	陳	眞諦	金光明(帝王)經	6 or 7卷	22品	無	
3	6세기	周	耶舍崛多	金光明更廣數量太辯才陀羅尼經	5卷	22品	無	수량품 대만품
4	6세기	周	闍那堀多	金光明銀主陀羅尼經	5卷	?	無	은주품 축루품
5	597년	隋	寶貴	合部金光明經	8卷	24品	有	
6	703년	唐	義淨	金光明最勝王經	10卷	31品	有	新譯

■ 전래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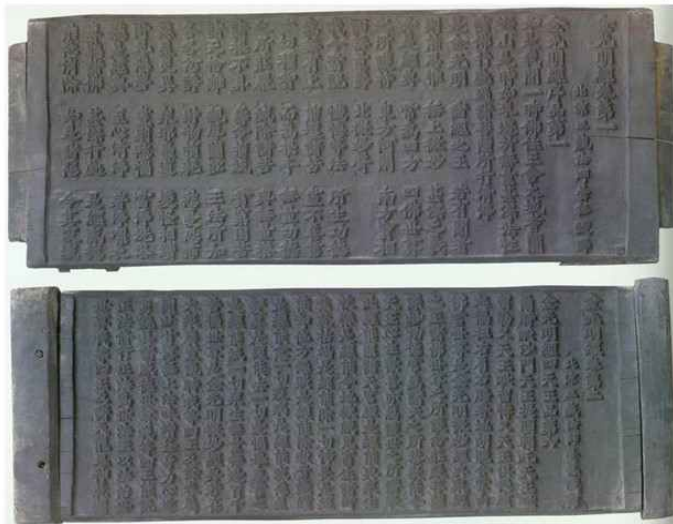
- 5세기 초에 간행된 『금광명경』이 가장 먼저 국내 전래 되었을 것으로 추정, 문무왕 19년(679년) 四天王寺 건립 이를 『금광명경』의 영향으로 추정
- 『합부금광명경』의 주석서인 『金光明經疏』 8권을 원효(617-686)가 찬술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전래
- 『삼국사기』 聖德王 3年(704) 春三月
김사양이 돌아와 『금광명최승왕경』 바쳤다.

■ 『금광명경』의 종류별 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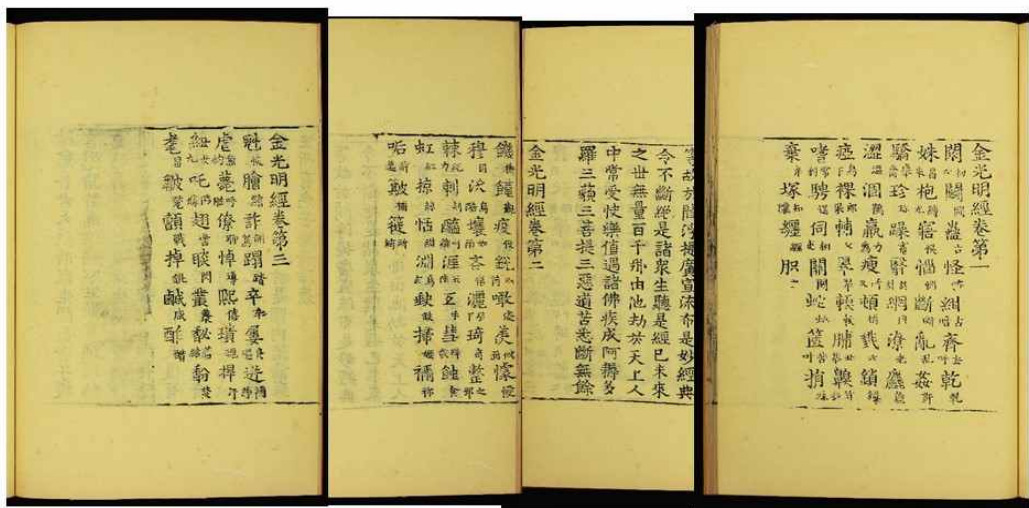
『金光明經』(4권 18품)		『合部金光明經』(8권 24품)		『金光明最勝王經』(10권 31품)		
권1	1. 序品	권1	1. 序品	彦瑢	권1	1. 序品
	2. 壽量品		2. 壽量品	曇無讖	권2	2. 如來壽量品
	3. 懺悔品		3. 三身分別品	眞諦		3. 分別三身品
	4. 讀數品	권2	4. 懺悔品	曇無讖	권3	4. 夢見金鼓懺悔品
	5. 空品		5. 業障滅品	眞諦		5. 滅業障品
권2	6. 四天王品	권3	6. 陀羅尼最淨地品	眞諦	권4	6. 最淨地陀羅尼品
	7. 讀數品		曇無讖	7. 蓮華喻讀品		
	8. 空品		曇無讖	권5	8. 金胎陀羅尼品	
	9. 依空滿願品	眞諦	9. 重顯空性品			
	10. 四天王品	권5	10. 四天王觀察人天品			
권3	11. 報主陀羅尼品	권6	12. 大辨天神品	曇無讖	권6	12. 四天王護國品
	12. 大辯天神品	권6	13. 功德天品	曇無讖	권7	13. 無染著陀羅尼品
	13. 功德天品		曇無讖	14. 如意寶珠品		
	14. 堅牢地神品		曇無讖	권8	15-1. 大辨才天女品	
	15. 脂散鬼神品	曇無讖	15-2. 大辨才天女品			
권4	16. 正論品	권7	16. 正論品	曇無讖	권9	16. 大吉祥天女品
	17. 善集名		曇無讖	17. 大吉祥天女增長財物品		
	18. 鬼神品		曇無讖	권10	18. 堅牢地神品	
	19. 授記品	曇無讖	19. 僧損爾耶摩又大將品			
	20. 除病品	曇無讖	20. 王法正論品			
권5	21. 流授長者子品	권8	21. 流授長者子品	曇無讖	21. 善生王品	
	22. 捨身品		曇無讖	22. 諸神藥又護持品		
	23. 讀佛品		曇無讖	23. 授記品		
	24. 付囑品	曇無讖	24. 除病品			
	25. 癩瘰品	曇無讖	25. 長者子流水品			
권6	26. 捨身品	권9	26. 捨身品	曇無讖	권10	26. 捨身品
	27. 十方菩薩讀數品					
	28. 妙幢菩薩讀數品					
	29. 菩提樹神讀數品					
	30. 大辨才神女讀數品					
31. 付囑品						

金光明經

14자



<금광명경> (해인사 동사간전 소장, 전 51판, 1244년 무렵) /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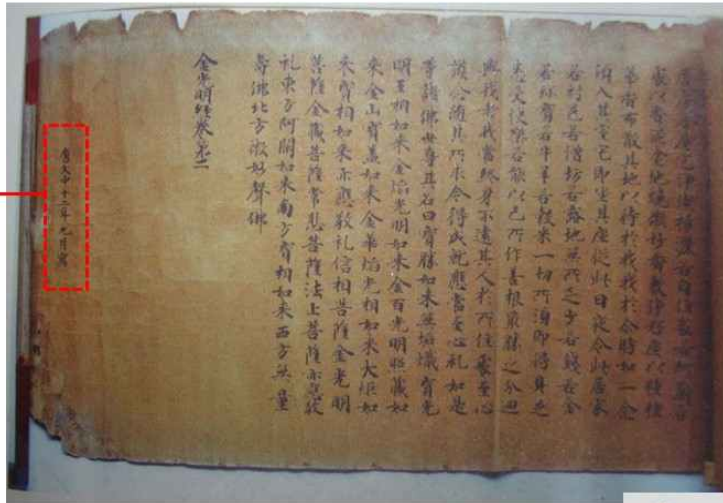
<금광명경> (수창년간판, 해인사 소장, 전 51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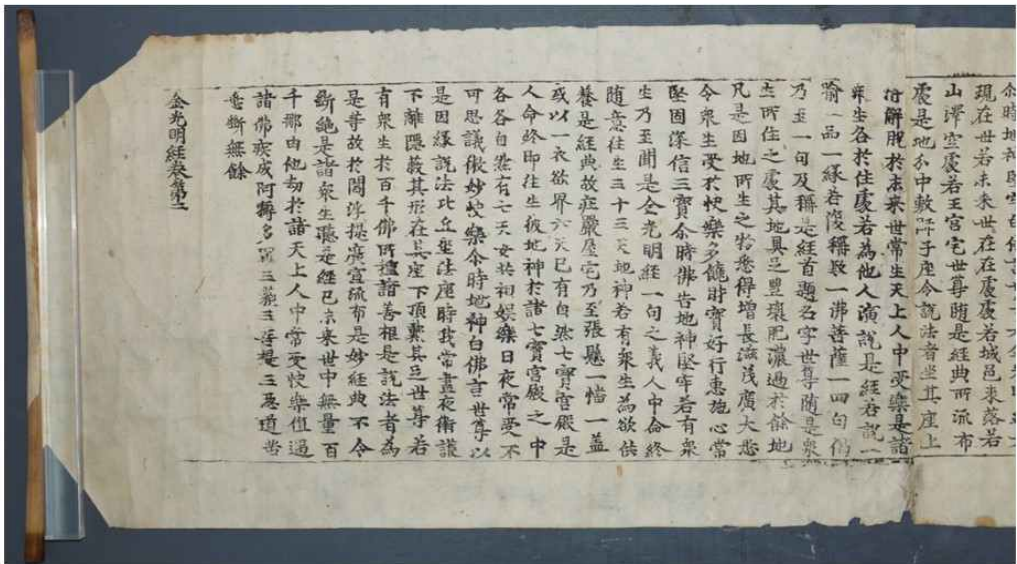
『금광명경』 권3(7,8장) (선운사 소장, 1판): 판수제 金經

출처) 『전국사찰소장목판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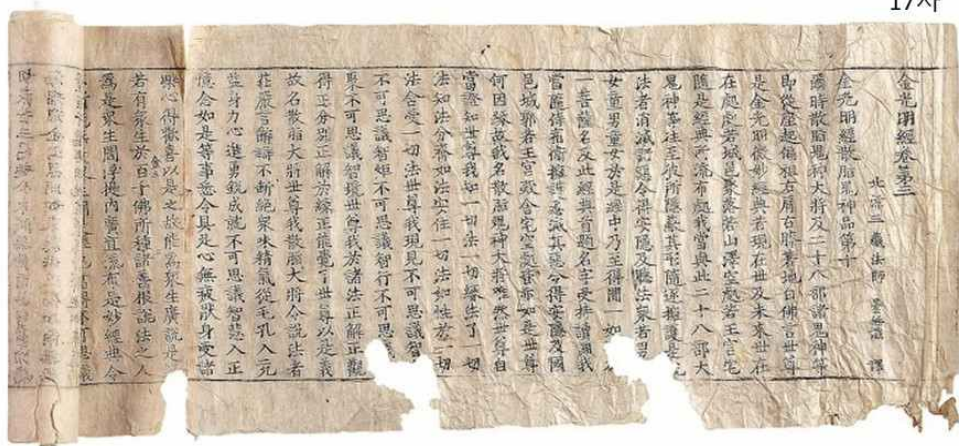
唐大中十一年(858)九月寫



<금광명경> 권2 (호암미술관 구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광명경> 권2 (호림박물관 소장)



<금광명경> 권3 (해인사 소장,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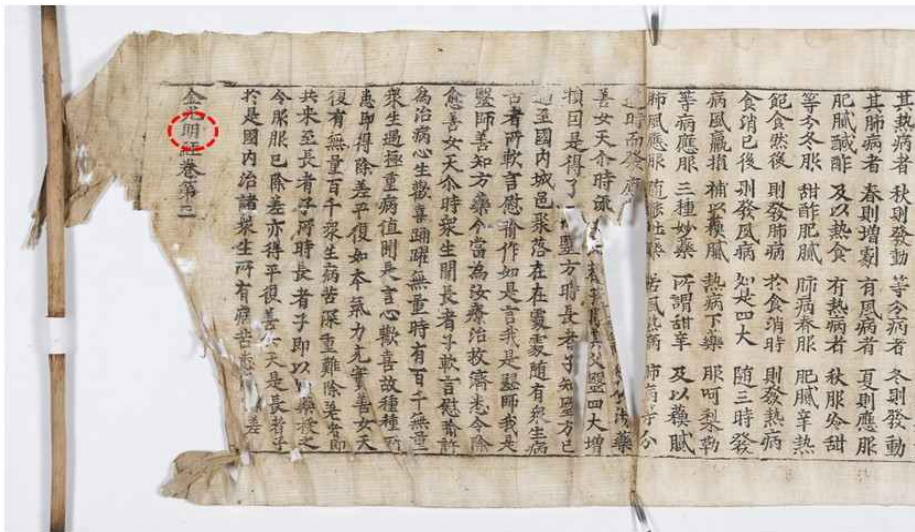
<금광명경> 권3 (호림박물관 소장)

金光明經散脂鬼神品第十
 今時散脂鬼神大將軍及二十八部諸鬼神
 時從座起偏袒右肩右膝著地自佛言
 世尊是金光明微妙經典若現在世及未來
 世在在處處若城邑聚落山澤空處若至
 宮宅隨是經典所流布我當與此二十八部
 大鬼神等往至彼所隱蔽其形隨逐擁護
 是說法者消滅諸惡令得安隱又聽法眾若
 男若女童男童女於是經中乃至得聞一
 如來名一菩薩名及此經典首題名字受持
 讀誦我當隨侍宿衛擁護悲滅其惡令得
 安隱及國邑城郭若王宮殿舍宅空處皆
 亦如是世尊何自緣故我名散脂鬼神大將
 雅願世尊自當證知世尊我知一切法一切

17자

聽受如是微妙經典聞者喜復當證念恭
 敬是人世尊我等四王復當勤心擁護是王
 及國人民為除災患令得安隱世尊若有此
 金比丘及優婆塞優婆塞受持是經者諸人
 王有能供給施其所安我等四王亦當令是
 王及國人民一切安隱具足無患世尊若有
 四眾受持讀誦是經者諸人王有能供
 養恭敬尊重讚歎我等四王亦復當令如是
 人王於諸主中常得第一供養恭敬尊重讚
 歎亦令餘王欽尚羨慕稱讚其善今時世尊
 讚歎讚世四天王等善哉善哉世等四王過
 去已曾供養恭敬尊重讚歎無量百千萬億
 諸佛於諸佛所種種讚歎於正法修行正
 法以法治世為人天王世等今日長夜利益
 於諸眾生行大慈心施與眾生一切樂具能
 遮諸惡勤與諸善以是義故若有人王能供
 養恭敬此金光明微妙經典世等四王及諸善
 業令滅其苦惱與其安樂世等四王及諸善
 業令其無量百千萬億諸善業如是經中
 者中是讚持去未現在諸佛正法世等四王
 及餘天眾百千鬼神與阿脩羅共戰鬥時世
 等諸天帝得勝利世等若離離念是經志
 能消伏一切諸苦所謂惡賊飢饉疾病若四部
 眾有能受持讀誦此經世等亦應勤心守護
 為除災禍施與安樂今時四王復白佛言世
 尊是金光明微妙經典於未來世在在處處有
 若國王城邑郡縣村落隨所至處若諸國王
 以天律治世

<금광명경> 권2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일부분 낙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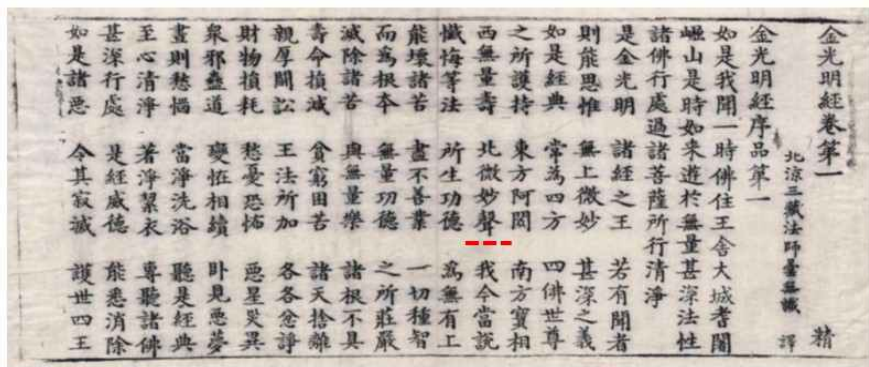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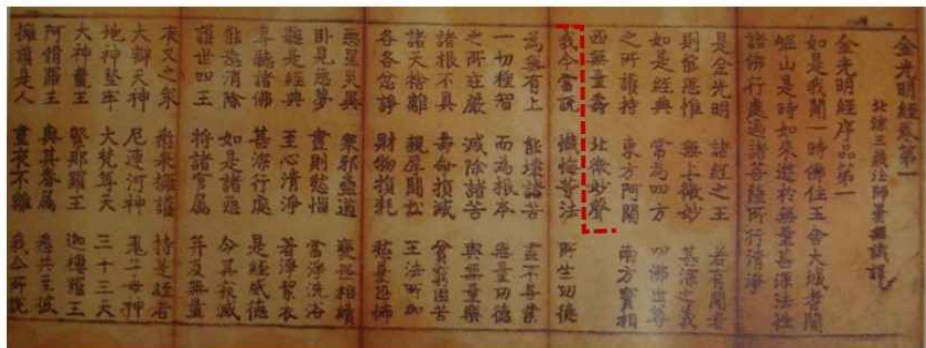
<금광명경> 권3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 1~2장 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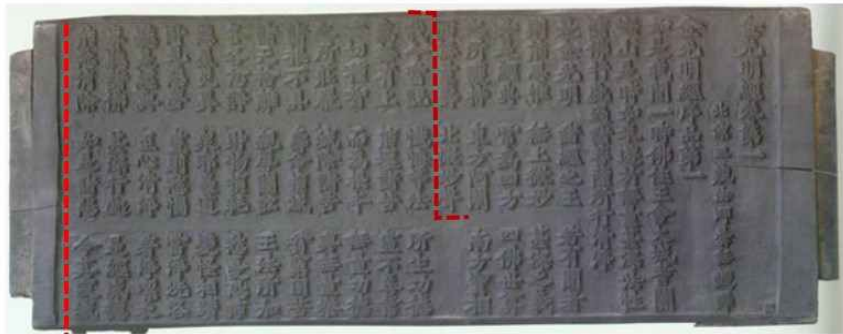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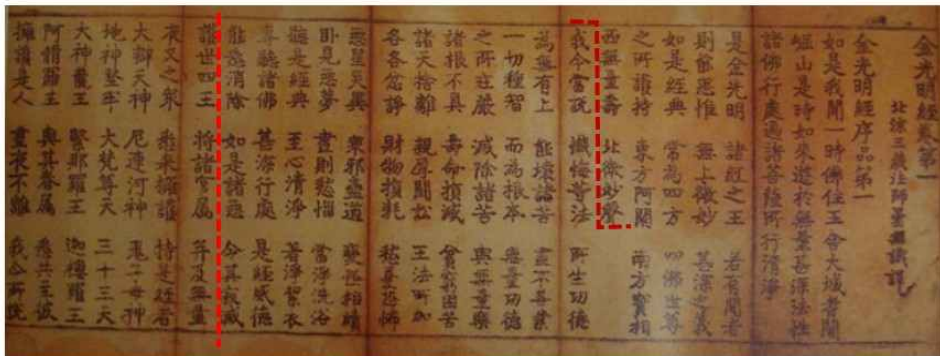


<금광명경> 권3 (호림박물관 소장)



<금광명경> 권1 (기림사 소장,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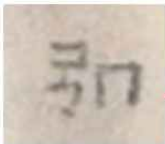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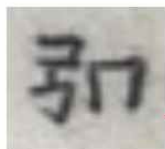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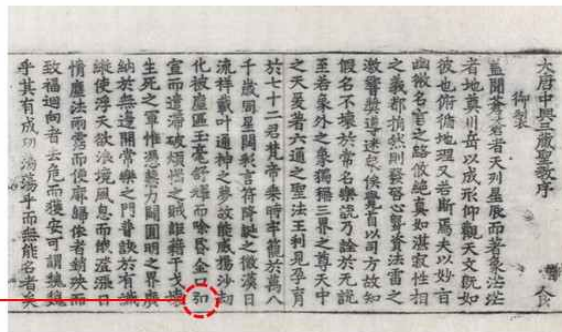
金光明最勝王經



<금광명최승왕경> 권1 (김현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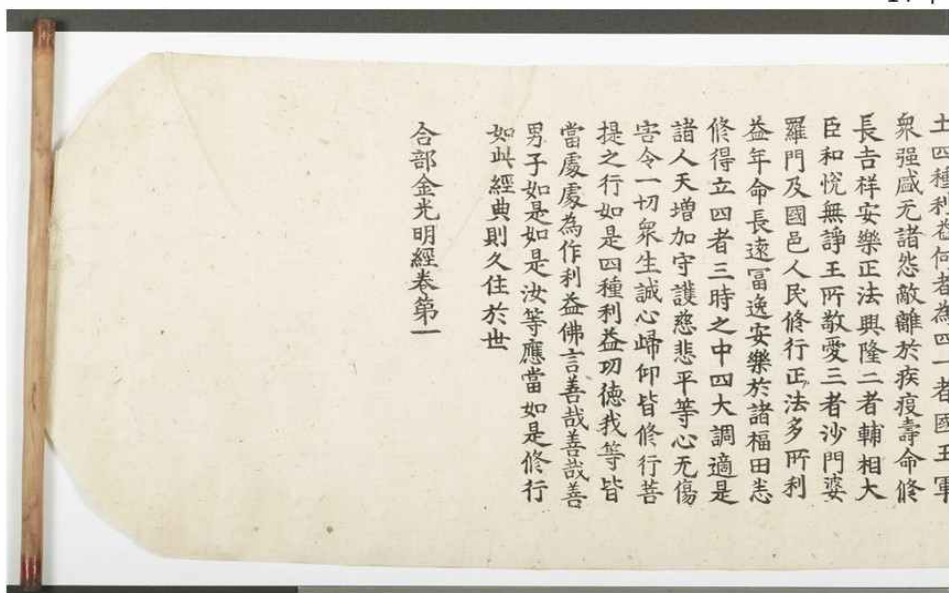
초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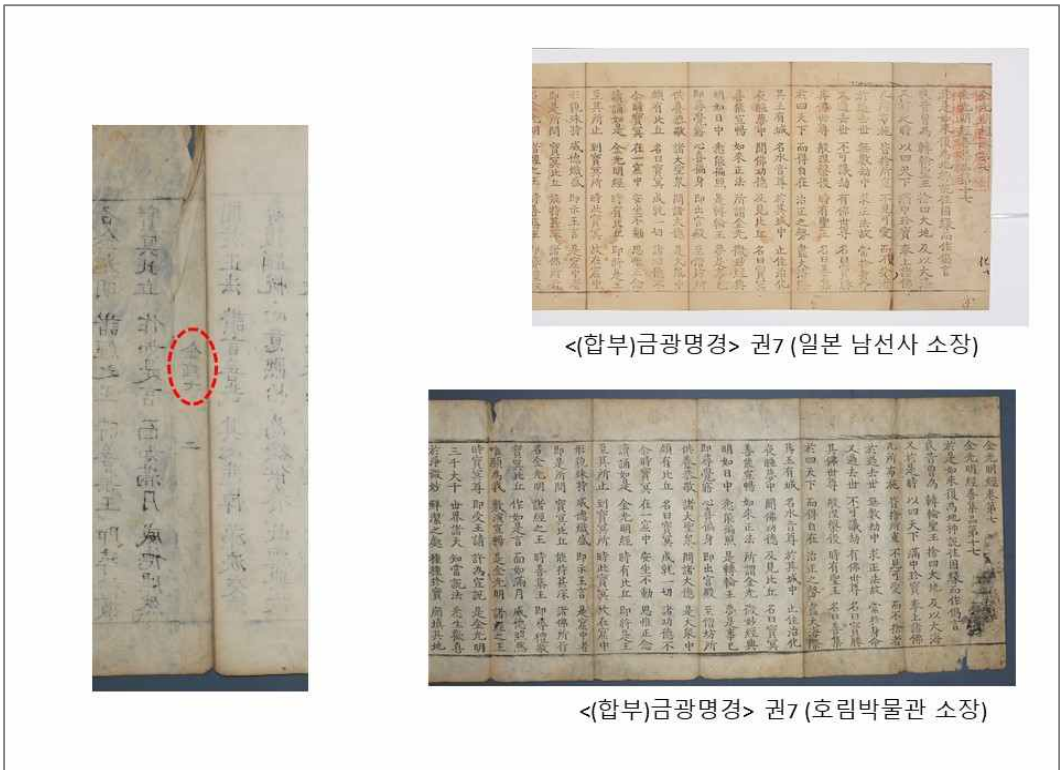
재조본

合部金光明經

14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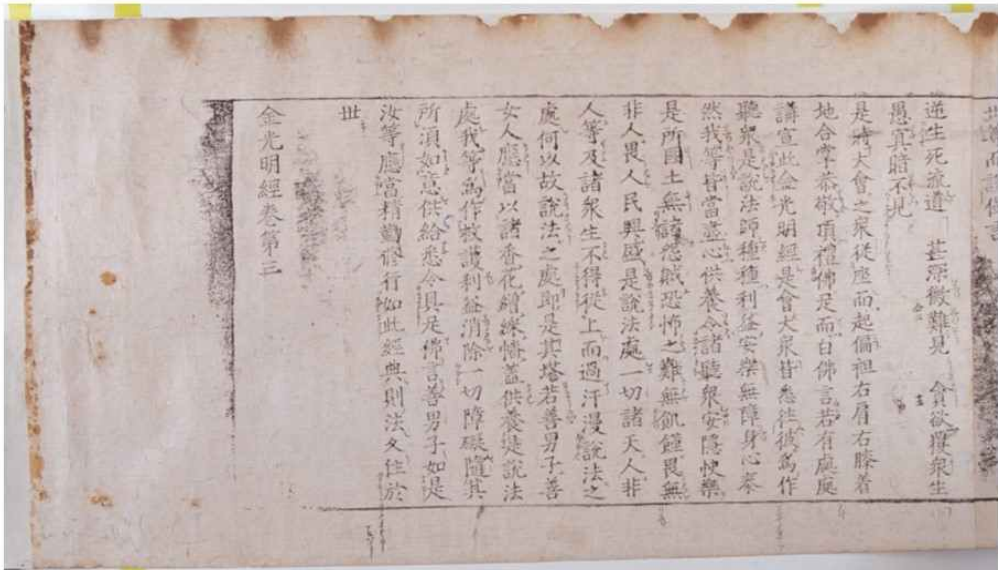


<합부금광명경> 권1 (조조대장경, 11세기, 호림박물관 소장)



구결본 合部金光明經 卷3

17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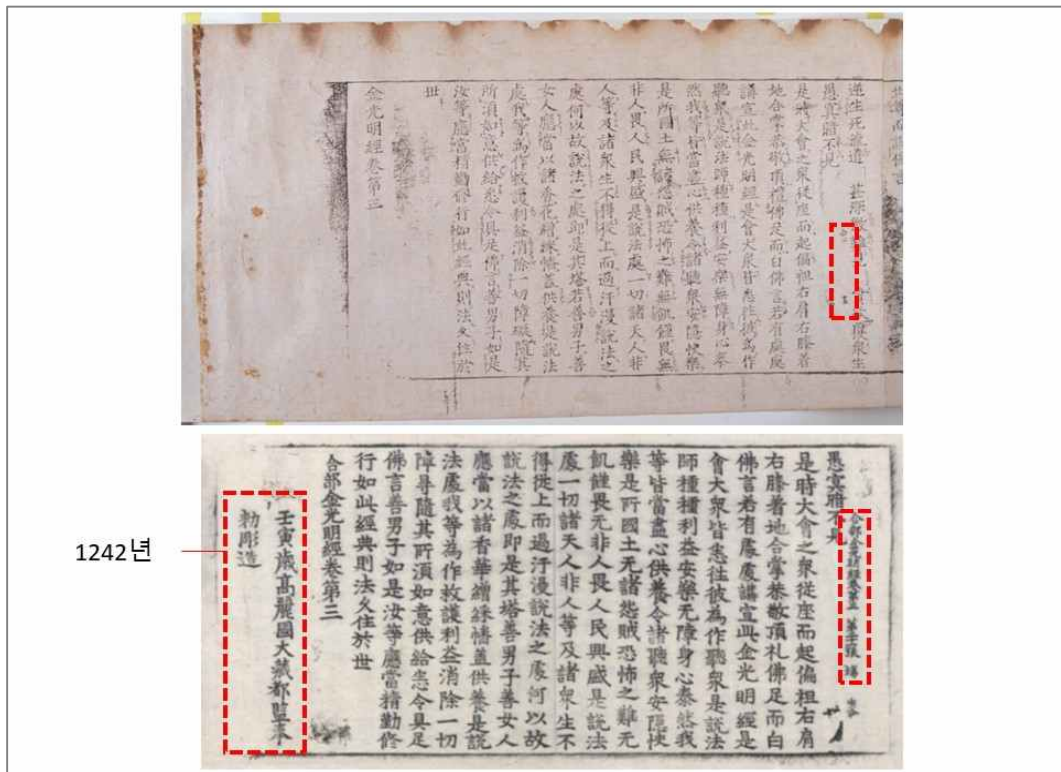
<합부금광명경> 권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 기본 서지사항

- 紙幅 : 33.2cm
- 匡高 : 12.5cm
- 匡幅 : 57.6-58cm
- 四周單邊, 25行 17字, 小字雙行
- 제1장은 유실, 11장까지 상단이 부식되어 부분적으로 본문과 口訣이 보이지 않음
- 書體 : 구양순체
- 紙質 : 두꺼운 楮紙
-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기에 印出된 것으로 추정

- 판제 표시 : 1항과 2항 사이
- 판심제 : 金





• 판각수 표식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1장	13장
							
?	[ㄷ?]省	正	正安	昌	昌	?	孝兼
板尾	板尾	板首	板首	板首	板首	板尾	板首

※ 정안은 1238~1243년까지 약 5년간 대장도감에서 활동

※昌은 정안과 같이 활동했던 '孫昌'으로 추정

※ 효겸은 1238~1246년까지 약 7년간 대장도감에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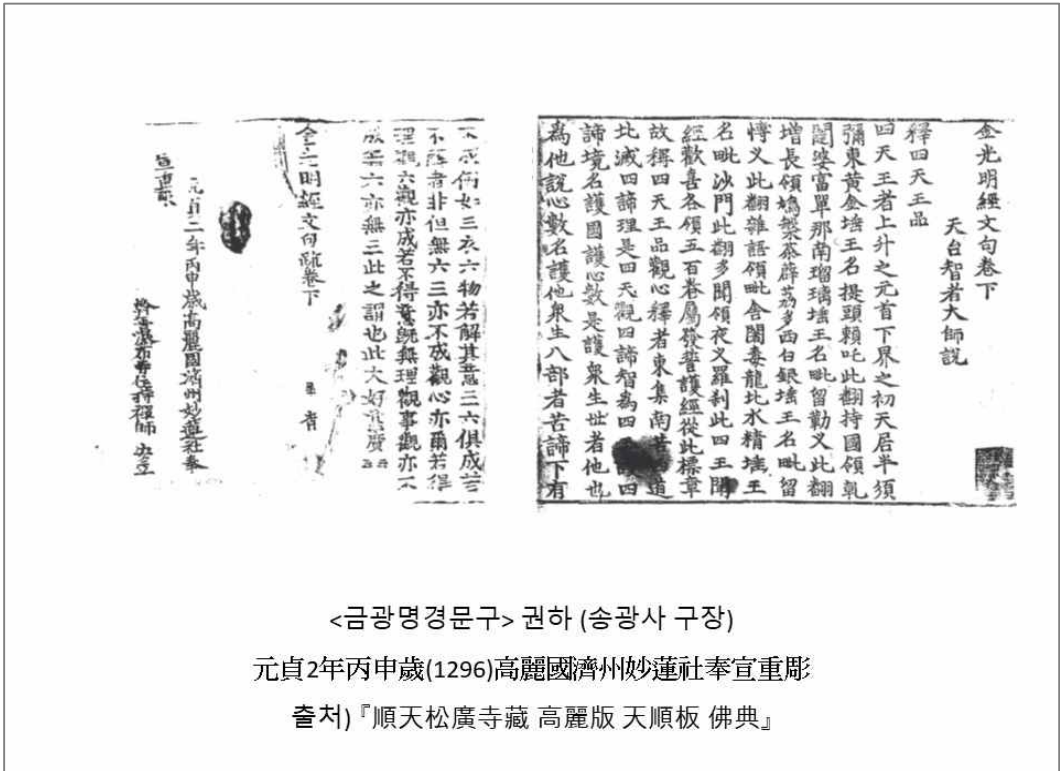
• 『금광명경』 3종의 대장경 포함

경 명	『金光明最勝王經』 (10권)	『合部金光明經』 (8권)	『金光明經』 (4권)
경번호	K0127	K0128	K1465
합 차	食函(135)	場函(136)	精函(600)
초조대장경	포함	포함	실물 미발견
재조대장경	포함 권1,2,9,10 : 1243년(癸卯) 권3,4,5,6,7,8 : 1242년(壬寅)	포함 권1,2,6,7 : 1243년(癸卯) 권3,4,5,8 : 1242년(壬寅)	포함 1244년(甲辰歲)

※ 更函의 『대장목록』 천자문 순 571번째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된 『금광명경』의 교장

種類	經名	卷次	著者
疏	金光明經疏	6	眞諦
	金光明經疏	4	鷲詔
文句	金光明經文句	3	天台
科	金光明經科	2	亡名
文句科	金光明經文句科	2	知禮
文句記	金光明經文句記	6	知禮
疏	金光明經疏	8	元曉
	金光明經疏	10	有則
科文	金光明經科文	4	智昭
大科	金光明經大科		智昭
辨正鈔	金光明經辨正鈔	7	智昭
疏	金光明經疏	3	玄暢
述贊	金光明經述贊	7	惲興
述記	金光明經述記	4	太賢
	金光明經述記	3	靈順
玄義	金光明經玄義	1	天台
玄義科	金光明經玄義科	1	知禮
玄義拾遺記	金光明經玄義拾遺記	3	知禮
釋難扶宗記	釋難扶宗記	1	知禮
十義書	四明十義書	5	知禮
科	四明十義書科	1	繼忠
經王解	金光明經經王解	1	靈鑑
懺法補助儀	金光明懺法補助儀	1	遵式
略記	金光明經略記	1	道倫
略意	金光明經略意	1	惲興
料簡	金光明經料簡	1	太賢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미수록 『금광명경』의 교장

서명	권차	역자
金光明經玄義拾遺記會本	2	知禮
金光明經文句文句記會本	8	知禮
金光明經文句科+金光明經玄義科	1	明得



감사합니다

자토석독구결 자료로서 합부금광명경 권3이 가진 의의

- 자토와 점토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

문현수(인하대)

1. 머리말

-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합부금광명경』권3(이하 <금광>)은 1994년 남권희·정재영 교수에 의해 자토석독구결자료로 소개된 후 고려시대 한국어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13세기 전후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구결의 기입도 인출 시기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 시기 한국어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김성주 2008).
- 이 자료는 처음에 자토석독구결자료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04년에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 스님, 서지학자 남권희 교수, 국어학자 정재영 교수가 중심이 된 ‘한일공동초조대장경 디지털DB 구축 및 영인본 출판’ 사업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당시 조사에 참여하던 박진호 교수가 각필 및 묵서로 점토가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허인영 2022).
- 이 과정에서 <금광>에 점과 선으로 기입된 점토가 구결자로 기입된 자토와 규칙적인 대응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대응 관계를 토대로 점토를 해독하던 도중 <금광>의 점토가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점토와 매우 유사하게 기입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는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 기입된 점토의 해독에 대한 정당성을 <금광>에 기입된 점토와 자토의 대응을 통해서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자토와 점토가 동시에 기입되어 있는 <금광>은 점토 해독의 근거를 이와 대응되는 자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구결 연구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 그러나 <금광>의 모든 자토와 점토가 일대일대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자료에 점토보다는 자토의 현토 오류가 다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자토가 수정되기도 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모든 자토와 점토의 대응 불일치가 자토 기입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며, 언어 변화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래에서는 먼저 자토석독구결 자료로서의 <금광>의 특성을 살펴본 후, 자토와 점토가 일대일 대응을 이루지 않는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기입 오류와 언어 현실의 반영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자토석독구결 자료로서의 <금광>의 특성

-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자료는 총 6종으로, 구결 기입 추정 시기와 자료의 계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	구결 기입 추정 시기	자료의 계통
『화엄경소』 권35(<화소>)	11세기 말-12세기 중엽	<화엄경> 계통
『화엄경』 권14(<화엄>)	12세기 중엽-13세기 초	<화엄경> 계통
『자비도량참법』 권4(<자비>)	13세기	<화엄경> 계통
『구역인왕경』 권상(<구역>)	13세기	계통 중립
『합부금광명경』 권3(<금광>)	13세기	<유가사지론> 계통
『유가사지론』 권20(<유가>)	13세기 말	<유가사지론> 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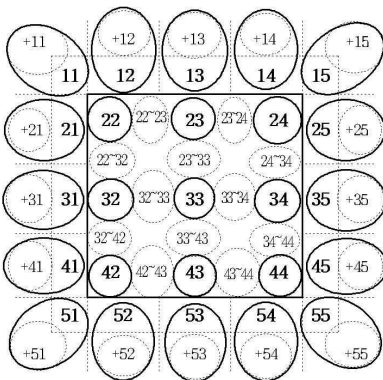
- 자토석독구결 6종은 위의 표처럼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의 한국어 문장 자료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인 『화엄경소』 권35(이하 <화소>)은 12세기 전후의 한국어를, 가장 후대의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20(이하 <유가>)은 13세기 말의 한국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나머지 자료는 그 사이의 한국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의 연구에서는 초기의 자료인 <화소>, <화엄>과 가장 후대의 자료인 <유가>의 현토 경향의 차이를 시대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2000년 이후 자토석독구결 자료보다 이른 시기의 한국어를 반영하는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이 발견되고, 이 자료의 현토 양상이 <화소>, <화엄>보다는 <유가>의 현토 양상과 유사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장경준 2004, 서민욱 2005).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각 자료에서 나타나는 구결 현토의 차이를 자료의 계통에 따른 표기법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문현수 2020).

	『유가사지론』	『합부금광명경』	『화엄경(소)』
如의 현토	如ハ	如ハ	주로 {如}直 일부 {如}印
선어말어미 ‘-오/우-’의 표기	-ノ-	-ノ-	-イ-
조사 ‘-여’의 표기	-ニ	-ニ	주로 -ニ 일부 -ニ
不의 현토	不ハ	不ハ	不ノ
如의 쓰임	如 ㄷ에만 쓰임	如 ㄷ에만 쓰임	如 ㄷ 이외에도 쓰임

	『유가사지론』	『합부금광명경』	『화엄경(소)』
今の 現토	今 _ㄹ	今 _ハ 1	今 _ッ 1 今 ₁
	今 _ハ		今 _支
주체 높임의 ‘-白-’의 쓰임	○	○	×
故	-入 _ㄴ 故 _ノ	-入 _ㄴ 故 _ノ	-入 _ㄴ 故 _支
선어말어미 ‘-시-’의 표기	-シ-	-シ-	주로 - _ㄴ - 일부 - _ㄴ -
能의 現토	能 _カ	能 _カ	能 _支
善의 現토	善 _カ	-	善 _支
復의 現토	復 _ハ	-	復 _甲 尸
			復 _刀
			復 _ッ 1
‘-근’의 표기	- _斤	-	- _斤 , - _ハ 1, - _ッ 1
我的 現토	-	{我} 千	{我} 又

〈자료의 계통에 따른 구결의 現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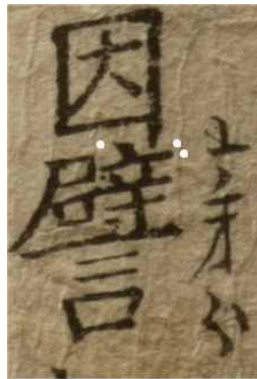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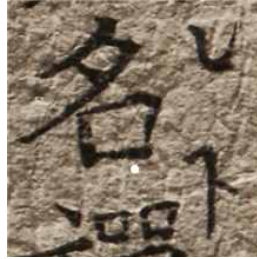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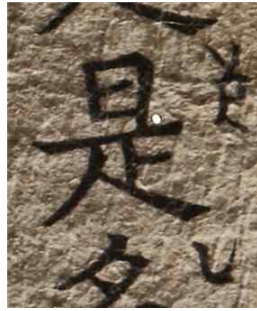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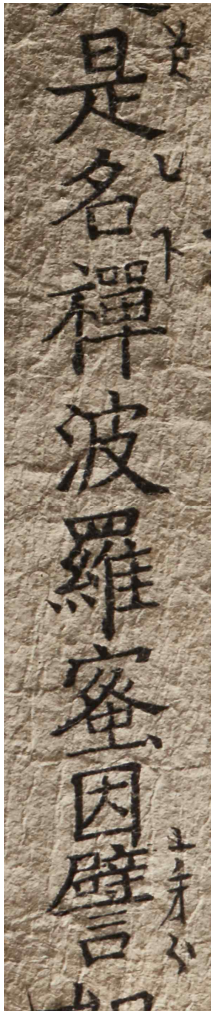
- 자토석독구결은 크게 〈화엄〉 계통과 〈유가〉 계통의 자료로 나뉘며, 그 現토 경향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계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금광〉은 자토의 現토 경향에 있어서 〈유가〉 계통의 자료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現토 경향의 유사성은 점토의 現토 경향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위치 분할 표시 모형
(장경준 2004: 41)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화엄경』 계통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위치 분할 표시 모형
(장경준 2004: 41)



〈금광〉에 쓰인 명명구문의 예



〈유가〉 점토석독구결에 쓰인 명명구문의 예



문으로,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是’에는 34(·), ‘名’에는 54(·), ‘生’에는 53(·)과 55(·)가 현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광〉의 34(·), 54(·), 55(·)과 ‘乙’, ‘下’, ‘ノ牙カ’의 대응 관계를 통해 〈유가〉의 34(·), 54(·), 55(·)도 각각 ‘乙’, ‘下’, ‘ノ牙カ’로 해독할 수 있다.

문헌	장·행수	구결자 수	전체 구결자 대비 오류 비율
금광	14장(25행 17자)	4157	2.64%
화엄	20장(24행 14자)	7010	1.21%

문헌	장·행수	구결자 수	전체 구결자 대비 오류 비율
자비	5장(21행 14자)	1455	0.75%
유가	32장(23행 14자)	9607	0.16%
구인	5장(25행 17자)	2619	0.15%
화소	26장(20행 15자)	4784	0.14%

문헌에 따른 구결자 현토 오류 비율(김지오 2022: 175-176)

- 이처럼 <금광>에 현토된 자토는 <유가>의 점토 해독에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금광>은 다른 자토 석독구결 자료에 비해 자토구결의 기입 오류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김지오 2010; 김지오 2022). 따라서 자토와 점토를 대응시키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소	화엄	구인	금광	유가	자비
자형 불명	7	40	2	42	13	10
위치 오류		11		5		1
오기		20	2	31	1	
수정(흔적)		14		32	2	
기타	2 (위치 특이)	2 (구결자 불명)		20 (원본훼손)	1 (원본훼손)	3 (원본훼손)
합계	13	87	4	130	17	14
기타 제외 합계	7	85	4	110	16	11

문헌에 따른 구결 현토 오류 유형(김지오 2022: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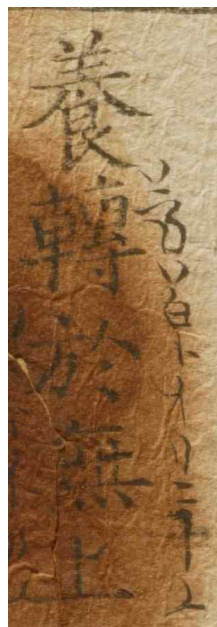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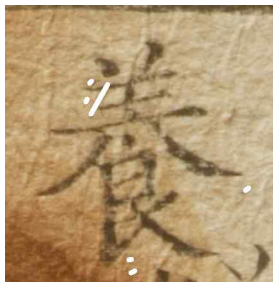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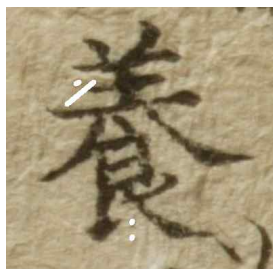
- 그리고 이러한 자토의 오류는 대대적으로 수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정은 “현토를 한 번 기입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구결문을 다시 읽어봤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수정 방식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한 사람에 의한 수정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사람이 현토(수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김지오 2022: 178). 이러한 수정의 결과는 대체로 정확하지만 수정 후에도 여전히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명백한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김지오 2022: 178-179).
- 이에 비해 점토구결의 기입 오류는 매우 드물다(김지오 2022: 194). 따라서 자토와 점토가 일대일대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의 비교를 통해 자토의 기입 오류를 판별해 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토와 점토의 대응 불일치가 자토 기입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며,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자토와 점토의 대응 불일치 사례에 대한 해석

3.1. 단순 자토 기입 오류의 예

[1] ットニㄴ/ットノㄴリニ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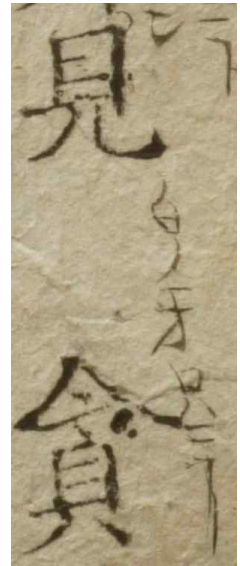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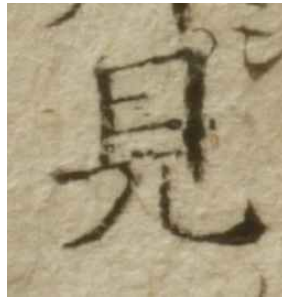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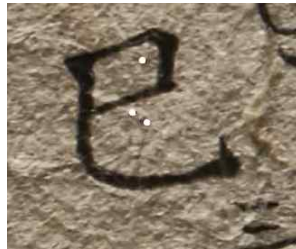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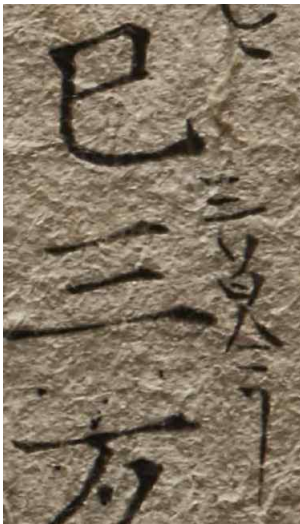


- (1) ㄴ. <금광06:17-18> 轉輪聖王ㄴ 量 無ㄴ 億 衆ㄴ 圍遶ㄴ 供養ㄴ
(轉輪聖王은 한량없는 億衆이 圍遶하여서 供養하는 분이시니)
ㄴ. 養[22~32(·/),53(:)] // 養[トノㄴリ,ニㄴ]

- (2) ㄴ. <금광06:20-22> 如來ㄴ{之} 身ㄴ 金色 晃耀ㄴ 量 無ㄴ 淨光ㄴ 悉ㄴ 皆 圓滿ㄴ
乙 量 無ㄴ 億 梵王ㄴ 圍遶ㄴ 恭敬ㄴ 供養ㄴ
(여래의 몸이 금색으로 晃耀하시어 한량없는 淨光이 다 圓滿하시거늘, 한량없는 億 梵王이 圍遶하여서 恭敬하고 供養하고 하는 분이시니)
ㄴ. 養[35(·),11~12(·),22~32(·/),53(:)] // 養[ㄴ,白,トノㄴリ,ニㄴ]

- (1ㄱ)의 ‘ㄷㄷ니’와 (1ㄴ)의 22~32(./), 53(:)는 서로 대응 관계를 보이는 자토와 점토이다. 22(./)와 53(:)는 (2ㄴ)처럼 다른 예에서 한번 더 쓰이고 있는데, 이와 대응되는 자토는 각각 ‘ㅌㅌ니’이다.
- 이처럼 22~32(./), 53(:)는 ‘ㄷㄷ니’와도 대응되고 ‘ㅌㅌ니’와도 대응되어 자토와 점토의 대응이 혼란스럽다. 하지만 선어말어미 ‘-니(시)-’에 조사 ‘-니(여)’가 후행할 수 없으므로, ‘ㄷㄷ니’는 잘못 현토된 자토의 예로서 오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22~32(./)와 53(:)는 ‘ㄷㄷ니’의 대응은 버리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ㅌㅌ니’와의 대응 관계만을 취하여 점토 해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잘못 현토된 (1ㄱ)의 ‘ㄷㄷ니’는 ‘ㄷㄷ니’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白ハニ ㄱ/口ハニ ㄱ



- (3) ㄱ. <금광14:22-24> 是 金光明經云 說 巴 ㄱ 白ハニ ㄱ 三万億 菩薩摩訶薩 ㄱ 無生法忍云 得 巴ハニ ㄱ 量 無 ㄱ 諸 菩薩 ㄱ 菩提心云 退 不 ㄱ 巴ハニ ㄱ 量 無 ㄱ 邊 無 ㄱ ㄱ 比丘 ㄱ 法眼淨云 得 巴ハニ ㄱ 量 無 ㄱ 衆生 ㄱ 菩提心云 發 ㄱ ㄱ

(이 金光明經을 說하고 나시니, 三万億 菩薩摩訶薩은 無生法忍을 얻으셨으며, 한량없는 여러 菩薩은 菩提心を 물러나게 하지 않으셨으며, 한량없으며 끝없는 比丘는 法眼淨을 얻으셨으며, 한량없는 衆生은 菩提心を 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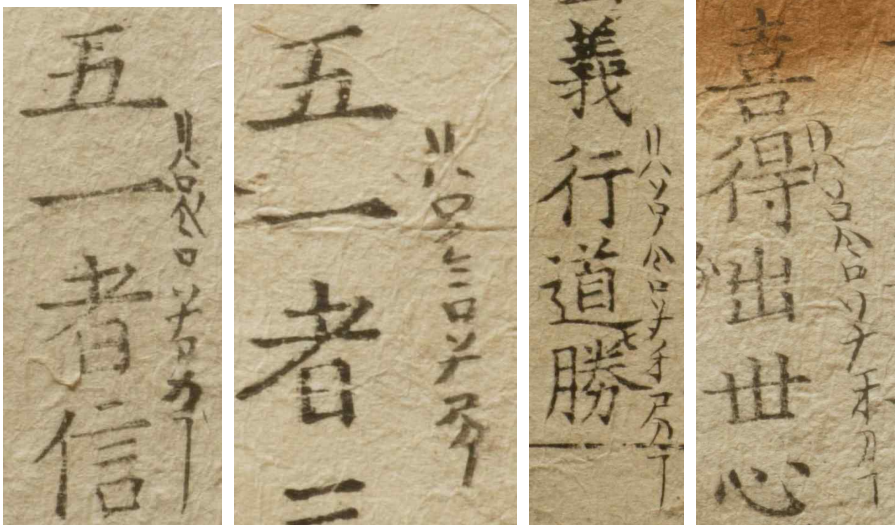
ㄴ. 巴[24(./), 33(./)] // 巴[ㄱ, 口ハニ ㄱ]

- (4) ㄱ. <금광15:01> 生死流云 逆 ㄱ ㄱ 道 ㄱ 甚 深 ㄱ ㄱ 微 ㄱ ㄱ ㄱ ㄱ 難 ㄱ 見 白ノ牙口ハニ ㄱ
(生死流를 거스르시는 道는 매우 깊고 微妙하고 하시어 어렵게야 ㄱ 수 있는[ㄱ기 어려
운] 것이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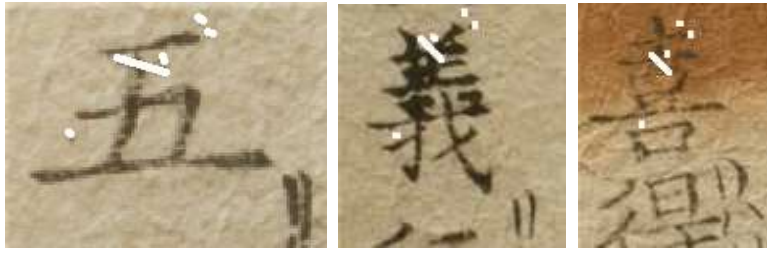
ㄴ. 見[11~12(・),15(・),33(・)] // 見[白,ノ牙,ロハニ1]

- (3ㄱ)의 ‘白ハニ1’과 33(・)은 서로 대응 관계를 보이는 자토와 점토이다. 그런데 33(・)는 (4ㄴ)처럼 다른 예에서 한번 더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ロハニ1’과 대응된다. 그런데 (3ㄱ)의 ‘白ハニ1’은 ‘白’이 일반적인 자형에 비해 획이 하나 부족하다. 그리고 자토석독구결에서는 ‘白’에 ‘ハ’가 후행하는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토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3(・)은 ‘ロハニ1’과의 대응 관계만을 취하여 해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잘못 현토된 ‘白ハニ1’도 ‘ロハニ1’으로 수정할 수 있다.

[3] ㄴ ハロノ令ロ / ㄴ ハッロノ令ロ / ㄴ ハッロ令ロ



- (5) ㄱ. <금광02:22> 何セッ1乙{者} {爲}五ㄴハロノ令ロッナ尸入1
(어떠한 것을 다섯 가지라고 하느냐 하면,)
- ㄴ. <금광03:01> 何ッ1乙{者} {爲}五ㄴハロノ令ロッナ尸入1
(어떠한 것을 다섯 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 ㄷ. <금광05:08> 善男子 何ッ1乙{者} 波羅蜜義ㄴハッロノ令ロッナ尸入1
(“善男子야, 무엇을 波羅蜜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 ㄹ. <금광06:22-23> 善男子 云何(初地)乙 而 名下 歡喜ㄴハッロ令ロッナ尸入1
(선남자야, 어찌하여 初地를 일컬어 歡喜라고 하는가 하면)



- (6) ㄱ. <금광02:22> 五[32~42(·),15(·),23~33(·)] // 五[ハ,ノ今ロ,ソナヲ尸入1]
 ㄴ. <금광05:08> 義[32~42(·),15(·),23~33(·)] // 義[ハ,ノ今ロ,ソナヲ尸入1]
 ㄷ. <금광06:22-06:23> 喜[32~42(·),15(·),23~33(·)] // 喜[ハ,ノ今ロ,ソナヲ尸入1]

- <금광>에서는 (5)처럼 ‘ㄱ’을 포함한 독특한 명명구문이 쓰이고 있는데, ‘ㄱ’에 후행하는 자토들이 ‘로노승로소나尸入1’, ‘로승로소나尸入1’, ‘소로노승로소나尸入1’, ‘소승로소나尸入1’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5ㄱ)처럼 ‘노’를 삽입하여 수정되었거나 (5ㄴ)처럼 별필로 기입되는 예가 있다.
- 그런데, 이와 대응되는 점토는 (6)처럼 모두 32~42(·), 15(·), 23~33(·)가 일관되게 현토되고 있다. <유가> 계통의 점토석독구결에서 32~42(·)은 ‘ハ’, 15(·)는 ‘ノ今ロ’와 대응된다. 그리고 23~33(·)는 <금광>에서 ‘소나尸入1’, ‘소나ヲ尸入1’, ‘소나ヲ尸入1’와 대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나尸入1’는 ‘-리-’에 의존명사 ‘ㄷ’가 직접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현토 오류로 볼 수 있다. ‘소나尸入1’과 ‘소나ヲ尸入1’은 둘 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 자료에서 (·)의 형태를 갖는 점토들이 보편적으로 ‘나’를 포함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23~33(·)는 ‘소나ヲ尸入1’와 대응되는 점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5)의 자토들은 ‘ㄱ’로 수정할 수 있다.

3.2.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자토의 예

[1] ㄱ / 소라세 / 소로세

- (7) ㄱ. <금광02:07-08> 是如支 第五心ㄱ 上七 種種七 功德法藏로 猶ㄴ 滿足소尸 未ㄱ
 是乙 名下 禪波羅蜜因-노가
 (이와 같이 第五 心이 위의 갖가지 功德法藏에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일컬어 禪波羅蜜因이라 하며)
 ㄴ. <금광06:01-02>
 三千大千世界七 地 平소 1 矢 掌 如支소 1 1 1 量 無가 數 無소 1 種種七 妙色ㄴ 1 清
 淨소 七 七(之) 寶-노 1 莊嚴七(之) 具ㄴ 1 1 1 1 1 1 菩薩 1 悉로 見소나 七 1

(三千大千世界の 땅이 평평한 것이 손바닥과 같은 곳에 한량없고 수 없는 갖가지 妙色인 청정한 보배로 된 莊嚴의 도구가 있었던 것을 보살은 다 볼 수 있다.)

- ㄷ. <금광06:07-08> 寶女人 如^ス一^リ 一切之^セ 其 身 頂上^ニ 莊嚴ノ^ム 散多那花^ニ 妙寶瓔珞^ニノ^ム 身首^ニ 貫飾^ソセ^ノ一^入ニ 菩薩^一 悉^ク 見^ソナ^シセ^ル |

(寶女人 같은 이가 일체의 그 몸과 머리를 莊嚴함에 散多那華와 妙寶瓔珞으로 몸의 머리를 貫飾한 것을 보살은 다 볼 수 있다.)

- ㄹ. <금광06:09-11> 七寶花池^ニ 四階道 有^セ 金沙^リ 徧滿^ソ 清淨 無穢^ソ 八功德水^リ 皆^セ 悉^ク 盈滿^ソ 鬱波羅花^ニ 拘物頭花^ニ 分陀利花^ニノ^ラ 其 池^ニ 莊嚴^ソナ^シセ^ル |

(七寶花池에 四階道 있으며 金沙가 徧滿하여 清淨無穢하며 八功德水가 다 盈滿하며 鬱波羅花이니 拘物頭花이니 分陀利花이니 하는 것이 그 연못을 莊嚴하며 했던 것을.)

- ㄱ. <금광06:18-19> 頂上^ニ 白蓋^一 量 無^ソ 一 衆寶^ニ 莊嚴ノ^一 所^一 以^シ 於^ニ 上^ニ 覆^ソナ^シセ^ル一^入ニ 菩薩^一 悉^ク 見^ナシ^セ |

(머리 위에 있는 白蓋는 無量衆寶로 莊嚴한 바이거늘 그것으로써 (轉輪聖王의 머리) 위에 덮었던 것을 보살은 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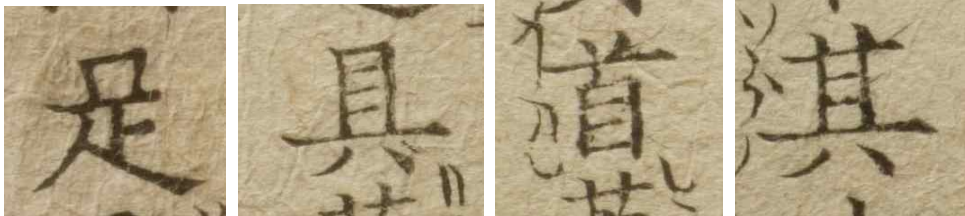
- ㄴ. <금광06:23-24> 出世心^ニ 得^カ 昔^ノ 得^ル 未^リソ^セ一^ノ一^ノ 所^一 而^ニ 今^ハ一^ノ 始^ノ 得^ソ 大事^ニ 大用^ニノ^ム 意^セ 願^ノ 一 所^一 如^ハ 悉^ク 皆 成就^ソナ^シ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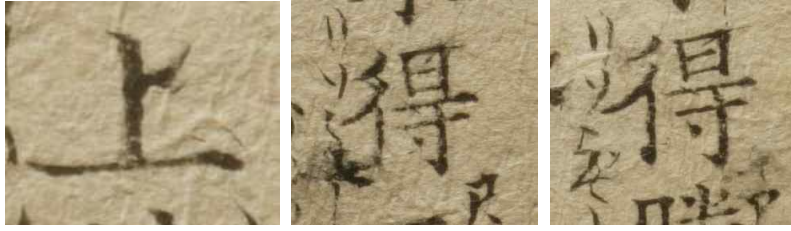
(出世心を 얻으며, 예전에 얻지 못했던 바인 것을 지금에야 비로소 얻으며, 大事이니 大用이니 하는 것을 뜻에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하며 하여.)

- ㄷ. <금광07:18-19> 昔^ノ 得^ル 未^リソ^セ一^ノ一^ノ 所^一 勝利^ニ 得^ル一^ノ 故^ノ 動踊^ソ 一^ノ 無明^ニ 因^ノ |

(예전에 얻지 못했던 바의 수승한 이익[勝利]을 얻은 까닭으로 動踊함도 無明을 因하여 하며.)

- <금광>에는 (7)처럼 ‘스セ’, ‘소세’, ‘소세’와 같은 자토들이 현토되고 있는데, 이들은 그 기능을 설명하기 쉽지 않았던 예들이다. 그런데 (7)의 ‘스세’, ‘소세’, ‘소세’은 모두 (8)처럼 23~24(빼침) 점토와 일관되게 대응되고 있다.





- (8) ㄱ. 足[22~32(·), 23~24(배침), 21(·)] // 足[리, 소라세, 노]
 ㄴ. 具[22~32(·), 23~24(배침), =45(\)] // 具[리, 소라세, 노 1 入 乙]
 ㄷ. 首[42(·), 34(·), 23~24(배침), 45(\)] // 首[세, 乙, 소라세, 노 1 入 乙]
 ㄹ. 其[23~24(배침), 34(/)] // 其[소라세, 소 1 乙]
 ㄴ. 上[53(·), 44(·), 23~24(배침), 45(\)] // 上[ㅏ, ㅑ, 소라세, 노 1 入 乙]
 ㄷ. 得[15~25(-), 23~24(배침), 33(\), 35(/)] // 得[尸, 소라세, 노 1, 1 乙]
 ㄸ. 得[15~25(-), 22~32(·), 23~24(배침), 51(·), 33(\), 42(·), 배침선(51)] // 得[尸, 리, 소라세, 1, 노 1, 세]

- ‘ㅅ세’, ‘소라세’, ‘소라세’은 각각 [히], [히엣], [히읃]을 표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ㅅ세’와 ‘소라세’은 ‘히+읃’의 결합형을 표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음상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소라세’은 ‘히+ㅏ+ㅑ(이)ㅅ’의 [히읃] 혹은 [히엣]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문현수 2021: 259-262). 즉 ‘ㅅ세’와 ‘소라세’은 어간 복합 구성을, ‘소라세’은 어간 사이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한 구성을 표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단순한 자토의 현토 오기가 아니라 ‘ㅅ세’, ‘소라세’은 선대형, ‘소라세’은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는 후대형을 표기한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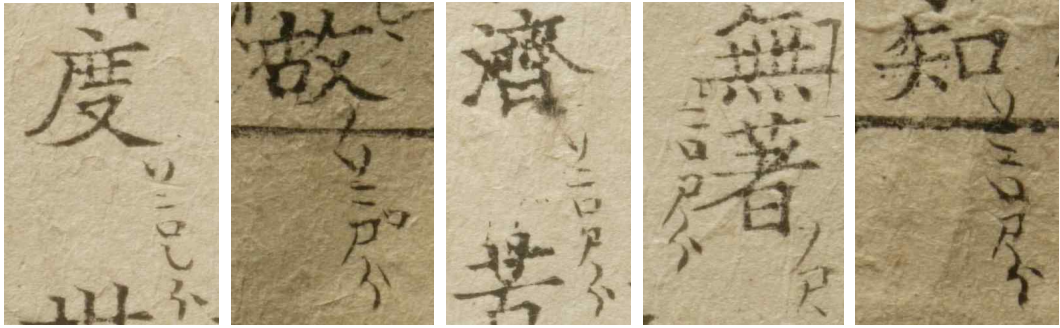
[2] ㅁ세 / ㅁㅏ



- (9) ㄱ. <금광04:12-13> 一者 於一切 法리 本ㅁ세 來ノム 不生ッ 不滅ッ 不有ッ 不無ッ
 소 1 ㅏ ㅑ ㅑ 心 安樂 住ッ
 (첫째, 一切 法이 본래부터 오되 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있지 않고 없지 않고 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안락히 머무르며,
 ㄴ. 本[43(배침)] // 本[ㅁ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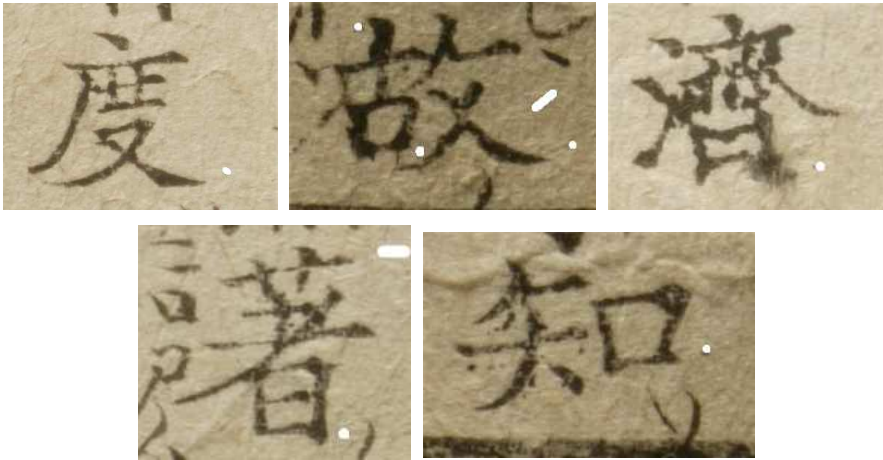
- (10) ㄱ. <구인14:24-25> 因緣… 本…ハ 自ラ… 有ッ1ヒカ 自 無セ… 他作 無セ… ッカ
(因緣으로 본래부터 스스로 있는 것도, 자신[自]이 없고 남이 지음[他作]도 없고 하며,)
- ㄴ. <구인14:25> 法性1 本…ハ 無ッ1 性リ 第一義リ 空リ 如リ ッカ
(法성은 본래부터 없는 성이라 第一義이고 empty이고 眞如이고 하며,)
- ㄷ. <구인15:03> 有ハ 無ハ1 本…ハ 自ラ 二リ1 矣 譬ハ1 牛ラ 二 角 {若} | ッカ
(有와 無는 본래부터 스스로 둘인 것이 비유하면 소의 두 뿔과 같으며)
- (11) ㄱ. <유가20, 08:08-10> 設…ハ 得ハ 出家ッ3 乃 此 尋思…{之} 擾動ノ1 所ニ 由リ 障導
乙 爲一リ入… 故ノ 喜樂乙 生ハ 不冬ッ1 一ニ
(설령 능히 출가하였으나, 이 심사로 요동친 바로 말미암아 장애를 입게 되는 까닭으로, 희락을 내지 못하는 것이니,)
- ㄴ. <유가05, 16:23> 設[43(배침)]分別[23(·), 23~33(·)]即尋伺[51(·), 24(·), 22(·)]耶 // 設[…ハ]
分別[ヲ, ハ1]即尋伺[1, ノ, 々, ヽ]耶 // 設…ハ 分別ヲ入1 即 尋伺(リ) | ノ 々 ヽ {耶} //
설령 分別의 경우에는 尋伺라 할 것인가?
- <금광>에는 (9ㄱ)처럼 ‘本…セ’이 쓰이고 있는데, ‘本’에는 (10)의 ‘本…ハ’처럼 ‘…ハ’이 현토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ㄱ)의 ‘…セ’와 대응되는 점토는 43(배침)인데, <유가> 계통 점토석독 구결에서 43(배침)은 (11ㄴ)처럼 ‘…ハ’와 대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2) ㄱ. <화소35, 07:03-05>
如來 滅ッ 而1 乙 …セ 後リ1 有リ | 如來 滅ッ 而1 乙 …セ 後リ1 無リ | 如來 滅
後 亦有 亦無リ | 如來 滅 後 非有 非無リ | ノ入(‘여래 滅하심으로부터 後에[滅하신
後에] 有이다’, 여래 ‘滅하심으로부터 後에[滅하신 後에] 無이다’, ‘여래 滅하신 後에
亦有亦無이다’, ‘여래 滅하신 後에 非有非無이다’ 하는 것과)
- ㄴ. <구인상, 02:03>
各ヲ各ヲハ 座前セ 花…セ 上1 量 無セ1 化佛リ 有ナハニカ(각각 자리 앞의 꽃으
로부터 위에[꽃 위에] 양 없는 化佛이 계시며)
- (13) ㄱ. 오직 成佛_롯 오_를 드려 니르시고 劫數_를 아니 니르시고 <15C法華 03:87b>
ㄴ. 더 부터 滅度_롯 오_미 이 ㄴ티 無量劫이어든<15C法華 03:89b>
- ‘…セ’은 석독구결에서 (12)처럼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9ㄱ)의 ‘…セ’은 용언을 수식하기도 하는 ‘…ハ’의 현토 오기로 볼 수도 있다(이강혁 2021: 221). 하지만 중세국어에 서는 (13)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롯’도 쓰이므로, (9ㄱ)에 쓰인 ‘本…セ’의 ‘…セ’은 언어 변 화를 반영한 후대형의 표기일 가능성이 있다.

[3] ニロ乙か/ニロ尸か



- (14) ㄱ. <금광13:04-05> 衆生^ニ {於}見^乙 失^リ 了^一 世尊^ニ 能^カ 濟度^ソ ニロ乙か
 (衆生이 正見을 잃은 것을 世尊이라야 능히 濟度하시며.)
- ㄴ. <금광13:10-11> 世尊^ヲ 無邊身^一 一 言字^々 說^フ 不^レ 冬^ソ ニ로尸か 一切 弟子衆^ヲ 十 法雨^乙 飽滿^ハ ニ セ イ ッ 尸 ハ 故^ノ ソ ニ로尸か
 (世尊의 無邊身은 하나의 言字만큼도 說하지 않으시나, 모든 弟子들에게 法雨를 飽滿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하시며.)
- ㄷ. <금광13:12-13> 衆生^ヲ 相^乙 思惟^ソ 白^ノ 尸 ム 一切 種 皆^セ 無^ッ 了^リ 了^セ ソ 니로尸か
 困苦^ソ 了^一 諸 衆生^ヲ 十 世尊^ニ 普^リ 救濟^ソ 니로尸か
 (衆生의 相을 思惟하시되 一切 種 모두 없는 것이다 하시나, 困苦한 모든 중생에게 世尊 이시라야 널리 救濟하시며.)
- ㄹ. <금광13:13-14> 苦^ニ 樂^ニ 常^ニ 無常^ニ 有我^ニ 無我^ニ 等^ッ 一 是 如^エ 衆多^ッ 一 義^ヲ
 十 世尊^ヲ 慧^一 著^ノ 尸 無 니로尸か
 (苦니 樂이니 常이니 無常이니 有我니 無我니 하는, 이와 같이 많은 뜻에 世尊의 智慧는 執着함이 없으시며.)
- ㄱ. <금광13:14-15> 世間^一 一^カ 異^ッ 一 不^レ 失^リ 一 失 譬^ハ 入^一 空谷^ヲ 七 響 如^エ 了^ッ 不^レ 度^ッ
 亦 不^レ 滅^ッ 了^ッ 了^ッ 了^ッ 一 入^乙 唯^ハ 佛^ニ 能^カ 了知^ソ 니로尸か
 (世間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것이, 비유하면 空谷의 메아리 같아, 不度하고 또한 不滅하고 하는 것을 오직 부처님이시라야 능히 了知하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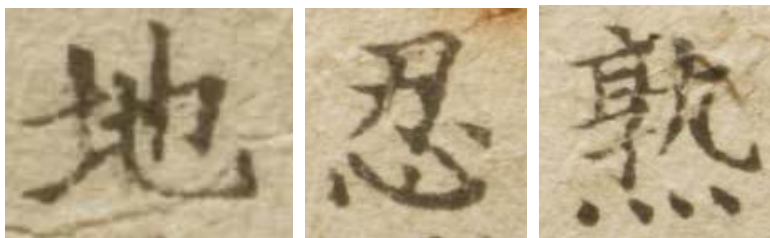
- <금광>에서는 (14)처럼 ‘니로乙か’와 ‘니로尸か’가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이들이 동일한 형태소 구성을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형태소 구성을 표기한 것인지 판별하기 쉽지 않다.



- (15) ㄱ. <금광13:04-05> 濟度[+45~55(·)] // 濟度[ニコ尸カ]
 ㄴ. <금광13:10-11> 故[+35(/),43(·),21(·),+45~55(·)] // 故[ソ尸乙,ㄴ,ノ,ニコ尸カ]
 ㄷ. <금광13:12-13> 救濟[+45~55(·)] // 救濟[ニコ尸カ]
 ㄹ. <금광13:13-14> 著[+15~25(-),+45~55(·)] // 著[ノ尸,ニコ尸カ]
 ㄱ. <금광13:14-15> 了知[+45~55(·)] // 了知[ニコ尸カ]

- 그런데 ‘ニコ乙カ’와 대응하는 점토도 (15ㄱ)처럼 +45~55(·)이며, ‘ニコ尸カ’와 대응하는 점토도 (15ㄴ-ㄱ)처럼 +45~55(·)이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통해 ‘ニコ乙カ’와 ‘ニコ尸カ’는 동일한 형태소 구성을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자토석독구결에서 ‘乙’은 주로 목적격 조사의 표기에 쓰이고 ‘尸’은 주로 동명사어미 ‘-ㄴ’의 표기에 쓰이는데, 둘의 쓰임의 차이를 ‘乙’과 ‘尸’의 실제 발음 차이에서 찾으려는 연구도 존재한다. 그러나 <금광>이 현토되던 시기에는 어말에서 ‘乙’과 ‘尸’의 발음이 잘 구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ニコ乙カ’와 ‘ニコ尸カ’와 같은 표기의 혼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令リソ尸矢/令リ尸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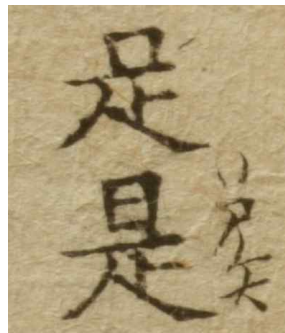




- (16) ㄱ. <금광05:14-15> 檀 等^ㄴ 及 智^ㄴ 能^ㄴ 不退轉地^ㄴ 至^ㄴ 令^ㄴ 波羅蜜^ㄴ 是 波羅蜜義^ㄴ
 (檀 等이니 및 智이니 하는 것을 능히 不退轉地에 이르게 하는 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ㄴ. <금광05:15-16> 能^ㄴ 無生法忍^ㄴ 滿足 令^ㄴ 波羅蜜^ㄴ 是 波羅蜜義^ㄴ
 (능히 無生法忍을 충족시키는 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ㄷ. <금광05:16-17> 一切 衆生^ㄴ 功德 善根^ㄴ 能^ㄴ 成熟 令^ㄴ 波羅蜜^ㄴ 是 波羅蜜義^ㄴ
 (一切 衆生の 功德 善根을 능히 成熟시키는 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ㄹ. <금광05:20-21> 一切 外人^ㄴ 來^ㄴ 相^ㄴ 詰難^ㄴ 善(能 解釋)^ㄴ 其^ㄴ 降 伏 令^ㄴ 波羅蜜^ㄴ 是 波羅蜜義^ㄴ
 (일체 外人이 와서 서로 詰難하거늘 잘 解釋하여서 그를 降伏시키는 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 (17) ㄱ. <금광05:14-15> 地[44(·),22~32(·),23~24(·),+25(/)] // 地[+,ㄴ,(^)ㄴ,ㄴ 尸 矢]
 ㄴ. <금광05:15-16> 忍[34(·),23~24(·),+25(/)] // 忍[乙,(^)ㄴ,ㄴ 尸 矢]
 ㄷ. <금광05:16-17> 熟[23~24(·),+25(/)] // 熟[(^)ㄴ,ㄴ 尸 矢]
 ㄹ. <금광05:20-21> 伏[23~24(·),+25(/)] // 伏[(^)ㄴ,ㄴ 尸 矢]

- <금광>에서는 (16)의 ‘令^ㄴ 波羅蜜^ㄴ’처럼 특이하게 사동접사 ‘ㄴ’에 ‘ㄴ’이 후행하는 예가 다수 발견되며, 모두 (17)처럼 23~24(·)와 +25(/)이 함께 쓰이고 있다. <유가>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23~24(·)는 ‘(^)ㄴ’로 해독되고 +25(/)는 ‘ㄴ 尸 矢’로 해독된다. (18)의 예를 통해서도 +25(/)이 자토의 ‘ㄴ 尸 矢’와 대응됨을 알 수 있다.



(18) ㄱ. <금광05:09>

大甚深智^乙 滿足^ッ尸^失 是 波羅蜜義^リカ

(大甚深의 智를 滿足하는 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ㄴ. 足[+25(/)] // 足[ッ尸失]

- 그런데 사동접사 ‘-리-’에 동사 어간 ‘-’가 직접 후행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유가>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를 포함하여 해독되는 점토는 ‘-’를 빼고 해독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16)의 ‘令^リッ尸失’를 ‘令^リ尸失’의 오기로 볼 가능성도 있다.

(19) ㄱ. <화소16:14-17> 此^乙 以^リ 一切 衆生^乙 開導^ッハ {於}身心^リ十 貪愛^乙 生^リ尸^不令^下 悉^リ 得^ホ 清淨 智身^乙 成就^スリ^イヲ^ヲセ^セッ^ナ尸^入乙

(이것을 써서 一切 衆生을 개도하여서 身心에 貪愛를 내지 않게 하여 모두 능히 清淨智身을 성취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ㄴ. <유가15:01-02> 此 能^カ 所對治^乙 斷^ッ々^セ 法^リ 所作 多^ッ一^入乙 由^リ一^入 故^ノ 疾^疾ヲ 能^カ 得^ホ 其 心^乙 正住^スリ^下 三摩地^乙 證^スリ^イヲ^ヲカ

(이 능히 소대치를 끊는 법이(/소대치를 능히 끊는 법이) 할 일[所作]이 많은 것에 말미암은 까닭으로, 빨리 빨리 능히 그 마음을 바르게 머물게 하여 삼마지를 증득하게 할 것이며.)

ㄷ. <유가24:08-09> 其 心^乙 安住^スリ^下 諦現觀^リ十 入^ッカ^ッナ^ヲセ^セ一

(그 마음을 안주하게 하여 제현관에 들며 한다.)

ㄹ. <유가25:18-20> 彼^一 {於}余^ッ一 時^ニ十 此 五因^セ 二十種 相^乙 由^リ 其 心^乙 攝持^ッハ 於^リ愛盡 寂滅^ッモ^セ 涅槃界^セ 中^リ十 善 安住^ッ{令^下}}^リ下

(그는 이러한 때에 이 다섯 인의 스무 가지 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섭지하여서 애욕이 다한 고요한 열반계의 가운데에서 잘 안주하게 하여.)

ㅁ. <주본화엄22¹⁾, 11:05-06> 又 {於}佛^失 所^十 深信心^乙 生^リ下 阿僧祇^セ 諸^一 天宮殿^乙 以^リ 虛空^乙 莊嚴^ノ一^ム 一切 天樂^一 微妙音^乙 出^ッカ

(또한 부처 처소에 深信心을 내어 阿僧祇의 모든 天宮殿으로써 虛空을 莊嚴하되 一切 天樂은 微妙音を 내며.)

ㅂ. <주본화엄06²⁾, 13:23-24> 諸^一 衆生^ヲ 性欲 不^タ 同^リ一^入乙 隨^ッ 普^リ 三世^セ 一切 諸^一 佛^失 妙法輪雲^乙 雨^リ下

1) <주본화엄22, 11:05-06>

A: 又於佛[35(·)]所[53(·)]生深信心[41(·),24(·),53(·)]以阿僧祇[25(·)]諸[33(·)]天宮殿[41(·),34(·)]莊嚴虛空[41(·),13(·)]一切天樂[33(·)]出微妙音[41(·),52(·)]

B: 又於佛[失]所[十]生深信心[乙,リ,下]以阿僧祇[セ]諸[一]天宮殿[乙,リ]莊嚴虛空[乙,ノ一ム]一切天樂[一]出微妙音[乙,ッカ]

2) <주본화엄06, 13:23-24>

A: 隨諸[33(·)]衆生[23(·)]性欲不[24(·)]同[42(/),41(·),24(·)]普[24(·)]雨三世[25(·)]一切諸[33(·)]佛[35(·)]妙法輪雲[41(·),24(·),53(·)]

B: 隨諸[一]衆生[ヲ]性欲不[タ]同[リ一入乙,セ]普[リ]雨三世[セ]一切諸[一]佛[失]妙法輪雲[乙,リ,下]

(모든 중생의 性欲이 아니 같은 것을 따라 널리 삼세의 일체 모든 부처의 미묘한 범륜 구름을 비 내려)

- 하지만 석독구결에서는 (19)처럼 사동접사 ‘-이-’에 연결어미 ‘-아’가 올 때, ‘ㅎ’이 포함된 ‘ㅌ’로 현토되는 현상이 다수 관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동접사 ‘-이-’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ㅎ’이 후행하는 형태소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16)의 ‘습_시 ㅌ ㅌ ㅌ’는 이처럼 ‘ㅎ’이 후행하는 사동접사 ‘-이-’의 실제 음성 실현형을 표기한 것일 수 있다.

(20) ㄱ. 持以支如賜烏隱 心未 際叱拏 逐內良齊 <찬기파랑가>
 ㄴ. 千手觀音叱 前良中 祈以支白屋尸 置內乎多 <도천수대비가>

- (21) ㄱ. 君如臣 多支 民隱如 <안민가>
 ㄱ'. 더 王들히 一切 有情의그에 慈悲心을 내야 가도엿던 사름 노코 알픽 니르던 양다히 더 藥 師瑠璃光如來를 供養하스브면 <석보상절 권9 33b>
 ㄴ. 薯蕷 ㄱ支 <향약구급방>
 ㄴ'. 마흘 킌여 씨 먹고 혹 씨히 ㅌ ㅌ 면을 밍그라 머그면 흥년의 가히 뼈 비고프디 아니히니 ㅌ장 아름다오니라 <1660 신간구황촬요 3b>
 ㄷ. <화소10:14-16> 佛子 ㄱ {此} 菩薩 ㅌ 年支 方七 少邑 盛七 ㅌ ㅌ 端正美好 ㅌ ㅌ 香 華 衣服 ㅌ ㅌ ㅌ ㅌ 其 身乙 嚴 ㅌ ㅌ
 (불자야, 이 보살은 나이가 바야흐로 젊고 왕성하고 하며 단정하고 아름다우니, 향기로운 꽃이니 의복이니 하는 것으로써 제 몸을 장식하여)
 ㄷ'. 그저귀 阿私陁이 나히 ㅌ ㅌ 스물히러니라 <1447 석보상절 권3 2a>

- 흥미롭게도 『삼국유사』의 향가에는 (20)처럼 사동접사 ‘-이-’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以’에 ‘支’가 후행하는 예가 존재하는데, ‘支’는 (21)처럼 후대에 ‘ㅎ/히’의 음가를 지니는 어형과 대응하는 차자이다. 이러한 예도 (16)의 ‘습_시 ㅌ ㅌ ㅌ’가 실제 음성 실현형의 표기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4. 맺음말

-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합부금광명경』 권3은 13세기 전후에 인출된 자토·점토석독구결자료로서 이 시기의 한국어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 자토와 점토가 동시에 기입되어 있는 『합부금광명경』 권3은 점토 해독의 근거를 이와 대응되는 자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구결 연구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이 자료의 점토와 대응되는 자토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점토를 현토하는 『유가사

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 다만 이 자료에는 자토와 점토가 일대일대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일부 관찰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 자료가 점토구결에 비해 자토구결의 기입 오류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 하지만 모든 자토와 점토의 대응 불일치가 자토의 기입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며, 언어 변화에 따른 실제 음성 실현형을 반영한 자토도 있다. 따라서 자토와 점토의 대응 불일치는 보다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특히 실제 음성 실현형을 반영한 자토와 점토의 대응 양상은 그 분석을 통해 고려시대 한국어가 어떠한 변천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金星周(2008), 「字吐釋讀口訣 研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研究』 21, 口訣學會, 39-66.
- 김지오(2010), 「『合部金光明經』字吐口訣의 誤記」, 『口訣研究』 25, 口訣學會, 145-175.
- 김지오(2022), 「〈합부금광명경〉 자토·점토의 현토 양상과 특징」, 『口訣研究』 49, 口訣學會, 171-201.
- 남권희(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淸州古印刷博物館.
- 남권희·남경란(2016),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儀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 연구』 22, 국어사학회, 199-232.
- 남풍현(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태학사.
- 문현수(2014), 「『瑜伽師地論』系統 點吐釋讀口訣에 사용된 배침선의 기능」, 『口訣研究』 33, 口訣學會, 249-283.
- 문현수(2016), 「‘-롯-’과 ‘-룩-’의 관계에 대하여」, 『口訣研究』 37, 口訣學會, 67-100.
- 문현수(2017), 「周本 『華嚴經』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현수(2020),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특성」, 『국어사연구』 30, 국어사학회, 71-98.
- 문현수(2021), 「점토석독구결 합부금광명경 권3에 사용된 배침선 연구」, 『국어사연구』 33, 국어사학회, 241-272.
- 박진호(1998), 「고대국어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121- 205.
- 박진호(2003), 「周本 『華嚴經』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口訣研究』 11, 口訣學會, 211-247.
- 박진호(2004), 「周本 《華嚴經》 卷第六의 點吐 重複 表記와 符號」, 『口訣研究』 13, 口訣學會, 129-148.
- 백두현(2005), 『석독구결의 문자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 서민욱(2005), 「『瑜伽師地論』卷5·8의 點吐口訣 研究」,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대현(2008),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口訣研究』 20, 口訣學會, 259-286

- 안대현(2008),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2) -12와 14 위치 및 51 및 55 위치 이외의 점토들에 대하여」, 『國語學』 51, 國語學會, 195-227.
- 안대현(2009),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배치선에 대하여」, 『口訣研究』 22, 口訣學會, 197-218.
- 이강혁(2021), 「『합부금광명경』 권3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의 대응 양상과 상호 관련성」, 『국어사연구』 33, 국어사학회, 197-240.
- 이용(201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1-225.
- 李丞宰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1』, 태학사.
- 李丞宰 외(2006a),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2』, 태학사.
- 李丞宰 외(2006b),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3』, 태학사.
- 李丞宰 외(2009a),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4』, 태학사.
- 李丞宰 외(2009b),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5』, 태학사.
- 장경준(2004), 「『유가사지론』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태학사.
- 장경준(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口訣研究』 21, 口訣學會, 67-98.
- 장경준(2021),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고인쇄문화』 26집 게재 논문의 공동 연구 데이터 반영 수정본), 미간행.
- 정재영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研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 鄭在永(1995), 「‘ハ’형 부사와 ‘ヒ’형 부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285-316.
- 정재영(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口訣學會, 113-193.
- 정재영(2006), 「한국의 구결」, 『口訣研究』 17, 口訣學會, 129-189.
- 허인영(2022), 「『合部金光明經』 卷3의 발견 및 연구사」, 『口訣研究』 48, 口訣學會, 5-33.
-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2*}

장경준(고려대)

1. 머리말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된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 권3(이하 ‘〈금광〉’으로 줄임)은 고려 시대 석독구결의 두 가지 양식인 자토석독구결(字吐釋讀口訣)과 점토석독구결(點吐釋讀口訣)이 모두 기입되어 있는 희귀 자료이다.

석독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단 구결을 가리킨다. 석독구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한자의 자형을 단순화한 구결자(口訣字)를 이용하여 토를 다는 자토구결(字吐口訣)이고 다른 하나는 점, 선 모양의 구결점(口訣點)을 이용하여 토를 다는 점토구결(點吐口訣)이다.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은 각각 토를 구성하는 구결자, 구결점의 문자 체계와 이들을 한문에다 기입해 넣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금광〉의 동일한 원문에 구결자와 구결점이 모두 기입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금광〉의 자토구결은 1994년에 남권희, 정재영 교수가 처음 학계에 소개하였고 점토구결은 10년 뒤인 2004년에 박진호 교수가 발견하여 공개하였다. 동일한 자료임에도 점토구결이 자토구결보다 훨씬 늦게 발견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 자토를 구성하는 구결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점토를 구성하는 구결점은 크기가 매우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전문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2000년에 〈유가사지론〉에서 점토구결이 발견되기 전에는 연구자들이 점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한자의 안팎에 기입된 점, 선이 구결의 일종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셋째로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은 각각 독립적이고 완결된 표기 체계를 지니고 있어서 동일한 원문에 자토와 점토를 모두 기입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다른 자료에서는 자토와 점토가 병기된 사례가 없다.¹⁾ 이 자료의 자토와 점토는 각각 다른 사람이 기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점토의 대부분은 먹물을 묻힌 묵서(墨書)로 기입되어 있으나 먹물을 묻히지 않은 각필(角筆)로 기입한 것도 간혹 있다. 때로는 동일한 구결점을 각필과 묵서로 모두 기입한 사례도 보이는데, 각필로 기입한 것은 판독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금광〉의 점토구결은 매우 정밀하고 세심한 조사와 연구를 필요로 한다.

〈금광〉에서 점토구결이 발견된 이후 각필구결 연구모임에서 이 자료의 사진 영인 자료를 가지

* 이 글은 『고인쇄문화』 26집(2019. 12.)에 실린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2019~2023년에 이루어진 공동 연구의 성과를 추가하여 보완한 것이다. 추가 및 보완한 부분은 본문이나 각주에 ‘추가’, [보완]으로 표시하였다.

1) 점토구결 자료에 구결자가 기입된 사례가 있으나, 이것은 이미 현토된 구결점의 정확한 음가나 기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기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점토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장경준 2007: 46~48; 장경준 2008: 322).

고 세 차례(2004, 2005, 2008년)에 걸쳐 공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한동안 연구가 정체되었다가 2019년에 구결학회 차원에서 연구진을 구성하고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자료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더불어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를 새로 시작하였다.²⁾

이 글에서는 <금광>에서 판독된 점토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기존에 연구된 <유가사지론>(이하 ‘<유가>’로 줄임)의 자료와 나란히 제시하여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본격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³⁾

2. <금광>의 점토구결 분석

점토를 구성하는 구결점의 가치는⁴⁾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느 위치에 놓이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즉 형태 정보와 위치 정보의 조합으로 구결점의 음가가 정해진다. 먼저 <금광>에서 관찰된 구결점들의 형태별 사용 빈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추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금광>의 공동 연구에 대해서는 허인영(202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허인영(2022)에서 ‘4차 공동연구’라고 지칭한 이번 공동 연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2022년에 역주서 출판 계약을 한 이후에는 온라인 회의와 자체 워크숍을 통해 판독 및 해독안을 포함한 역주 원고의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2023년 4월 6일에는 연구진이 원본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김성주, 장경준 참여)를 하여 그동안 사진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 확인하였다. 본고에 추가 보완된 데이터는 이러한 최신 연구 성과까지 반영한 역주 원고 2023년 6월 11일 수정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3) [추가] 본고에서 번잡함을 무릅쓰고 같은 자료에 대한 기존 연구 데이터와 최신 연구 데이터를 병기한 것은 점토구결의 연구 문제를 발굴하고 연구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4) [추가] 본고에서 ‘구결점의 가치’는 ‘구결점이 나타내는 일정한 소리 내지 문법적 기능’을 가리킨다.

[표 13] <금광>의 구결점 형태별 사용 빈도(총 2,327)

※2008년 공동연구 기준

이름		형태(위치)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단점		•	1731		74.39%	74.39%
선	사선		147	438	18.82%	93.21%
	역사선		116			
	수평선		139			
	수직선		36			
쌍점	사향쌍점		5	116	4.98%	98.20%
	역사향쌍점		39			
	수평쌍점		28			
	수직쌍점		44			
눈썹	사선오눈썹		2	32	1.38%	99.57%
	사선우눈썹		6			
	역사선오눈썹		19			
	역사선우눈썹		5			
빼침선 ⁵⁾		23위치	7	10	0.43%	100%
		24위치	2			
		51위치	1			

5) 빼침선은 '역독선, 빼침선' 등으로 불리며 일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구결점이 아닌 기능 미상의 부호로 분류되었다가(장경준 2007: 48-50; 장경준 2008ㄴ: 324), 이후 안대현(2009), 문현수(2014)의 연구에 힘입어 구결점에 가까운 요소로 파악되어 잠정적으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빼침선은 그것이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형태는 [그림 25], [그림 26]을 보기 바란다.

[표 1 보원] <금광>의 구결점 형태별 사용 빈도(총 2,334) ※2023. 6. 11. 기준

이름		형태(위치)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단점		•		1744		74.72%	74.72%
선	사선			132	418	17.91%	92.63%
	역사선			115			
	수평선			134			
	수직선			37			
쌍점	사향쌍점			6	121	5.18%	97.81%
	역사향쌍점			38			
	수평쌍점			31			
	수직쌍점			46			
눈썹	사선오눈썹			2	31	1.33%	99.14%
	사선우눈썹			7			
	역사선오눈썹			17			
	역사선우눈썹			5			
기타 ⁶⁾	빼침선	모양은 위치 별로 다름	(23~24)	7	13	0.56%	99.70%
			(24)	3			
			(22~32)	1			
			(43)	1			
			(51)	1			
	말발굽 (가칭)		(15)	5	6	0.26%	99.96%
			(33~43)	1			
	느낌표		(45)	1		0.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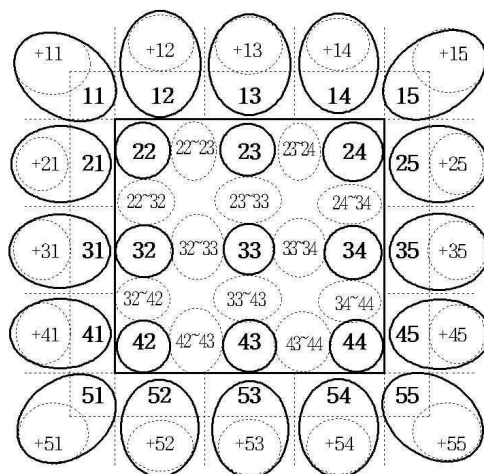
<금광>에서 관찰되는 구결점의 형태별 사용 빈도는 기본이 되는 단점(單點; • 모양)의 비율이 약 75%이고, 방향에 따라 네 종류로 하위 분류되는 선과 쌍점이 각각 19%(18%)와 5%이다. 단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이르며, 나머지 단점 이외의 형태 중에서는 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5(3/4)에 이른다. 따라서 구결점의 형태에서는 단점과 사선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결점의 위치는 그것이 기입되는 한자를 정사각형으로 가정했을 때 그 기준 사각형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위치 구분 모형은 다음과 같다.

6) [추가] 빼침선에 대한 연구는 최근 문현수(2021)에서 다시 진전을 이루었고, 본고의 데이터도 문현수(2021)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였다. 말발굽(가칭)은 다른 자료에서 관찰된 적이 없는 독특한 형태이고, 느낌표는 이 자료에서 유일례로서 수평선과 단점이 인접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림 1] 구결점의 위치 구분 모형 - 기본형



[그림 2] 구결점의 위치 구분 모형 - 확장형

위 [그림 1]의 기본형에서는 기준 사각형 안쪽에 9군데, 바깥쪽의 16군데가 서로 다른 위치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림 2]의 확장형은 [그림 1]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하되 기준 사각형 안쪽에서는 위치와 위치 사이가 다시 세분되고, 바깥쪽에서는 한자의 자획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이 다시 세분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⁷⁾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석독구결은 자토와 점토 모두 <유가> 계통과 <화엄경>(이하 ‘<화엄>’으로 줄임) 계통으로 크게 나뉜다. 그리고 점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가> 계통은 구결점의 변별 위치가 더 세밀하게 구분되는 반면 형태의 가짓수가 적고, <화엄> 계통은 구결점의 변별 위치가 성긴 반면 형태가 더 다양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구결점의 변별 위치도 상대적으로 <유가> 계통은 [그림 2]의 확장형 모델에 부합하고 <화엄> 계통은 [그림 1]의 기본형 모델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금광>의 석독구결은 자토와 점토 모두 두 계통 가운데 <유가>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금광>에 기입된 구결점의 위치를 파악할 때 기본적으로 위 [그림 2]의 확장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광>에서 판독된 유의미한 구결점들에 대해 형태별로 출현 빈도를 ‘()’ 안에 표시하고 해독 결과를 대응 구결자로 표시한 잠정 점도(點圖)를 앞에 제시하고, 비교 대상 자료로 기존에 연구된 <유가>의 점도를 이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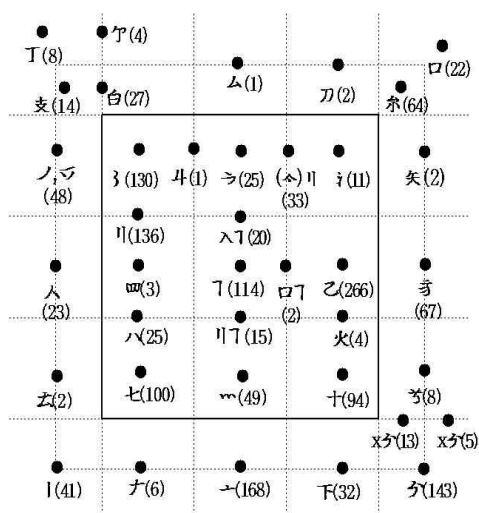
7) 표 안에 표시된 숫자는 연구자들이 편의상 붙인 좌표이다. ‘11’로 표시된 자리를 가리킬 때는 [일일 위치]라고 부른다. 기준 사각형 안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자리의 숫자에 포함된 ‘~’는 ‘(기본 위치의) 사이’를 뜻하고, 기준 사각형 바깥쪽에 점선으로 표시된 자리의 숫자에 포함된 ‘+’는 ‘(한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뜻한다. 세분된 위치를 가리킬 때는, 예컨대 ‘22~23’은 [이이와 이삼 사이]라 하고, ‘+11’은 [플러스일일]이라 부른다.

8) 이 글에 제시하는 <유가> 권3, 5, 8(성암본)의 종합 점도는 출현 빈도는 생략한 것으로서 모두 장경준(2018)에서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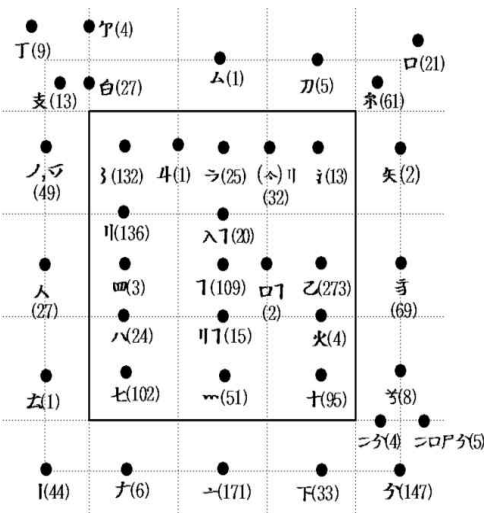
9) [추가] 본고에서는 <유가> 권66의 점도를 추가하되 마찬가지로 장경준(2018)에서 인용하였다.

[추가] <금광>의 보완된 점도에서는 이전에 해독의 근거가 충분치 않아 'x'로 표시한 것들 가운데 'x'를 없애고 대응되는 자토의 해당 구결자를 반영해 넣은 경우가 여럿 있다. 이것들은 자토와 점토의 대응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광>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근의 공동 연구에서 합의한 결과이기도 하나, <금광>의 자토에 오류가 빈번하고 출현 빈도가 극소수인 경우가 많으며 자토-점토의 대응 관계 외에는 해독의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x'를 유지하자는 견해도 있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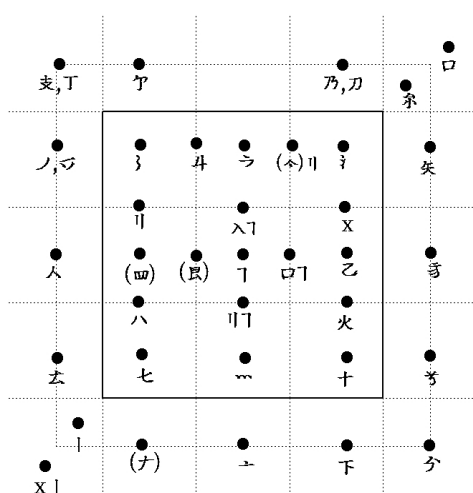
(1)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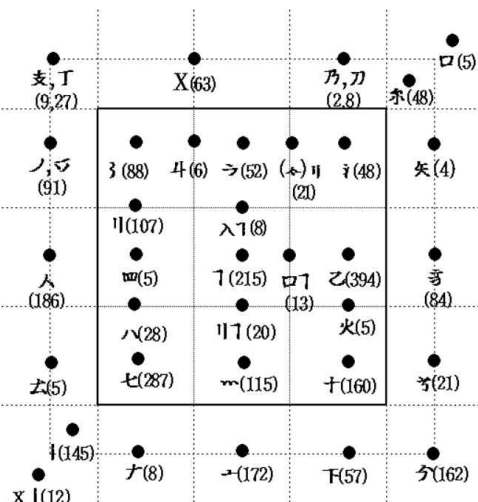
[그림 3] <금광>에 현토된 단점



[그림 3 보완] <금광>에 현토된 단점



[그림 4] 〈유가〉 권3, 5, 8의 단점



[그림 4 추가] 〈유가〉 권66의 단점

〈금광〉에 기입된 ‘・’ 모양의 단점의 체계는 〈유가〉의 단점 체계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11~12 위치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기존 사각형에서 가까운 곳은 ‘ㅅ’으로, 멀리 떨어진 곳은 ‘ㅈ’로 구분된다. 〈유가〉의 점도에는 ‘ㅅ’에 대응되는 단점이 없고 ‘ㅈ’에 대응되는 단점도 좀 더 오른쪽(12 위치)에 있다. 그 밖에 11 위치에서 ‘ㅈ’와 ‘ㅊ’의 위치가 서로 번별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45~55 위치에 ‘ㄷ’ (ニカ/ニコ乙カ)의 자리가 별도로 설정되는 듯한 모습도 주목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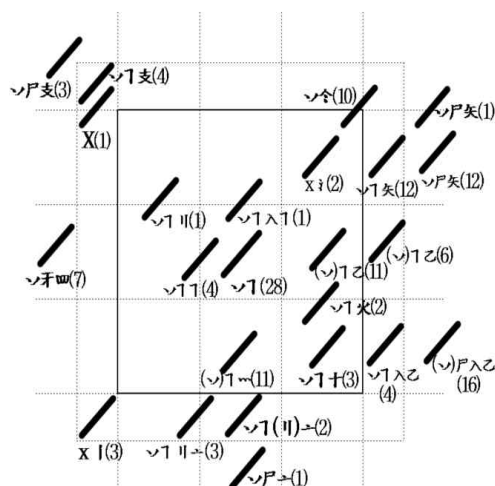
[추가] <유가>에서 ‘ㄴ’와 함께 14 위치를 공유하는 ‘ㄴ’가 <금광>에는 보이지 않으며, <유가>는 51 위치에서 가깝고 먼 곳이 서로 변별되는 반면 <금광>에는 그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금광>의 공백이 우연에 의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광〉에 현토된 구결점의 여러 형태 중에서 단점은 출현 빈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구결점 전체를 해독하는 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체로 단점의 음가는, 그 단점과 같은 위치에 놓이지만 형태를 달리하는 구결점들의 음가의 뒷부분을 결정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점도에서 구결점의 음가는 그에 상응하는 구결자(들)로 표시되는데, 단점의 점도에 나타난 구결자는 다른 형태의 구결점 점도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단점 이외의 구결점은 그것이 놓이는 위치의 단점의 가치를 공유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앞으로 제시하게 될 단점 이외의 구결점들의 점도를 볼 때 이러한 측면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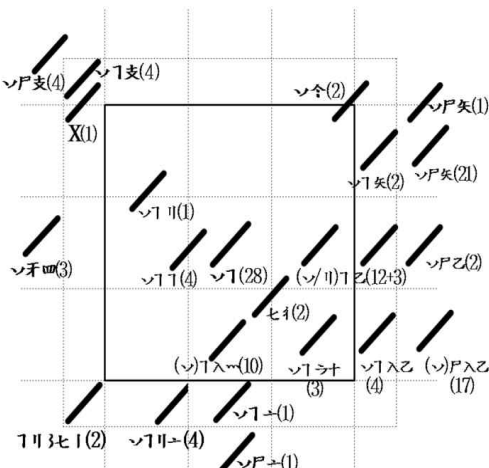
10) [추가] 이는 <유가> 계통 점토구결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인데, 장경준(2020: 71)에서는 이러한 특징에 대해 “단점 이외의 구결점의 가치는 앞부분(α)과 뒷부분(β)의 합인 ' $\alpha+\beta$ '로 표현할 수 있으며, α 는 그 구결점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고 β 는 해당 위치의 단점이 지니는 가치가 반영된다. 따라서 단점 이외 구결점의 해독은 단점의 가치(β) 파악을 바탕으로 하되 형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α 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2)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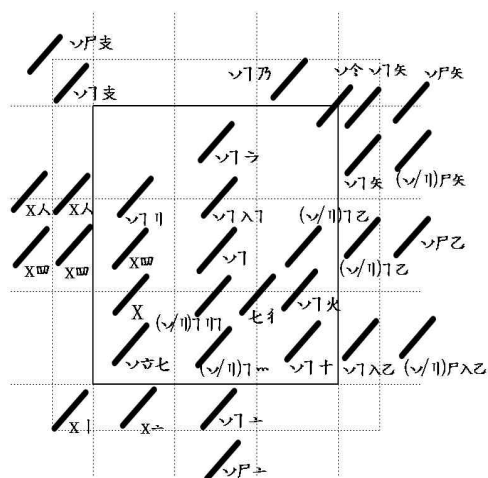
[추가] <금광>에 현토된 사선은 <유가>와 마찬가지로 점도에서 대체로 ‘ㄴ 1’에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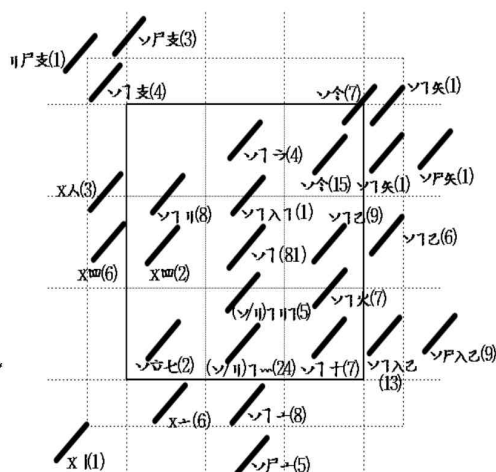
[그림 5] <금광>에 현토된 사선



[그림 5 보완] <금광>에 현토된 사선



[그림 6] 〈유가〉 권3, 5, 8의 사선



[그림 6 추가] 〈유가〉 권66의 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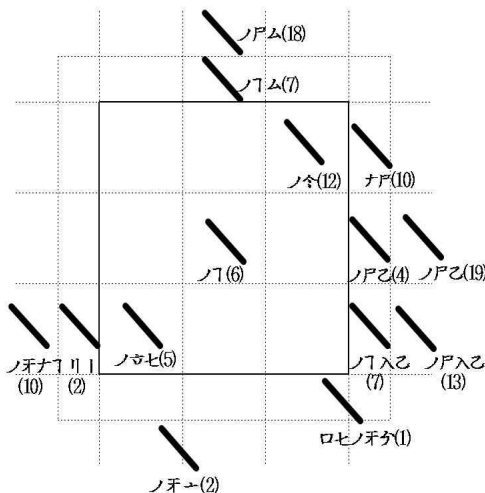
〈금광〉의 사선도 〈유가〉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24 위치에 ‘x’가 놓이는 점이 특이하다(뒤의 (11) 빼침선 부분 참조). 11~21 위치의 ‘X’나 32~33 위치의 ‘ㄴ 1 1’도 〈유가〉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다.

[추가] 이전 연구에서 <금광>에 현토된 사선 중에 24 위치('x'로 해독)와 15~24 위치('々'로 해독)로 보았던 것들은 문현수(2014)와 문현수(2021)를 반영하여 각각 24 위치('x'로 해독), 23~24 위치('ッテ'으로 해독)의 빼침선으로 파악하고 사선의 점도에서 제외한 사례가 많다. 또한 34~44 위치('ッ1'으로 해독)로 보았던 두 예는 장경준(2016)를 반영하여 33~44 위치('ヒ'로 해독)로 달리 파악하였고, 44 위치의 해독은 이강혁(2021)을 반영하여 'ッ1+'에서 'ッ1+'로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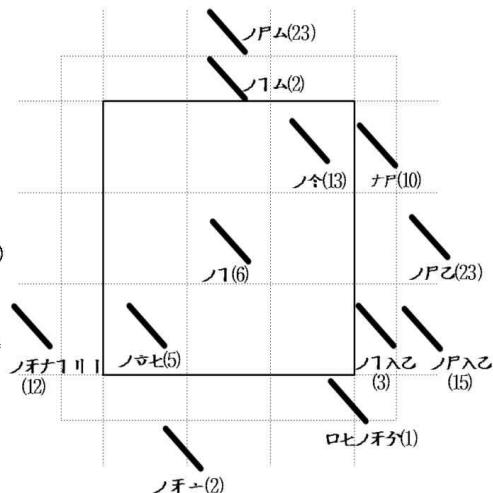
그 밖에 <금광>과 <유가>에서 용례가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31, 51, 52 위치 등에서 <유가>의 점도에 'x'로 표시한 부분을 <금광>의 해당 부분과 동일하게 해독할 수 있는지, 변이 위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25나 34 위치 등의 기준 위치를 점도상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금광>에서 기준 사각형 바깥에서 가깝고 먼 곳을 변별하여 '1:尸'의 대립을 반영하는 11, 25, 35, 45, 53 위치의 양상을 <유가>의 해당 위치 또는 <금광>, <유가>의 다른 위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3) 역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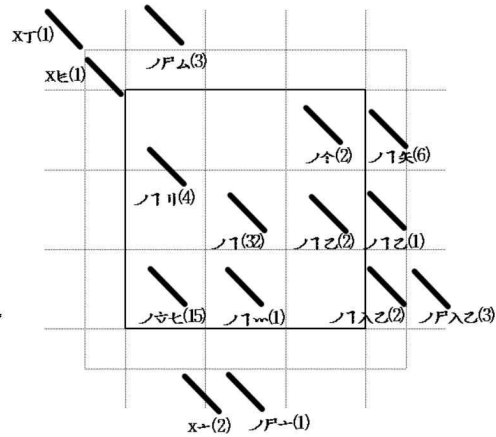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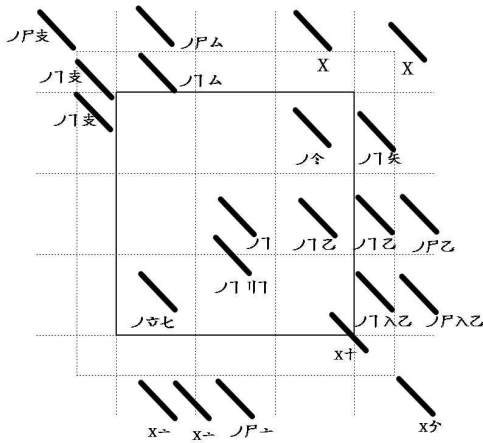
[추가] <금광>에 현토된 역사선은 <유가>와 마찬가지로 사선보다 놓이는 위치가 덜 조밀한 편이다. 점도에서 대체로 'ノ1'에 대응되는 경우가 많고, 사선과 역사선이 보이는 'ッ:ノ'〔ㅎ:호〕의 대립은 문법적으로는 선어말어미 '-오-'의 유무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7] <금광>에 현토된 역사선



[그림 7 보원] <금광>에 현토된 역사선



[그림 8] 〈유가〉 권3, 5, 8의 역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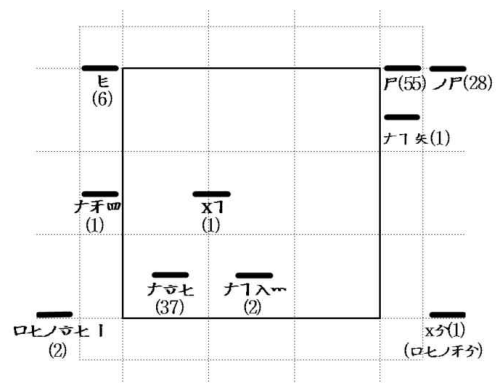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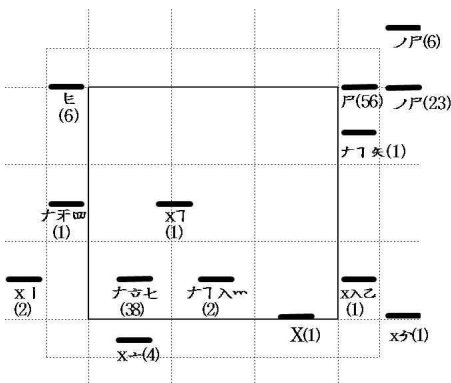
[그림 8 추가] 〈유가〉 권66의 역사선

〈금광〉의 역사선 중에서는 〈유가〉에서 ‘ノ 1 矢’에 대응되는 25 위치가 ‘ナ尸’에 대응되는 점이 특이하다. 41 위치에 놓인 ‘ノ 牙 ナ 1 1 1’의 존재도 〈유가〉에서 볼 수 없던 것이다.

[추가] ‘ノ 1 ム / ノ 尸 ム’로 해독되는 구결점의 기준 위치가 <금광>은 13 위치, <유가>는 12 위치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점도 눈에 띈다. 또한 11 위치의 경우 <유가> 권3, 5, 8은 ‘ノ 1 支 / ノ 尸 支’로 해독되는 반면 <유가> 권66에서는 ‘x ㅍ / x ㅈ’로 해독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금광>에는 해당 용례가 없고, 14 위치도 <유가>의 용례는 해독하지 못해 ‘X’로 남겨 놓았는데 <금광>에는 해당 용례가 없어 대응하는 자토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못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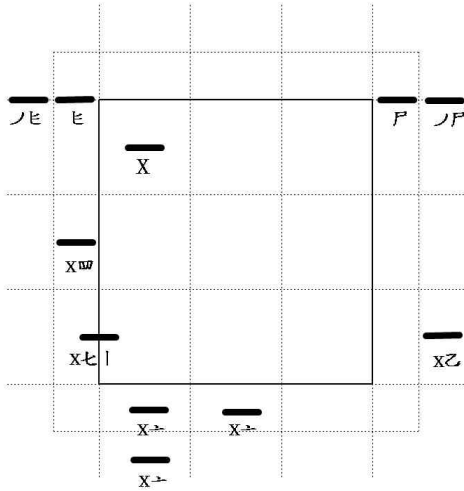
사선과 마찬가지로 기준 사각형 바깥에서 가깝고 먼 곳을 변별하여 ‘1:1’의 대립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한 위치들에 대해서는 〈유가〉의 자료들과 더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수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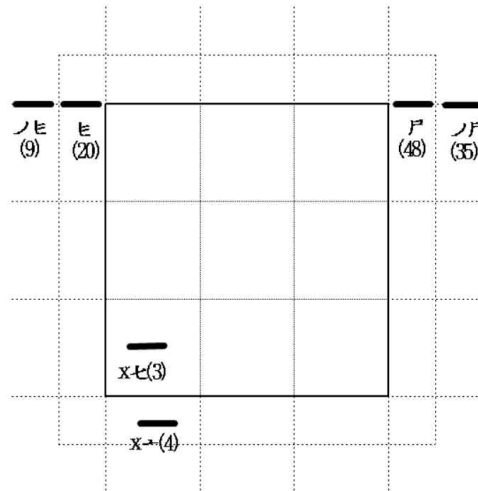


[그림 9] <금광>에 현토된 수평선

[그림 9 보완] <금광>에 현토된 수평선



[그림 10] <유가> 권3, 5, 8의 수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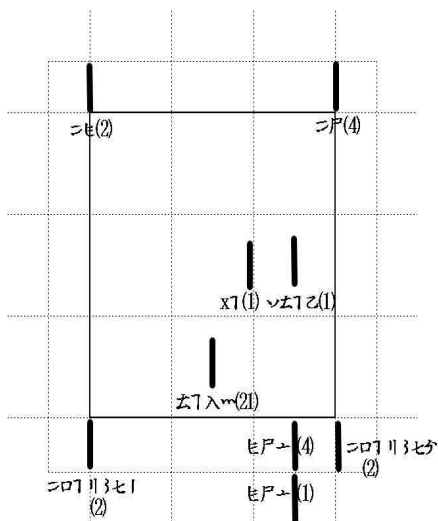
[그림 10 추가] <유가> 권66의 수평선

<금광>의 수평선 중에서는 25 위치의 ‘ㄴ 1 ㄴ’나 43 위치의 ‘ㄴ 1 ㄴ ...’ 등이 <유가>에 보이지 않던 것이고, 대체로 선어말어미 ‘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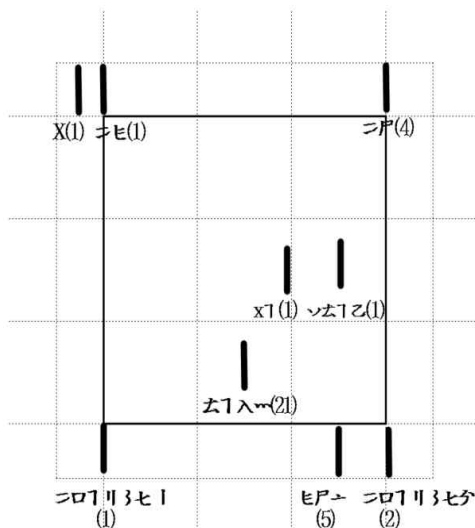
[추가] <금광>과 <유가> 모두 기준 사각형의 윗변에서 바깥쪽으로 대칭을 이루며 나란히 놓이는 11~21과 15~25 위치의 쌍이 출현 빈도가 매우 높으면서 ‘ $\alpha+\beta$ ’의 패턴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편 [그림 9]에서 52 위치에 표시된 용례 4개는 장경준(2019)의 단순 오류로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잘못 표시된 것이다.¹¹⁾

11) [추가] 2008년까지의 공동 연구에서 ‘52(-)’는 판독된 적이 없고, 장경준(2019)의 작성 당시 연구노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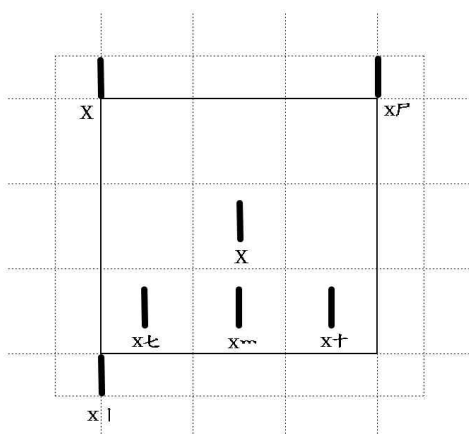
(5) 수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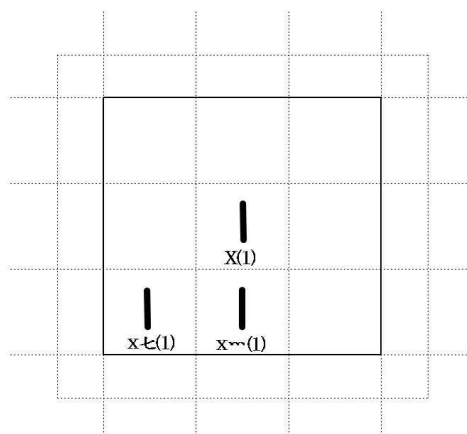
[그림 11] <금광>에 현토된 수직선



[그림 11 보완] <금광>에 현토된 수직선



[그림 12] <유가> 권3, 5, 8의 수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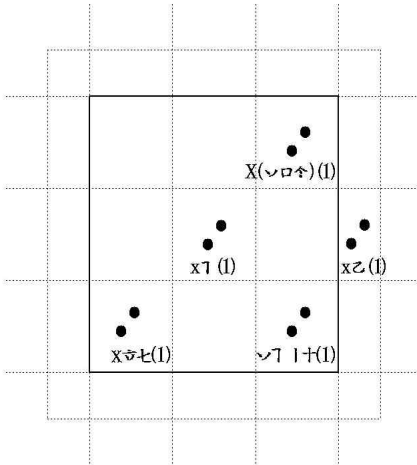


[그림 12 추가] <유가> 권66의 수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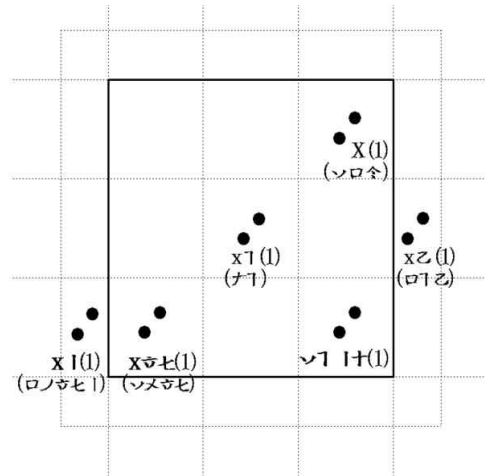
<금광>의 수직선 중에서는 34 위치와 43 위치에서 선어말어미 ‘ㅈ’를 포함하고 있는 점, 11~21와 14~15 위치가 각각 ‘ニヒ’와 ‘ニ尸’에 대응되는 점, 51~52와 54~55 위치가 각각 ‘ニ로7리3七1’와 ‘ニ로7리3七カ’에 대응되는 점 등이 눈길을 끈다.

[추가] <금광>에서 수직선이라는 형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α)는 기준 사각형 안쪽에 있는 34, 43 위치에서는 ‘ㅈ’를 포함하고 바깥쪽에 있는 11~12, 14~15, 51~52, 54~55 위치에서는 ‘ニ’를 포함하는 양상을 보인다. <유가>의 데이터도 이러한 경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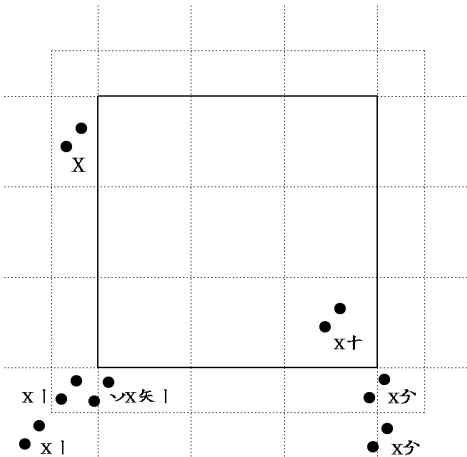
(6) 사항쌍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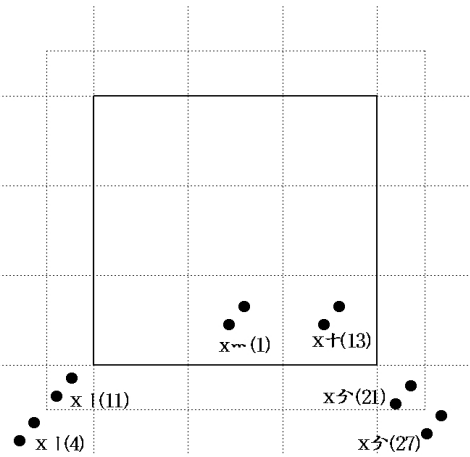
[그림 13] <금광>에 현토된 사항쌍점



[그림 13 보완] <금광>에 현토된 사항쌍점



[그림 14] <유가> 권3, 5, 8의 사항쌍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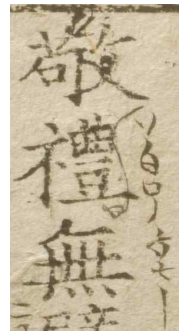
[그림 14 추가] <유가> 권66의 사항쌍점

<금광>에서는 사항쌍점의 분포와 빈도가 매우 빈약한데, <유가>에 자주 보이는 51 위치와 55 위치에 사용례가 없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추가] <금광>에서 사항쌍점은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지 알기 어려운 유일례들뿐이다. 41 위치 용례(13장 4행 禮子)의 판독안을 아래 소개한다.

이전 판독안: '敬禮[12(·),+15(·)?,51~52(1)]{4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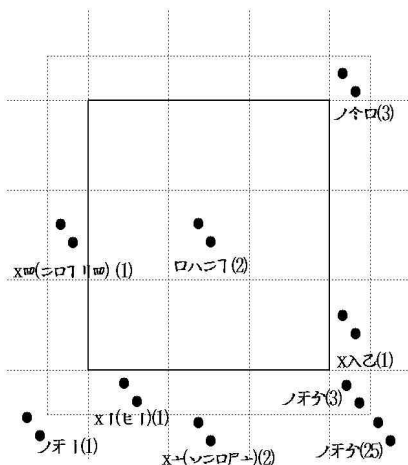
수정 판독안: '敬禮[11~12(·),41(·)#41~5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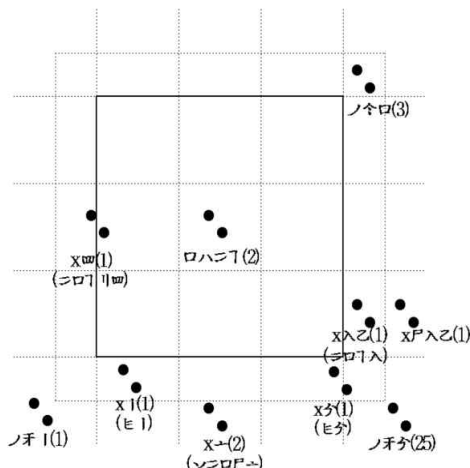
12) [추가] 51~52(1) 대신 41(·)를 해독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13) [추가] 유일한 41(·)이다. 자토의 'ロノヤセ'에 대응된다. 'x'에 해당하는 점토가 45~55 위치에 현토되는 것을 고려하면 41~51 위치로 볼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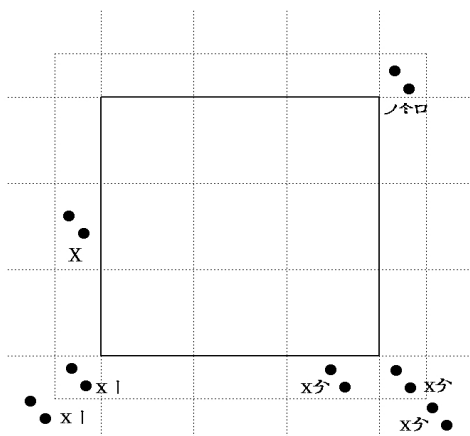
(7) 역사향쌍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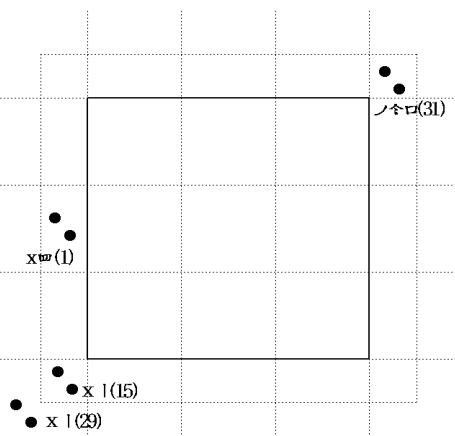
[그림 15] <금광>에 현토된 역사향쌍점



[그림 15 보완] <금광>에 현토된 역사향쌍점



[그림 16] <유가> 권3, 5, 8의 역사향쌍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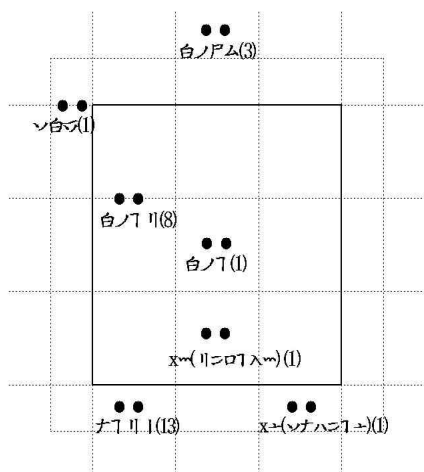


[그림 16 추가] <유가> 권66의 역사향쌍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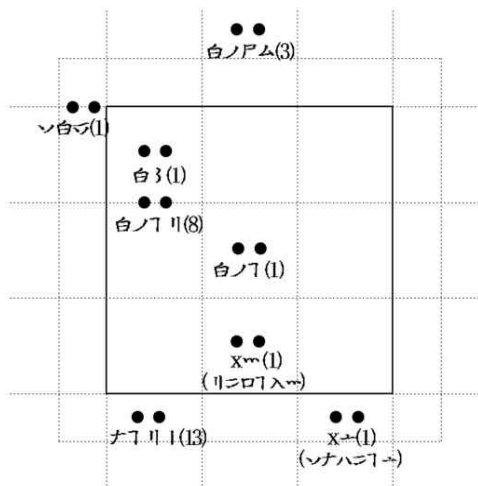
<금광>에서 역사향쌍점은 55 위치를 제외하면 사향쌍점과 마찬가지로 분포와 빈도가 제한적인데, <유가>와 달리 33 위치에 ‘로 바니 1’에 대응되는 예가 출현한 것이 주목된다.

[추가] <금광>에서 역사향쌍점은 기준 사각형의 모서리 바깥에 있는 15, 51, 55 위치의 경우 공통적으로 ‘호리(노 스 / 노 요)’를 포함하고, 나머지 위치 중에서 31~32, 33, 45, 53 위치는 ‘니’와 ‘미’를 포함하고 52, 54~55 위치는 ‘미’를 포함하는 양상을 보인다.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대응되는 자리가 일정하지 않고 15와 55 위치를 제외한 모든 위치의 용례 출현 빈도가 1~2회뿐이어서 해독안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유가>의 데이터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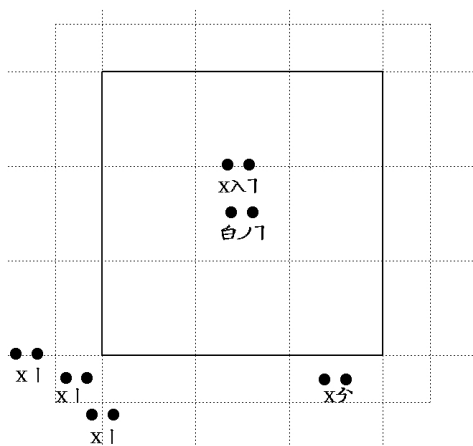
(8) 수평쌍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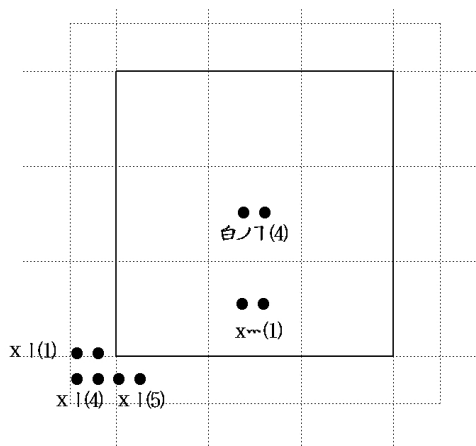
[그림 17] <금광>에 현토된 수평쌍점



[그림 17 보완] <금광>에 현토된 수평쌍점



[그림 18] <유가> 권3, 5, 8의 수평쌍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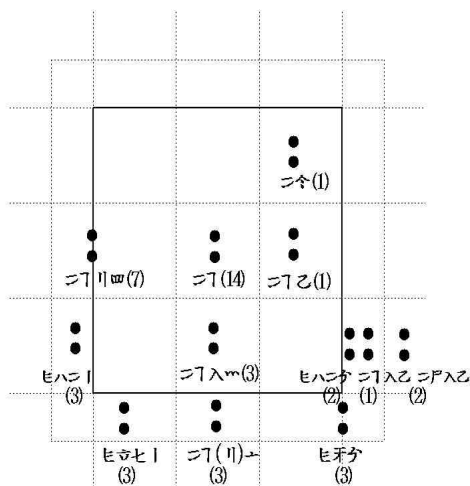
[그림 18 추가] <유가> 권66의 수평쌍점

<금광>에서는 수평쌍점의 분포가 <유가>에 비해 다양한 편인데, 7군데 중 4군데에서 ‘白ノ(ㄱ)’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52 위치에서 ‘ㄱㄱㄱㄱ’에 대응되는 점이 특히 주목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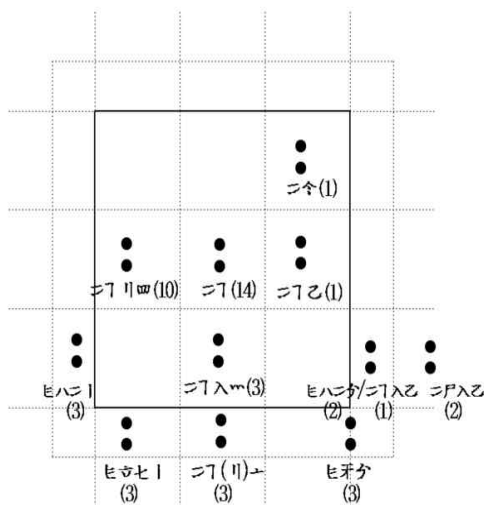
[추가] <금광>에서 수평쌍점이 13, 22, 22~23, 33 위치에서 ‘白’을 포함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나머지 위치는 그렇지 않다. 54 위치에서 <유가>와 달리 ‘~’로 대응되는 점도 주목된다. [그림 17]에서 22 위치가 추가된 것은 성우철(2023)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¹⁴⁾

14) [추가] 한편 성우철(2023)에서는 21 위치의 용례(2장 1행 王자)에 대해 수평쌍점(··)이 아닌 역사쌍점(·)으로 파악하고 해독안도 ‘소 白 ㄱ’이 아닌 ‘소 ㄱ ㄱ’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역주 원고에 1순위로 반영하지 않고 판독안에는 ‘11~21(··)#21(··)’으로, 해독안에는 각 주로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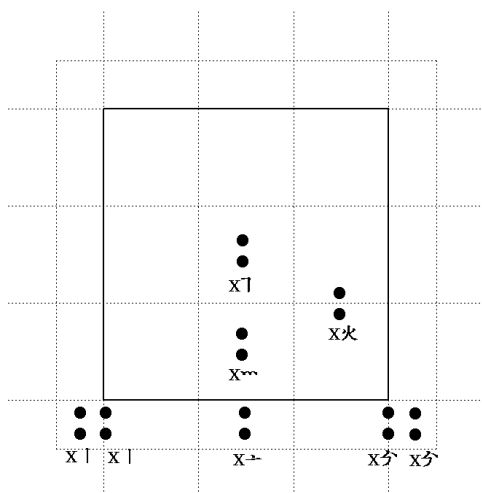
(9) 수직쌍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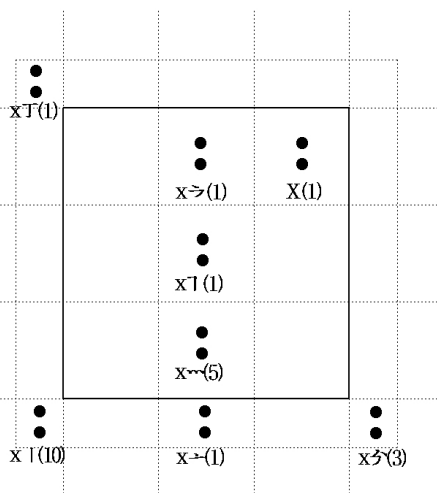
[그림 19] <금광>에 현토된 수직쌍점



[그림 19 보원] <금광>에 현토된 수직쌍점



[그림 20] <유가> 권3, 5, 8의 수직쌍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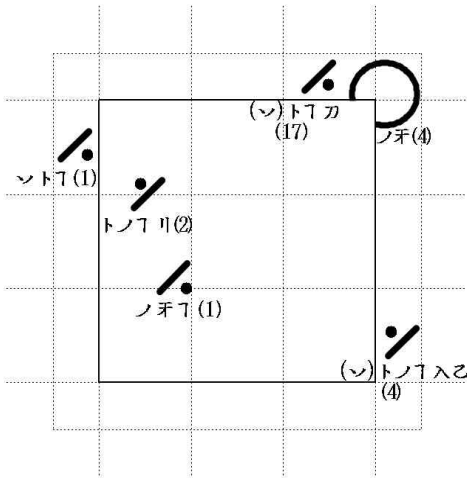
[그림 20 추가] <유가> 권66의 수직쌍점

<금광>에서는 수직쌍점의 분포도 <유가>에 비해 다양한 편이다. 대체로 ‘= (1)’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41, 45, 52, 55 위치에서는 ‘ㅈ’와도 관련이 있는 듯한 점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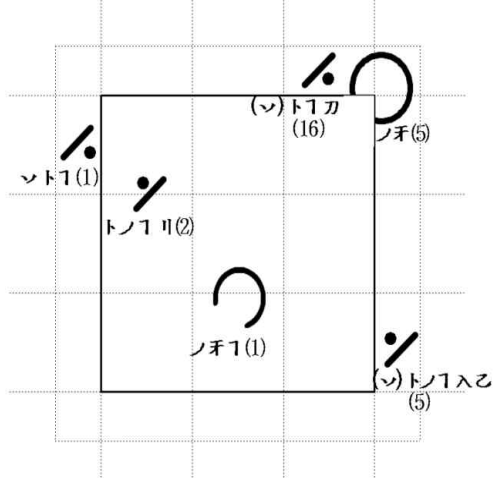
[추가] <금광>에서 45 위치가 자토의 ‘ㅈㅈㅈㅈ’와 ‘= ㅈㅈㅈ’에 동시에 대응되는 이례적인 모습이 주목된다. ‘ㅈ’를 포함하는 ‘ㅈㅈㅈㅈ’를 기준으로 보면 41 위치와 45 위치가 대칭을 이루어 ‘ㅈㅈㅈ’의 대립을 반영하고, ‘=’를 포함하는 ‘= ㅈㅈㅈ’을 기준으로 보면 45 위치

안에서 가까운 자리와 먼 자리가 변별되어 ‘1:P’의 대립을 반영하는 듯하다. <유가>에는 45 위치에 용례가 없으나 (특히 ‘ㅈ’를 포함하는 대칭성에 주목하면) <금광>의 점도에 비어 있는 55 위치가 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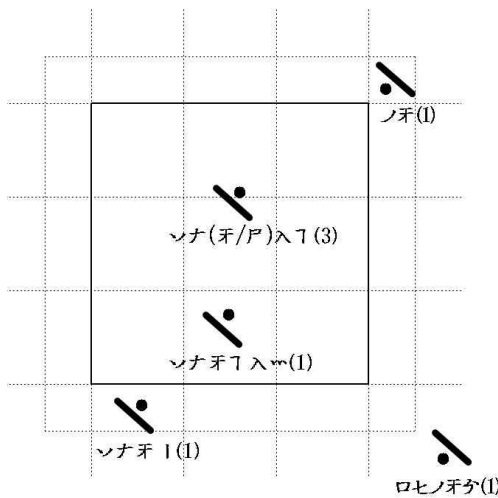
(10) 눈썹, 말발굽, 느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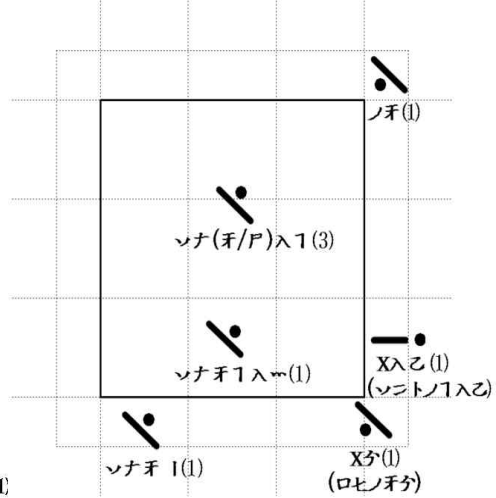
[그림 21] <금광>에 현토된 눈썹 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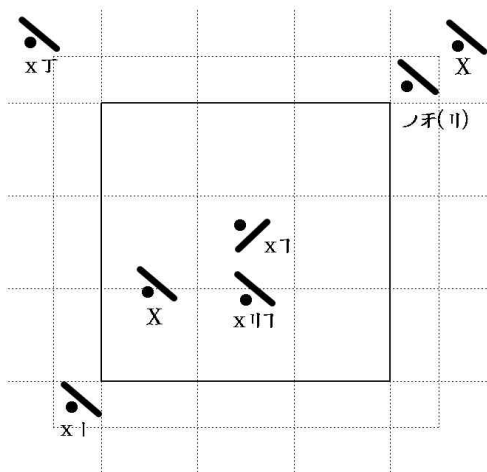
[그림 21 보완] <금광>에 현토된 눈썹 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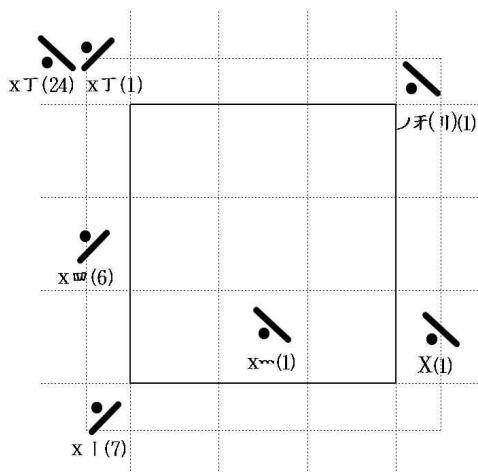
[그림 22] <금광>에 현토된 눈썹 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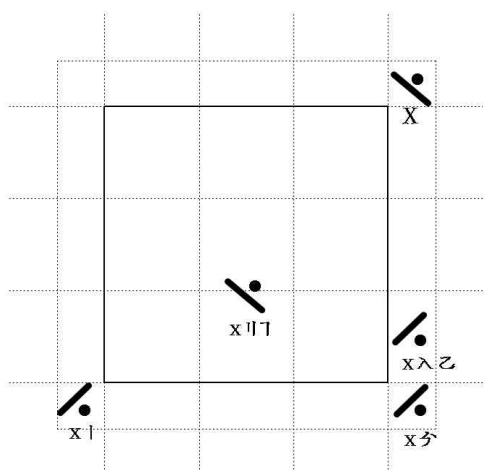
[그림 22 보완] <금광>에 현토된 눈썹 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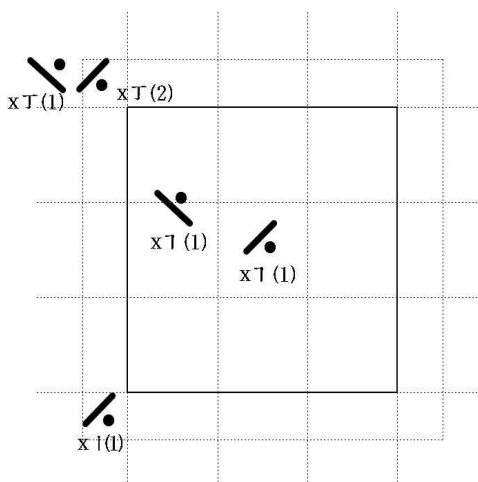
[그림 23] <유가> 권3, 5, 8의 눈썹(1)



[그림 23 추가] <유가> 권66의 눈썹(1)



[그림 24] <유가> 권3, 5, 8의 눈썹(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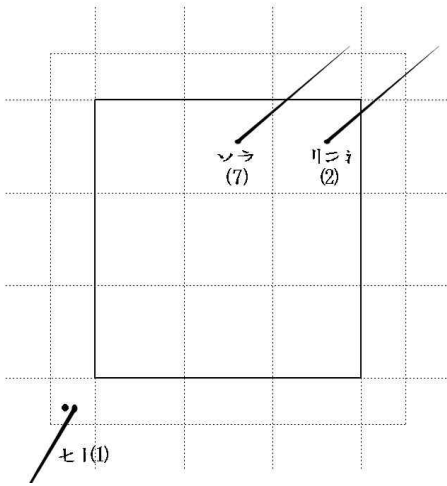


[그림 24 추가] <유가> 권66의 눈썹(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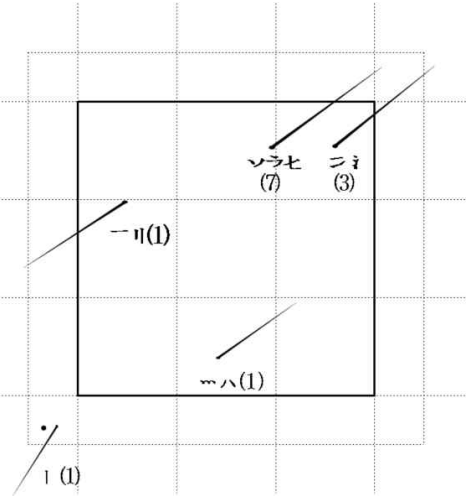
<금광>에 기입된 눈썹 형태는 사선을 포함한 5가지 중 4가지가 ‘ㄷ(ノ)1’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역사선을 포함한 5가지 중 3가지가 ‘ㄴ(ナ)1’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또한 15 위치에서 ㄴ이 ‘ㄴ(ナ)’에 대응되는 예와 눈썹이 아닌 ‘ㄷ’ 형태가 ‘ㄴ(ナ)’에 대응되는 예가 모두 관찰되는데, 후자의 경우 ㄴ의 변형으로 보기에는 형태가 매우 이질적이고 <유가>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추가] 눈썹, 말발굽, 느낌표 형태는 <유가> 계통에서는 사용 빈도가 극히 낮은 것들이다. 특히 느낌표는 <금광>과 <유가> 권66에 각각 한 예가 있을 뿐이고, 말발굽은 <화엄> 계통에서도 보이지 않는 <금광>만의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금광>의 점토 체계는 상대적으로 후대에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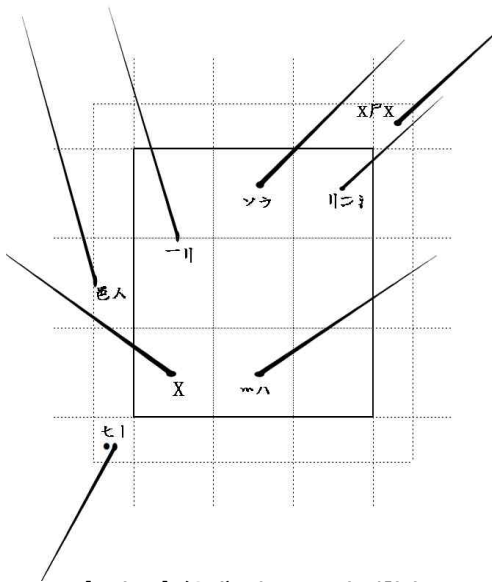
(11) 빼침선



[그림 25] <금광>에 현토된 빼침선



[그림 25 보완] <금광>에 현토된 빼침선



[그림 26] <유가> 권3, 5, 8의 빼침선
(<유가> 권66은 빼침선 용례 없음)

빼침선과 관련한 위의 데이터는 최신 논의인 문현수(2014)의 판독 및 해독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금광>에서는 <유가>에 사용된 빼침선의 7가지 유형 가운데 2가지(23 위치와 51 위치)가 관찰되고, <유가>에 보이지 않는 24 위치의 빼침선이 관찰된다. 그런데 24 위치의 빼침선으로 파악된 두 예는 각필구결 연구모임의 잠정 판독안에서 24 위치의 사선으로 판독되어 앞의 [그림 5]에 반영된 것과 동일한 예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과연 빼침선인지의 여부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추가] 빼침선의 형태는 〈화엄〉 계통에서도 보이지만 구결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유가〉 계통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¹⁵⁾ [그림 25]에서 보았던 부분은 문현수(2021)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유가〉 계통에 사용된 빼침선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구결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빼침선의 해독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림 26]에 표시된 15 위치와 42 위치의 빼침선이 아직 해독되지 않았고, 22~32 위치는 빼침선의 방향이 〈금광〉과 〈유가〉가 일치하지 않아 “빼침선의 방향은 시작 위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 맺음말

본고에서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된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석독구결에서 점토를 구성하는 구결점들을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이 놓이는 위치와 출현 빈도 및 대응 구결자를 제시하고, 기존에 연구된 〈유가〉 권3, 5, 8의 해당 점도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면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금광〉의 점토 체계는 대체로 〈유가〉의 그것과 일치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유가〉 계통 점토구결 내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연구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본고에 제시한 〈금광〉의 점토구결 분석 데이터는, 이 자료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피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공동 연구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정밀한 후속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 2월에 새로 정밀 촬영한 사진 자료 등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공동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 제시한 〈금광〉의 점도에서 구결자로 표시된 부분은 이 자료에서 판독된 모든 용례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친 결과물이라 하기에 여러모로 미흡하다. 특히 출현 빈도가 낮은 단점 이외의 구결점(선, 쌍점, 눈썹)은 자토에서 대응되는 구결자(들)을 찾아 표시해 놓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런데 널리 알려져 있듯이 〈금광〉의 자토구결은 다른 자료에 비해 유달리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점토와 자토의 대응 관계를 살필 때에는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어떤 구결점이 어떤 구결자(들)에 대응되는지 파악하는 일은 물론 해독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해독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금광〉의 점토구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인 셈이다. 본고에 제시한 이 자료의 점토구결 분석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질 깊이 있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15) [추가] 빼침선과 비슷한 형태가 〈화엄〉 계통에서 사용된 것은 기능을 중시하여 ‘중복선’이라고 부른다(장경준 2008: 312).

[추가] 2019년부터 새롭게 이루어진 공동 연구 성과를 본고에 추가하면서 “과연 <금광>의 해독, 나아가 석독구결 연구에 얼마나 진전을 이루었는가”에 대해 자문해 보게 되었다.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된 연구진 구성원들의 2019년 이후 발표 논문들과 올 가을에 출간 예정인 역주서로써 자답을 갈음하기에는 아직 부끄러운 바가 적지 않으나 여럿이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 각필구결 연구모임(2004, 2005, 2008), 「합부금광명경 권3 연구 발제문」 (미간행).
- 김성주(2019), 「석독구결본 『합부금광명경』 권제3의 불교문화사적 의의」, 『古印刷文化』 26, 청주고인쇄박물관, 57-77.
- 김성주(2022), 「『합부금광명경』의 구결과 번역의 비교 연구」, 『口訣研究』 48, 구결학회, 35-61.
- 김지오(2021),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의 부호 연구」, 『語文研究』 4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57-281.
- 김지오(2022), 「〈합부금광명경〉 자토·점토의 현토 양상과 특징」, 『口訣研究』 49, 구결학회, 171-202.
- 남권희(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 문현수(2014),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빼침선의 기능」, 『口訣研究』 33, 구결학회, 249-283.
- 문현수(2021), 「점토석독구결 『합부금광명경』 권3에 사용된 빼침선 연구」, 『국어사연구』 33, 국어사학회, 241-270.
- 문현수(2022), 「『牙』와 『𪛗』의 변별성 -점토석독구결의 현토 양상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48, 구결학회, 63-92.
- 박진호(2019), 「합부금광명경 권3 점토구결 발견 경위」,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연구모임 발표 자료(2019년 7월 23일).
- 서민욱(2005), 「『瑜伽師地論』 卷5, 8의 點吐口訣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우철(2023), 「『合部金光明經』 卷3의 ‘𪛗’을 포함하는 口訣點에 대한 연구」, 『口訣研究』 50, 구결학회, 89-120.
- 안대현(2009),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의 빼침선에 대하여」, 『口訣研究』 22, 구결학회, 249-274.
- 안대현(2019),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合部金光明經 권3의 서지적 특징」, 『古印刷文化』 26, 청주고인쇄박물관, 3-36.
- 안대현(2020), 「점토석독구결의 점토 체계의 대칭성」, 『口訣研究』 44, 구결학회, 117-139.
- 이강혁(2021ㄱ), 「『합부금광명경』 권3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의 대응 양상과 상호 관련성」, 『국어사연구』 33, 국어사학회, 197-240.
- 이강혁(2021ㄴ),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어문연구』

49-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1-108.

이강혁(2022),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 수직쌍점 해독에 대한 試論, 『國語學』 101, 국어학회, 271-318.

이용(2019), 『『合部金光明經』 자토구결과 현대어 번역』, 『고인쇄문화』 26, 청주고인쇄박물관, 99-215.

장경준(2007),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태학사.

장경준(2008), 「고려초기 점토구결의 제부호」,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307-339.

장경준(2016), 「남선사 소장 고려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8의 점토석독구결에 대하여」, 『口訣研究』 36, 구결학회, 39-62쪽.

장경준(2018),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點吐) 개관」, 『각필구결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한글박물관, 92-105.

장경준(2019),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 『古印刷文化』 26, 청주고인쇄박물관, 81-98.

장경준(2020),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석독구결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구결의 관련성」, 『口訣研究』 44, 구결학회, 59-92.

장경준 외(2023), 『역주 원고 초안』(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권3의 종합적 연구” 중간 결과물 2023. 6. 11. 최종 작성본), 미간행.

장경준 편(2022), 「석독구결 자료 6종 전산입력본(sktot_2022_09)」, 구결학회/국어사학회 배포, 미간행.

장윤희(2019), 『『合部金光明經』 권3의 한국어사 자료적 가치』, 『古印刷文化』 26, 청주고인쇄박물관, 37-56.

정재영(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구결학회, 113-193.

정재영(2006), 「한국의 구결」, 『구결연구』 17, 125-185.

정재영·남권희·남경란(2006), 「<금광명경> 부호 구결 연구」, 제3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06.2.7.) 발표 원고.

허인영(2022), 『『合部金光明經』 권3의 발견 및 연구사』, 『口訣研究』 48, 구결학회, 5-33.

초청 발표

일본 훈점어학회 학자 초청

중세 이후의 오음 · 한음에 대하여

오시마 히데유키(大島英之)

(도쿄대학 대학원생·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1. 머리말

중국대륙에서 일본열도로 문자와 발음, 즉 한자와 한자음의 전래는 일본어에도 여러가지 영향을 주었다. 전래된 발음은 일본어의 음운체계에 적합하도록 변화하여 ‘일본한자음’이 되었고, 게다가 일본어 내부의 음운변화에 의해서 현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음에 관해서도 같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정된다.

그러나 일본한자음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한자음과 달리, 한 글자에 여러가지 한자음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요인으로서는 ‘오음(吳音)’ ‘한음(漢音)’과 같이, 전래의 방식이 다른 두 가지 발음이 공존함으로 인해 비롯된다. 예를 들어서 brothers를 의미하는 한자어 ‘兄弟’는 중국어(普通話)에서는 xiōng dì[ciuŋ ti], 한국어로는 형제[hjɔŋdʒɛ], 베트남어로는 huynh đê[hwĩŋdɛ]라고 발음한다. 일본어로는 キョウダイ[kjoːdai]가 일반적이지만, 딱딱한 어투로는 ケイテイ[keːteː]라는 형식도 존재한다. 전자는 오음에 의거한 독법이며, 후자는 한음에 의한 독법이다. 즉, ‘兄’이라는 글자에는 오음 kyō(1)와 한음 kei가 있으며, ‘弟’에는 오음 dai와 한음 tei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오음 kyō와 dai는 거의 ‘兄弟’라는 단어에 한정해서 사용된다. 다른 한자어에서 ‘兄’과 ‘弟’를 음독할 경우에는 한음인 kei와 tei가 사용된다. 이와 같이 오음과 한음이 공존하고 있으나, 용법의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동등하게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

본 발표는 이와 같이 현대 일본어의 오음과 한음의 사용 양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 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오음과 한음의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한 후, 3장에서는 현대일본어의 한자음 분포에 대해서 개괄하며, 이와 더불어서 ‘한자음의 일원화’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일본어 자료 내의 오음과 한음의 분포 변천을 구체적으로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오음과 한음을 한 단어 내에서 섞어서 사용하는 ‘혼독(混讀)’ 현상에 대해서 논한다.

1) 이하 일본한자음의 음형(音形)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원칙상 헵번식 로마자(Hepburn romanization; 장음의 경우에는 장음부호 매크론(macron, 예를 들어서 ā, ē, ī, ō, ū 등)을 사용한다)로 나타내며,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2. 오음과 한음의 개괄

한음은 7-8세기에 걸쳐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의 발음이 견당사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래된 것이다. 한편, 오음은 한음이 전래하기 이전에 일본에 정착한 한자음의 총칭으로, 중국 남방의 발음에서 유래하였으며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이입의 과정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많다.

한음은 중국의 중고음의 틀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오음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米’, ‘迷’, ‘第’ 등 제운(齊韻)에 속하는 한자는 한음에서 -ei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오음의 경우는 -ei이외에도 -ai나 -e가 나타난다(표1). 그 이유는 오음의 내부에도 오래된 층위와 새 층위가 혼재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1 齊韻字의 오음과 한음

	오음	한음
迷	<i>mei</i>	<i>bei</i>
米	<i>mai</i>	<i>bei</i>
弟	<i>dai</i> (兄弟)	<i>tei</i>
	<i>de</i> (弟子)	

6세기 중엽에 백제에서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교 경전을 독송할 때에는 일부의 예외²⁾를 제외하면 오로지 오음이 이용되었다. 따라서shujō(衆生), riyaku(利益)와 같이 불교 경전에서 유래한 한자어의 경우는 대부분 현재까지 오음으로 읽히고 있다. 그 외에도 byōbu(屏風)와 같은 물건명의 명칭이나, bunin(補任)과 같은 올령 용어에서도 오음이 다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나라 시기의 장안 방언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한음은 전래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조정에 의해서 공식적인 한자음으로 장려되었다³⁾. 관리 양성 기관인 대학寮(大學寮)의 학생들은 『논어』 『사기』 『문선』 등의 한적을 한음으로 학습하였다. teinei(丁寧) 등 한적에서 유래한 한자어는 한음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서 승려들 사이에서는 불교 경전을 오음으로 독송하는 전통이 이어졌기 때문에, 불교 경전과 한적 양쪽에서 등장하는 기초적인 어휘는 이중의 어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표2).

표2 오음과 한음의 이중 어형

	오음	한음
兄弟	<i>kyōdai</i>	<i>keitei</i>
父母	<i>bumo</i>	<i>fubo</i>
變化	<i>henge</i>	<i>henka</i>

각각 한자의 오음과 한음을 알기 위해서는 한자-일본어 사전(이하, 漢和辭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종래의 漢和辭典에는 실제 사용된 증거가 없으나, 중국의 중고음에서 이론적으로 도출해낸 음형이 실려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제 훈점자료와 고사전·음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형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본한자음 연구의 큰 기둥이 되었다⁴⁾.

2) 『孔雀經』 『理趣經』 등은 한음으로 읽힌다.

3) 8세기 말에는 오음의 사용을 폐지하고, 한음의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의 詔勅과 官宣旨(역주: 헤이안 시대(794-1185) 이후에 공문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弁官局에서 여러 지역 및 사찰에 보내는 문서)가 반복적으로 내려졌다. 특히 간무 천황(桓武天皇; 재위 781-806)에 의한 792년의 조칙(勅, 明經之徒, 不可習吳音, 發聲誦讀, 既致訛謬, 熟習漢音)이 유명하다.

4) 구체적으로는 오음자료로써 『法華經音義』 등이, 한음자료로는 『蒙求』의 고사본 등의 자료가 중요시된다.

이와 같이 실례에 근거한 방법론에 의해서 오음과 한음을 판단한 漢和辭典으로는 『三省堂五十音引き漢和辞典 第二版』이 있다(佐々木2011: 31). 본 사전은 오음자료에서 실례를 확인할 수 없는 글자에 한해서는 오음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한음만을 게재하여, 종래의 사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발표자는 본 사전에 입각하여 1,727자 1,740예로 구성된 오음과 한음이 대립하는 사례를 리스트로 작성하였다. 발표자가 현재까지 한 조사는 이 ‘오음-한음 음형 대립 리스트’에 의거한 것이다.

3. 현대 일본한자음의 수량적 개괄

본 장에서는 일본의 상용한자를 예로 들어서, 현대 일본한자음의 양상을 수적으로 개괄하도록 한다⁵⁾. 문화청(文化廳)에서 공표한 ‘상용한자표’에는 두 번째 열에 현대 일본어에서 상용되는 한자의 음(가타카나)과 훈(히라가나)이 게재되어 있다(그림 1).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이거나, 용법이 매우 좁은 경우’에 대해서는 한 글자 분의 공란을 넣어서 표시하고 있다(그림 1의 ‘キョウ kyō’).

兄	ケイ キョウ あに	兄事, 父兄, 義兄 兄弟 兄	兄 (にい) さん 「兄弟」は, 「ケイテイ」と読むこともある。
---	-----------------	-----------------------	-------------------------------------

그림1 상용한자표의 ‘兄’ 부분
(오른쪽 말단: ‘兄弟’는 ‘ケイテイ keitei’ 라고 읽는 경우도 있다)

상용한자2,136자에 대해서 상용한자표에 게재되어 있는 한자음의 수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이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⁶⁾.

한자음 없음: 77자

한자음 1개: 1,786자

한자음 2개 이상: 273자

한 글자에 2개 이상이 대응하는 273자에서 오음과 한음을 포함한 글자를 추출하면, 표2와 같이 200자가 된다. 현대 일본어에서 오음과 한음 양쪽이 상용되는 글자는 상용한자 전체 중에서 1할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 본 조사는 屋名池(2005)와 佐々木(2011), 阿久津(2015) 등과 중첩되는 부분도 많으나, 조사 대상의 자료나 집계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6) 상용한자표의 데이터로는 한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서 공개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https://github.com/cjkvi/cjkvi-tables/blob/master/joyo2010.txt>)을 사용하였다.

표3 상용한자표 내부의 오음·한음이 대응하는 한자 일람

오음/한음	118자 (右怨音下化家会絵解外間気客九去扱御京強郷競業極金形恵経月元言己後口工行皇黄興今砂利施示自治宗拾柔重女如象色織臣神人図世正生西姓性省然素相装存体大代台男地丁直定殿都土頭読日白癸伴貧武封物分文聞平兵米歩法望木幕末万無名命明冥模妄役由有力礼霊)
오음 1자 공란	63자 (依遺疫益遠仮夏華牙回眼期久宮虚供仰勤兄建嫌献権嚴功貢殺仕児若修就衆食仁井成声青政星清盛精静石赤昔着弟豆拍反煩眉奉亡謀遊流留糧緑)
한음 1자 공란	19자 (街境香合歳財寂従旬上情贈壇度道内病凡目)

나머지 73자와 1개의 한자음만 실려있는 1,786자를 합친 1,859자에 대해서는 발표자가 작성한 ‘오음·한음 음형 대립 리스트’에 의거하여 한자음의 체계를 판정한 결과, 오음은 316자, 한음이 318자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해당되는 글자를 ‘十(吳音jū/漢音shū)과 같이 청탁(淸濁)만이 대립하는 글자⁷⁾와, ‘乙(吳音otsu/漢音itsu)’, ‘二(吳音ni/漢音ji)와 같이 청탁 외의 요소가 대립하는 글자로 나누면 표4와 같이 된다.

7) 청탁 만이 대립한다는 것은 頭字音 만이 다른 음형 대립 중에 k-/g-, s/z-, sh-/j-, t-/d-, ch-/j-, h-/b-이 대립하는 글자를 가리킨다.

표4 상용한자표에 실려있는 오음 내지 한음만이 대응하는 글자 일람

	청탁 만이 대립하는 글자	청탁 외의 요소가 대립하는 글자
오음만 개재	160자(画賀劾害慨該駭学丸含技具軍郡群隙玄弦現 舷互護硬号拷剛豪座挫在材罪雜殘斬暫字寺似事侍 持時慈辭磁軸奘邪蛇樹十充住塾熟述術巡盾殉純循 順準遵助序叙徐除丈条乘剩常場量蒸繩尽迅甚陣 尋腎隨髓稅舌絶全前善禅漸膳繕造增憎臧族賊唾 墮惰駄脱奪团段断彈談田伝電同洞胴動堂童銅導 腫毒独鈍姥倭培培賄伐拔罰闊番盤備鼻仏別弁便簿 乏妨防房肪傍棒暴僕撲勃盆)	156자(院央応横憶臆乙卷勸願逆峽狹教鏡驚苦空 幻限減甚語向獄紺妻濟祭細際劑式識尺釈手守狩腫 種寿受呪授縦初床抄晶粧状城浄錠寸是狙想像即 足促捉俗属統替滯第題茶嫡庁町頂嘲聽通痛曇那 軟二卍式肉入乳尿任妊忍認熱念粘燃悩脳濃百評 布佈普譜部返朴翻摩磨磨每妹枚埋膜沫漫未味魅 密蜜脈妙矛務夢霧滅免綿麵茂毛網黙紋問訃油湧 竜領瑠呂六録和惑)
한음만 개재	46자(何河完鑑伎岐棋及拳賢懸江恒才傘士詞嗣射 集署著紹深銭曹層待怠兆跳調沈陳渡陶筒特坂頻父 附負婦伙伙)	272자(暗衣維陰飲隱永泳英映榮嘗詠影衛易液駅 越園猿欧桜花佳価貨嫁暇稼芽雅介灰快怪悔潰壞 懷格殻隔獲患閑慣閑監還環簡頑頑希飢欺脚弓丘 旧休朽求究救嗅窮牛巨居拒挙許距凶共狂享恐恭胸 響曲玉斤近琴筋禁錦銀刑徑計敬景輕傾慶稽警迎軒 健鼓公勾孔巧交后抗孝攻更拘紅校控梗絞沙差策山 産耳爵弱朱収囚州周臬終愁醜潤訟衝鐘拭植殖飾舐 囁職辱刃崇征齊晴聖誠請整醒夕析席脊隻惜戚責跡 積籍壯争莊瘦測堆圪諾達暖亭貞帝停提諦泥的笛 滴適適溺途塗奴怒投逃桃寧馬罵壳買泊漠髮犯汎版 販飯範尾美微苗猫品敏猫舞舞扨丙並柄壁壁蔑捕補母 慕峰豐忘某冒帽貿牧墨沒眠鳴猛友郵猶雄誘憂融 優踊擁抑陸疏良令戾鈴麗曆歷縷漏)

표3과 표4는 본래 구별이 있었던 오음과 한음의 대립이 200자에서는 보존되어있으나, 600자 이상의 글자에서는 구별이 소실되어, 어느 한 쪽의 음으로 고정된 것을 보여준다. 屋名池(2005:689)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일본어 내의 한자어의 양이 증가하는 가운데, 어형의 불안정함을 해소하고 기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변화라고 추정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오음과 한음의 수가 길항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길 바란다. 그러나, 표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오음으로 고정된 글자는 청탁 만이 대립하는 글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음과 대조적이다⁸⁾. 청탁 만이 대립하는 글자와 표3에서 한 글자 공란이 들어간 글자를 제외하면, 한음은 오음보다도 우세하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 단지 이와 같이 파악하더라도 오음의 존재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屋名池(2005)는 복수의 한자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의 대부분은 특정의 단어에만 사용되는 유표한 한자음과, 미지의 한자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무표한 한자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⁹⁾ 하였으며, 그 외의 글자에 대해서도 위치(어두 혹은 비어두)나 의미에 따라서 다른 음형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조건이 형성되었다고¹⁰⁾ 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일본한자음은 ‘복수

8) 청탁 만이 대립하는 글자의 경우, 탁음으로 고정화 되기 쉽다는 지적으로는 湯沢(2017: 159), 石山(2022: 57) 등이 있다.

9) ‘兄’과 ‘弟’를 예로 들면, kyo나 dai는 오로지 ‘兄弟’에만 사용되는 유표한 한자음으로 kei, tei는 무표한 한자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의 계열이 서로 다른 체계로 병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기능상으로는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pp. 678-679), 이를 '한자음의 일원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石山(2022)는 『日葡辭書』(1603년)와 현대에 출판된 소형 일본어 사전에 실려있는 한자음을 비교하여, 큰 흐름으로 보서는 일원화를 인정하면서도 또한 이에 저항하는 듯한 사례가 있는 것을 들면서 완전한 일원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발표자는 지금까지 '한자음의 일원화'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중세(12세기-16세기 경) 이후의 오음과 한음에 대해서 조사해왔다. 이하에서는 그 개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4. 오음과 한음의 분포 변천

2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일본에서 불교 경전을 읽을 때는 오음으로, 그 외의 한적의 경우는 한음으로 읽는 것이 규범으로 여겨져왔다. 이와 같이 중국 문헌의 음독과 훈독을 통해서, 일본인은 한자어를 받아들여 왔으며, 그 중의 일부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중세가 되면 일본인이 만든 한자어(和製漢語)도 증가한다. 이 장에서는 여러가지 출전에서 등장한 한자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일본어 문헌에서 오음과 한음의 비율이 어떻게 추이하였는지를 보고자 한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로 대표되는 헤이안 시대의 가나(仮名) 문학작품에 대해서, 柏谷(1987)의 제2편에는 7종의 작품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있다. 이에 따르면 가나 문학작품에서 오음으로 읽히는 한자어와 한음으로 읽히는 한자어가 혼재하고 있으나, 오음으로 읽히는 한자어가 2-3배 정도 많으며, 오래전에 전래된 오음의 세력이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柏谷1987: 865-866).

변체한문(變體漢文, 역주: 한문 양식에 맞춰서 표기된 일본어의 문체)으로 쓰인 군기문학(軍記物語, 역주: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쟁을 테마로 쓰인 문예작품)인 『將門記』에는 훈점자료로 楊守敬本(1050년경 가점 추정)과 眞福寺本(1099년 가점)이 알려져 있다¹¹⁾. 佐々木(2009: 282-285)에 의하면 楊守敬本은 오음이, 眞福寺本은 한음의 사용이 우세하다¹²⁾. '武藝'를 楊守敬本에서는 mugei, 眞福寺本에서는 bugei로 읽는 등 어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체한문자료에서는 가점자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오음과 한음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변체한문 훈점자료로는 여러가지 문체의 규범적인 글을 모은 『本朝文粹』 久遠寺本(가마쿠라 시대(1192-1333) 중기 경 가점)이 있다. 이 자료는 주로 한음으로 읽고 있으나, 약 2할 정도 오음으로 읽는 사례도 섞여있으며(柏谷1987:455, 474), 특징적인 점으로는 한음으로 읽는 한자어는 중앙에, 오음의 경우는 한자어의 오른쪽으로 치우친 음합부(音合符)¹³⁾를 기입하

10) 예를 들어서 '日'은 오음nichi과 한음jitsu이 모두 사용되고 있으나, nichi는 어두에, jitsu는 비어두에서 나타나기 쉬운 경향이 있다.

11) 고기록과 고문서와 같이 일본인이 작성한 변체한문에는 대부분의 경우 훈점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훈점이 기입된 변체한문자료가 일부 발견되어, 일본어사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將門記』도 그 중 하나이다.

12) 楊守敬本은 오음 107예 : 한음 89예, 眞福寺本은 오음 19예 : 한음 51예이다(佐々木2009: 282-283). 단지 두 자료는 가점의 밀도가 크게 다르고, 또한 모든 한자어에 한자음을 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전체의 훈독에 사용된 오음과 한음도 같은 비율이라고 여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명경점(明經點)의 오키토 점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그림 214). 그 외에도 陽明文庫本『遊仙窟』과 康永三年(1344)本『신사루가 쿠키新猿樂記』등에서도 한음·오음 합부가 있으며(山本 1987, 山本2010), 일정 정도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¹⁵⁾. 이는 훈점을 기입하는 장에서 오음과 한음을 섞어서 쓰면서도 체계적으로 구별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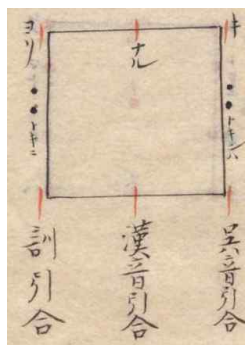


그림2 오키토 점도의 합부

한자어자료는 아니나, 16세기에는 원칙상 1자에 대해서 1개의 음 만을 부여하는 사전이 일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이로하지효타色葉字平他』(혹은 伊呂波字平它로도 표기한다) 유형의 운서나, 기리시탄 판¹⁶⁾ 『라쿠요슈落葉集』의 「小玉篇」은 오음과 한음도 다수 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된 한자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된다. 大島(2022a), 大島(2023)에 조사한 결과는 표5와 같으며¹⁷⁾, 『色葉字平他』大東急記念文庫本에서는 한음이 우세하나, 龍門文庫本の 경우와 『落葉集』「小玉篇」에서는 오음과 한음의 비율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

표5 무로마치 시대 편찬 사전의 오음과 한음
(청탁 만이 대립하는 글자는 제외하였다)

자료명	시대	오음	한음
大東急記念文庫本 『伊呂波字平它』	1501년 서사	206자 (31%)	464자 (69%)
龍門文庫本 『色葉字平他』	무로마치 말 서사	339자 (44%)	424자 (56%)
『落葉集』小玉篇	1598년 출판	334자 (52%)	308자 (48%)

에도 시대의 자료에 대해서 大島(2022b)는 ‘일본어 역사 코퍼스(CHJ)’¹⁸⁾를 이용하여, 『아마

- 13) 훈점자료에서는 2자 이상의 한자에 대해서 음독을 하는, 즉 한자어로 읽는 경우에는 한자와 한자의 중앙 혹은 오른쪽에 세로선(음합부)을 그어서 훈독을 한다. 즉 훈으로 읽는 경우에는 좌측에 세로선(훈합부)을 긋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합부의 변천에 대해서는 小林(2019) 제7장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 14) 内閣文庫『古點譜』1815년 서사본에서 인용. ‘한음에 긋는 합부漢音引合’와 ‘오음에 긋는 합부吳音引合’로 나뉘어져 있다.
- 15) 구카이(空海)의 시문집 『性靈集』의 일부 사본에는 이와 반대로 중앙에 기입된 합부가 오음, 오른쪽으로 치우친 합부가 한음을 나타낸다(山本1987).
- 16) 역주: 기리시탄 판은 가톨릭 선교회인 예수회가 1591년 경부터 약 20년 동안, 일본의 규슈(九州) 지역을 중심으로 인쇄한 도서 및 출판물을 지칭한다.
- 17) ‘大(오음dai, 한음tai)’와 같이 오음과 한음이 청탁으로만 대립하는 글자는 집계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에도 시대(1603-1868) 이전의 일본어 문헌에서는, 탁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탁점을 기입하지 않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 18) 국립국어연구소가 개발한 일본어의 통시 코퍼스이다. 웹어플리케이션인 ‘주나곤中納言’(<https://chunagon.ninjal.ac.jp/>)에서 사용할 수 있다.

쿠사판 헤이케모노가타리·이소호모노가타리 天草版平家物語·伊曾保物語』(1592-1593년 간행), 도라아키라본 교겐虎明本狂言(1642년 서사), 지카마쓰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세와모노조루리世話物淨瑠璃(24작품, 1703-1722년 상연), 샤레본洒落本(30작품, 1757-1836년), 닌조본人情本(8작품, 1821-1864년), 이 5종의 코퍼스에 등장하는 1자 내지 2자 한자어의 한자음 체계를 조사하였다¹⁹⁾. 그 결과 字種의 측면에서는 모든 코퍼스 안에서 오음이 50-60% 안에 들었으며, 시대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그림 3). 그러나 총 글자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시적으로 오음이 75%에서 60% 가까이까지 감소하였으며, 한음 사용의 신장이 확인되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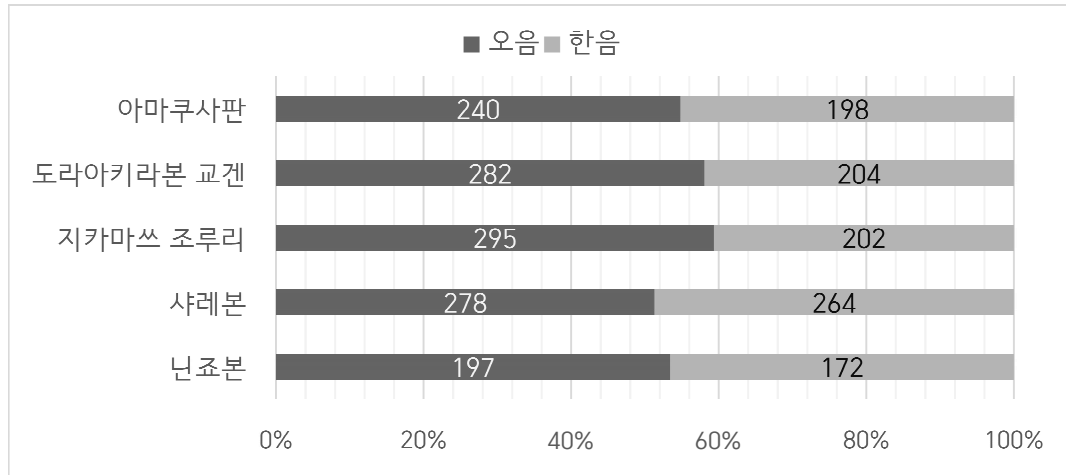


그림3 오음·한음의 변천(字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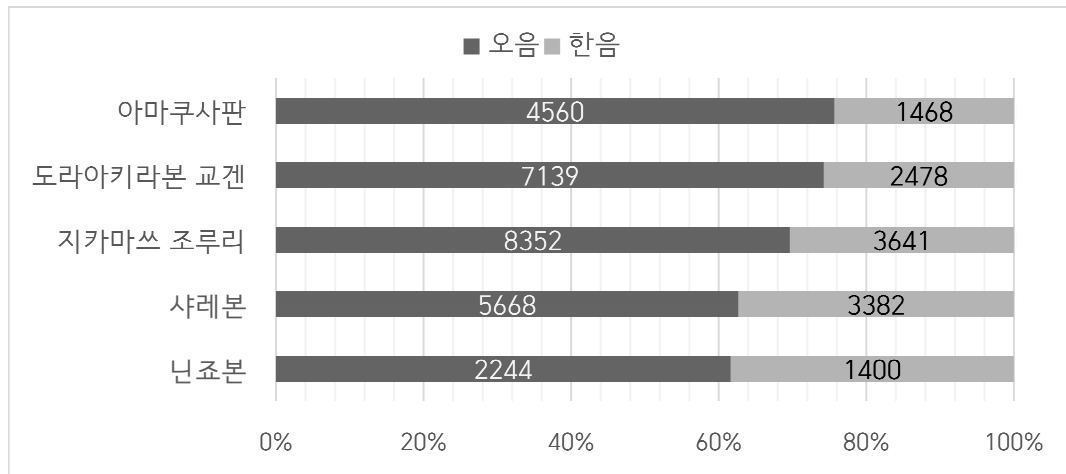


그림4 오음·한음의 변천(총 글자 수)

19) 사람의 손을 거쳐서 수정된 '코어데이터'에 한정하였다. 또한 본 데이터는 底本人 원래 자료에는 어형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한자어에도 모든 어형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근대에 들어가면 대량의 새로운 한자어가 출현하여, 그와 더불어 많은 한자어 사전이 잇따라 출판되었다. 메이지 시대(1868-1912) 초기의 한자어는 어형의 불안정하였으나, 점차 정비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飛田(1968)는 오음에서 한음으로 교체된 한자어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양적으로 많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에도 시대 한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음이 규범으로 취급되어, 일반인들이 이를 학습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메이지 시대 초기를 ‘한음 유행기’(屋名池2005: 686)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단지 그림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에도 시대에는 이미 한음으로 읽는 한자어의 사용이 확대되어 가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현대의 상용한자에서는 오음과 한음이 청탁으로만 대립하는 글자를 제외하면, 오음은 326자(42%) 한음은 442자(58%)가 된다. 이 비율은 ‘일본어 역사 코퍼스’ 에도 시대편의 결과(그림3)와 비교하면, 한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오음이 감소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 오음으로 정착했던 글자가 한음으로 대체되는 일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도 남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용한자표 이외의 자료를 이용하여, 차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5. 오음 · 한음의 혼독

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불교 경전은 오음으로, 한적은 한음으로 읽히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한자어가 유입된 당시의 어형을 계속해서 보존한다고 가정한다면, 2자 이상의 한자어에서 오음과 한음을 섞어서 읽는 방식(이하, ‘혼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gengo(言語; 한음gen+오음go)와 같이 혼독을 하는 한자어는 다수 있다. 다만 ‘한자음의 일원화’가 진행되면 혼독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혼독은 개설서 등에서 자주 다뤄지나, 구체적인 연구는 적다. 大島(2022c)에서는 원정기(院政期; 1086-1192) 말에 편찬된 사전 『이로하지루이쇼色葉字類抄』와 1603년 간행된 『日葡辭書』 사이에서 혼독이 이루어진 한자어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분석대상은 오음과 한음의 음형이 확연히 대립하는²⁰⁾ 한자 2자로 구성된 한자어에 한정하여, 이를 오음으로 읽는 한자어(오음+오음), 한음으로 읽는 한자어(한음+한음), 혼독어(오음+한음 내지 한음+오음),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전체에서 혼독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혼독률’로 정의하였다. 조사 결과 『色葉字類抄』의 혼독률은 15.1%(67/445)이나, 『日葡辭書』의 혼독률은 23.5%(234/995)로, 중세 시대에 걸쳐서 혼독 현상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色葉字類抄』와 『日葡辭書』 사이에 오음 내지 한음으로만 읽는 한자어가 혼독어로 변환한 단어를 조사한 결과, ‘한자음의 일원화’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毛擧(역주: 글을 쓰기 위하여 붓을 드는 것)는 bōkyo(한음+한음)에서 mōkyo(오음+

20) 예를 들어서 周(오음shu / 한음shū)와 같은 대립은 『色葉字類抄』가 편찬된 헤이안 시대 말에 어느 정도 변별성이 인정되었는지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은 예를 제외하면 분석대상은 1,144자로 한정된다.

한음)으로 변화하였는데, ‘毛’가 포함된 한자어의 수는 표6과 같이 추이하였으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음이 무로마치 시대 말에는 이미 모ウmō로 일원화 된 것을 엿볼 수 있다²¹⁾. 중세에는 일본어 내부에 스며들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어가 ‘한자음의 일원화’의 진행에 의해서 일원화된 한자음으로 읽히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혼독 현상이 확대되었다고 해석하였다.

표6 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毛’의 한자음

	오음mō	한음bō
色葉字類抄	2	8
日葡辭書	21	0

6. 맺음말

일본한자음은 오래 전에 전래된 오음과, 새로 전래된 한음이 각각 불교와 유교, 이 두가지 학문의 장에서 구별되어 사용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으며, 보통 사용되는 한자음이 오음인지 한음인지를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글자에 복수의 한자음이 있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에는 오음과 한음이 두 가지 층으로 보존되어 있다고는 이제와서는 말하기 어려우나, 한 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고 혼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자음의 일원화’의 방향성이나 근대에 일어난 한음의 유행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자료 횡단적인 한자음·한어음 데이터베이스資料横断的な漢字音・漢語音データベース²²⁾’ 구축이 진행중이다. 가까운 장래에 여러가지 관점으로 일본 한자음 대규모 데이터를 통한 계량적 연구가 기대된다.

7. 參考文獻

- 阿久津 智 (2015) 「現代日本語における漢音と呉音の対応について」『拓殖大学日本語紀要』25: 55-64.
- 石山 裕慈 (2022) 「日常使用の日本漢字音の歴史—『日葡辞書』と現代日用語辞典との比較を通して—」『国語と国文学』99(9): 49-62.
- 沖森 卓也 (編) (2014) 『三省堂五十音引き漢和辞典 第二版』三省堂.
- 柏谷 嘉弘 (1987) 『日本漢語の系譜』東宛社.

21) 沼本(1973)는 이미 헤이안 시대 후기에서 가마쿠라 시대 전기의 변체한문 훈점자료에서 한자 한 글자에 오음과 한음 중 어느 쪽의 한자음이 고정화 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을 지적하였다.

22) <https://www2.mmc.atomi.ac.jp/~katou/KanjionDB/index.html>

- 小林 芳規 (2019) 『平安時代の佛書に基づく漢文訓讀史の研究IX 訓點表記の歴史』汲古書院.
- 佐々木 勇 (2009) 『平安鎌倉時代における日本漢音の研究 研究篇』汲古書院.
- 佐々木 勇 (2011) 「日本漢音研究の現在」『日本語学』30(3): 28-36.
- 沼本 克明 (1973) 「変体漢文訓読に於ける字音語の性格」『信州大学人文科学論集』7: 31-13.
- 飛田 良文 (1968) 「明治大正期における漢音呉音の交替」『近代語研究 第二集』武蔵野書院.
- 屋名池 誠 (2005) 「現代日本語の字音読み取りの機構を論じ「漢字音の一元化」に及ぶ」『築島裕博士傘寿記念国語学論集』670-692. 汲古書院.
- 山本 真吾 (2010) 「尊経閣文庫所蔵『新猿楽記』の訓点」『尊経閣善本影印集成42 新猿楽記』3-13. 八木書店.
- 山本 秀人 (1987) 「音合符による漢音、呉音の区別について—久遠寺蔵「本朝文粹」を中心に—」(国語学会中国四国支部第31回大会研究発表要旨) 『国語学』148: 99.
- 湯沢 質幸 (2017) 『漢字は日本でどう生きてきたか』開拓社.
- 大島 英之 (2022a) 「『色葉字平他』類の韻書における漢字音—大東急記念文庫本・龍門文庫本を例に—」『日本語学論集』18: (1)236-(26)211.
- 大島 英之 (2022b) 「近世における呉音・漢音の勢力と混読現象の展開—『日本語歴史コーパス』を用いて—」『研究報告人文科学とコンピュータ (CH) 』2022-CH-129(10): 1-8.
- 大島 英之 (2022c) 「中世における呉音漢音混読現象の展開—『色葉字類抄』と『日葡辞書』の漢語語形の比較を通じて—」『計量国語学』33(6): 373-388.
- 大島 英之 (2023) 「キリシタン版『落葉集』の漢字音について」『日本語学論集』19: (1)160-(20)141.

8. 附記

본 연구는 JSPS 과학연구비 21J20167 · 22KJ0545 · 22H00665에 의한 연구 성과의 일부이다.

(번역: 北海道大學 文學研究院 専門研究員)

일본어사에서 한자사전 『字鏡集』의 자리매김에 대하여

이토 도모히로(伊藤智弘)

(훈점어학회 회원, 오사카대학 대학원 박사수료)

1. 머리말

일본어사 연구에서 이용되는 자료 중에 ‘고사전(古辭書)’라고 칭해지는 종류의 문헌이 있다. 이것은 주로 게이초(慶長) 연간(17세기 초두 무렵) 이전에 찬술된 사전체 자료의 총칭이며, 특히 헤이안(平安) 시대에 찬술된 『類聚名義抄(루이주묘기쇼)』, 『色葉字類抄(이로하지루이쇼)』, 『新撰字鏡(신센지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들 고사전은 옛 시대 일본어의 어휘·음운 등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사 연구에 언어 자료로서 쓰이고 있다. 또한, 사전 그 자체의 성립·내용·계통 등에 관한 연구도 독립된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인정받고 있다.

발표자는 고사전 자료 중에서도 특히 『字鏡集(지쿄슈)』라고 불리는 한자사전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고사전 자료군 중에서도 비교적 오래된 가마쿠라(鎌倉) 시대에 성립된 분량이 많은 사전이면서도, 일본어사 연구·사전사 연구에서 모두 주목받기 어려웠던 것처럼 생각된다. 이는 아마도 성립 시기가 헤이안 시대보다도 이후인 점, 또 게재된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사전에서 수집한 것이어서 독자적인 내용을 찾아내기 어렵다(라고 생각되기 쉬웠다)는 점 등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본 발표는 이하의 내용을 다룬다. 첫째, 『字鏡集』라는 자료의 개요에 대한 소개, 둘째, 『字鏡集』의 성립 경위의 확인이다. 셋째, 첫째, 둘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字鏡集』를 어떻게 일본 (고)사전사, 나아가서는 일본어사 연구 속에 의의 있는 것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2. 『字鏡集』 개요

2.1. 성립에 대하여

『字鏡集』의 성립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13세기 전반~중반 무렵에 성립되었다고 여겨진다. 성립 연대의 下限은 1245년(간겐(寛元) 3년)이다. 이것은 『字鏡集』 諸本 중에 “寛元三年”이라는 年紀를 기록한 識語를 갖는 책이 하나 있는 것에 의한다.

편찬자도 현재로서는 不明이다. 일부 諸本에 보이는 “爲長卿作”이라는 기술로부터 스가와라노 다메나가(菅原爲長)를 편찬자로 하는 설이 있고 성립 연대의 추정과도 모순되지 않으나, 결정적인

증거로는 빈약하다. 승려·韻學者인 조초(承澄)나, 그 관계자의 편찬임을 추측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쪽도 확실한 증거는 없다.

2.2. 구성

『字鏡集』은 전편을 통틀어 한자 한 글자를 표제어로 삼고 그것에 여러 가지 주석문을 붙이는 ‘單字掲出’의 체재를 취한다. 표제자의 총수는 31,170자¹⁾이며 일본에서 작성된 한자사전으로서는 『字鏡集』보다도 후대(특히 근세기 이후)에 유포된 『倭玉篇(와교쿠헨)』 등을 포함하여 생각해도 분량이 많은 것이라고 해도 좋다.

표제자는 192개의 부수 부문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부수는 의의 분류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실제 분류 예를 『字鏡集』 첫머리에서 제시한다.

天象部 天部, 雨部, 日部, 月部(‘肉’을 포함), 雲部, 風部, 夕部, 旦部
 地義部 山部, 石部, 阜部, 邑部, 土部, 里部, 田部, 畝部, 阡部, 水部, 谷部, …
 植物部 木部, 艸部, 竹部, 臬部, 米部, 麥部, 禾部, 豆部, 瓜部

意義 분류는 『色葉字類抄』의 것과의 관련이 지적된다. 『新撰字鏡』 이래로 한자사전에서 부수의 분류에는 意義 분류가 쓰이는 일이 있었으나, 명확하게 ‘天象部’ 등의 ‘部’를 세운 부수 분류는 『字鏡集』의 큰 특징으로 여겨진다(乾 1995).

2.3. 내용

게재되어 있는 각각의 항목은,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은 체제로 되어 있다. 항목에는 주로 이하의 정보가 주석으로 달려 있다.

- 표제자(항목 대표자) … 推
- ① 한자음에 대한 주석 … 覺(覺韻), カク
- ② 이체자에 대한 주석 … 攢同
- ③ 훈에 대한 주석 … カマフ, トル, アラアラシ, ウツ, ハフ, ヒサク

표제자(항목의 대표가 되는 자)에는 대부분에 대해 한자음이 주석으로 달린다. 주석으로 달리는 것은 분절음 층위의 음형 표시와 韻目이

【항목 예】

推

カク
 覺 攢
 同
 ヒ ハ ウ ア ト カ
 サ フ ツ ラ ル マ
 ク く フ
 シ

1) 본 발표에서 기술하는 자수 등의 수치는 ‘天文本’을 베이스로 하여 표제자(항목)의 탈락을 ‘應永本’으로, 항목 내의 정보의 탈락을 ‘永正本’으로 보완한 것이다. ‘天文本’, ‘永正本’에 대해서는 2.4절 참조. ‘應永本’은 ‘天文本 계통’(2.4절)의 한 책이다.

다. 음형 표시의 대부분은 일본의 문자체계인 가나에 의해 음형을 적어서 나타낸 것(가나 音注)이다. 反切이나 直音注도 실리는 경우가 있으나, 수는 가나 음주가 압도적으로 많다(각종 음주가 주석으로 달린 표제자의 수는 가나 음주 24,457자, 反切 3,671자, 直音注 1,084자). 또한 가나 음주는 漢音이 기본이며 吳音은 극히 소수이다.

표제자에는 이체자가 주석으로 달린 경우도 있다. 이체자의 연자수는 23,034자이며, 표제자와 합치면 『字鏡集』의 연계재자 총수는 54,134자에 이르게 된다. 한자사전류에 있어서는 字體에 ‘正’, ‘俗’, ‘通’과 같은 가치를 매긴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국의 『干祿字書』나 일본에서는 『字鏡集』에 선행하는 개편본 『類聚名義抄』에서 이루어진다. 『字鏡集』도 이러한 구분 자체는 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同’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正俗의 규범보다도 실용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日本語学研究事典』 372쪽, 「俗字」 항목, 사카이 겐지(酒井憲二) 씨 집필).

和訓의 延數는 62,634레이다(伊藤 2022b에 의함). 이것은 일본 고사서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이며, 和訓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개편본 『類聚名義抄』의 35,385례(草川 2000에 의함)를 웃돈다. 또한 『類聚名義抄』는 『字鏡集』 和訓의 주요한 의거 자료의 하나로 인정된다. 위에 제시한 예에서도, ‘カマフ’, ‘アラアラシ’, ‘ウツ’, ‘ハフ2)’, ‘ヒサク’라는 훈은 『類聚名義抄』에 실려 있는 것이다.

2.4. 諸本

『字鏡集』은 복수의 諸本이 현존한다. 그것들은 크게 2가지 계통으로 나뉜다. 두 계통의 구별은 표제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하나는 자형이 닮은 표제자를 나열해 가는 방법(유사자형 배열)을 취하는 계통이다. 이 계통을, 그 가장 오래된 단계를 담은 책인 ‘永正本’과 연관지어 ‘永正本 계통3)’이라고 불러 둔다. 또 하나의 계통은 같은 韻의 표제자를 『廣韻』의 韻目 순서에 따라 나열해 가는 방법(韻目順 배열)을 취한다. 이 계통은, 그 가장 오래된 단계를 담은 책인 ‘天文本’과 연관지어 ‘天文本 계통’이라고 불러 둔다(‘전편이 운목순 배열’인 『字鏡集』은 현존하지 않는다. ‘天文本’ 전 6권 구성 가운데 3권은 유사자형 배열로 되어 있다).

2.5. 표제자의 배열

『字鏡集』은 본래 ‘天文本 계통’에 보이는 ‘운목순 배열’을 취하며 ‘永正本 계통’의 ‘유사자형 배열’은 개편되어 만들어진 후발 형태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山田 1967). 이것을 증명하는 예는 다

2) 語義 不明. 또 『類聚名義抄』에서는 ‘ハフ’의 ‘フ’ 옆에 ‘ク’가 적혀 있어서 ‘ハク(또는 ハグ)’라는 어형이 제시되어 있다.

3) ‘天文本 계통’, ‘永正本 계통’이라는 두 분류의 호칭은 伊藤(2022a)에서 사용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계통 분류도 가능하다(貞治 1967, 中田 1982의 계통도를 참조).

양하지만, 한 가지 예로서 ‘운목순 배열’ 단계에서 朱筆로 표시한 항목이 ‘유사자형 배열’ 단계에 서는 삭제되어 있다는 사례를 들어 둔다. 이러한 사례에서 삭제되는 것은 같은 한자를 표제자로 삼는 두 가지 항목 가운데 한쪽이다. 이러한 처치는 『字鏡集』이 하나의 한자가 표제에 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번뿐이라는 설계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이 사례에 대해 서는 伊藤 2019에서 언급하였다).

이하에서는 意義 분류에서는 ‘人事部’에 속하는 ‘言部’의 예를 들어 두 계통의 표제자 배열 사례를 비교한다. 먼저, 『字鏡集』의 原形을 유지한다고 알려진 ‘운목순 배열’에 대해 보자.

오른쪽 그림에는 言浮 첫머리 4행의 표제자와 그것들의 소속 韻目을 제시하였다.

첫째 줄은 부수자인 ‘言’ 및 이것과 같은 운(元韻)에 속하는 자를 나열하였다. 둘째줄 이후에는 東韻·冬韻·鍾韻·支韻·脂韻의 순서로 표제자를 나열하였는데, 이 순서는 『廣韻』 韻目の 배열(東韻·冬韻·鍾韻·江韻·支韻·脂韻)과 일치한다(江韻은 言部에 해당자가 없다).

【운목순 배열: 言部(天文本)】

言 諛 謹 諛 諛 諛	諛 諛 諛 諛 諛 諛	諛 諛 諛 諛 諛 諛	言 諛 諛 諛 諛 諛
↓ 脂韻 ↓	↓ 支韻 ↓	↓ 鍾韻 ↓	↓ 冬韻 ↓

이어서, ‘유사자형 배열’에서 言部 첫머리 4행을 본다. 실례는 아래 그림에 제시하였는데, ‘운목순 배열’ 단계와는 표제자의 나열 방식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부터 첫째 줄은 부수자 ‘言’ 및 문자의 구성요소가 ‘言’뿐인 자가 나열된다. 둘째 줄 이후는 자형이 유사한 표제자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다. 위에서부터 첫째 줄은 ‘자형이 ‘言’과 유사한 자’의 예이며, 이하 둘째 줄이 ‘旁의 구성요소에 ‘冂’을 포함하는 자’의 예, 셋째 줄이 ‘구성요소 ‘言’이 다른 구성요소를 좌우에서 끼우는 자형의 자’의 예, 넷째 줄이 ‘旁의 구성요소에 ‘辶’를 포함하는 자’의 예, 다섯째 줄이 ‘旁의 구성요소에 ‘大’를 포함하는 자’의 예로 되어 있다.

【유사자형 배열: 言部(永正本)】

「言」に類似←	言	言	言	言
構成要素: 冂←	講	譌	誨	誨
構成が「言+?+言」←	譌	誰	誨	誨
構成要素: 辶←	誨	誨	誨	誨
構成要素: 大←	誨	誨	誨	誨
				構成要素: 言のみ↓

山田(1967) 이래, ‘天文本 계통’에 속하는 책에서 ‘운목순 배열’을 취하는 부분은 ‘乙部’로 호칭된다(‘유사자형 배열’인 부분은 ‘甲部’). ‘乙部’에 속하는 部首 部門의 내용은 다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것들은 ‘群’이라고 불린다(이 호칭은 貞苺 1967에 의함). 각 ‘群’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며, 표제자 배열의 존재 방식도 같지는 않다. 각 ‘群’의 실례와 특징을 제시한다.



【제1군】(23,740자)

표제자를 ‘운목순 배열’로 나열한다. ‘群’ 중에서 가장 표제자 수가 많고, 字音注, 이체자, 和訓 등의 주석도 풍부하다. 『字鏡集』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群’이다.

【제2군】(3,600자)

표제자를 ‘운목순 배열’로 나열한다. 주석의 양은 대체로 적지만 反切을 모든 표제자에 주석하는 것이 특징이다(‘제1군’과 ‘제3군’에는 반절이 거의 없다).

【제3군】(3,830자)

표제자 배열에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다. 주석의 양은 대체로 적고, 전혀 주석을 갖지 않는 표제자도 있다. 음주는 直音注, 가나 음주가 보이지만 모두 얼마 되지 않는다.

部首 部門 내에서 각 ‘群’은 특징을 공유하는 항목이 한 덩어리로 출현하며, 또 부문 첫머리부터 ‘제1군 → 제2군 → 제3군’의 순서로 게재되어 섞이는 일이 없다. 그 때문에 ‘群’의 구별은 용이하다. 예로서 言部에서 ‘群’과 그 경계를 아래 그림에 제시한다.⁴⁾

4) 엄밀히 말하면, 言部의 경우 ‘제3군’ 중에 한 줄 분량(다섯 자)만큼 ‘제1군’의 특징을 갖는 글자가 들어와 있다. 단 이 한 줄은 주위의 본문과는 분명히 別筆이며, 또한 얼마 안 되는 공간에 옥여넣은 듯이 적혀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판단하자면 書寫 중에 한 줄 분량의 누락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임시적으로 보충하는 과정이 추정된다. 또한 이 다섯 자는 그림 속에서는 ‘제1군’으로 해야겠다.

【言部の 내부 구성(天文本에 의함)】

第3群 54字 言 言信 言恣 言 言死	第2群 50字 言 言 言 言 言	第1群 480字 言 言 言 言 言
--	---	--

‘群’은 전편을 ‘유사자형 배열’로 하는 ‘永正本 계통’에서는 해체되어 그 구별을 잃는다. 그러나 ‘天文本 계통’에서 ‘永正本 계통’으로의 개편은 주석문 내용의 큰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없었다. 따라서 주석문의 특징을 보면 어떤 표제자가 ‘개편 이전에 어느 ‘群’에 속하는 것이었는지’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3. 『字鏡集』의 성립 경위

『字鏡集』의 개요는 이상과 같다. 그러면 이 『字鏡集』이라는 문헌을 연구하는 것은 일본어사 연구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닐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 단계로서, 본 장에서는 『字鏡集』이 어떠한 한자사전을 목표로 하여 편찬되었는지, 그것을 위해 어떠한 수순을 밟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한다.

3.1. 『字鏡集』의 편찬 과정

『字鏡集』의 편찬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 이루어졌을까. 여기에서는 주로 ‘제1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양상을 살펴본다. ‘제1군’은 표제자의 수·주석문의 정보량 모두 충실한 『字鏡集』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字鏡集』 편찬에서 우선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字鏡集』 편찬의 소재로서는 韻書, 『大廣益會玉篇』, 개편본계 『類聚名義抄』가 주요한 것으로 상정된다. 본 발표에서는 이 세 종류를 사용하여 『字鏡集』의 편찬 과정을 소묘해 본다(韻書는 『廣韻』을 사용한다. 실제로 『字鏡集』 편찬에 이용된 운서도 『廣韻』에 가까운 내용을 갖추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中野 2018)).

앞서 서술한 대로 『字鏡集』은 본래 표제자를 ‘운목순 배열’로 나열하였다(2.5절). 이 ‘운목순

배열'은 '어떤 부수에 속하는 자를 운서에서 출현한 순서로 골라내어 간다'라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형성된다(江口 1995, 伊藤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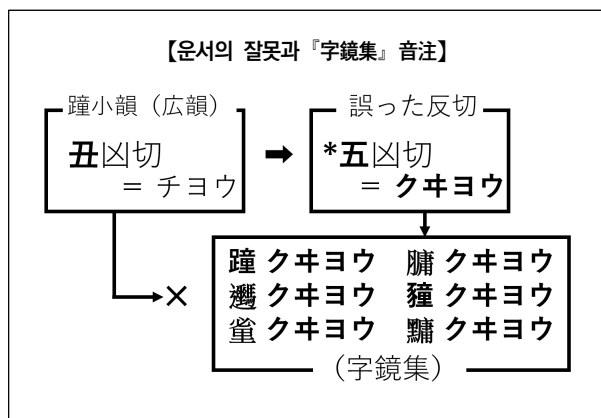
바꾸어 말하자면, 『字鏡集』의 편찬은 '운서로부터 글자를 뽑아내는' 것을 제1단계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편자는 '운서를 사용하는' 것을 편찬의 제1단계로 삼은 것일까. 바로 생각나는 이유로서는 "운목순 배열"을 만들기 위해'라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⁵⁾ 그러나 발표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생각한다.

3.2. '가나 음주'로 본 『字鏡集』의 편찬 의식

『字鏡集』은 한자음에 대하여 분절음 층위의 音形을 가나 음주로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2.3절). '제1군'에서 가나 음주의 표시율은 대단히 높아, 표제자의 거의 99%가 가나 음주를 지닌다. 『字鏡集』의 편찬자는 '표제자에 대하여 망라적으로 가나 음주를 제시하는 것'을 『字鏡集』 편찬에서 중요사항으로 파악했던 듯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실현되었을까.

『字鏡集』의 가나 음주 대부분은 운서에 실려 있는 反切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운서에 서 같은 小韻에 속하는 자에 모두 '똑같이 틀린 字音が 실린' 사례가 있는 것에서 추정할 수 있다(伊藤 2020⁶⁾). 예컨대 아래 그림의 경우 『字鏡集』은 '본래의' 반절인 丑凶切(일본 한자음으로는 チヨウ)이 아니라 '틀린' 반절(아마도 五凶切(クヰヨウ))에 의한 것으로 초성을 틀린 字音を 주석으로 달았다.



『字鏡集』의 편찬자는 운서에 의거하여 기계적으로 반절에서 가나 음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망라적인 가나 음주 표시를 실현했던 것이다. 즉, 『字鏡集』의 편자가 먼저 '운서를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은 '운서의 반절을 기초로 하여 가나 음주를 만들고, 그것을 표제자에 주석을 달기

5) 발표자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운목순 배열'은 뽑아내는 작업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파악한다(伊藤 2019).

6) 사전에 '만들어진' 字音が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有坂(1941)도 참조.

위해서'였다고 추정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생각하면, 『字鏡集』 편찬의 제1단계는 ‘운서에서 글자를 뽑아내어 표제로 삼고, 또한 운서의 반절에서 가나 음주를 만들어내어 표제자에 주석하는’ 것이었다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字鏡集』은 ‘표제자에, 운서를 그 기반으로 지나는 가나 음주를 주석하는 사전’을 목표로 하여 편찬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시점에서도 확인한다.

3.3. 『字鏡集』의 ‘韻書에서 유래하는 가나 음주’ 지향에 대하여

먼저, ‘제2군’, ‘제3군’에 대하여 확인해 둔다(본 절의 내용은 伊藤 2021에 의함). ‘제2군’, ‘제3군’과 ‘제1군’은 표제자의 전거가 다르다. ‘제2군’, ‘제3군’에 배치된 표제자는 기본적으로 운서에 실려 있는 자이며, 『大廣益會玉篇』이나 개편본 『類聚名義抄』에서 뽑아낸 것으로 생각된다(그것들 가운데 ‘반절을 지닌 것’은 ‘제2군’에, 그 이외는 ‘제3군’에 배치된다).

즉, ‘제1군’과 ‘제2군’, ‘제3군’의 차이는 먼저 ‘운서를 전거로 삼는 표제자 여부’이다. 그리고 ‘제1군’의 편찬이 첫째로 운서에 의존한 것은 ‘운서의 반절에 바탕한 가나 음주를 주석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제2군’, ‘제3군’은 ‘운서에 의해 가나 음주를 주석할 수 없었던’ 표제자의 집합이다.

이상, ‘제2군’, ‘제3군’의 성립 경위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제1군’ 표제자 중에는 『大廣益會玉篇』이나 개편본 『類聚名義抄』를 전거로 삼는, 즉 ‘본래라면’ ‘제2군’, ‘제3군’에 배치될 법한 글자 = ‘운서에 의해 가나 음주를 주석할 수 없을 법한 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러한 표제자는 약 1,900례 존재한다고 발표자는 보고 있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는 아니다).

실은, 『字鏡集』 편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 어떤 ‘운서에 존재하지 않지만 『大廣益會玉篇』이나 『類聚名義抄』에는 존재하는’ A자에 대하여, 『字鏡集』이 그것을 표제자로 삼으려 할 때, 다음의 작업을 행한다.

A자의 이체자(=B자)가 『字鏡集』의 ‘제1군’에 존재하는 경우, B자의 주석문을 A자에 복사한 다음, A자를 ‘제1군’의 표제로 삼는다.

이 작업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A자는 ‘제2군’ 또는 ‘제3군’의 표제로 삼는다.

주목되는 것은, 이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던 듯하다는 점이다.

· A자가 본래 지니고 있던 음주는, B자로부터 복사한 음주에 의해 덮어쓰여진다

이러한 사정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오른쪽의 사례이다.

【A자】	【B자】

【A자】에서 표제가 되는 ‘判’ 자는 운서(『廣韻』)에는 없고, 『類聚名義抄』가 그 전거로 생각된다.⁷⁾ 이 글자가 『類聚名義抄』에서 갖는 주석문은 ‘俗, 磳字, 盧骨反’이므로 가나 음주는 ‘ロツ’가 될 터이다. 그러나 『字鏡集』의 가나 음주는 ‘コツ’여서 본래 있어야 할 字音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B자】의 표제인 ‘磳’의 가나 음주를 복사하여 음주를 덮어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コツ’라는 음은 ‘磳’ 본래의 字音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廣韻』에서의 반절이 ‘勒沒切’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靳沒切’ 또는 ‘革沒切’로 틀린 것이 있었을 것이다(틀린 ‘コツ’는 『字鏡集』에서 ‘磳’와 같은 小韻에 속하는 표제자 모두에서 확인된다). 이 잘못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A자】가 【B자】로부터 字音을 복사하여 덮어쓰기했을 개연성은 높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위에 제시한 공정의 주 목적은 ‘운서를 전거로 하지 않는 글자에도 운서에서 유래하는 字音을 주석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또한, 운서 유래의 음주는 분명히 다른 전거의 음주보다도 중요시되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이미 기술해 온 것이지만, 『字鏡集』의 운서 이용은 ‘가나 음주’의 게재 지향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따라서 『字鏡集』은 가능한 한 많은 글자에 ‘운서에서 유래하는 가나 음주’를 주석하려고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4. 사전사·일본어사상의 자리매김 시도: 땃음말을 대신하여

앞 장에서는 『字鏡集』의 편찬 과정에 대해 보았다. 물론, 이것으로 편찬 과정의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나, 『字鏡集』의 사전 설계의 근저에 있는 사상(의 중요한 한 측면)은 밝혔다고 생각한다. 즉 『字鏡集』은 韻書라는 텍스트에 의거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한자음 정보를 전면적으로 가나 음주화하여 게재하는 한자사전을 목표로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본 (고)사전사의 흐름에 놓고 볼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字鏡集』이 ‘일본에서 韻書 수용의 존재 방식을 생각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字鏡集』이 ‘한자음의 전면적인 가나 음주화를 목표로 삼았’으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후자에 주목하여 그 일본어사 연구상의 의의를 생각한다.

한자음의 가나 음주화는 넓은 의미로는 ‘일본어로서의 한자음’을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치지어질 것이다.⁸⁾ 그러한 의미에서는, 한자의 의미(=독법, 한자를 어떠한 단어로 파악하는가)를 和訓(和語)로 나타내는 방법과 동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의 의미(독법)을 和訓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字鏡集』 이전에 이미 『類聚名義抄』 단계에서 실현되었다(『字鏡集』도 和訓의 주된 정보원으로서 『類聚名義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나 음주화’는 『字鏡集』 이전의 사전에서는 찾아내기 어렵다. 『類聚名義抄』도 한자음은 대부분이 反切·直音注로 제시되어 있다.

『字鏡集』은 ‘전면적인 가나 음주화’라는 설계를 시도한 사전의 극히 초기의 사례(이 설계는 현대 일본의 漢和辭典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字鏡集』이라는 사전의 연

7) 표제자나 이체자에 목필로 된 습點(글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기입된 직선 모양의 기호)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글자의 전거는 주로 『類聚名義抄』이다.

8) “넓은 의미로는”이라고 한 것은, ‘가나로 적은 한자음’이어도 ‘중국의 한자음 원음’을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의 일본 (고)사전사 연구, 나아가서는 일본어사 연구에서의 자리매김과 관련된다. ‘전면적인 가나 음주화’라는 설계의 목적이나 실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일본어에 있어서 한자 및 한자 운용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어떻게 변해 갔는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⁹⁾

【참고문헌】

- 有坂秀世(1941), 「「帽子」等の假名遣について」, 『文學』 9(7), 岩波書店 → 『国語音韻史の研究・増補新版』 所収, 262-282, 三省堂, 1957年.
- 伊藤智弘(2019), 「音情報の表示方法より見た「字鏡集」掲出字配列構造の改編とその意味付けについて」, 『訓点語と訓点資料』 143, 40-14, 訓点語学会.
- 伊藤智弘(2020), 「「字鏡集」の字音掲載方針について」, 『訓点語と訓点資料』 145, 62-40, 訓点語学会.
- 伊藤智弘(2021), 「合点を手がかりとする「字鏡集」の検討」, 『訓点語と訓点資料』 146, 162-135, 訓点語学会.
- 伊藤智弘(2022a), 「「字鏡集」所載「四声綱目」について」, 『語文』 118, 96-85, 大阪大学国語国文学会.
- 伊藤智弘(2022b), 「「字鏡集」における「和訓化」方針について」, 『訓点語と訓点資料』 149, 130-105, 訓点語学会.
- 乾善彦(1995), 「十六・字鏡集」, 西崎亨編, 『日本古辞書を学ぶ人のために』 第三章 「主要辞書各説」, 295-297, 世界思想社.
- 江口泰生(1995), 「鎌倉時代の辞書」, 『古辞書を学ぶ人のために』, 西崎亨編, 世界思想社.
- 草川昇(2000), 『五本対照類聚名義抄和訓集成』, 汲古書院.
- 貞効伊徳(1967), 「注文から見た字鏡鈔・字鏡集の考察」, 山田忠雄編, 『本邦辞書史論叢』, 127-190, 三省堂.
- 中田祝夫(1982), 「天文本「字鏡鈔」影印刊行にあたって」, 中田祝夫・林義雄編, 『字鏡鈔天文本』 影印編, 勉誠社.
- 中野直樹(2018), 「天文本『字鏡鈔』乙部の本文について - 合点が付された本文をめぐって - 」, 『訓点語と訓点資料』 140, 22-37, 訓点語学会.
- 山田健三(2021), 「辞書生活史と言語史 : 改編本系類聚名義抄異本比較から」, 『訓点語と訓点資料』 144, 151-130, 訓点語学会.
- 山田忠雄(1967), 「字鏡鈔と字鏡抄」, 山田忠雄編, 『本邦辞書史論叢』, 1-126, 三省堂.

9) 같은 취지의 지적이 山田(2021: 134)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는 『類聚名義抄』에서 『字鏡集』으로의 흐름, 즉 反切·直音注에 의한 한자음 표시에서 전면적 가나 음주 표시로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사전생활사 기술이 일본어와 한자어와의 거리 균형의 변화·변용의 실태 기술이라는, 일본어사로서 해명해야 하는 큰 테마에 중요한 시사를 줄 듯하다”라고 서술하였다.

【調査資料】

「天文本」：『字鏡鈔天文本影印編』，中田祝夫・林義男編，勉誠社(1982).

「永正本」：『字鏡抄』，原装影印版古辞書叢刊，雄松堂書店(1974).

『類聚名義抄』：『天理図書館善本叢書 類聚名義抄観智院本佛(・法・僧)』，八木書店(1976).

『広韻』：『校正宋本廣韻 附索引』，藝文印書館(1970).

개인 연구 발표

조선관역어의 ‘噴 [靑]’과 ‘則卜論 [寅]’에 대하여

전한솔(고려대)

1. 머리말

조선관역어는 제림유사와 더불어 정음 창제 이전에 외국인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몇 안 되는 한국어 어휘집이다. 비록 중국어의 음절구조 제약을 반영한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정음 창제 이전의 전사 자료, 그것도 어휘의 의미를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는 매우 높다.

조선관역어의 언어학적 연구는 해독과 음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관역어의 해독은 신태현(1940)과 小倉進平(1941 7, 1)에서 시작되었는데, 문선규(1972), 강신항(1995), 권인한(1998) 등을 거쳐 소수 난해어를 제외한 전 항목의 어석이 완성되었다. 조선관역어의 일부 어사를 해독한 연구로는 김철현(1963), 한상인(1997), 백두현(2002), 곽충구(2023) 등이 있는데, 이 중 곽충구(2023)은 난해어 해독뿐 아니라 /jʌ/와 /ji/의 재구 및 방언 분화를 다루며 음운사적 의의도 조명한 업적이다.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인 연구는 Ogura(1926)에서도 시도되었지만 전면적인 고찰은 이기문(1968)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뒤의 강신항(1995), 권인한(1998), 김지은(2016)에서도 조선관역어를 통한 훈민정음의 특이 문자의 음가 추정과 중세어의 음운 체계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독과 음운을 제외한 주제를 다룬 조선관역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어휘집이라는 자료적 특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기문(1968:75-76)의 지적대로 조선관역어의 수록어는 중세어와 대체로 일치하는 가운데 일부 독특한 어휘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음미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관역어의 해독어 중 ‘噴 [靑]’과 ‘則卜論 [寅]’을 고찰하고자 한다. ‘噴 [靑]’은 김철현(1963)에서 처음 해독이 이루어졌으나, 이 1음절어가 가지는 의미를 음미한 연구는 글쓴이의 과묵한 탓인지 찾아보기 어렵다. ‘則卜論 [寅]’은 백두현(2003)에서 해독이 끝났지만, 어째서 호랑이를 ‘범’이 아닌 ‘則卜論’으로 적었는지 만족스러운 만큼의 논의가 이루어지지지는 못했다.

조선관역어에 사용된 한어의 음가 재구와 한어 표기는 권인한(1998)에 의거했다. 이 글에서 논의할 ‘噴’과 ‘則卜論’을 제외한 조선관역어의 어휘를 인용할 때는 문선규(1972), 강신항(1995), 권인한(1998)의 해독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사용하였으며, 해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논증을 거쳐 해독을 확정하였다. 해독이 일치하는 어휘를 예시할 때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권인한(1998)의 해독만을 인용하였으며, 어휘의 일련번호 역시 권인한(1998)을 따랐다. 중세 한국어의 평성, 거성, 상성은 각각 L(low), H(high), R(rising)로 적었으며, 중세 한국어의 1음절 용언 성조 관련 용어와 기호(L!, H!, R!)는 유필재(2003)에 준하였다.

2. 噴 [靑]

2.1. ‘누르- [黃]’와 ‘프르- [靑]’의 어근

‘누르- [黃]’, ‘프르- [靑]’ ‘니르- [至]’는 현대어의 ‘러 불규칙 활용’으로 이어지는 특이한 활용을 한다. 이 세 용언은 자음이나 ‘ㄷ, 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누르고, 프르고, 니르고’처럼 ‘르’로 끝나지만, ‘ㄱ, ㅋ, ㆁ, ㅁ’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누르러, 프르러, 니르러’처럼 ‘ㄹ’을 삽입한다. ‘러 불규칙 활용’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었는데, 정경재(2015:217-218)에서는 이들을 (1)의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¹⁾

- (1) ㄱ. ‘누를-, 프를-’이 선대형이고 ‘누르-, 프르-’는 음운론적 이유로 발생한 것이다. (유창돈 1959, 이승녕 1960:18-19, 이기문 1962:146, 황선엽 1996:427-428)
- ㄴ. ‘누르-, 프르-’가 선대형이고 ‘ㄹ’은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 (이현희 1987, 장윤희 1999:238, 이동석 2005:55-56)
- ㄷ. ‘*눌-, *플-’이라는 제3의 어간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이현희 1985)

이 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은 (1ㄱ)이다. 그런데 정경재(2015:219-220)에서는 아래 (2)를 근거로 (1ㄴ) 또는 (1ㄷ)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다.

- (2) ㄱ. ‘프러누러ᄒ-, 프라블가ᄒ-’가 ‘緣縹, 紺’처럼 각 형용사의 중간색을 지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은 통사적 구성이 아닌 어휘화된 구성이었다.
- ㄴ. ‘누러ᄒ-, 퍼러ᄒ-’ 등은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 ‘ᄒ’를 완전히 탈락시키는데, ‘ᄒ-’가 완전히 탈락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이들 역시 어휘화된 구성이다.
- ㄷ. 복합어 내부에 고형이 유지되기 쉽다는 경향성을 고려하면, (2ㄱ)과 (2ㄴ)은 (1ㄴ) 또는 (1ㄷ)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서 (2ㄱ)은 ‘프러누러ᄒ-’가 ‘푸르고 누렇다’같이 각 구성 요소의 고유한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緣縹’라는 별개의 색을 가리키므로 어휘화된 구성일 것이라는 논증으로 이해된다. 정경재(2015)의 논증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2ㄱ)은 다른 근거로 대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緣은 프르고 누를씨오 (월석 25:20ㄱ)’에서 보듯 ‘프르-’와 ‘누르-’의 통사적 구성으로도 緣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2ㄱ) 대신 이현희(1985)에서 제시한 논증을 근거로 채택하여 정경재(2015)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한다. 이현희(1985:9-10)는 ‘프러ᄒ-’와 ‘누러ᄒ-’라는 어형에 주목하여, 이들이 ‘프르-’와 ‘누르-’에 ‘-어’가 결합하여 생겼다면 ‘*프러ᄒᄒ-’와 ‘*누러ᄒᄒ-’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어형은 중세어에서 보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플-’과 ‘*눌-’이라는 어간을 상

1) 이 글의 관심은 색채어에 있으므로 이제부터 ‘누르-, 프르-’를 중심으로 논하겠다.

정하여, ‘프리ㅎ-, 누리ㅎ-’는 ‘프르-’와 ‘누르-’가 아니라 ‘*플-’과 ‘*놀-’에서 직접 파생되었으며, ‘프르-’와 ‘누르-’ 역시 ‘*플-’과 ‘*놀-’에서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놀-’과 ‘*플-’을 설정하는 이현희(1985)의 주장은, ‘프르-’를 선대형으로 보면 설명상 부담이 적다는 논리적 이유로만 제안된 이동석(2005)의 견해나, 본격적인 논의는 베풀어지지 않은 장윤희(1999)의 제안보다 구체적인 근거 위에 놓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현희(1985)의 입장에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견해에 비판적인 연구에는 김주필(1995)이 있는데, 김주필(1995)의 지적은 (3)의 ‘파란, 퍼런, 누런’ 같은 예에서 시작한다.

(3) 靑衣는 파란 HL 옷 니른 각시내라 (월인석보 2:43ㄴ)

桂輪이 퍼런 HL 하늘해 ㅎ오사 불 ㄱ니 (원각경언해 서:29ㄴ)

鬱鬱 ㅎ 누런 HL 고지 般若 아니니 (선종영가집 상:116ㄴ)

전통적으로 이 형태는 ‘어간 + -아/어 + ㅎ-’의 구성에서 ‘ㅎ-’가 탈락한 결과로 설명되었으며, 이현희(1985)도 이에 따라 ‘*플-’과 ‘*놀-’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김주필(1995:13-17)에서는 아래 (4)를 이유로 (3)의 ‘파란, 퍼런, 누런’에 관한 전통적인 분석과 더불어 이현희(1985)가 설정한 ‘*플-’과 ‘*놀-’을 비판하였다.

(4) ㄱ. 전통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여 나온 ‘*팔-, *펼-, *놀-’ 등은 문증되지 않는다.

ㄴ. (3)의 색채어는 ‘프르-, 누르-’에서 모음 교체를 통해 파생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제2음절 모음까지 교체되어 ‘퍼러-, 누러-’가 도출되었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ㄷ. 부사형어미 ‘-아/어’ 뒤에 관형사형 어미 ‘-ㄴ-, -ㄹ-’이 붙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김주필 1995:13, 20)

ㄹ. 이현희(1985)에서 ‘펼-, 놀-’을 설정한 이유는 특수어간 교체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노란’의 어간을 ‘노ㄹ-’로 잡으면 ‘놀아’나 ‘놀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는 문증되지 않으므로 이현희(1985)에서 ‘*놀-’을 잡았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노ㄹ-’가 2음절에서 모음 교체를 했다고 보면 특수어간 교체를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3)을 ‘프ㄹ-, 프르-, 누르-’가 모음 교체한 어간 ‘파라-, 퍼러-, 누러-’의 용례로 간주한 뒤, ‘파라ㅎ-’를 어간 ‘파라-’에 ‘ㅎ-’가 결합한 형태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중 (4ㄹ)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를 깔고 있다. ‘노ㄹ-’가 ‘놀아’나 ‘놀라’를 이형태로 가지는 특수어간 교체를 해야 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이 전제는 두 명제로 쪼갤 수 있다. 즉 “‘노ㄹ-’는 특수어간 교체를 해야 한다”와 “그 특수어간 교체는 ‘놀아’나 ‘놀라’를 이형태로 가지는 교체이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명제는 귀납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명제는 그렇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 특수어간 교체에는 ‘노ㄹ-’처럼 ㄹ을 삽입시키

2) 이 명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김주필(1995)에 보이지 않으나, “‘노ㄹ-’와 ‘누르-’로 잡을 경우 (...) 특수어간 교체를 따르는 어형이 된다”(김주필 1995:16)는 언급으로부터 미루자면 중세어에서 ‘ㄹ-, ㄹ-’로 끝나는 2음절 어간은 귀납적으로 모두 특수어간 교체를 한다는 사실로부터 도출한 듯하다. 그런데 귀납적으로 도출된 이 전

는 부류, 즉 ‘러 불규칙 활용’도 존재하며, 이현희(1985:9)에서 문제 삼은 것도 ‘누러ㅎ-’와 ‘퍼러ㅎ-’에서 ‘러 불규칙 활용’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주필(1995)에는 ‘러 불규칙 활용’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김주필(1995)에서 이러한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김주필(1995)에서 ‘프르-, 누르-’와 ‘프를-, 누를-’을 별개의 형태로 간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주필(1995:9, 주석 1)은 ‘프를-, 누를-’이 “다른 계열의 색채 형용사에는 보이지 않아 색채 형용사의 체계성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 후, ‘프르-, 누르-’로부터 동일 계열의 다른 색채어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는 ‘프를-, 누를-’을 ‘프르-, 누르-’보다 고행으로 간주한 이현희(1985:9)의 전제와 상치된다. 이 전제에 따르면 ‘프르-, 누르-’는 ‘프를-, 누를-’로부터 특정 환경에서 파생된 이형태이므로, ‘프르-, 누르-’를 별개의 형태로 간주하여 ‘러 불규칙 활용’이 아닌 다른 특수어간 교체를 한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김주필(1995)의 논의가 이현희(1985)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하려면 ‘프를-, 누를-’이 선대형이라는 주장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주필(1995)에 보이지 않는다.

똑같은 비판은 (4ㄴ)에도 적용된다. 김주필(1995)에서는 ‘프를-, 누를-’을 선대형으로 보는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견해를 수용하면 모음 교체의 결과는 ‘퍼러-, 누러-’가 아닌 ‘퍼렐-, 누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된 김주필(1995)의 견해는 ‘퍼런, 누런’처럼 관형사형 어미 ‘-은, -을’와의 결합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퍼러ㅎ-, 누러ㅎ-’의 형성을 설명할 때는 곤란을 겪는다. 김주필(1995)에서는 이들이 ‘어근 + ㅎ-’으로 분석된다고 보았으므로 ‘퍼러ㅎ-’ 대신 ‘*퍼렐ㅎ-’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주필(1995)의 비판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퍼렐ㅎ-’ 같은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³⁾

또한 (4ㄷ)에 대해서는 이미 이현희(1985:12)에서 음운론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누러ㅎ-’에 ‘-은’이 결합할 때 ‘ㅎ’는 모음 사이에서 유성화하여 사라진 뒤, ‘.’마저 앞의 모음에 흡수되어 사라졌기에 ‘누런’과 같은 형태가 나타났다. 이 설명에 동원된 음운 변화는 모두 15세기 자료에 보이는 공식적 이형태나 교체 양상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으므로, (4ㄷ)은 강력한 반대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를 말미암아 김주필(1995)의 비판 중 (4ㄴ, ㄷ, 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4ㄱ)에서 언급한 ‘*놀-’과 ‘*펄-’의 부재, 나아가 ‘*플-’의 부재는 여전히 유효한 지적이다. 이들 1음절 용언이 문증되지 않는 한 ‘누러ㅎ-’와 ‘누르러’의 차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남아 있다.⁴⁾

제는 김주필(1995)의 주장에 모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4ㄹ)에서 설정한 ‘노랏-’는 특수어간 교체를 하는 어형이 된다고 가정할 동시에, ‘노라-’의 기원형으로 상정한 ‘노랏-’는 특수어간 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형태 ‘노랏-’를 가짐에도 전자는 특수어간 교체를 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은 모순이다. 김주필(1995)의 논의는 후자의 ‘노랏-’에는 모음교체형 ‘노라-’가 존재하므로 후자의 ‘노랏-’도 순정 모음으로 끝난다는 논증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그렇다면 전자의 ‘노랏-’가 후자의 ‘노랏-’와 달리 특수어간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근거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김주필(1995)에서 관련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3) 여기에 비통사적 합성어의 두 어근은 유의나 반의 등 의미상 연관성을 지닌다는 정승철(1996:741, 주석 4)의 비판도 참고된다. 이 비판을 수용하여 ‘어근 + -어 + ㅎ-’의 구성으로 본다면 ‘*퍼러러ㅎ-’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

4) 실제로 정인호(1999:65)에서는 두 형태에 결합한 ‘-어’가 기능이 다른 별개의 형태소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플-’과 ‘*눌-’의 용례가 없다는 점은 이현희(1985)의 논의가 가지는 약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현희(1985)의 ‘*눌-’과 ‘*플-’은 문증되는 어형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은가 한다. 먼저 ‘*눌-’에 대해서는 ‘눌- [焦]’을 대신 떠올릴 수 있다.⁵⁾ ‘눌-’의 의미는 중세어부터 ‘누런 빛이 나도록 조금 타다’이기는 하지만, 본래 ‘눌-’의 의미가 ‘누런 빛이 되다’였으며 의미 축소를 겪어 중세어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5)에서 보듯 형용사로 간주되는 ‘븨-’에는 동사적 용법 역시 확인되므로, 거꾸로 한글 문헌에서 동사적 용법만 보이는 ‘눌-’도 본디 형용사적 기능을 겸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5) 도닐 스라 븨거든 수레 녀허 마시라 (구급간이방 7:46ㄱ)

城人 𑖦 𑖦헛 모새는 蓮人 고지 븨고져 ㅎ눗다 (두시언해 10:18ㄴ)⁶⁾

‘눌-’은 ‘*눌-’과 어형도 다르지만, 이현희(1985)에서 ‘*눌-’을 추출한 근거가 된 ‘누르-, 누러 ㅎ-’는 ㄴ 뒤에 모음을 두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ㄷ 불규칙 용언의 말음이 모음 앞에서 ㄴ로 실현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현희(1985)에서 ‘*눌-’의 방증으로 제시한 현대어 ‘눌눌 하-, 눌눌하-’는 ‘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들은 20세기 후반에야 용례를 보여주므로⁷⁾ 후대에 ‘누르-, 노르-’로부터 발달한 어휘로 파악할 수 있다.⁸⁾

하지만 ‘*플-’에 대해서는 중세나 후대의 한글 문헌으로부터는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조선관역어의 ‘噴’이다. 靑을 의미하는 이 형태는 조선관역어에서 네 번 등장한다.

#83 靑山 噴磨 (폰 뎨)

#179 靑李 噴外亞吉 (폰 *외야지⁹⁾)

#223 靑馬 噴墨二 (폰 뎨)

#465 靑 噴必 (폰 뎨)

중세어에서 흔히 쓰이던 ‘프르-, 프르-’는 2음절이기에 ‘噴’가 탈자의 결과라고 의심할지 모르나, 같은 표기가 모든 전래 판본에서 ‘噴’으로 나타나므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태현(1940)과 小倉進平(1941ㄱ, 1941ㄴ)에서는 ‘프른’으로¹⁰⁾, 문선규(1972)에서는

5) ‘누르- [黃]’를 ‘눌-’과 연관지은 논의는 최범훈(1985)가 최초인 듯하다. 다만 최범훈(1985:89)에서는 ‘누르-’의 형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프르-’가 ‘플 [草] + ㅎ-’에서 ‘ㅎ-’가 zero화한 결과라는 논의(최범훈 1985:88)로 미루어 보아 ‘누르-’ 역시 ‘*눌 + ㅎ-’에서 유래했다고 본 것이 아닌가 한다.

6) 이영경(2003:280)에서 재인용.

7) 세종계획 말뭉치,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홍운표(2012)의 부록 CD에 있는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8) 이 어원설과 관련하여 고지명 ‘黃等也山’ (삼국사기 37:8ㄱ)은 시사적이다. ‘黃等’이 ‘*누든’이나 ‘*누들’처럼 ‘ㄷ>ㄹ’ 변화 이전 어형을 반영한 표기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를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也’의 정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고지명 ‘烏也山縣 [-云…烏禮山]’ (삼국사기 34:6ㄴ)으로부터 이표기 ‘也~禮’를 설정하고 ‘누를-’의 말음 ‘ㄹ’에 대응하는 표기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也’와 ‘禮’의 자형은 초서체로도 크게 달라 보여 주저된다.

9) 강신항(1995:61)에서는 ‘외야기’로 보았으나, 이와 유사한 현대 방언 어형이 발견되지 않으며(권인한 1998:113), #259 ‘吉賽直’ (디새집)처럼 한어의 /k/ 구개음화를 반영한 듯한 예도 있음을 고려하여 문선규(1972:150)와 권인한(1998)의 해독을 취한다.

‘푼’으로 음절 수가 맞지 않는 해독을 하였는데, 김철현(1963:156)에 이르러 《번역박통사》의 ‘푼류청 [柳綠]’을 근거로 噴을 1음절 ‘푼’으로 해독하게 되었다. 이 해독은 강신항(1995)와 권인한(1998)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初刊으로 推定된 朴通事諺解가 나타나 비로소 풀려진 語彙中の 하나다. “푼”과 柳靑의 “靑”이 겹쳐진 듯하다마는 그런대로 “푼”의 뜻을 지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철현 1963:156)¹¹⁾

이 글에서는 ‘噴’과 ‘푼류청’의 ‘푼’을 용언 *플- [靑]에 관형형 어미 ‘-은’이 결합한 형태로 볼 것을 제안한다.¹²⁾ 靑을 뜻하는 *플-이 존재했다면 모음 조화상 대립되는 형태인 *플-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噴’은 이현희(1985)의 추정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2.2. ‘누르- [黃]’와 ‘프르- [靑]’의 형성에 관한 가설

*플-이 존재했다는 이현희(1985)의 제안이 조선관역어의 ‘噴’로 뒷받침될 수 있다면, *플-과 ‘프르-~프를-’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파생되었는지도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떠오른다. 이 질문은 ‘러 불규칙 활용’ 용언의 형성 과정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다른 정경재(2015)의 논의를 검토하며 시작하겠다.

정경재(2015:218)에서는 ‘러 불규칙 활용’의 형성 동인에 관한 가설은 다음 두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보았다.

- (6) ㄱ. 선대형을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ㄴ. 선대형에서 후대형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정경재(2015:218-221)는 (1ㄴ)이나 (1ㄷ)은 (2)의 ‘누러ㅎ-, 프러ㅎ-’ 등 어간의 존재로 인해 (6ㄱ)에서 우위에 있으나, ‘누를-, 프를-’을 선대형으로 설정하는 (1ㄱ)은 (6ㄱ)에 효율적으로 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1ㄴ)과 (1ㄷ)의 타당성은 2.1의 (2)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글에서도 동의한다.

그러나 정경재(2015:218-219)에서 개진된, (1ㄱ)에 대한 비판 중 일부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기문(1962:146)에서는 ‘바를 LH’와 ‘니르- LH [至]’가 동일한 변화를 겪었다고 보았는데, 정경재(2015)는 두 어근은 각기 체언과 용언으로서 이후의 변화 양상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을 들어, 동일 기원형으로부터 동일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10) 小倉進平(1941ㄱ,ㄴ)에서는 해독안을 로마자로 표기했으나, 이 글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한글로 바꾸었다. 앞으로 小倉進平(1941ㄱ,ㄴ)의 해독안은 모두 한글로 옮겨 적는다.

11) 현재 흔히 구할 수 있는 김철현(1963)의 pdf 파일은 해당 페이지가 손상되어 이 항목의 절반 가까이 읽을 수 없기에 전문을 인용해 둔다.

12) 강신항(1995:43)에는 ‘푼’의 관형격 ‘푼’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언급이 보이나, ‘ㄹ’나 ‘ㄴ’이 탈락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통사 범주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은 지당한 것이다. 하지만 음운론적 환경이 같으므로 동일한 변화를 겪었으리라는 이기문(1962)의 가정도 충분히 합당해 보인다. 또한 통사 범주에 따른 후대의 변화 양상 차이로는 선대형의 일치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것 같다. 어말 자음군 ‘리’를 예로 살펴보자. ‘리’는 현대 여러 방언에서 체언과 용언에 따라 다르게 변천하여, ‘들’은 ‘닥, 달, 닥’ 등으로 완전히 재구조화한 경우가 많은 반면 ‘굶-’은 본래의 자음군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닥’과 ‘굶-’은 후대 변화 양상이 다르지만, 이들이 기원적으로 다른 말음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바를’과 ‘니르-’도 후대 변화 양상이 다르지만 동일 기원형을 가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LH 성조를 가지는 2음절 용언 중 ‘ㄴ 정칙 활용 용언’과 ‘ㄹ 불규칙 활용 용언’의 상보적 분포도 ‘바를’과 ‘니르-’이 동일한 음성 환경에서 동일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ㄹ 불규칙 활용’의 제2음절은 항상 두음으로 ‘ㄴ’을 가지지만, ‘범글-, 후늘-, ...’과 같은 ‘ㄴ 정칙 활용 용언’은 출현 빈도가 낮은 몇 유기음을 제외하면 제2음절 두음으로 ‘ㄴ’만 지니지 못한다.¹³⁾ 이와 같은 정황을 더불어 고려하면 ‘프를-, 누를-’을 선대형으로 설정하는 입장도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누를-, 프를-’을 선대형으로 보는 (1ㄱ)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두 선대형을 상정하는 모순된 입장으로 비칠지 모른다. 그러나 (1ㄱ)이 (1ㄴ)이나 (1ㄷ)과 공존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아래 (7)과 같은 변화를 상정하여 (1ㄱ)을 나머지 가설과 양립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 (7) ㄱ. *플- > 프를- > 프르-
 ㄴ. *플- > 프르- > 프를-
 ㄷ. *플- > 프르-, 프를-
 ㄹ. 프르- > 프를- > *플-
 ㅁ. 프르- > *플- > 프를-
 ㅂ. 프르- > *플-, 프를-

이 글에서 제안하려는 ‘프르-’의 형성과정은 (7ㄱ)이다.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갖출 수 없었으나, 소극적인 증거와 적극적인 정황은 제시할 수 있다.

소극적인 증거는 (7)의 나머지 경우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7ㄴ)과 (7ㄷ)은 ‘*플-’에서 ‘ㄴ’이 덧날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문제가 된다. ‘머를- > 머무르-’를 예거하여 유추에 의한 재구조화가 일어났다는 설명도 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예는 ‘머를우-’같은 사동사에서 재구조화되었음이 장윤희(2002:70-75)에서 논의된 바 있다.

반면 (7ㄹ-ㅂ)은 언뜻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프르- > *플-’같은 약모음 탈락은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누르-’를 생각했을 때 큰 곤란에 봉착한다. ‘누르-~누를-’과 ‘눌-’이 유관하다고 여기는 이 글의 입장에서 (7ㄹ-ㅂ)의 변화는 상정하기

13) ㄱ부터 각각 ‘범글-, 후늘-, 시들-, 버들-, 더들-, 이불-, 거슬-, *그슬-, 병을-, 지줄-, 거출-, 머출-’을 들 수 있다.

어려운데, ‘누르-’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정칙 용언이 ㄷ 불규칙 용언으로 변하는 현상은 매우 희귀하기 때문이다 (김현 2006:165). 이렇듯 (7ㄱ)을 제외한 다른 시나리오를 따라가면 음운론적 난관을 마주하게 된다.

적극적인 정황은 (7ㄱ)의 각 단계에서 설정된 변화를 한글 자료에서 활발하게 발견되는 변화나 파생과 연관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프를- > 프르-’와 같은 변화는 이승녕(1960)에서 음운론적 설명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플- > 프를-’에 대해서는 접미사 ‘-을-’에 의한 파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접미사 ‘-을-’은 이현희(1987), 장윤희(1999), 박진호(2000:212-213), 신중진(2012, 2015) 등 여러 선행 연구에서 거론되었고, ‘홀-’과 ‘호트러지-’와 같은 ‘어근 + -아/어 + 지-’ 구성을 가진 어휘가 상당수 산견되므로 그 존재 자체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7ㄱ)이 다른 가설 대비 강한 근거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설명의 가장 큰 단점은 접미사 ‘-을-’의 기능을 알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을-’에 의한 파생으로 볼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이현희(1987:140)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장윤희(1999)에서는 의미가 없는 공형태로 처리하였고, 박진호(2000)에서도 ‘형상 내지 차원과 관련된 의미를 갖는 동사에 결합되는 듯하다’고 하여 분포만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의 김미경(2020)에 기대어 해결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미경(2020:226-247)에서는 접미사 ‘-을-’이 [상태] 또는 [변성]의 술어를 [속성] 술어로 바꾼다고 주장하였다¹⁴⁾. 김미경(2020)의 논의를 수용한다면 ‘눈-’과 ‘누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눈-’과 ‘누를-’은 각각 [변성]과 [속성]의 의미를 가지므로 김미경(2020)에서 제시한 ‘-을-’의 기능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비록 ‘*플-’은 [상태]나 [변성]의 술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색채어인 ‘붉-’에 (5)처럼 [상태]와 [변성]의 의미로 쓰인 예가 있음을 감안하면 ‘*플-’에 [변성]의 의미가 있었다는 가정도 무리하지는 않은 것 같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의미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김미경(2020)의 논의를 곧장 채택하기는 조심스럽다. 김미경(2020)에서 제시한 논거가 ‘-을-’의 기능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미경(2020:231)에서 스스로 밝혔듯 ‘-을-’ 파생 어근은 자료의 해석만으로는 의미 자질이 [속성]인지 [상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자료로부터 ‘-을-’의 기능을 직접 도출할 수 없다는 어려움 때문에 김미경(2020)에서는 파생 패러다임의 차이를 근거로 이용하였다. 김미경

14) ‘[상태], [변성], [속성]’은 김미경(2020:46-54)에 정의된 용어이다. 김미경(2020)은 논항을 하나만 취하는 술어의 의미 유형으로 [속성], [상태], [동작]을 도입하고, [동작]을 [변성], [행위]의 둘로 세분하였다. 이 중 [속성]과 [상태]는 [동작]과 달리 사태의 구성 요소에 변화 요소가 없는 사태를 가리키는데, 그 중 [속성]은 시작과 끝이 없이 논항에 항상 지속되는 사태를, [상태]는 시작 또는 끝(혹은 둘 다) 있는 사태를 뜻한다. [변성]과 [행위]는 논항이 사태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킬 능력의 유무로 구분되는데, [변성]은 그 능력이 없는 사태를 의미한다.

15) ‘*플-’에 [변성]의 의미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향약구급방》에 보이는 ‘水靑木’을 달리 해독할 여지가 생긴다. 남풍현(1981:122)와 이은규(1993:135)은 이를 모두 ‘물프레나모’ 정도로 읽었는데, 아무리 차자표기가 조잡하다고는 하나 ‘레’라는 음절 하나를 통째로 탈락시키는 표기는 이례적으로 생각된다. 남풍현(1981)과 이은규(1993)의 해독에 비추었을 때 《향약구급방》에서 한 음절을 탈락시킨 표기가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靑’을 [변성]의 의미로 쓰인 ‘*플-’에 이두에서 흔히 생략시키는 관형격 어미 ‘-을-’이나 ‘-은-’의 접속으로 보아 ‘*물플나모’나 ‘*물폰나모’로 읽는 것은 어떨까 한다. 이 독법을 따른다면 ‘水靑木’의 의미는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가 된다.

(2020:229-231)은 ‘-을-’ 파생 어근은 ‘-ㅎ-’와의 결합을 허용하며 중첩형 단독으로 부사로 사용되지만 원래 어근은 그렇지 않음을 지적하며, 부사는 명사와 성질이 비슷하며 [속성]은 범언어적으로 명사로 부호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글쓴이의 검토로는 이 밖의 논거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을-’의 기능은 유형론적 증거로만 뒷받침된 것으로 이해된다. 유형론적 근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언어가 항상 유형론적으로 혼한 모습만 따르는 것은 아닌 만큼 김미경(2020)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내적 근거가 보충될 필요가 있다.¹⁶⁾

‘누르-~눌르- [壓]’의 존재 역시 ‘누르- [黃] > 누르-’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특수 어간 교체로부터 내적 재구를 수행한 이기문(1962)의 논의를 따르면 ‘누르-~눌- [壓]’의 선대형은 ‘*누르- LH’로 재구된다. 이는 ‘*누르- LH [黃]’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는데, 어쩌서 형태가 같은 어간이 15세기에 이르러 다른 활용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¹⁷⁾

마지막으로 ‘프르-’와 ‘폴-’의 성조 차이 역시 ‘폴-’에서 ‘프르-’가 파생되었다고 보는 데에 난관으로 다가온다. ‘폴- [靑]’은 방점이 찍힌 문헌에서는 ‘프류청’으로만 세 번 등장한다. 여기서 ‘프’는 모두 거성으로 나타나므로, ‘폴-’의 성조는 H였다고 보아야 한다.

프류청 HRH (번역노걸대 하:50ㄱ)

프류청 HLH (번역박통사 상:26ㄴ, 29ㄱ)

하지만 ‘프르-’와 ‘프르-’는 모두 성조가 LH이므로 문제가 된다.¹⁸⁾ ‘프르-’가 ‘폴- H’에서 파생되었다면 H로 시작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둘의 성조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해명될 때 (7ㄱ)의 ‘*폴- → 프르-’의 파생 역시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성조의 괴리가 발생할 까닭을 설명할 방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¹⁹⁾

16) 한편 김미경(2020)의 ‘-을-’ 관련 논의에는 음운론적 견지에서 우려스러운 논증이 보인다. 특히 논의 후반부(주로 4.5.3)에는 자음교체와 모음교체의 개념이 많이 동원되는데, 김미경(2020)에서 설정한 자음 교체 중 몇몇은 일어날 동기가 부족하지 않나 한다. 한 예를 지적하자면, 김미경(2020:243-244)에서는 ‘으골-’에서 역파생된 ‘*유-’으로부터 ‘으깨-’가 파생되었으며 그 자음 교체형으로 방언형 ‘능깨-, 능께-, 닝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으깨-’의 자음 교체형으로 볼 경우 어두에 ‘ㄴ’이 나타남(또는 사라짐)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기실 ‘능깨-, 능께-, 닝끼-’는 ‘확’ 속에 있는 곡식에 물을 뿌리며 찢어서 껍질을 벗기다’는 의미를 가지는 함북 방언 ‘누무-~눌-’ (곽중구 2019), 표준어 ‘능구-’와 동어원으로 파악된다.

17) ‘*누르- [壓]’으로부터 ‘누르-~눌르-’의 특수 어간 교체가 형성된 이후 ‘눌- + -을-’의 파생이 이루어졌다는 설명도 가능할 듯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지지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김성규(1998:37, 주석 35)에서는 어휘확산 이론을 적용해 ‘*누르러 > 눌러 [壓]’와 같은 변화가 ‘누르- [黃]’에는 적용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8) ‘파라ㅎ- HLH!, 퍼러ㅎ- HLH!’의 ‘파, 퍼’가 거성이라는 사실은 이 괴리를 해소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벌거ㅎ- HLH!/RLH!, 노라ㅎ- HHH!, 하야ㅎ- HLH!, 거머ㅎ- LLH!/HHH!’에서 보듯 ‘ㅎ-’가 결합한 색채어에서 어근은 본래 색채어와 무관하게 거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붉- L, 눌- R!, 흰- H, 검- R!). ‘ㅎ-’가 결합한 색채어에서 거성으로 시작하는 예가 많은 까닭을 현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19) 글쓴이는 ‘프르-, 프르-’이 HX>LH의 성조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直’과 ‘딕ㅎ- LH!’ 그리고 ‘서늘ㅎ- HHH!’와 ‘서느럽- LHX’처럼 어근을 공유하면서도 성조가 다른 예가 없지 않거니와, 이문규(2018)의 지적처럼 중세어 공식적 혹은 통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성조 변화는 대부분 평성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글쓰이로서는 이 변화가 일어날 조건이나 원인을 짚어낼 수 없기에 가설을 제안하는 데에 그치고자 한다. ‘-을-’이 사동 접미사처럼 선행 음절을 평성으로 바꾸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을-’이 접속했다고 판단되는 1음절 거성 어간이 ‘*폴-’ 이외에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3. 則卜論 [寅]

조선관역어의 ‘則卜論答 (#552)’은 조선관역어의 난해어로 꼽히는 어휘 중 하나였다. 문선규(1972:327), 강신항(1995:135), 권인한(1998:189) 등 많은 선행 연구에서 ‘則卜論’을 불명으로 처리한 사실이 ‘則卜論’ 해독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신태현(1940:304)에서는 ‘칙범들’, 小倉進平(1941:73) ‘츄범들’으로 읽었으나 이는 ‘卜’과 ‘論’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磨一 (#57, 피)’와 ‘磨墨立 (#87, 피 머리)’에서 보듯 조선관역어에서 같은 어휘는 같은 한자로 표기되는 경향이 있다. 조선관역어에서 ‘범’은 ‘半門 (#197)’으로 나타나므로 ‘則卜論’이 ‘츄범’을 적은 것이라면 ‘則半門’ 또는 ‘則半’ 정도의 표기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 해독은 ‘論’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강현규(1999)에서는 ‘*두부름’ 정도의 표기로 보았으나, 중세 한국어의 ㄷ이 중국어의 치 음에 대응되는 예는 조선관역어에 보이지 않는다(권인한 1995:203-208).

백두현(2002)에서는 《십구사략언해》의 여러 판본에서 보이는 ‘저울음, 저우름쫘 [寅月]’과 《본문운역이해방》의 ‘저우름날 [寅日]’ 등을 근거로 ‘則卜論’을 ‘*저브름’으로 해독하였다. 가히 ‘則卜論’의 해독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저브름’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사항이 남아 있는 듯하다. 백두현(2002:55)에서는 ‘*저브름’을 ‘호랑이’를 뜻하는 고유어로 추정하였는데, 이 단어를 고유어로 본다면 음운론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존재가 된다. 이 단어는 3음절이면서 폐음절로 끝나는데, 중세 한국어에서 3음절 이상인 단어는 많지 않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말 큰사전》에서 중세 문헌에서 나타나는 어휘를 전수 조사한 결과로는, ‘눈비엿~눈비엿, 이스랏, 자개얌, 즈칙욘’ 외에 복합어로 볼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어휘를 찾지 못하였다.²⁰⁾ 폐음절로 끝난다는 점은 동물 명칭으로서도 특이한데, ‘굴며기, 다와기, 뫓구리, 비두리, 툇기’ 등에서 보듯 다음절 동물 어휘는 대부분 ‘ㅣ’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백두현(2002:55, 주석 23)에서도 호랑이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어휘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정확한 유래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한상인(1997)의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상인(1997)은 백두현(2002)과 똑같은 예를 근거로 5년 앞서 ‘則卜論’을 ‘*저브름’으로 해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언급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 같다.²¹⁾ 한상인(1997)에서는 ‘*저브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史記》天官書에 실린 ‘攝提’의 설명에 주목하였다.

大角者、天王帝廷。其兩旁各有三星、鼎足句之、曰攝提。攝提者、直斗杓所指、以建時節、故曰攝提格²²⁾

20) 단 한 개의 어근이라도 중세 혹은 이후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복합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처리하였다. 그래서 ‘가리만 HHH [蠲] (훈몽자회 예산본 상:10ㄴ)’의 경우 ‘*가리’도 ‘*만’도 중세어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맛²⁾’을 근거로 이 목록에 넣지 않았다.

21) 이 논저본 아니라 동 저자가 발표한 일련의 어원 연구에는 어근에 관한 탁월한 통찰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도 지금껏 주목을 잘 받지 못한 것 같다. 예컨대 이기문(1997)에서 ‘민며느리, 민사회, 민빈’ 등으로부터 재구한 ‘*밀- [豫]’을 한상인(1995:7)에서 똑같은 근거로부터 2년 일찍 찾아내어 발표하였으나, 이기문(1997)은 물론 그 이후의 논저에서도 한상인(1995)이 인용된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22) 표점은 《중국철학서전자화계획》(ctext.org)을 따랐다.

한상인(1997:153)에서는 이 설명의 ‘其兩旁各有三星、鼎足句之、曰攝提’을 ‘그 양편에 각각 세 별이 정족(鼎足)하여 이를 끌어당기고 있어 섭제(攝提)라 한다’고 해석한 후 ‘섭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끌어당기기[句] 때문이라 하여, ‘저오름’을 ‘끌어당기다’의 의미를 갖는 ‘*저불-’에 명사형성 접미사 ‘-음’이 붙은 것이라 보았다.²³⁾

한상인(1997)에서 ‘저오름’²⁴⁾과 攝提를 연관지은 것은 타견이라 하겠다. 위 《史記》 예문에서도 보듯 古甲子에서 寅을 攝提格이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국이상국집》에서 甲午年을 闕逢敦艮年이라는 고갑자로, 《동문선》에 실린 金垆의 啓에도 寅年을 攝提格之紀年으로 적은 예가 발견되므로, 조선관역어가 집필되기 이전의 한국어 화자들이 寅의 고갑자 攝提格으로부터 寅의 번역어를 취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른 地支와 달리 寅만 고갑자 攝提格에서 번역어를 취한 데에는 호랑이에 대한 금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불-’의 의미를 ‘끌어당기다’로 볼 수 있을지는 미심함이 있다. ‘끌어당기다(句)’는 攝提의 연원을 설명할 때 나타난 단어인데, 攝提의 한자 자체에서는 알 수 없고 별도의 설명을 요할 만큼 알아채기 어려운 의미를 끌어와서 이름을 붙였을지 의문이 든다. 그보다는 攝提의 한자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의미가 ‘*저불-’의 의미였고, ‘저오름’은 攝提를 직역한 번역 차용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한다. 《향약구급방》에도 漆姑를 ‘柒矣於耳(*옷의어시)’로, 狼牙草를 ‘狼矣牙(*일히의엄)’로 번역한 차용어가 확인되므로(남풍현 1981:175-181) 번역 차용어의 존재를 상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저오름’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시기의 사람들은 攝와 提에서 어떤 의미를 가장 먼저 연상했을까. 이는 攝와 提의 한자 새김으로부터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 한자의 새김은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14) 攝 잡꺾 섭 (훈몽자회 예산본 하:13ㄴ)

攝 자꺾 섭 (광주천자문 14ㄱ)

攝 모도자꺾 섭 (신증유합 하:24ㄱ)

攝 자꺾 섭 (천자문 칠장사판 10ㄴ)

提 자꺾 데 (신증유합 하:47ㄱ)

提 자꺾 제 (유합 칠장사판 29ㄱ)

(14)에서 보듯 ‘攝’과 ‘提’의 새김은 모두 ‘잡- [執]’ 혹은 그와 연관된 어휘이다. 그렇다면 두 한자에서 ‘잡다’라는 의미를 먼저 연상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저불-’의 의미도 ‘손으로 잡다’로 추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한다. 그런데 提의 옛 새김은 ‘잡다’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향약구급방에는 獨走根의 향명으로 ‘勿叱隱提阿’가 보이는데, 남풍현(1981:63)에서 이를 향약집성방의 ‘勿兒隱冬乙乃’와 비교하며 提의 훈으로 ‘들-’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3세기

23) 글쓴이는 본디 ‘鼎足句之’의 句를 ‘구부러지다’로 풀고 한상인(1997)의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했으나, 허인영 선생님의 교시로 그 오판을 바로잡았다.

24) 백두현(2002)의 ‘*저브름’도 한상인(1997)의 ‘*저브름’도 아닌 후대형 ‘저오름’을 사용한 이유는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세한 이유는 후술한다.

‘提’의 새김은 ‘들-’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잡- [執]’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므로 이 글의 논지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저불-’의 의미를 ‘잡다’로 추정하면 ‘저울(<*저불) [秤]’²⁵⁾과 연계가 쉬워진다. 전통적인 저울로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막대를 잡아야 하므로, 저울에서 손으로 잡는 막대를 *저불-’에서 영변화 파생된 *저불’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秤을 뜻하는 단어로 굳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꼭 둘이 영변화 파생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어근을 공유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이 글에서는 ‘則卜論’이 ‘잡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저불-’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저오름’에 명사파생접미사 ‘-음’이 접속했는지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접속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말숨 > 말숨 (번역박통사 상:147)’에서 보듯 15-16세기 한국어에도 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가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전승 1999). 조선관역어의 표기 역시 결정적인 증거를 주지 못하는데, ‘故論 (#6 구름)’과 ‘呆論 (#121, 녀름)’에서 보듯 조선관역어의 論이 중세 한국어의 ‘름’과 ‘름’에 대응되는 경우가 둘 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 한국어에서 명사파생접미사 ‘-음’이 그리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접속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듯하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조선관역어에 보이는 ‘噴’과 ‘則卜論’이 가진 국어사적 의미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누르-, 프르-’는 ‘러 불규칙 활용’을 하지만 ‘프러ㅎ-, 누러ㅎ-’에서는 그런 활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이현희(1985)에서는 1음절 어간 *놀-, *플-’을 설정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조선관역어에 보이는 ‘噴’이 *플-’의 존재를 증언한다고 해석하여 이 추측의 뒷받침을 시도하였으며, ‘프를-’이 *플-’에 접사 ‘-을-’이 접속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프를-’을 기원형으로 두는 견해를 *플-’을 기원형으로 두는 견해와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則卜論’에 대해서는 고갑자 ‘攝提格’의 번역 차용어로 간주하고, ‘攝’과 ‘提’의 새김에 기반하여 *저불- [攝]’을 상정한 뒤 ‘저울 [秤]’과 관련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글의 ‘噴’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매듭짓지 못한 논의가 적지 않다. ‘프를-’이 *플-’과 ‘-을-’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을-’이 결합했다고 볼 강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누르- [壓]’와 ‘누르- [黃]’의 기원형을 결국 동일한 형태로 재구하면서도 둘의 활용이 다른 이유와, ‘플- [靑]’과 ‘폭르-’의 성조가 불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 문제를 해소할 방도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25) *저불’은 계림유사의 ‘秤日雌亨’를 바탕으로 재구한 어형이다.

26) 본디 글쓰이는 손으로 물건을 쥐면 무겁고 가벼움을 헤아릴 수 있다는 점이 *저불 [秤]’과 *저불- [攝]’의 의미론적 연관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했으나, 양재영 선생님의 제안을 따라 전통 저울의 사용법이 두 어간의 의미론적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참고문헌

- 강신항 (1995), 朝鮮館譯語 研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현규 (1999), 조선관역어의 '助蓋' (獅子), '則卜論答' (寅)에 대하여. 선철어문 27(1), 495-508.
- 곽충구 (2019),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태학사.
- 곽충구 (2023), 국어사 자료의 해독과 지역 방언 : 조선관역어의 난해어를 중심으로.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발표집, 7-26.
- 구본관 (1998), '푸르다'와 '파랗다'. 한국문화 22, 15-50.
- 권인한 (1998), 朝鮮館譯語의 音韻論的 研究. 태학사.
- 김미경 (2020), 하향이동 동사 '디다'의 문법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규 (1998), 중세국어 2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 유형. 국어학 32, 21-47.
- 김주필 (1995), 15세기 색채형용사의 분화형과 그 통시적 특성. 강신항 박사 정년퇴직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태학사, 7-27.
- 김지은 (2016), 華夷譯語의 寫音字 비교 연구 : 朝鮮館譯語의 음가 추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철현 (1963), 「朝鮮館譯語」 研究 : 中國語音韻論의 角度에서 解讀함. 국어국문학 26, 151-176.
- 김현 (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 남풍현 (1981), 借字表記法 研究 : 鄉藥救急方의 鄉名表記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선규 (1972), 朝鮮館譯語研究. 영인문화사.
- 박진호 (2000), '봄놀다'와 '봄괴다'에 대한 어원론적 형태 분석. 형태론 2(2), 209-214.
- 백두현 (2002), 《조선관역어》의 미해독어 '則卜論答'(寅時) 고찰. 국어학 40, 43-65. (백두현 2021, 349-369에 재수록).
- 백두현 (2021), 국어 음운사와 어휘사 연구. 역락.
- 송상조 (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신중진 (2012), 어휘 구성소 '-을/을-'과 그 화석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61, 167-198.
- 신중진 (2015), 어휘 구성소 '-을/을-'의 분포와 의미 양상. 진단학보 123, 173-193.
- 신태현 (1940), 華夷譯語 朝鮮古語略攷. 朝光 1940년 7월호, 292-305.
- 유창돈 (1959), 러 변칙 용언의 검토. 한글 124, 203-205.
- 유필재 (2003), 후기중세국어 용언 어간의 성조와 기저형 설정. 어학연구 39, 91-110.
- 이기문 (1957), 朝鮮館譯語의 編纂年代. 서울대 文理大學報 5(1), 10-18.
- 이기문 (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119-153.
- 이기문 (1968), 朝鮮館譯語의 綜合的 檢討. 서울대학교 논문집 14, 43-80.
- 이기문 (1997), 민며느리. 새국어생활 7(4), 205-213.
- 이동석 (2005), 국어 음운 현상의 공시성과 통시성. 한국문화사.
- 이문규 (2018), 국어 성조 체계의 '말(馬)'-형 선호 경향과 그 의의. 어문학 141, 25-50.
- 이승녕 (1960), 中期語의 異化作用의 高찰 : 特히 rVr>rV의 公式의 抽出을 中心으로 하여.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2, 1-27.
- 이승녕 (198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 이영경 (2003), 중세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에 관하여. 형태론 5(2), 273-295.
- 이은규 (1993), 『鄕藥救急方』의 國語學的 研究.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호, 최영선, 이수진, 선한빛 (2015), 15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 박이정.
- 이현희 (1985), 'ㅎ다' 語詞의 性格에 대하여 -누려ㅎ다類와 엇더ㅎ다類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2, 221-248.
- 이현희 (1987), 중세국어 '둔겁-'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133-150.
- 장윤희 (1999), 공형태 분석의 타당성 검토. 형태론 1(2), 227-244.
- 장윤희 (2002), 현대국어 '르-未音' 用言의 形態史. 어문연구 30(2), 61-83.
- 정경재 (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승철 (1996), 제주도 방언 'ㅎ'말음 용언 어간의 通時論. 李其文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738-753.
- 정연찬 (1976),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 일조각.
- 정인호 (1999), 전남방언 색채어의 형성과정. 한국문화 24, 61-79.
- 최범훈 (1985), 국어 색채어의 기원적 탐색. 仙巖李乙煥教授華甲紀念論文集.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전승 (1999), 국어 방언사에서 원순모음화 현상의 내적 발달과 개별 방언 어휘적 특징. 국어문학 34, 103-150.
- 한상인 (1995), 어원 연구 (2). 어문연구 27, 31-50.
- 한상인 (1997),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의 '즉복론(則卜論)'에 대하여. 한발한글 2, 143-155.
- 홍윤표 (2012), 국어 정보학. 태학사.
- 황선엽 (1996), 고려가요 난해구 몇 구절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1, 419-439.
- 小倉進平 (1941ㄱ), 「朝鮮館譯語」 語釋 上. 《東洋學報》 28(3), 35-95.
- 小倉進平 (1941ㄴ), 「朝鮮館譯語」 語釋 下. 《東洋學報》 28(4), 37-102.
- Ogura, Shinpei (1926). A Korean Vocabulary.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 4(1), 1-16.

〈조선관역어의 ‘噴[靑]’과 ‘則卜論[寅]’에 대하여〉의 토론문

신현규(성균관대학교)

전한솔 선생님의 〈조선관역어의 ‘噴[靑]’과 ‘則卜論[寅]’에 대하여〉는 『鷄林類事』와 더불어 물명(物名)과 관련된 연구의 기반이 되는 『朝鮮館譯語』의 해독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 과문하여 배우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든 몇 가지 의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 (1) ‘*눌-’과 ‘눌-[焦]’에 대한 설명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4쪽을 보면 ‘눌-’의 형용사적 기능은 문증되지 않고 다만 ‘븨-’의 경우로 미루어 추정한 상황이므로 ‘*눌-’과의 의미적인 연관성을 뒷받침하기에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의 하단에서 언급하였듯이 ‘눌-’과 ‘*눌-’의 어형이 다른 상황이므로 ‘눌-’의 활용형이 ‘*눌-’을 설정하는 전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2) 5페이지의 각주 8에서 ‘黃等也山’(『三國史記』 권37:8ㄱ)의 ‘也’가 ‘누를-’의 말음 ‘ㄹ’에 대응하는 표기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뒷받침으로 ‘烏也山縣 : 烏禮山’(『三國史記』 권34:6ㄴ)의 ‘也 : 禮’ 대응을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 ① ‘黃等’을 ‘ㄷ>ㄹ’ 변화의 이전 어형으로 본다는 기술을 고려하면 ‘*누들-’을 설정하고 그 말음을 ‘也’가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② ‘也’의 상고음을 鄭張尚芳(2003)에서 /*la:l?/, Baxter-Sagart(2014)에서 /*lAjl?/로 보므로 기층을 고려하면 ‘禮’와의 대응을 설명할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黃等也山’은 백제 지명, ‘烏也山縣’은 신라 지명인데 신라 지명의 차자에서 나타나는 대응을 백제 지명의 풀이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 (3) 본 연구에 소개된 ‘噴[靑]’에 대한 여러 논의는 기본적으로 ‘噴’이 관형어로서 후행 체언을 수식한다는 관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를 읽으면서 ‘噴[靑]’의 뜻이 접두사 ‘뫼-’과 닿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혹시 관형어나 접두사의 관점에서 ‘噴’을 보는 연구를 접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4) 한상인(1997)에서 ‘則卜論’을 ‘저오름’으로 접근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저불-’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① ‘잡다’가 ‘접다’로 활용되는 예가 잘 발견되지 않는데 ‘*자불-’이 아니라 ‘*저불-’로 추정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오름’과 ‘저울’에 상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잡-’과 동의인 ‘접-’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접-’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저오름’의 의미는 ‘攝’과 ‘提’와 새김으로 풀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撮’은 『新增類合』에서 새김이 ‘자블’이어서 앞의 두 자와 같으나 언해에서 ‘저봄’, ‘저뵈’에 대응하여 ‘*접-’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저봄」 世界 다옴 업스나 모도아 혼 저보미니라 : 世界無窮都一撮 (『南明集諺解』上:64)

「저뵈」 소곰 혼 저뵈과 : 鹽一撮 (『救急方諺解』上:32)

② 다음은 ‘어림하다, 짐작하다’를 뜻하는 「잡다」가 등장하는 예입니다.

「잡다」 쯔 物와 나왜 섯거 어즈러우를 자브샤 보미 物 아닌들 곶히시니라 : 又約物我雜辭辯見非物也 (『楞嚴經諺解』 2:38)

물론 저울이 물건을 쏘는 점에서 ‘잡다[執]’와 통하는 면도 있겠으나 ‘어림, 짐작’의 「잡다」와 저울을 연관시키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鷄林類事』의 ‘雌亨’은 ‘*잡-+-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則卜論’은 ‘*저블-’보다는 ‘어림, 짐작’의 뜻인 ‘잡-’과 관련된 ‘*접(접)-’을 추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의견이 궁금합니다.

도수희 선생님께서는 ‘중세 국어의 연구가 근거리의 고정된 표적에 활을 쏘는 것처럼 비교적 쉽다면, 고대 국어의 연구는 아득히 멀리서 움직이는 과녁에다 활을 당기는 만큼이나 적중하기가 어렵다.’라고 그 어려움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朝鮮館譯語』는 중세 국어와 고대 국어의 사이에서 특히 어려운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독에 이견이 있는 항을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졸견이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소설에 나타난 종결 어미 ‘-구나’ 계열 어미의 분포와 감정적 태도 양태에 대하여¹⁾

이정원(단국대)

1. 서언

이 연구는 20세기 초 신소설 자료 군에 나타난 ‘-구나’ 계열 종결 어미의 분포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비록 ‘-구나’가 가진 ‘감정적 태도 양태’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이것은 ‘-구나’ 계열 종결 어미가 신소설 자료 군에 나타난 분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신소설 자료 군에 나타난 ‘-구나’의 감정적 태도 양태에 대한 설명은 다시 그 분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가 신소설 자료군에 나타난 ‘-구나’ 계열 종결 어미의 분포를 기술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현대국어의 감탄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거의 검토하지 못하였다. 다만, 박진호(2009), 박재연(2014), 이윤복(2019), 이소훈(2019) 등의 논의만 검토하였다. 박진호(2009), 박재연(2014) 등이 ‘-구나’의 의미 기능에 대해 논의한 것 중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3장에서 언급하였을 뿐이다. 또 이소훈(2019)이 신소설 자료에 나타난 ‘-구나’에 대해 언급한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신소설 자료는 다음과 같다.²⁾

- (1) 귀의성(상)(1907), 애국부인전(1907), 계명성(1908), 귀의성(하)(1908), 금수회의록(1908), 빈상설(1908), 설중매(1908), 송뢰금(1908), 은세계(1908), 철세계(1908), 치악산(상)(1908), 혈의누(1908), 목단화(1911), 쌍옥적(1911), 원앙도(1911), 죽서루(1911), 홍도화(하)(1911), 화세계(1911), 고목화(1912), 광야(1912), 구의산(상)(1912), 구의산(하)(1912), 두견성(상)(1912), 두견성(하)(1912), 마상루(1912), 명월정(1912), 비행선(1912), 산천초목(1912), 옥호기연(1912), 완월루(1912), 자유종(1912), 재봉춘(1912), 추월색(1912), 추풍감수록(1912), 치악산(하)(1912), 행락도(1912), 현미경(1912), 홍도화(상)(1912), 화중화(1912), 황금탑(1912), 강상춘(1913), 금국화(상)(1913), 금의쟁성

1) 이 글의 2장과 3장의 3절 3항은 이정원이 기술한 것이고, 3장의 ‘1절, 2절, 3절(3항 제외), 4절’ 등은 2장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견식이 기술한 것이다. ‘-구나’에 대해 이견식이 기술한 내용의 오류를 이정원이 수정하고 더 나아가 ‘-구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토대를 이정원이 구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정원 단독의 발표로 진행하고자 한다.

2) ‘-구나’의 분포 자료를 얻은 것은 이 연구의 독자적인 연구 결과물만은 아니다. 복잡한 상황이 있어 현재 기여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없으나 기여자의 기본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구나’의 분포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다만 기여자의 자료 활용 동의를 얻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밀하게 오류를 수정하여 이 연구는 세상에 이름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여자의 자료 활용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연구를 진행한 것은 대학원생 이정원의 논문 작성 훈련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1913), 비파성(1913), 설중매화(1913), 세검정(1913), 연광정(1913), 요지경(1913), 우중행인(1913), 금국화(하)(1914), 안의성(1914), 월하가인(1914), 추천명월(1914), 공진회(1915), 금강문(1915), 모란병(1916), 구마점(1917), 화의혈(1918), 강상루(1919), 강명화전(1927)

이 연구의 2장에서 종결 어미 ‘-구나’가 신소설 자료 군에 나타난 분포를 기술하고 이러한 ‘-구나’의 분포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구나’가 가진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종결 어미 ‘-구나’의 분포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분포를 바탕으로 ‘-구나’가 가진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구나’의 분포와 의미 기능이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분포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1번만 수행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언급한 ‘-구나’의 분포와 의미 기능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종결 어미 ‘-구나’ 계열 어미의 분포

2.1 ‘-구나/-고나/-군/-곤’ 어미의 분포

신소설 자료에서 ‘-구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가. [강인] 이 애 너무 티단³구나 <화중화_030>

나. 더구나 그 머리가 두 집에 서로 밋고여 잇는 것이 이상³구나 <강상루_149>

다. 옥 갓흔 부인과 헌헌장부가 세를 지여 툇평양 바다 조슈 밀듯이 주작골 동구가 좁구나 ³고 뭉게뭉게 기여든니, <광야_037>

라. 괴이³한 자에게 편지를 쥐엿스니 답답³구나 <죽서루_714>

(2)에 제시된 ‘티단³구나, 이상³구나, 좁구나, 답답³구나’ 등은 모두 형용사이며 또 그 주어는 모두 3인칭이다. 그런데 (2가)의 주어 ‘이 애’는 ‘사람’이나 (2나)-(다)의 주어는 ‘것이, 동구가’는 모두 ‘사물’이다. (2라)의 경우 ‘답답³구나’의 주어가 ‘나’일 것처럼 보이나 ‘나의 마음’이 주어가 된다. ‘-구나’를 통해 ‘감탄’이 나타난 (2)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눠보면 (2가)는 긍정적 측면이고 (2나-라)는 부정적 측면이다. (2가)의 ‘티단³구나’는 ‘이 애’가 취한 어떠한 행동에 대해 화자가 ‘찬미’의 감정적 태도를 가진 것이다. (2나)의 ‘이상³구나’에서는 ‘그 머리’가 밋고여 잇는 것에 화자가 ‘비난’의 감정적 태도를 가진 것이다. (2다)의 ‘좁구나’의 경우 ‘좁다’의 의미가 긍정적인 상황에서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구’에 화자가 ‘비난’의 감정적 태도를 가진 것이다.³⁾ (2라)의 ‘답답³구나’는 괴이³한 자에게 편지를 주었다는 것에 화자가 ‘후회’의 감정적 태도를 가진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신소설 자료에서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만 찾을 수 있었고, 서술어는 ‘-

3) 좁은 소견./ 마음이 좁다./ 속이 그렇게 좁아서 어디다 써먹을래? 『표준국어대사전』 ‘좁다’의 예시

구나'가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만 찾을 수 있었다.

19세기 자료에 '-고나'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때 '-고나'는 '-구나'의 선대형으로 생각된다. 신소설 자료에서 '-고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3) 가. 너는 애만 죽도록 쓰고 헛닐 헛엿고나 <치악산(상)_143>

나. 세월이 잠간이다 네가 밉서 열일곱 살이 되엿고나 <송퇴금_019>

(4) 가. 예그 수득이가 네게는 스촌형이다마는 이번 일에 덕히셔는 그런 은인이 다시 업고나 <모란병_094>

나. 나의 고상은 쏜이 날 날이 업고나. <강명화전_067>

다. 얼굴에 오복이 그득헛고나 <비파성_024>

(3)은 주어가 '너'라는 사람이므로 2인칭이다. (3가)는 '-고나'가 타동사 '헛-'와 결합한 경우이고 (3나)는 '-고나'가 '되다'와 결합한 경우이다. (3가)는 화자가 '너'의 일이 중요한 일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알 수 없었는데 '헛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 드러난다. (3나)의 화자는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껴 '너'가 몇 살이 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가 열일곱 살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 드러난다.

(4)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이다. (4가)의 주어 '은인'은 사람이고, (4나)의 주어 '날'과 (4다)의 주어 '오복'은 사물이다. (4)의 '-고나'에 결합한 서술어는 모두 형용사이다. 앞에서 말한 '-구나'와 같이 '-고나'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 서술어에 형용사만 나타난다. (4)는 '-고나'에 의해 '감탄'이 나타나는데 (4가)와 (4다)는 긍정적 측면이고 (4나)는 부정적 측면이다. (4가)와 (4나)는 서술어가 '업고나'로 같은데 '감탄'의 감정적 태도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4가)의 '업고나'는 화자가 스촌형이 이번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 '축복'의 감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4나)의 '업고나'는 화자의 고생 때문에 '날'에 대한 '비난'의 감정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문장은 '은인'과 '고생'이라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통해 '업고나'의 태도성을 결정한 것이다. 즉, 같은 서술어 '업고나'를 사용하였음에도 다른 감정적 태도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감탄'의 태도 의미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4다)는 '그득헛고나'를 통해 화자가 청자의 얼굴에 '축복'의 감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신소설 자료에서 '-군'이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5) 가. [진] 그리셔 더 부처님이 무슨 지저귀를 쏘 헛엿군 <옥호기연_010>

나. 헛 스름이 썰썰 별순검들은 우스며 별순검들은 우리네보다 의사가 별다른군 <쌍옥적_100>

(6) 가. [점순] 예그 침모 마누라님도 여긔 와서 계시군 [침모] 너가 여긔 잇는 줄를 몰랐던가 <귀의성(상)_081>

나. [형] 여보 다행이 노형이 그 송장을 건졌스니 비에 실시고 가다가 정헌 쌍에 무더나
주오 [쌈] 아압다 그 량반 치마 폭이 열두 폭이나 되나 보군 <목단화_041>

(7) 예그 너가 너 셔름에 넘오 겨워서 밋쳐 싱각을 못 헛얏군 <현미경_021>

(5)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이고 (6)은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이며 (7)은 주어가 1인칭인 경우이다. (5가)의 주어는 ‘부처님’, (5나)의 주어는 ‘별순검들’, (6가)의 주어는 ‘침모 마누라님’으로 사람이다. (6나)는 [형]이 노형이 건진 송장을 [쌈]에게 물어 달라고 하는 부분이다. [쌈]은 그 얘기를 듣고 왜 자신이 그래야 하는 것인지 [형]에게 ‘오지랖 넓다’라고 얘기한 내용이다. 따라서 주어는 ‘노형’이 아니라 [형] 즉, ‘그 량반’으로 2인칭 ‘사람’이다. (7)의 주어는 ‘너’로 사람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신소설 자료에서는 ‘-군’과 호응해서 1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경우는 (7) 하나만 찾을 수 있었다.

(5가)는 ‘-군’이 타동사 ‘-하-’와 결합한 경우이고 (5나)는 ‘-군’과 형용사 ‘별다르다’가 결합한 경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군’을 ‘-구나’의 준말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군’은 앞선 ‘-구나’의 설명처럼 주어가 3인칭이면서 형용사와 결합한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해당 연구의 대상인 신소설에서는 주어가 3인칭이면서 동사와 ‘-군’이 결합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6가)는 ‘-군’이 자동사 ‘계시다’와 결합한 경우이고 (6나)는 ‘-군’이 타동사 ‘보다’와 결합한 경우이며 (7)은 ‘-군’이 타동사 ‘-하-’와 결합한 경우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신소설 자료에서 1인칭 주어가 사용된 경우는 해당 자료뿐이다.

신소설 자료에서 ‘-곤’이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가. 송도 과부들이 짝과부 혼다더니 더들이 모다 과부들이곤 <행락도_136>

나. 덕이네 올에는 토왕 중에 잘 췌이고- 빅로에도 그딴지 심흔 풍우가 업섯스니 벼의 알
이 잘 들쫓흔곤 <추천명월_043>

다. 올케다 올케다 인제야 알겜곤 <재봉춘_138>

(8가)와 (8나)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이고 (8다)는 주어가 1인칭인 경우이다. (8가)는 ‘과부들’로 주어가 사람이고 (8나)는 잘 드는 것이 ‘알’이므로 주어가 사물이며 (8다)는 내가 아는 것이므로 주어가 ‘나’로 사람이다. (8가)는 서술어가 계사 ‘이’에 ‘-곤’이 결합한 형태이다. (8나)는 자동사 ‘들듯하다’에 ‘-곤’이 결합한 형태이다. (8다)는 서술어가 타동사 ‘알다’에 ‘-곤’이 결합한 형태이다. (8)의 ‘감탄’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면 (8가)는 부정적 측면이고 (8나)와 (8다)는 긍정적 측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과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라는 뜻이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8가)의 ‘과부들이곤’에서는 ‘과부들’에 대한 화자의 ‘비난’의 감정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 과거 농경사회였으므로 ‘벼’가 굉장히 중요하였다. (8나)의 ‘들쫓흔곤’에서는 ‘토왕 중에 잘 췌이고- 빅로에도 그딴지 심흔 풍우가 업었다’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축복’의 감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8다)는 1인칭 주

어로 ‘내가 알겠다’는 것이 ‘축복’이나 ‘찬미’의 감정적 태도를 가지기에 사회언어적으로 어색함을 알 수 있다.

2.2 -엇구나/-앗구나/-엿구나/엿군/엿고나

‘-엇구나’와 ‘-앗구나’의 ‘-엇-’과 ‘-앗-’은 현대 국어 ‘-었-’의 옛말이다. ‘-엇-’과 ‘-앗-’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선어말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다. 신소설 자료에서 ‘-엇구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9) 가. 일껏 빙씨 꺾녀를 죽이라고 약을 타다가 죽엇더니 꺾녀는 안이 먹엇구나 <우중행인_062>

나. [장] 오나 나는 아모 병이 청승스럽게 업다마는 그동안 집안에 큰 변괴가 생기엇구나 <화세계_088>

(10) 에그 불상히라 네가 죽엇구나 <현미경_049>

(9가)와 (9나)는 주어가 3인칭이고 (10)은 주어가 2인칭이다. (9가)는 먹지 않은 대상이 ‘꺾녀’이므로 사람 주어이고, (9나)는 생긴 것이 ‘변괴’라 사물 주어이다. (9가)는 서술어가 타동사 ‘먹다’와 ‘-엇구나’가 결합한 형태이고 (9나)는 서술어가 자동사 ‘생기다’와 ‘-엇구나’가 결합한 형태이다. (10)은 서술어가 자동사 ‘죽다’와 ‘-엇구나’가 결합한 형태이다. (9)와 (10)의 ‘-엇구나’는 ‘간접적 수행’의 기능이 나타난다. (9가)의 ‘안이 먹엇구나’는 ‘먹었어야 했다’는 반사실에 대한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9나)의 ‘큰 변괴가 생기엇구나’는 ‘큰 변괴가 생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반사실에 대한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10) 역시 ‘죽엇구나’는 ‘죽지 않아야 했다’는 반사실에 대한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신소설 자료에서 ‘-엇구나’는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고 동사와 결합한 경우만 확인할 수 있다.

신소설 자료에서 ‘-앗구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 가. 우리 형님의 자식으로 너 갓흔 것이 싱겨날 줄은 몰랐구나 <현미경_122>

나. [로파] 네가 눈치가 업서서 그거슬 몰랐구나 <치악산(상)_142>

다. 네 모양까지 저리 된 줄은 춤 몰랐구나 <치악산(하)_092>

라. 에그…… 마님게서 그러케 너를 보닌 줄를 몰랐구나 <추천명월_086>

마. [금] 타문에는 가지 못헛겟사오니 다시는 말삼 마압소서 [윤] 나는 그런 줄은 몰랐구나 <원양도_091>

(11가)와 (11나)는 주어가 2인칭이고, (11다-마)는 주어가 1인칭이다. (11다-마)는 자기 자신이 ‘몰랐다’는 것이므로 ‘나’가 주어이다. 따라서 (11)은 주어가 ‘너, 나’로 모두 사람이다. (11)에

제시된 ‘몰랐구나’는 모두 타동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았구나’는 ‘-었구나’와 달리 1인칭 주어 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의 ‘감탄’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면 (11)은 모두 부정적 측면이다. (11)의 ‘몰랐구나’에서는 ‘너 갓흔 것’, ‘눈치가 없다’, ‘저리 된’, ‘에 그...’, ‘그런 줄’을 통해 맥락상 부정적인 의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탄’의 의미는 감탄의 ‘태도’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신소설 자료에서 ‘-었구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2) 가. 예그 불상히라 네가 죽었구나 진즉 엇의로 다리고 갓더면 죽지나 안이힛슬는지 <자유종_039>

나. [어] 네가 정말 환심장 되엿구노 <강상춘_045>

다. [부] 이 나무에 쏫 피엿슬 적이 엇그제 갓흔디 벌써 열미가 익었구나 <우중행인_013>

(13) 가. 예구머니 니가 독약을 먹었구나 <우중행인_042>

나. 이제야 란리 덕분에 더러한 어엽분 안히를 한아 엇었구나 <마상루_013>

(12가)와 (12나)는 주어가 2인칭이며 (12다)와 (12라)는 주어가 3인칭이다. (12가)와 (12나)의 주어는 ‘너’라는 사람이며 (12다)의 주어는 ‘열미’ 즉, 사물이다. (12가)는 서술어가 ‘-었구나’와 자동사 ‘죽다’와 결합한 형태이고 (12나)는 ‘-었구나’와 ‘되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12다)는 서술어가 ‘-었구나’와 자동사 ‘익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13)은 주어가 1인칭인 경우이다. (13가)의 주어는 ‘나’이고 (13나)의 주어는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아내를 얻은 것’이 ‘나’임을 알 수 있다. (13가)는 서술어가 타동사 ‘먹다’와 ‘-었구나’가 결합한 형태이고 (13나)는 타동사 ‘-얻다’와 ‘-었구나’가 결합한 형태이다. 1인칭 주어와 대응되는 서술어는 모두 타동사가 나타났음을 (13)을 통해 알 수 있다.

신소설 자료에서 ‘-었군’이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4) 가. [함] 집안에서 느만 쏭쏭 기이고 못힐 짓이 엇섯군 <구마점_031>

나. 시간이 안적 멀었는걸 공연히 일즉이 나왔군. <홍도화(상)_068>

다. 허어 그 집 일도 말이 못되얏군 <치악산(하)_033>

(14가)와 (14나)는 주어가 1인칭인 경우이고 (14다)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이다. (14가)는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 ‘나’이고 (14나)는 일찍 나온 사람이 ‘나’이므로 각각이 문장의 주어이다. (14다)는 말이 못되는 것이 ‘그 집 일’이므로 사물 주어이다. (14가)는 서술어가 ‘-었군’과 자동사 ‘없다’가 결합한 형태이고 (14나)는 ‘-었군’과 자동사 ‘나오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14다)는 ‘-었군’과 ‘못되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신소설 자료에서 주어가 1인칭과 3인칭인 경우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2인칭인 경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신소설 자료에서 ‘-엿고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5) 가. 그 막힌다 너는 동지섯들 긴긴 밤에 더러 궁리흐느라고 잠을 밋졌고나 <요지경_069>

나. 세월이 잠간이다 네가 밋서 열일곱 살이 되엿고나 <송뢰금_019>

다. 잔주접 다 써러 노흔 외손녀도 난리 중에 죽엿고나. <혈의누_027>

라. 응 기쫘이 집의 독갑이를 그리 그 보살이 쫘찾고나 <치악산(하)_009>

(16) 가. [현] 너가 지각이 어두워 그 몫을 놈들에게 속아서 너의 그 지경으로 고육 당흔것을 전연히 몰으고 묘하에 가 잇섯고나 <옥호기연_003>

나. 나는 너를 츠져간 줄로만 알앗고나 <고목화_049>

(15가)와 (15나)는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이고 (15다)와 (15라)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이다. (15다)는 죽은 대상이 ‘외손녀’이고 (15라)는 쫘은 것이 ‘보살’이므로 각각이 주어이다. (15가)는 서술어가 ‘-엿고나’와 타동사 ‘밋지다’가 결합한 형태이고 (15나)는 ‘-엿고나’와 ‘되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15다)는 서술어가 ‘-엿고나’와 자동사 ‘죽다’가 결합한 형태이고 (15라)는 ‘-엿고나’와 타동사 ‘쫘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16)은 주어가 1인칭인 경우이다. (16가)는 ‘너’가 주어일 것 같지만 가 있었던 대상이 ‘나’이므로 ‘나’가 주어이고 (16나)는 그런 줄 안 사람이 ‘나’이므로 ‘나’가 주어이다. (16가)는 서술어가 자동사 ‘잇다’와 ‘-엿고나’가 결합한 형태이고 (16나)는 타동사 ‘알다’와 ‘-엿고나’가 결합한 형태이다.

2.3 -엿더구나

신소설 자료에서 ‘-엿더구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7) 동장 영감이 셴류 츠리고 느를 청흐엿더구나 <안의성_023>

(17)은 ‘영감’이 3인칭 주어로 사람이다. (17)의 서술어는 ‘청흐다’라는 타동사와 ‘-엿더구나’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신소설 자료에서는 ‘-엿더구나’가 사용된 경우가 위의 경우뿐이다.

2.4 -엿겻구나

신소설 자료에서 ‘-엿겻구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8) 가. [부] 그러면 진은방에서 흐는 소리 너도 들었겠구나 <목단화_012>

나. [김] 그러면, 그 댁 은택을, 입었겠구나_대화 <만히홍도화(하)_104>

(18)에 제시된 ‘들었겠구나, 입었겠구나’는 모두 타동사이며 그 주어가 2인칭이다. (18가)의 주어는 ‘너’이고 (18나)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대화한다는 상황 제시를 통해 주어가 ‘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8)의 주어는 모두 사람이다. ‘-었겠구나’는 주어가 2인칭이고 서술어가 타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은 ‘-구나’가 추측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하여 ‘놀라움’의 의미만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는구나/-는군

‘-는구나’와 ‘-는군’의 ‘-는’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로 정의한다. ‘-는’은 현재 시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았-/ㄸ’, 회상시제 선어말어미 ‘-더/-던’과 함께 나타날 수 없다.

신소설 자료에서 ‘-는구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9) 가. 너는 형체가 싱겻다가 세상 구경도 못하고 북망손으로 가는구나 <귀의성(상)_039>

나. 이 익 인제는 네가 갈보집에만 다니는고나 <연광정_066>

다. 쑹쑹 알는 소리가 심심치 안일 만치 자조 나는구나. <광야_042>

라. 간밤에 부던 바람 쓸 압에 췌는 나무를 이리 흔들 더리 흔들 흔들흔들 말지 안터니
무수흔 락엽이 분분히 날아너리는구나 <화세계_001>

(19가)와 (19나)는 2인칭 주어가 나타난 경우이다. (19다)와 (19라)는 3인칭 주어가 나타난 경우이다. (19가)와 (19나)는 주어가 ‘너’로 사람이고 (19다)는 ‘소리’, (19라)는 ‘락엽’으로 사물 주어이다. (19가)는 ‘-는구나’가 타동사 ‘가다’에 결합한 경우이고 (19나)는 ‘-는구나’가 타동사 ‘다니다’에 결합한 경우이다. (19다)는 ‘-는구나’가 자동사 ‘나다’에 결합한 경우이고 (19라)는 ‘-는구나’가 자동사 ‘날아내리다’에 결합한 경우이다. 위의 예시를 통해 ‘-는구나’는 주어 자리에 2인칭과 3인칭이 사용될 수 있고 서술어는 동사와의 결합만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소설 자료에서 ‘-는군’이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 가. 여보 문 좀 열어주 .. 턱연무심으로 다리 췌고 잘 자는군 <고목화_014>

나. 제까지 년커녕 제 상전도 알 빗닥이 엮는딴 밋구멍이 다 웃는군 <빈상설_014>

다. 김가가 더리 야단법석할 것이, 무엇인고, 약 말고, 불로초를, 엮어다, 먹이면, 죽을 병 든 사람이 살아날 줄, 아는군 <홍도화(하)_103>

(20가)는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이고 (20나)와 (20다)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이다. (20가)는 자는 사람이 ‘남편’이고, (20나)는 ‘웃는군’에 대응하는 주어가 ‘밋구멍’이다. (20다)의 주어는 2인

칭일 것 같지만 사람이 살아날 줄 아는 것은 ‘짐가’이므로 주어가 3인칭이다. 따라서 (20가)와 (20다)의 주어는 사람이고 (20나)의 주어는 사물이다. (20가)는 타동사 ‘자다’와 결합된 경우이고 (20나)는 자동사 ‘웃다’와 (20다)는 타동사 ‘알다’와 결합된 경우이다. ‘-는군’은 ‘-는구나’의 축약어이므로 ‘-는구나’와 같이 서술어에 동사 결합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6 S 구나

‘S 구나’는 문장(Sentence)에 ‘-구나’가 합쳐진 형태를 말한다. 문장 안에 서술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나’는 보조용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보조용언은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나뉘는데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신소설 자료에서 ‘-구나’는 ‘보다’와 결합하여 보조형용사로 나타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1) ((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은가/는가/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열차가 도착했나 보다.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가 보다.

‘S 구나’를 설명하기에 앞서 (21)의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해당 문장의 주체는 바로 ‘화자’이다. 즉, 화자가 ‘추측’하거나 ‘인식’한다는 것은 화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S 구나’는 화자의 ‘판단’을 통해 ‘감탄’의 의미를 가지는 ‘-구나’와 화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보다’가 결합하여 보조형용사 형태로 나타난다.

신소설 자료에서 ‘S_구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22) 가. 도적이 제 발이 저리단 심으로 네가 옥희에게 통기를 했었나 보구나 <설중매화_034>

나. [로부] 가 보렴으나 너의 아버지의 신세들 못 니저서 그리는 것인가 보구나 <두견성(상)_061>

다. [부인] 그러면 우리들 헛된 일이 다 드러나나 보구나 <귀의성(하)_071>

라. 식문밖 하인이 들어왔나 보구나 <목단화_043>

(22가)와 (22나)의 주어는 2인칭이고 (22다)와 (22라)의 주어는 3인칭이다. (22가)의 주어는 ‘너’이고 (22나)는 주어가 ‘아버지의 신세’가 아닌 그 신세를 잊지 못하는 ‘너’이다. (22다)의 주어는 사람이라고 착가할 수 있으나 ‘드러나나’라는 서술어를 통해 ‘일’이 주어임을 알 수 있다. (22라)의 주어는 ‘들어왔나’에 대응하는 ‘하인’이다. 따라서 (22가), (22나), (22라)는 사람 주어이고 (22다)는 사물 주어이다. (22가)는 타동사 ‘했-’가 ‘-나 보구나’와 결합한 형태이고 (22나)는 제사 ‘이’와 ‘-은/는가 보구나’가 결합한 형태이다. (22다)는 자동사 ‘드러나다’와 ‘-나 보구나’가 결합한 형태이고 (22라)는 자동사 ‘들어오다’와 ‘-나 보구나’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신소설 자료에서는 2인칭 사람 주어일 때 타동사, 계사와 결합하고 3인칭 사람·사물 주어일 때 자동사와 결합하며 1인칭 주어일 때는 ‘S_구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7 S (하)더군

신소설 자료에서 ‘S (하)엿고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23) 이 익 남순야 담비덕에 담비나 한 덕 담어 저 보살을 대접ᄃᆞ여라.. 오오 술도 춤 안이 먹는다드군 <치악산(하)_010>

(23)은 3인칭 주어가 나타난다. ‘불도를 닦는다’는 특수한 이유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보살’이 사람 주어로 나타나는 문장이다. (23)은 서술어가 ‘먹는다’와 ‘(하)더군’이 결합한 형태이다. 이 연구의 자료가 된 신소설에서 ‘S (하)더군’이 나타난 경우는 해당 경우가 유일하다.

2.8 S (하)엿고나

‘S (하)엿고나’는 수행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행문은 수행법 문(文)으로⁴⁾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라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주체는 화자이고, 이것은 화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S (하)엿고나’는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소설 자료에서 ‘S (하)엿고나’가 나타난 경우는 다음과 같다.

(24) 내가 더런 사람을 죽이랴고 ᄃᆞ엿고나 <행락도_082>

(24)의 문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화자를 ‘A’, 청자를 ‘B’, 어떤 대상을 ‘C’라고 칭하겠다. (24)은 화자인 A가 B에게 C를 죽이랴고 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인 A가 ‘C를 죽인다’라고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은 화자의 판단이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예시는 수행문이고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4)은 사람을 죽이랴고 시킨 화자가 ‘나’이므로 주어가 1인칭이다. (24)의 서술어는 타동사 ‘ᄃᆞ-’와 ‘-엿고나’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신소설 자료에서 ‘S (하)엿고나’가 드러난 예시는 해당 문장 하나뿐이다.

4) 김병건.(2014).한국어 명령 수행문의 유형과 특징.인문과학연구,41(),109-131

2.9 ‘-구나’ 계열 어미의 분포 종합

신소설 자료군에 나타난 ‘-구나’ 계열 어미의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5)

	인칭	유/무	형용사	이다/되다	자동사	타동사
구나	1인칭					
	2인칭					
	3인칭	○	○			
고나	1인칭					
	2인칭	○		○		○
	3인칭	○	○			
군	1인칭	○				○
	2인칭	○			○	○
	3인칭	○	○			○
곤	1인칭	○				○
	2인칭					
	3인칭	○		○	○	
-엇구나/-앗구나/-였구나/였군/였고나	1인칭	○			○	○
	2인칭	○		○	○	○
	3인칭	○		○	○	○
-엇더구나	1인칭					
	2인칭					
	3인칭	○				○
-엇겠구나	1인칭					
	2인칭	○				○
	3인칭					
-는구나/-는군	1인칭					
	2인칭	○				○
	3인칭	○			○	○
S 구나	1인칭					
	2인칭	○		○		○
	3인칭	○			○	
S (하)더군	1인칭					
	2인칭					
	3인칭	○				○
S (하)였고나	1인칭	○				○
	2인칭					
	3인칭					

(25)의 ‘행’은 ‘-구나’ 계열 어미를 ‘열’은 인칭과 인칭의 유/무⁵⁾, 서술어로 나타나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이다/되다를 배치하였다. 해당 정보를 행과 열에 배치한 이유는 ‘-구나’ 계열 어미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주어의 ‘인칭’과 ‘-구나’ 계열 어미와 결합하는 형태소의 품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신소설 자료에서 ‘-구나’는 주어가 3인칭이고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만 나타난다.

‘-고나’의 경우 주어가 2인칭일 때 서술어는 타동사와 되다가 나타나고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형용사만 나타난다.

‘-군’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일 때 서술어는 타동사로 나타나고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타나며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타동사와 형용사로 나타난다.

‘-곤’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일 때 서술어는 타동사가 나타나고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이다와 자동사로 나타난다.

‘-엇구나’의 경우 주어가 2인칭일 때 서술어는 자동사가 나타나고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동사만 나타난다.

‘-앗구나’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일 때와 2인칭일 때 모두 서술어가 타동사로 나타난다.

‘-엇구나’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일 때 서술어는 타동사로 나타나고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자동사와 되다로 나타나며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자동사로 나타난다.

‘-엇군’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일 때 서술어는 자동사만 나타나고 3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되다만 나타난다.

‘-엇고나’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일 때 서술어는 동사로 나타나고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타동사와 되다로 나타나며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동사만 나타난다.

‘-엇터구나’의 경우 주어가 3인칭일 때만 나타나는데 그때 서술어가 타동사이다.

‘-엇쨌구나’의 경우 주어가 2인칭일 때 서술어는 타동사로 나타난다.

‘-는구나’의 경우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타동사만 나타나고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자동사로 나타난다.

‘-는군’의 경우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타동사로 나타나고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동사로 나타난다.

‘S 구나’의 경우 주어가 2인칭일 때 서술어가 타동사와 이다가 나타나고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서술어가 자동사로 나타난다.

‘S (하)더군’의 경우 주어가 3인칭일 때만 나타나는데 그때 서술어가 타동사이다.

‘S (하)엇고나’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일 때만 나타나는데 그때 서술어가 타동사이다.

5) 자료 판단의 편의를 위해 인칭의 ‘유/무’에서 ‘유’만 표시하였다.

3. 종결 어미 ‘-구나’의 양태 의미 분석과 형태 구성 분석

3.1 종결 어미 ‘-구나’의 표현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

종결 어미 ‘-구나’의 표현 의미에 대해 연구한 논의 중에서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6) 가. -구나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표준국어대사전>
나. 의외성과 감탄문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요점만 말하면 ‘-구나’와 ‘-네’는 의외성을 그 핵심 의미 성분으로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박진호 2009: 10>
다. ‘-구나’가 ‘사유 과정’을 동반한 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유의 일종인 ‘추론’의 증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박재연 2014: 232>

(26가)의 견해는 ‘-구나’의 의미 특질에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주목, 감탄’ 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나’의 의미 특질에 대한 (26가)의 설명은 모호한 점이 있다. 즉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지정하는 대상이 분명치 않다. ‘경치가 참 아름답다’에서 ‘아름답다’도 새로운 정보이다. 이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아름답구나’라 진술한 것도 새로운 것이다. 즉 ‘아름답다’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종결 어미 ‘-구나’로 화자의 ‘판단’을 진술하는 것도 새로운 것이다. 결국 ‘주목’이라는 의미로 설명된 ‘-구나’의 의미를 단순히 ‘주목’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화자의 ‘새롭게 알게 된 명제’에 대한 ‘새로운 판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체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26나)의 견해는 ‘-구나’가 ‘의외성’을 표시하는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박진호(2009: 7)는 ‘의외성’의 개념을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임(unexpectedness), 신정보(new information)임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서 ‘신정보(new information)’란 ‘-구나’의 표현으로 획득된 새로운 ‘판단’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박진호(2009)의 논의에서 지적되었는지는 정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했다. 박진호(2009:7)는 의외성이란 용어 mirativity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 ‘의외성’을 사용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기적성, 신비성’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mirativity를 ‘의외성’으로 번역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에서 ‘의외’란 ‘전혀 생각이나 예상을 하지 못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성’으로는 mirativity의 의미를 모두 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구나’는 ‘뜻밖’이라는 ‘의외성’의 의미를 표현한다기보다 ‘기대와 다른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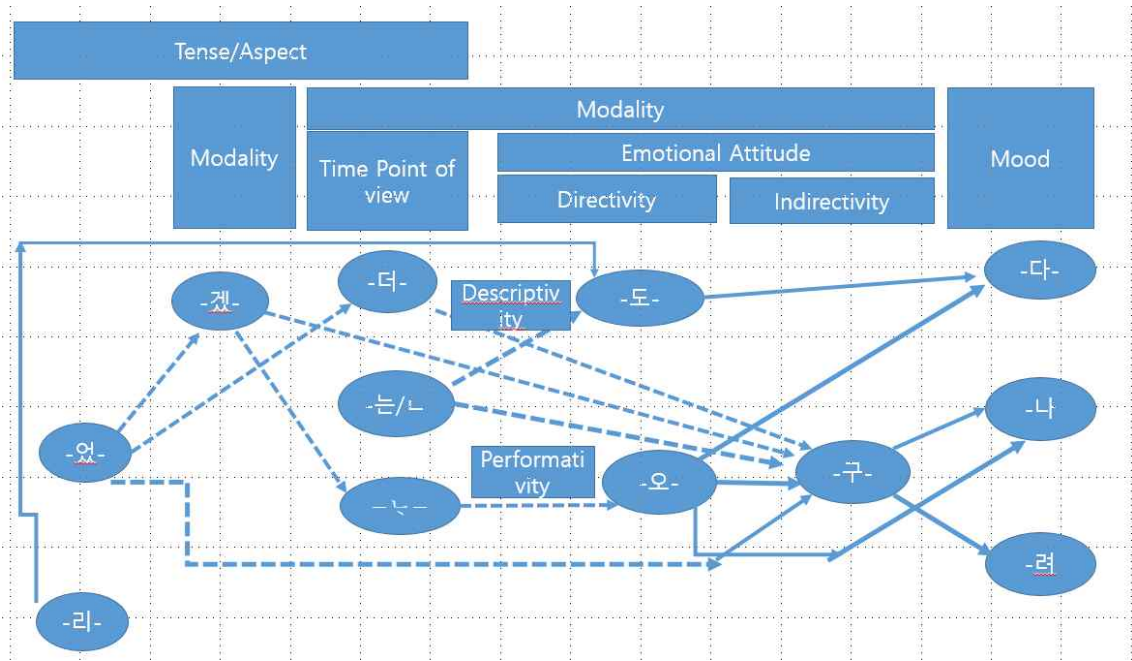
(26다)에서는 ‘-구나’의 의미를 ‘사유 과정을 동반한 인식’이며 추론(inference)을 통하여 ‘사유 과정을 동반한 인식’이 도출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서구 언어학의 modality에 대한 논의에서 추론(inference)이란 용어가 흔히 사용되긴 한다. 추론(inference)이란 용어는 논리학에서 흔히 사용되어 추론(inference)을 통하여 명제가 참인 사실을 도출한 주장이 자신은 물론 제3자에게도 요구되어 진다. 그러나 일상의 언어 표현에서는 명제가 참이라는 주장은 자신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추론(inference)보다는 ‘판단(estimation)’ 정도로 그 개념을 약화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한다.

3.2. 종결 어미 ‘-구나’의 양태 의미 분석 출발점

이 글은 ‘-구- 계열, -오- 계열, -도- 계열’ 등의 종결 어미에 나타난 ‘감탄’의 양태 의미를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먼저 종결 어미 ‘-구나’가 나타내는 ‘감탄’의 양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 계열, -오- 계열, -도- 계열’ 등의 종결 어미에 나타난 ‘감탄’의 양태 의미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질 것으로 상정한다. 신소설 자료에서 발견된 형태소의 결합 관계 분포도 화살표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27)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2016: 33-40)은 양태(modality)를 ‘능력 양태(dynamic modality),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태도 양태(boulomaic modality/attitude)’ 등으로 나눈 바 있다. 이 글의 감정적 태도 양태(emotional attitude modality)는 태도 양태(boulomaic modality/attitude)에 근거하여 개념을 설정한 것이다.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2016: 44-48)은 양태 범주의 성분이나 특질의 하나로 수행성(performativity)과 진술성(discriptivity)의 둘을 들고 있다. 이 글의 수행성

(performativity)과 진술성(discriptivity)은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2016: 44-48)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다.

또,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2016: 44-48)은 양태 범주의 성분이나 특질의 하나로 주체성(subjectivity)과 객체성(objectivity)의 둘을 들고 있다. 주체성(subjectivity)과 객체성(objectivity)의 구분에 착안하여 진술의 직접적 태도인 직접성(directivity)과 간접성(indirectivity)의 둘을 설정하였다.

(27)에서는 ‘감정적 태도 양태’만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어의 ‘능력 양태, 의무 양태, 인식 양태’ 등은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27)에서 ‘tense, aspect, modality, mood’ 등의 층위를 설정한 것은 인식 언어학에서 ‘tense, modality, sentence, mood’ 등으로 구분한 것을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2016: 5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종결 어미 ‘-구나’의 양태 의미 분석

1) 감탄의 수행성

‘-구나’가 ‘느끼다’라는 수행 동사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나’는 ‘감탄’의 수행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 (28) 가. 너는 밥을 잘 먹는구나라고 (말했다[○], 물었다[×], 명령했다[×], 느꼈다[○])
 나. 너는 밥을 잘 먹는다라고 (말했다[○], 물었다[×], 명령했다[×], 느꼈다[×])
 다. 너는 밥을 잘 먹나라고 (말했다[○], 물었다[○], 명령했다[×], 느꼈다[×])
 라. 너는 밥을 잘 먹어라고 (말했다[○], 물었다[×], 명령했다[○], 느꼈다[×])

(28나)의 ‘너는 밥을 잘 먹는다’는 평서문으로 ‘진술’이라는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평서문이 ‘진술’의 화행을 표현한 사실은 ‘말하다’라는 수행 동사와 결합될 수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28다)의 ‘너는 밥을 잘 먹나라’는 ‘의문’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의문문이 ‘의문’의 화행을 표현한 사실은 ‘묻다’라는 수행 동사와 결합되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의문문도 넓게 보면 진술의 일종이므로 수행 동사 ‘말하다’와 결합될 수 있다. (28다)의 ‘너는 밥을 잘 먹어라’는 ‘명령’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명령문이 ‘명령’의 화행을 표현한 사실은 ‘명령하다’라는 수행 동사와 결합되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명령문 역시 넓게 보면 진술의 일종이므로 수행 동사 ‘말하다’와 결합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28가)의 ‘너는 밥을 잘 먹는구나’를 ‘감탄’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너는 밥을 잘 먹는구나’가 수행 동사 ‘느끼다’와 결합되는 사실로도 ‘감탄’의 화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의 화행을 수행하는 종결 어미 ‘-다, -냐, -어라’ 등처럼 ‘감탄’의 화행을 수행하는 ‘-구나’를 종결어미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탄’의 화행을 수행하는

‘-도다’가 ‘-도-’와 ‘-다’로 분리되어 ‘감탄’의 ‘화행’ 기능을 수행하는 ‘-도-’가 서법(mood) 층위에 존재하지 않고 ‘시상’이나 ‘서법(mood)’ 사이의 층위인 ‘양태(modality)’ 층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구나’에서 ‘감탄’의 화행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는 서법(mood) 층위에 있지 않고 ‘양태(modality)’ 층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나’를 ‘-구-’와 ‘-나’의 구성으로 분석해야 하는 근거는 뒤에서 후술될 것이다. 어쨌든 ‘-구나’는 ‘감탄’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수행의 간접성

종결 어미 ‘-구나’가 사용된 문장이 ‘반사실에 대한 욕망’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구나’는 ‘간접적 수행’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9) 가. 에구머니 니가 독약을 먹었구나 <우중행인_042>

나. 너는 애만 죽도록 쓰고 헛닐 ㅎ엿고나 <치악산(상)_143>

다. 잔주점 다 써러 노흔 외손녀도 난리 중에 죽엇고ㄴ <혈의누_027>

라. 괴이흔 자에게 편지를 쥐엿스니 답답ㅎ구나 <죽서루_714>

(29가)의 ‘독약을 먹었구나’는 ‘독약을 먹지 않아야 했다’는 반사실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29나)의 ‘헛닐 ㅎ엿고나’ 역시 ‘헛일을 하지 말아야 했다’는 반사실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29다)의 ‘죽엇고ㄴ’ 역시 ‘죽지 않아야 했다’는 반사실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29라) 역시 ‘답답ㅎ구나’ 역시 ‘답답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사실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사실’을 표현하는 영어의 가정법이 간접적 화행이듯이 ‘반사실’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구나’ 역시 간접적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구나’가 2인칭 주어와 결합할 때, ‘-구나’가 가지는 간접적 화행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30) 가. 너는 애만 죽도록 쓰고 헛닐 ㅎ엿고나 <치악산(상)_143>

나. 예그 불상히라 네가 죽엇구나 <현미경_049>

다. [어] 네가 정말 환심장 되엿구ㄴ <강상춘_045>

‘-구나’에 의한 (30)의 표현은 화행이 화자에게 전달되는 화행이 강하지만 맥락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청자에게도 전달되는 화행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30가)는 ‘다시 너는 애를 죽도록 쓰지 않기 위해서 헛일을 하지 말라’ 정도의 의미를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30나)는 ‘다시 너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그러나 죽었다)’ 정도의 의미를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30다)는 ‘너는 환심장 되지 말라’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축복과 비난의 감정적 태도성

‘-구나’에 의한 ‘감탄’은 긍정적 측면으로서의 ‘축복’과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비난’으로 나타난다.

(31)

번호	인칭	감탄의 긍정적 측면	감탄의 부정적 측면
가.	1인칭		○ [덕] 나도 심부름이 더되었군 〈화세계_088〉 ○ 동리 일흥도 나는 들었셔도 정신이 수나와 잊혀고나 〈화세계_123〉 ○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 마음에 상처 주었었구나 〈그랬었구나, 정의송, 2016〉
나.	2인칭	○ 예그 수득이가 네게는 수존형이다마는 이번 일에 디히셔는 그런 은인이 다시 업고나 〈모란병_094〉 ○ 어쨌소 이 몸이 늙어서 몸 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영감타령, 고봉산, 송춘희, 1965〉	○ 이 이 인제는 네가 갈보집에만 다니는고나 〈연광정_066〉 ○ (역시) 장사를 식히었섯다 “이놈 너는凶惡한 놈이구나 自己 마누라에게 賣淫을 식히다니” 〈大杉榮의 獄中記 續, 동아일보, 1923.10.21., 6면〉
다.	3인칭/ 사물	○ [박] 예그 참 달도 밝기도 밝다 낮보다 더 명랑하구나 〈추천명월_045〉 ○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와요/ 무궁화 강산 절계 좋다 /에라 좋구나 〈삼천리 강산 에라 좋구나, 신카나리아, 1932〉	○ 그러면 불초라 하는 큰 죄가 내 몸에 있는 것은 분명하구나 〈추천명월_044〉 ○ 올치 알겠다 나는 계모라구 그리하느구나 〈금국화(상)_065〉

‘감탄’의 긍정적 측면으로서의 ‘축복’은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사회적인 언어 사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자아도취에 빠져 ‘내가 천재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1나)의 ‘잘했군’은 부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축복’ 또는 ‘찬미’의 감정적 태도를 가진 것이다. 또한 (31다)의 ‘좋구나’에서는 ‘삼천리 강산이 좋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축복’ 또는 ‘찬미’의 감정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감탄’의 긍정적 측면으로서의 ‘비난’은 주어가 1인칭인 경우 ‘비난’의 의미라기 보다는 ‘후회’의 의미를 가진다. 자신이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은 ‘후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1가)의 ‘그랬었구나’에서는 지난 일에 대한 화자의 ‘후회’의 감정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31나)의 ‘나쁜놈이구나’에서는 2인칭 주어 ‘이놈’에 대한 화자의 ‘비난’의 감정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31다)의 ‘그리히는구나’에서는 3인칭 주어가 ‘나’를 ‘계모’라 칭하는 것을 통해 ‘비난’의 감정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신소설의 자료는 ‘-구나’에 의한 ‘감탄’ 의미의 표현이 ‘감탄’의 내용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감탄’의 태도에 대한 표현인 점을 확인해 준다.

(32) 가. 예그 수득이가 네게는 스촌형이다마는 이번 일에 덕히서는 그런 은인이 다시 업고나
〈모란병_094〉

나. 나의 고침은 쏏이 날 날이 업고나. 〈강명화전_067〉

(32가)의 ‘업고나’는 ‘축복’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나 (32나)의 ‘업고나’는 ‘비난’ 곧 ‘후회’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결국 (32가)와 (32나)에서 제시하는 ‘축복’과 ‘후회’의 ‘감탄’ 의미는 맥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축복’과 ‘후회’의 ‘감탄’ 의미는 감탄의 내용이 아니라 ‘감탄’의 태도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서법(mood)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2016: 77-80)은 기원법(opative)과 감탄법(exclamative)을 묶어서 설명하면서 강한 기원법과 약한 기원법의 의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2016: 78)은 강한 기원법이 ‘욕구의 완수’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졌으며, 또 강한 기원법이 ‘축복(blessing)’과 ‘비난(curse)’의 방식으로 절대 권력자(superficial power)에게 호소하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구나’가 ‘축복’과 ‘비난’의 두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구나’에는 ‘강한 기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2016: 78)은 약한 기원법이 현실과 거리가 먼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나’는 반사실에 대한 욕구의 표현임을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구나’에는 약한 기원법도 동시에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 기대와 다른 결과에 대한 ‘놀라움’ 표현 의미

종결 어미 ‘-구나’가 ‘기대 밖의 놀라움’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3) 가. 흔 스릅이 썰썰 별순검들은 우스며 별순검들은 우리네보다 의사가 별다르군 〈쌍옥적_100〉

나. 송도 과부들이 짝과부 흔다더니 더들이 모다 과부들이곤 〈행락도_136〉

다. 3일췌 빅씨 췌녀를 죽이랴고 약을 타다가 췌엇더니 췌녀는 안이 먹엇구나 〈우중행인_062〉

라. 우리 형님의 자식으로 너 갓흔 것이 싱겨날 줄은 몰났구나 〈현미경_122〉

(33가)에서 화자는 화자인 ‘우리’와 ‘별순검’이 같은 부류로 전제하였으나 기대 밖으로 ‘별순검’들은 ‘우리’와 ‘의사가 별다르다’는 ‘기대 밖의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33나)에서 ‘더니’를 통해 화자가 ‘송도 과부들이 짝과부 혼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더들’이 누구인지 확인했고, 과부인 것을 알게 되어 ‘기대 밖의 놀라움’이 드러난다. (33다)에서 화자는 켄녀가 죽기를 원하며 약을 타 켄녀에게 주었다. 그러나 켄녀는 먹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기대처럼 죽지 않아 ‘기대 밖의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식이나 가족의 자식 등 가까운 사람의 자식이 바르게 자라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33라)의 화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관념을 바탕으로 형님의 ‘자식’이 잘 자라는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너 갓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형님의 자식이 화자의 기대와 다르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기대 밖의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기대 밖의 놀라움’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데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종결 어미 ‘-구나’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의 의미를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다.

(34) 가. [강인] 이 애 너무 딴단ㅎ구나 <화중화_030>

나. 너는 애만 죽도록 쓰고 헛닐 ㅎ였고나 <치악산(상)_143>

다. 에그 수득이가 네게는 스촌형이다마는 이번 일에 딴히셔는 그런 은인이 다시 업고나 <모란병_094>

(34가)에서 화자는 ‘이 애’가 보통의 아이인지, 특별한 아이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떠한 일로 ‘이 애’에게 대단함을 느껴 ‘생각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 드러난다. (34나)에서 화자는 ‘너’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인식조차 없었는데 너의 일이 ‘헛닐’이었음을 깨닫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 드러난다. (34다)에서 화자는 ‘스촌형’이 은인이 될지 되지 않을지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일에 대해 은인이 되었으므로 ‘생각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 드러난다.

그러나 종결 어미 ‘-구나’가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듯하-’나 ‘-겠-’과 결합할 때는 ‘놀라움’의 의미만 표현한다.

(35) 가. 덕이네 올에는 토왕 중에 잘 썩이고- 빅로에도 그딴지 심흔 풍우가 업섯스니 벼의 알이 잘 들썩ㅎ곤 <추천명월_043>

나. 올케다 올케다 인제야 알겄곤 <재봉춘_138>

다. [부] 그러면 건은방에서 ㅎ는 소리 너도 들엇겄구나 <목단화_012>

라. [김] 그러면, 그 맥 은택을, 입엇겄구나_대화 <만히홍도화(하)_104>

(35가)는 추측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 ‘듯하-’를 통해 ‘벼의 알이 잘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가)의 ‘토왕 중에 잘 썩이고- 빅로에도 그딴지 심흔 풍우가 업섯다’는 것이 조건의 전제이다. 이것을 통해 ‘-구나’가 ‘-겠-’과 결합할 때 ‘놀라움’의 의미만 표

현함을 알 수 있다. (35나)는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겠-’을 통해 ‘무언가를 알게된 과정’이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제는 ‘올케다 올케다’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이것을 통해 ‘-구나’가 ‘-겠-’과 결합할 때 ‘놀라움’의 의미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35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겠-’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제는 ‘그러면’의 앞 부분에 위치하며 이것을 통해 ‘-구나’가 ‘-겠-’과 결합할 때 ‘놀라움’의 의미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35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겠-’을 통해 ‘은택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제는 (35다)와 같이 ‘그러면’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이것을 통해 ‘-구나’가 ‘-겠-’과 결합할 때 ‘놀라움’의 의미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3.4. 종결 어미 ‘-구나’의 형태 구성 분석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나’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형태소 구성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나’가 가진 의미가 ‘기대와 다른 결과에 대한 판단’이란 점에서 ‘-구나’를 ‘-구-’와 ‘-나’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구나’의 이형태로 신소설 자료에서 ‘-군, -고나, -곤’ 등이 존재하는 사실로도 ‘-구나’를 ‘-구-’와 ‘-나’의 구성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구나’의 이형태로 신소설 자료에서 ‘-고나’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구나’의 ‘-구-’를 15세기와 16세기의 국어에서 ‘소망형’의 의미로 파악된 ‘-고-’에서 기원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조어사전』에서 설명한 ‘소망형’의 어미 ‘-고-’가 개재된 어미 ‘-고라’가 주목된다.

(36) 가. 부텃기 받즈바 生生에 내 願을 일티 아니케 ㅎ고라 / 以獻於佛,使我生生不失此願
〈월인석보 1:13b〉

나. 녀나몬 天衆 眷屬 百千萬이 나를 轉法ㅎ고라 請ㅎ거늘 / 并餘諸天衆,眷屬百千萬,恭敬合掌禮 請我轉法輪 〈석보상절 13:58a〉

(36가)는 수행문만 나타나고 수행문과 관련된 수행 동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36나)는 수행문과 관련된 수행 동사가 ‘請ㅎ거늘’로 나타난 경우이다. 수행 동사 ‘請ㅎ거늘’은 ‘청유’를 표현한 것이므로 ‘ㅎ고라’의 ‘-고라’는 ‘명령’이 아닌 ‘청유’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15세기 국어에서 ‘-라’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고 ‘-고-’는 ‘소망’의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고라’는 ‘명령을 소망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 ‘청유’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조어사전』에 따르면 ‘소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고-’가 개재된 어미에는 ‘-고더, -고자, -고저, -고려, -고라’ 등이 더 있다.

『석보상절』 6:13b의 ‘내 아기 위ㅎ야 어더 보고려 / 當爲我兒 往求索之’에 나오는 ‘보고려’의 ‘-고려’를 중간 등급의 명령형 어미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고-’가 나타내는 ‘소망’

6) ‘-고시라, -고제니’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은 ‘강한 욕구’의 의미라기보다는 ‘약한 욕구’의 의미 즉 ‘기대’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의 ‘-고-’가 ‘기대’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구나’의 ‘-구-’가 15세기 국어의 ‘-고-’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구나’의 의미 자질로 ‘주목’을 들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주목’의 의미에 기대어 ‘-구나’의 ‘-나’가 ‘상반’의 연결어미 ‘-나’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연결어미 ‘-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7) 가. -나10 「어미」 「1」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눈이 내리나 쌓이지는 않는다.

나. 「2」 ((‘-나 -나’ 구성으로 쓰여))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는 신문을 돌린다.

다. 「3」 ((‘-나-ㄴ’ 구성으로 쓰여)) 형용사 어간을 반복하여 그러한 상태를 강조하는 연결 어미. / 머나먼 길.

‘-구나’가 가지는 ‘주목’의 의미와 관련하여 (37가)에서 연결어미 ‘-나’의 의미 기능을 ‘상반’으로 기술한 점이 주목된다. (37가)에서 기술한 것처럼 ‘상반’이란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결 어미 ‘-나’가 개재된 문장 ‘눈이 내리나 쌓이지는 않는다’의 의미 연결 관계를 ‘상반’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그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나’가 개재된 선행절에서 제시된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연결어미 ‘-나’는 후행절에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즉 후행절에는 선행절이 요구하는 것의 반대되는 진술이 요구된다.

‘-구나’의 의미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구나’의 ‘-나’를 ‘상반’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나’와 직접 관계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상반’의 연결어미 ‘-나’의 후행절이 소거되면서 후행절에 개재된 ‘반대’의 의미가 선행절의 ‘-나’에 흡수되었다면 ‘-구나’의 ‘-나’를 ‘상반’의 연결어미 ‘-나’에서 기원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연결 어미의 기능을 하면서 종결 어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미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거든’을 들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거든’의 항목에 ‘연결 어미’의 기능과 종결 어미의 기능이 동시에 기술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종결어미 ‘-거든’의 의미를 ‘청자가 모르고 있을 내용을 가르쳐 줌’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청자가 모르고 있을 내용’이 연결어미 ‘-거든’의 후행절에 진술되는 것인데 후행절이 소거되면서 후행절에서 진술되는 의미가 ‘-거든’이 이끄는 선행절에 흡수되고 ‘-거든’은 종결 어미의 지위를 가지게 된 현상이다. 연결 어미가 종결 어미로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최은영(2016)은 ‘탈연결어미화’로 규정하고 각종 국어사전을 검토하여 25개의 연결 어미가 종결 어미화 되는 현상에 대해 기술하였다. 한편 ‘탈연결어미화’와 유사한 현상을 문숙영(2015)은 ‘탈종속화’의 용어로 논의하고 있다.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 대한 놀라움’의 의미를 가지는 ‘-구나’가 16세기 자료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8) 가. 네 독벼리 모르느고나 전년브터 하눌히 ㄴㄹ라/ 你偏不理會的! 田禾不收 <번역노걸대 상:27a>

나. 히 ㅎ마 이리 늦도고나 에서 夏店에 가매 당시론 十 里스 짜히 이시니 /日頭却又這
早晚也 這裏到夏店 還有十里來地, <번역노걸대 상:46b>

(38)의 ‘-고나’가 종결 어미의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후행한 의미 성분들은 ‘반대’의 의미를 진술하지 않고 새로운 화제를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38)에 나타난 ‘-고나’가 신소설 자료에 나타난 ‘-구나’와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

『번역노걸대』가 구어체 자료란 점도 눈에 띈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문어체 자료에서는 ‘-고나/-구나’가 사용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결론

생략함

<참고문헌>

羅聖榮(2009), 「일본어 「네」와 한국어 「지」 「구나」 「네」의 모달리티 지향성」, 日本語文學 44, 일
본어문학회, 109 - 132.

문숙영(2015), 「한국어 탈종속화(Insubordination)의 한 종류」; 『한국어학』 69권, 한국어

박재연(2014), 「한국어 종결어미 ‘-구나’의 의미론」, 한국어 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219-245

박진호(2011), 「韓國語에서 證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 1-25 (25 pages)

이소흔(2019), 「20세기 전반기 종결어미의 감탄법 실현 양상」, 語文論集 79, 중앙어문학회,
39-78.

이윤복(2019), 「한국어의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최은영(2016.), 「탈연결어미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2016), The Oxford Handbook of Modality and
Mood. Oxford University Press.

〈토론문〉

“신소설에 나타난 종결 어미 ‘-구나’ 계열 어미의 분포와 감정적 태도 양태에 대하여”

이흥구(서울대)

이 연구는 신소설에 나타난 종결 어미 ‘-구나’에 대한 것으로 그 분포를 정밀하게 살피고, 양태에 대한 이론에 기대어 그 의미 기능을 새롭게 기술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양태와 신소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을 여쭙는 것으로 지정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양태, 서법과 의외성 범주

‘-구나’의 의미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의외성(mirativity)”이라는 주장을 비판하고 “반기대(anti-expectation)”를 그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념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논의에서 사용하신 “의외성” 개념과 “반기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대해 좀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의외성”에 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로는 “The mirative is a category which marks a statement as representing information which is new or unexpected.”(DeLancey 2012: 529)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새롭거나 예상하지 못한 정보와 관련된 범주로 이해해 봄 직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맞추어 생각해 볼 때, 현대 한국어의 ‘-구나’의 경우 반기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예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구나’가 사용된 “철수는 역시/과연 노래를 잘하는구나”(후박문·박진호 2022: 64)는 ‘과연, 역시’가 사용된 것을 보았을 때, 화자가 본래 가지던 기대가 부합된 경우가 아닌가를 싶습니다. 이러한 예를 고려하면, 한국어의 ‘-구나’를 반기대의 측면에서만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¹⁾

3.3절의 3항에서는 ‘-구나’가 ‘축복’과 ‘비난’의 두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구나’에 강한 기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으며, 약한 기원법의 의미도 동시에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기원법(optative)은 전통적인 mood의 하나로 제시되어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원법’과 신소설에 등장한 ‘-구나’의 용법이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기원법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기원법의 예로는 “oh, if only I had been born 200 years ago!”(Nikolaeva 2016: 78)과 같이 반사실적 가

1) 이외에 후박문·박진호(2022: 63-64)에서도 의외성은 반기대와 다르거나 그 범위가 더 넓으며, 화자가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그 이전에 아무런 예상이나 기대가 없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Delancey(2012) 등과 같이 의외성의 경우 반기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Aikensvald(2012)과 같이 의외성에 반기대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정을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듯합니다. 혹 어떤 점에서 기원법과 유사하고 ‘축복’이나 ‘비난’에 해당하는지 좀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3.3절 4항에서는 ‘-구나’가 ‘-겠-’과 결합할 경우 [놀라움]의 의미만을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5가)의 경우 [놀라움]의 의미가 잘 간취되지 않는 듯합니다. 현대 한국어의 ‘-구나’의 경우도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술병을 들고 있는 걸 보니, 너 슬프구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꼭 하나의 의미 표찰로 모든 예를 포괄해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구나’의 형태 분석과 통시론

3.4절에서는 ‘-구나’를 ‘-구-’와 ‘-나’로 분석해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에 학계에서 ‘-구나, -구려, -군’ 등을 “구 계열 어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구-’에 대한 분석 가능성이 존재해 왔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열·통합 관계를 고려할 때 공시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통시적 관점에서는 ‘-구-’를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희(1996), 장윤희(1998) 등을 참조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지하다시피, 감탄형의 ‘-고녀, 고나’ 등은 16세기에 출현하였는데, <南明集>이나 <川老金剛經>에 등장하는 음독 구결 ‘-ㅁ 1 ㅊ’을 통해 이것이 이미 그 이전 시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ㅁ 1 ㅊ’에서 ‘-1 ㅊ’를 떼어내면 선어말어미 ‘-ㅁ-’를 상징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하여 16세기 명령/소망형의 ‘-고려’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해 주셨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고라’가 있는데, 김영옥(1995)에서는 15세기 이전에 ‘-고라’가 ‘-고-’와 ‘-라’의 통합형이었던 것이 하나의 명령형어미로 굳어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6세기에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나 ‘-고’ 자체로 명령형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무려 씨도 못 보내고 김도 못 프니 실패들 만히 하여 다고 <청주연간 57>).

제시한 두 가지 ‘-고-’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함께 고려해 봄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나’의 경우 ‘-나’가 역접의 연결어미일 가능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형론적으로도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Kuteva et al(2019: 44)에 따르면 범언어적으로 의외성 요소는 흔히 역접(Adversative)에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도 논의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기술의 체계성

발표문의 2장에서는 ‘-구나’의 분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아직 해당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라 추후에 고려하면 좋을 만한 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의 체계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2장의 개별 항목들이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1절은 기본 형태, 2.2절은 ‘-었-’이 포함된

형태, 2.3절과 2.4절은 ‘-었-’에 선어말어미가 추가로 들어간 경우, 2.5절은 ‘-는-’이 결합된 경우, 2.6부터는 문장에 결합한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함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미 해석의 경우, 긍정-부정이나 ‘축복’, ‘찬미’, ‘비난’, ‘놀라움’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의미도 체계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나’와 ‘-구나’, ‘-곤’과 ‘-곤’의 경우 표기법의 문제이거나 제시된 예들만 보아서는 모음조화의 문제에 의한 이표기일 가능성이 있을 생각됩니다. 정리하신 표에서는 이들이 분포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어떠한 변인이 작용하는 것일지요? 이와 달리 표에서 ‘-었/았-’과 ‘-었/았-’ 결합형의 경우는 형태별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12)-(16)의 예는 ‘-었/았구나’의 예로 제시하였는데, ‘었/았’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앞의 ‘-고나’의 예로 제시한 (3)의 경우는 ‘-였고나’로 나타나 2.2절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였더고나, -었겠구나’의 경우와 같이 선어말어미가 더 결합한 경우를 나누었는데, ‘로구나, 더구나, 잿구나’ 등도 신소설에서 발견되니 함께 고려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었-’과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선어말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다고 하셨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도 이들은 결과상 요소로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가령, “철수는 지금 집에 갔구나.”나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구나”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6의 ‘S 구나’의 경우 ‘-구나’가 보조용언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보조용언은 ‘보-’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S에 ‘-구나’가 결합한 예로 다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8의 ‘S (하)였고나’의 경우 수행문과 관련지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였고나’가 아닌 경우에도 수행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사용한 수행문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좀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 김영옥(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
-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후박문·박진호(2022), 기대와 추론의 언어적 표현 양상, 한국어의미학 77, 한국어의미학회, 57-101.
- Aikhenvald, A. Y.(2012), “The essence of mirativity,” Linguistic Typology 16, 435-485.
- DeLancey, S.(2012), “Still mirative after all these years,” Linguistic Typology 16, 529-564.
- Kuteva, T. & B. Heine. & B. Hong, & H. Long. & H. Narrog. & Rhee, S.(2019).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kolaeva, I.(2016), Analyses of The Semantics of Mood, Modality and Mood, Oxford University Press, 68-86.

현대 국어 조사 ‘-에, -에서’ 등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순홍(단국대)

1. 서언

이 글은 조사 ‘-에, -에서’ 등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 -에서’ 등의 의미 기술이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로 구분되지 않아 조사 ‘-에, -에서’ 등이 가지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사 ‘-에, -에서’ 등이 가지는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간 의미는 1차 또는 2차 실체 개념이고 확장 의미는 3차 실체 개념이다. 즉 조사 ‘-에, -에서’ 등이 구체 명사와 결합될 때에는 조사 ‘-에, -에서’ 등은 1차 또는 2차 실체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추상 명사와 결합될 때에는 조사 ‘-에, -에서’ 등은 3차 실체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종이 문에 달렸다’와 ‘그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다’의 문장에서 조사 ‘-에’는 구체 명사인 ‘문’에 통합되었고 또 추상 명사 ‘생각하기’에 통합되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생각하기에’에 통합된 조사 ‘-에’의 의미를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이 문에 달렸다’와 ‘그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다’의 문장은 그 구조가 유사하여 ‘생각하기에’는 ‘문에’의 은유적 표현으로 파악하면 1차 실체인 공간 의미 ‘접촉 위치’는 3차 실체인 확장 의미 ‘조건’과 통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1차 실체인 공간 의미와 3차 실체인 확장 의미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2. 조사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의 분석 기준

2.1. 박진호(2015)의 조사 공간 의미 구분

박진호(2015)에서 문법요소에 대해 논의할 때 개념 공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개념 공간은 의미 지도와 같이 연구들이 방법론적 도구로 삼는다. 개념 공간은 특정 의미 영역과 관련된 etic 범주들로 구성되는 언어 보편적인 공간이며, 이 개념 공간을 그림으로 삼아 이 위에다가 특정 언어의 구체적인 형태들이 나타내는 의미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 의미지도이다.¹⁾ 그 다음에 박진호(2015)에서 영어 전치사를 들고 다음과 같은 공간 관계와 개념 공간을 제시하였다.

1) 박진호(2015), 「언어유형론이 한국어 문법 연구에 계시하는 것들」, 日語日文學研究, 94.1, p15.

(1) 가. 정적인 위치와 관련된 것: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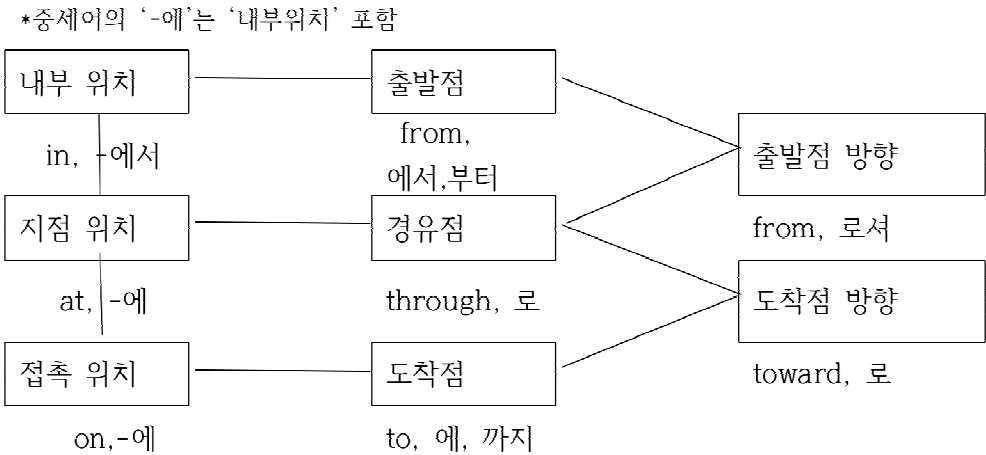
- 내부위치: in
- 지점위치: at
- 접촉위치: on
- 측면위치: beside
- 상위위치: above, over
- 하위위치: below, under

나. 위치 이동과 관련된 것

- 출발점: from
- 출발점방향: from
- 경유점: through
- 도착점: to
- 도착점방향: toward(s)

〈박진호(2015): 18〉

(2) 박진호(2015)의 공간 관계의 개념공간



2.2. 조사의 개념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의 관계

1) 1차, 2차, 3차 등의 실체 개념

조사의 개념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실체’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Hardarik Blühdorn Mannheim(2010)에서 연결사에 대해 논의할 때 실체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였다. 실체를 1차 실체, 2차 실체, 3차 실체, 4차 실체로 나누었다. 1차 실체는 물리적(공간적)

대상이고, 2차 실체는 사태의 상태(시간적 실체: 사건과 상태)이고, 3차 실체는 명제(인식적 실체)이고, 4차 실체는 가상적 세계이다.²⁾ 라이언스·강범모(2013)에서 품사의 의미 부분에 대해 논의할 때 실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실체는 1차 실체, 2차 실체, 3차 실체로 나누고 1차 실체는 공간 의미³⁾를, 2차 실체는 시간 의미⁴⁾를, 3차 실체는 추상적 의미⁵⁾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1차 실체는 2차 실체와 3차 실체에 비해 더 기초적인 개념이다. 2차 실체는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관찰 가능하고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다. 3차 실체는 관찰이 불가능하고 공간 및 시간 속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

2) 1차 실체 개념과 2차 실체 개념 언어적 통용

1차 실체는 공간 개념이고 2차 실체는 시간 개념이다. 그런데 언어 표현에서는 1차 실체에 대한 표현을 2차 실체에 대한 표현으로 통용한다. 한국어나 중국어에서 공간 표현은 흔히 시간으로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공간 개념에서의 ‘앞, 뒤’는 시간 개념에서 ‘과거, 미래’로 대응한다. 공간 개념에서의 ‘아래’는 시간적으로 ‘옛날’로 대응한다. 중국어에서는 공간 개념에서의 ‘前, 後’는 시간으로 ‘以前, 以後’는 ‘과거’와 ‘미래’에 대응한다. 중국어에서 공간 개념의 ‘上, 下’는 시간으로 ‘上一年, 下一年’으로 ‘과거’와 ‘미래’가 대응한다.

3) 1차 개체 개념과 3차 실체 개념의 언어적 통용

1차 실체 개념은 2차 실체 개념과 3차 실체 개념보다 더 기초적인 개념이다. 3차 실체 개념은 추상적 개념이며 이 추상적 개념을 명제라 한다. 1차 실체 개념이 3차 실체 개념에 투영되는 것을 은유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뒷배’라는 단어가 있다. ‘뒷배’란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 주는 것이고⁶⁾ 개념 공간 의미에서의 ‘뒤’인 은유로 표현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도 ‘下人’같은 단어가 있다. ‘下人’이란 신분, 지위, 계급이 낮은 사람을 가리킨다. ‘下人’의 ‘下’는 개념 공간이며 은유 표현으로 ‘신분, 지위, 계급’ 등이 낮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前輩’라는 단어는 ‘선배’의 뜻이다. ‘前輩’의 ‘前’은 개념 공간이며 여기에서 은유로 먼저 배운 사람을 가리킨다.

2) Hardarik Blühdorn Mannheim(2010),「A semantic typology of sentence connectives」, Harden, Theo/Hentschel, Elke(eds.): 40 Jahre Partikelforschung. Tübingen: Stauffenburg, 2010. p216. "Let us assume that conceptual entities can be divid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physical(spatial) objects, state of affairs (temporal entities: events and states), propositions(epistemic entities), pragmatic options(deontic entities)."

3) 라이언스·강범모(2013), 『의미론2』, 한국문화사, p104. "일차 실체는(사람, 동물, 물체) 정상적인 조건에서 그것들의 지각적 속성들이 상대적으로 일정하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것들이 시간의 어떤 점에서, 적어도 심리적으로, 삼차원적 공간 속에 위치한다"

4) 라이언스·강범모(2013), 『의미론2』, 한국문화사, p104. "이차 실체로 우리는 사건, 과정, 사태 등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들은 시간 속에 위치해 있고 그것들은 존재한다기보다 일어난다."

5) 라이언스·강범모(2013), 『의미론2』, 한국문화사, p104. "삼차 실체는 명제 같은 추상적 실체들이데, 그것들은 공간과 시간의 밖에 있는 것들이다."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3. 조사 ‘-에’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 분석

3.1. 조사 ‘-에’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기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조사 ‘-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3)⁷⁾ 가.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옷에 먼지가 묻다. / 衣服沾上了灰塵.
나.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나는아침에운동을 한다. / 我早上運動.
다.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학교에 가다. / 上學.
라.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바람에 꽃이 지다. / 花隨風凋.
마.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나는 그의 의견에 찬성한다. / 我贊成他的意見.
바.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 我给花盆澆水./ 나는 생각에 잠겼다. / 我陷入了沉思.
사. 앞말이 목표나 목적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몸에 좋은 보약. / 對身體好的補藥.
아.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가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 / 我們在陽光下曬衣服.
자. 앞말이 조건, 환경, 상태 따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냈니? / 這酷暑過得怎麼樣?
차. 앞말이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 那是不禮貌的行爲.
카. 앞말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 아버지에 그 아들. / 有其父必有其子.
타. 앞말이 말아보는 자리나 노릇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반장에 그가 뽑혔다. / 他被選爲班長.
파. 앞말이 제한된 범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포유류에 무엇이 있지? / 哺乳動物有什麼?
하. ((‘관하여(관한)’, ‘대하여(대한)’, ‘의하여(의한)’, ‘있어서’ 따위와 함께 쓰여))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이 문제에만한 보고서 를 작성해 오시오. / 請寫一份關於這個問題的報告.
까. 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국에 밥을 말아 먹다. / 用湯泡飯吃. / 3에 4를 더하다. / (在)三加四

(3)에서 보는 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에’에 대한 의미 15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 15개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의미는 ‘처소, 시간, 진행 방향, 원인, 대상(움직임을 일으킴), 대상(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침), 대상(목표나 목적), 조건/환경/상태, 수단, 방법, 기준, 비교, 자리/노릇, 범위’, ‘부사어(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 등이다.

‘처소, 시간, 진행 방향, 대상(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침)’ 등은 공간 의미이고, ‘원인, 대상(움직임을 일으킴), 대상(목표나 목적), 조건/환경/상태, 수단, 방법, 기준, 비교, 자리나 노릇, 부사어(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 등은 확장 의미이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 구분 없이 기술을 하여, 조사 ‘-에’가 가진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먼저 조사가 가진 공간 의미를 기술하고 확장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조사 ‘-에’가 가진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에’가 가진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의 관계가 설명이 되지 않은 점도 조사 ‘-에’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간 의미와 연관되는 확장 의미를 제시해 주면 조사 ‘-에’가 가진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조사 ‘-에’의 개념 공간 의미 분석

1) ‘접촉 위치’ 개념 공간 의미 표현의 ‘-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의 의미 중에서 ‘접촉 위치’인 개념 공간 의미를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다.

(4) 가.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나. 옷에 먼지가 묻다.
- 다. 언덕 위에 집을 짓다.
- 라. 나는 시골에 산다.

(4가)에서 보는 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에’가 가진 여러 공간 의미를 ‘처소’ 의미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4나)-(4다)에서 조사 ‘-에’가 가진 공간 의미를 ‘접촉 위치, 지점 위치’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4나)를 보면 ‘옷에 먼지가 묻다’는 ‘옷 위에 먼지가 묻다’는 뜻이다. ‘옷에’는 중국어의 ‘衣上’에, 영어의 ‘on the clothes’에 대응된다. 따라서 ‘옷에’의 ‘-에’는 ‘접촉 위치’의 공간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4다)에서 ‘언덕 위에’의 ‘-에’는 개념 공간의 ‘위’를 가리킨다. 중국어 번역문에서 ‘上’으로, 영어 번역문에서 ‘on’으로 ‘접촉 위치’의 공간 의미에 대응한다. 그러나 (4라)의 ‘-에’는 다른 공간 의미를 표현한다.

(4라)에서의 ‘산다’는 두가지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하나는 ‘산다’가 ‘살고 있다’의 의미라면 ‘시골에’는 ‘지점 위치’로 파악된다. 다른 하나는 ‘산다’가 ‘살아가는 행위’의 의미라면 ‘내부 위치’의 의미가 된다. 즉 이러한 경우의 의미를 표현할 경우에는 ‘-에’를 ‘-에서’로 교체할 수 있다. 중국어 번역문을 보면 여기의 ‘-에’는 ‘在’로 대응시킬 수 있다. 중국어 개사 ‘在’는 한국어 조사에서 ‘-에’와 ‘-에서’에 모두 대응된다. 따라서 ‘-에’는 ‘지점 위치’와 ‘내부 위치’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점 위치’ 개념 공간 의미 표현의 ‘-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의 의미 중에서 ‘지점 위치’인 개념 공간 의미를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다.

(5) 가.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

다. 우리, 오후에 만나자.

라. 그 시간에 뭐 할 거니?

(5가)에서 보는 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에’는 행동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조사의 공간 의미에서 ‘지점 위치’는 행동의 기준이 되는 ‘공간 지점’을 제시한 것이다. ‘시간’은 2차 실체 개념이다. ‘시간’을 가리킬 때 1차 실체 개념의 ‘지점’으로 볼 수 있고 개념 공간에서 ‘지점 위치’로 파악할 수 있다. (5나)에서 ‘아침에’의 ‘-에’는 운동하는 ‘기준 시간’을 가리킨다. (5다)에서 ‘오후에’의 ‘-에’는 약속하는 기준 시간을 가리킨다. (5라)에서 ‘시간에’의 ‘-에’는 ‘무엇을 하는’ 행동의 기준 시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5)에 제시된 ‘-에’는 모두 ‘기준 시간’의 의미로 ‘지점 위치’의 공간 의미에 대응된다.

3) ‘도착점’ 개념 공간 의미 표현의 ‘-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의 의미 중에서 ‘도착점’ 개념 공간 의미를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다.

(6) 가.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나. 학교에 가다.

다. 동생은 방금 집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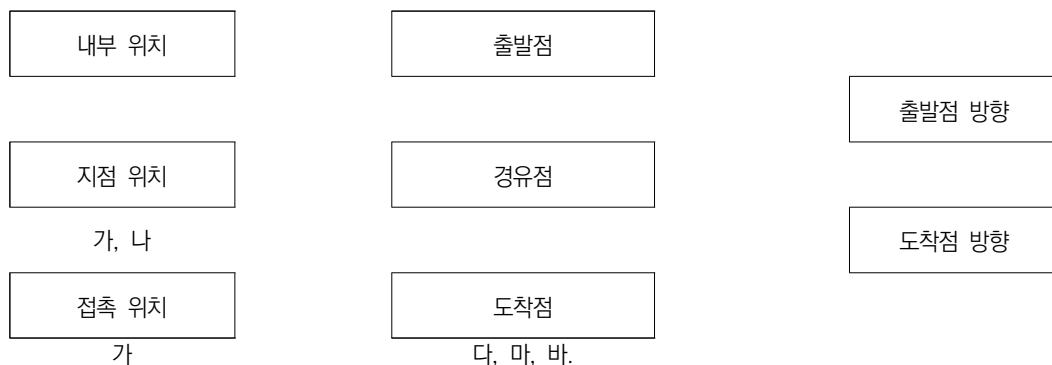
라. 지금 산에 간다.

(6가)의 ‘-에’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6가)에서 대상인 ‘물’의 도착점은 ‘화분’이 된다. 따라서 (6가)의 ‘-에’는 ‘도착점’ 공간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6나)-(6라)에서의 ‘-에’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진행 방향’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6나)에서 ‘가다’는 행위가 완성되면 ‘주체’는 ‘학교’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6나)의 ‘-에’는 ‘도착점’의 공간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6다)에서 ‘갔다’는 행위가 완성된 ‘주체’는 ‘집’에 위치해서 ‘-에’는 ‘도착점’의 공간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6라)에서의 ‘-에’도 마찬가지다.

4) 조사 ‘-에’의 개념 공간 의미 종합

앞 논의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의 의미 중에서 공간 의미를 가진 것만을 개념 공간에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한 ‘가, 나, 다’ 등의 기호를 그대로 표시한다.



〈표 40〉 ‘-에’의 공간 의미 개념 공간

3.3. 조사 ‘-에’의 확장 의미 분석

1) ‘조건, 환경, 상태’ 등의 확장 의미 표현 ‘-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에’가 ‘조건, 환경, 상태’ 등의 확장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7) 가. 앞말이 조건, 환경, 상태 따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냈니?

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라. 기쁨에 넘치는 나날이었다.

(7가)에서 보는 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에’가 ‘조건/환경/상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조건/환경/상태’ 등의 의미에 해당되는 예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7나)의 ‘-에’는 ‘환경’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7나)의 ‘이 무더위에’는 ‘어떻게 지냈니’의 ‘환경’이 된다. ‘지내다’는 ‘장소’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리하여 ‘이 무더위’ 대신 ‘장소’ 의미를 가지는 ‘이 더러운 곳’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더러운 곳’에 조사 ‘-에’는 결합될 수 없고 ‘-에서’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지냈니?’라는

문장은 성립된다. ‘이 더러운 곳에서’의 ‘-에서’는 ‘내부 위치’ 공간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1차 실체인 공간 의미로는 ‘내부 위치’이지만 이 1차 실체 개념을 3차 실체 개념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면 ‘환경’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7다)의 ‘-에’는 ‘조건’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7다)의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는 ‘종이 문에 달리다.’와 유사한 구조의 구문이다. 다만 ‘생각하기에’는 3차 실체의 개념이지만 ‘문에’는 1차 실체 개념으로 ‘-에’는 ‘접촉 위치’의 공간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실체 개념의 ‘접촉 위치’의 공간 의미와 3차 실체 개념의 ‘조건’은 통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 문에 달리다.’는 피동사 ‘달리다’에 의한 피동적 구문이다. 이를 능동문으로 변형하면 ‘누군가가 문에 종을 달다’가 된다. 이 능동문에서의 ‘-에’는 ‘도착점’ 공간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1차 실체 개념인 ‘도착점’은 3차 실체 개념으로 ‘목적’이 된다. 그런데 ‘목적’의 의미가 피동적 구문에서 ‘조건’의 의미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문에 종을 달다’는 동작이며 ‘-에’는 ‘도착점’ 공간 의미인데 ‘문에 종이 달리다’는 ‘달다’의 피동에 의해 상태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문에 종이 달리다’에서의 ‘-에’는 피동사인 ‘달리다’에 의해 ‘도착점’ 공간 의미는 개념 공간에서 ‘동작’의 의미를 표현하는 ‘도착점’에서 ‘상태’의 의미를 표현하는 ‘접촉 위치’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구조 구문인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에서의 ‘-에’도 ‘접촉 위치’ 공간 의미에 대응시킬 수 있다.

(7라)의 ‘-에’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기쁨에 넘치는 나날이었다.’는 ‘자신감이 얼굴에 넘치다.’와 유사한 구조의 구문이다. 다만 ‘기쁨에’는 3차 실체의 개념이지만 ‘얼굴에’는 1차 실체 개념으로 ‘-에’는 ‘접촉 위치’의 공간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실체 개념의 ‘접촉 위치’의 공간 의미와 3차 실체 개념의 ‘상태’가 통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2) ‘대상, 목표이나 목적, 기준, 비교, 대상의 부사어’ 등의 확장 의미 표현 ‘-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가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을 가리킨다’고 설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가. 나는 그의 의견에 찬성한다.

나.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8가)를 보면 동작인 ‘찬성하다’는 대상인 ‘의견’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의견’은 ‘찬성하다’의 ‘도착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8나)에서 ‘거짓말에 속다’를 보면 동작인 ‘속다’의 도착점은 대상인 ‘거짓말’이 된다. 따라서 여기의 ‘-에’는 1차 실체인 공간 의미로는 ‘도착점’으로 파악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가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을 가리킨다’고 설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9) 가. 그는 자기의 일에 열의가 대단하다.

나. 나는 생각에 잠겼다.

(9가)와 (9나)에서의 ‘-에’는 ‘자기의 일’, ‘의견’과 같은 3차 실체 개념을 가리킨다. 그런데 (9가) ‘그는 자기의 일에 열의가 대단하다.’에서의 ‘대단하다’는 앞의 주어로 1차 실체 개념인 공간 의미와는 통합될 수 없다. 따라서 (9가)에서의 ‘일’은 3차 실체 개념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경우는 개념 공간 의미로 대응시킬 수 없다.

(9나) ‘나는 생각에 잠겼다’는 ‘배가 물에 잠겼다.’와 유사한 구조의 구문이다. 다만 ‘생각’은 3차 실체의 개념이지만 ‘물’은 1차 실체 개념으로 ‘-에’는 ‘도착점’의 공간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실체 개념의 ‘도착점’의 공간 의미와 3차 실체 개념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은 통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배가 물에 잠겼다.’와 유사한 구조 구문인 ‘나는 생각에 잠겼다’에서의 ‘-에’도 ‘도착점’ 공간 의미로 대응시킬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가 ‘목표나 목적의 대상을 가리킨다’고 설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0) 가. 몸에 좋은 보약.

나.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

(10가)와 (10나)에서의 ‘-에’는 ‘몸’, ‘감기’와 같은 3차 실체 개념을 가리킨다. 그러나 (10가)에서의 ‘좋다’와 (10나)에서의 ‘듣다’를 보면 다 공간 개념이 결합될 수 없다. 따라서 ‘-에’가 3차 실체의 개념인 ‘목표나 목적의 대상’을 가리킬 때 1차 실체 개념의 공간 의미와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명제인 ‘목표나 목적의 대상’은 3차 실체 개념에서 다시 새로이 파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가 ‘기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 가.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은 하지 마라.

(11가)에서의 ‘어긋나다’를 보면 ‘N(공간)+어긋나다’의 구조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11가)에서의 ‘-에’는 3차 실체의 개념인 ‘예의’에 대응되는 1차 실체 개념의 공간 의미를 찾을 수 없다.

(11나) ‘시대에’의 ‘-에’는 ‘보다, 비해서’의 뜻이다. ‘뒤떨어지는 생각’은 ‘시대의 기준’에 비교해서 나타난 것이다. 또는 ‘시대’는 ‘시기’의 뜻으로 2차 실체의 개념인 ‘시간’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2차 실체 개념인 ‘시간의 기준’은 1차 실체 개념인 ‘지점의 기준’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3차 실체 개념인 ‘기준’은 1차 실체 개념의 ‘기준’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가 ‘비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2) 그 아버지에 그 아들.

(12) ‘그 아들에 그 아버지’에서의 ‘-에’는 3차 실체의 개념인 ‘비교’ 의미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아들에 그 아버지’는 ‘그 나물에 그 밥’과 유사한 구조의 구문이다. ‘그 나물’은 구체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1차 실체의 개념으로 ‘-에’는 ‘도착점’의 공간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1

차 실체 개념인 ‘도착점’의 공간 의미와 3차 실체 개념의 ‘비교’는 통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가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가리킨다’고 설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3) 가.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시오.

나. 이 점이 시장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사항이다.

(13가)를 보면 ‘이 문제에 관한’의 ‘관한’은 앞에 공간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될 수 없다. ‘학교에 관한 공간 의미.’를 보면 앞의 ‘학교’는 1차 실체 개념인 장소인데 여기에서 장소 의미로 보이면 ‘-에서’로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공간 의미는 통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13가)에서의 ‘-에’는 3차 실체 개념에서 1차 실체 개념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

(13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에’는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가리킬 때 1차 실체 개념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원인’ 등의 확장 의미 표현 ‘-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원인’ 등의 확장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14) 가.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 바람에 꽃이 지다.

다. 그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다.

라. 그까짓 일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원인’은 실재론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명제라서 3차 실체 개념이다. (14나)를 보면 ‘꽃이 지’의 원인은 ‘바람이 부는 것’이다. 그러나 ‘지다’에는 의미 상 공간 개념이 결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다’에 의해 여기의 ‘-에’는 3차 실체 개념인 ‘원인’을 가리킬 때 1차 실체 개념 공간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

(14나)와 (14라)에서의 ‘-에’도 마찬가지다. ‘듣다’, ‘상하다’에 의해 3차 실체 개념인 ‘원인’을 가리킬 때 1차 실체 개념 공간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

4) ‘수단이나 방법’ 등의 확장 의미 표현 ‘-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단이나 방법’ 등의 확장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15) 가.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가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 등잔불에 글을 읽었다.

다.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

‘수단이나 방법’은 추상적 명제라서 3차 실체 개념이다. (15나)를 보면 여기에서의 ‘-에’는 3차 실체 개념인 ‘수단’을 1차 실체 개념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

(15다)를 보면 ‘햇볕에 옷을 말렸다’에서의 ‘햇볕’이 공간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햇볕’을 공간 의미로 파악하면 ‘-에서’의 의미가 나와서 ‘-에’의 ‘수단이나 방법’ 등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15다)에서의 ‘-에’도 3차 실체 개념인 ‘수단’을 1차 실체 개념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

5) ‘자리나 노릇’ 등의 확장 의미 표현 ‘-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리나 노릇’ 등의 확장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16) 가. 앞말이 맡아보는 자리나 노릇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 반장에 그가 뽑혔다.

(16나)를 보면 ‘반장에 그가 뽑혔다’는 ‘반장으로 그가 뽑혔다’로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16나)에서의 조사 ‘-에’는 ‘도착점 방향’의 의미를 가진 ‘으로’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도착점 방향’은 ‘반장’이라서 개념 공간으로는 도착점 방향에 대응시킬 수 있다.

6) 조사 ‘-에’의 확장 의미 종합

앞 논의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의 의미 중에서 3차 실체 개념에서 1차 실체의 개념과 대응될 수 있는 것이 있고 1차 실체의 개념과 대응되지 않는 것도 있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의 의미 중에서 확장 의미를 가진 것만을 개념 공간에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한 ‘가, 나, 다’ 등의 기호를 그대로 표시한다. 그중에 ‘가, 나, 다’ 등으로 3차 실체 개념은 1차 실체 개념과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가), (나), (다)’ 등으로 1차 실체 개념과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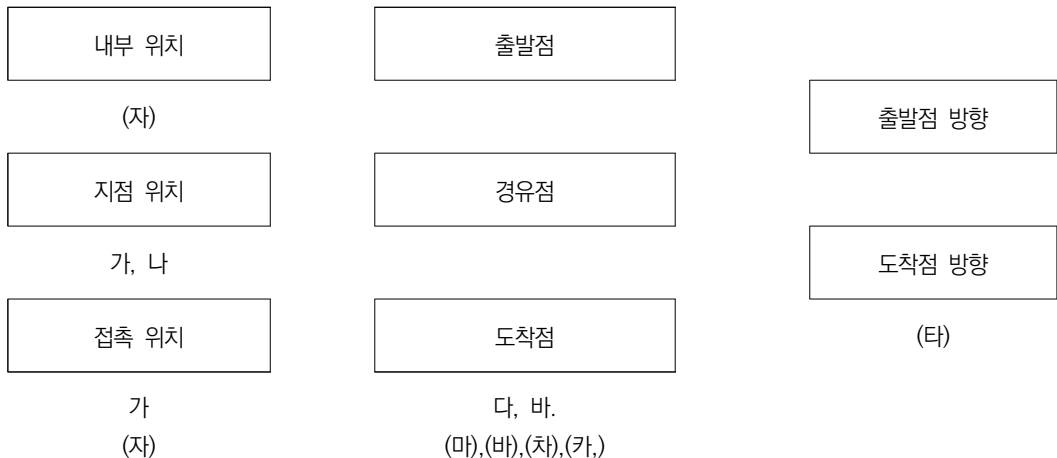
내부 위치	출발점	
자	(라)	출발점 방향
지점 위치	경유점	
	(아)	도착점 방향
접촉 위치	도착점	타
자	마,바,차,카, (사),(하),(까)	

〈표 41〉 ‘-에’의 확장 의미 개념공간

조사 ‘-에’가 3차 실체 개념에서 1차 실체의 개념과 대응되는 것이 있고 1차 실체의 개념과 대응되지 않는 것이 있다. 조사 ‘-에’의 의미 중에 ‘조건/환경/상태,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 기준, 자리나 노릇’ 등을 가리킬 때 1차 실체 개념 의미와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 수단/방법, 목적/목표, 대상의 부사어임’ 등을 가리킬 때 1차 실체 개념 의미와 대응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 때 조사 ‘-에’의 ‘원인, 수단/방법, 목적/목표, 대상의 부사어임’ 등 확장 의미는 1차 실체 개념 의미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고 파생된 3차 실체 확장 의미에서 다시 새로운 파생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4. 조사 ‘-에’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의 종합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의 의미 중에서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를 가진 것을 개념 공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한 ‘가, 나, 다’ 등의 기호를 그대로 표시한다. 그중에 ‘가, 나, 다’ 등으로 공간 의미를 표시하고 ‘(가), (나), (다)’ 등으로 확장 의미를 표시한다.



〈표4〉 ‘-에’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의 종합 개념 공간

3차 실체 개념의 확장 의미에서 1차 실체 개념 의미와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때 개념 공간에서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의 개념 공간 의미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4〉에서는 조사 ‘-에’의 1차 실체 공간 의미와 1차 실체 공간 의미와 대응시킬 수 있는 3차 실체 확장 의미만 제시하였다.

4. 조사 ‘-에서’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 분석

4.1. ‘-에서’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기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조사 ‘-에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7) 8)가.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 나.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서울에서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냐?
- 다. 앞말이 어떤 일의 출처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는 모기업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 라. 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마.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이에서 어찌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
- 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이번 대회는 우리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7)에서 보는 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에서’에 대한 의미 6개를 제시하고 있다. 6개 의미는 ‘처소, 출발점, 출처임, 근거, 비교의 기준, 단체 명사 주어’ 등이다.

‘처소, 출발점’ 등은 공간 의미이고 ‘출처임, 근거, 비교’ 등은 확장 의미이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 구분 없이 기술을 하여, 조사 ‘-에서’가 가진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먼저 조사가 가진 공간 의미를 기술하고 확장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조사 ‘-에서’가 가진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에서’가 가진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의 관계가 설명이 되지 않은 점도 조사 ‘-에서’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간 의미와 연관되는 확장 의미를 제시해 주면 조사 ‘-에서’가 가진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2 조사 ‘-에서’의 개념 공간 의미

1) ‘내부 위치’ 개념공간 의미 표현의 조사 ‘-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서’의 의미 중에서 ‘내부 위치’ 개념 공간 의미를 표현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한 것은 다음과 같다.

(18) 가.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다.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

라. 이 물건은 시장에서 사 왔다.

(18가)에서 보는 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서’는 ‘처소’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18나) ‘도서관에서 만나다’에서 ‘만나다’의 행위는 ‘도서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에서’는 ‘내부 위치’인 ‘도서관’을 가리킨다. (18다)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행동은 ‘가게 앞’의 장소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이때는 ‘-에서’도 ‘내부 위치’를 가리킨다. (18라)도 마찬가지다.

2) ‘출발점’ 개념공간 의미 표현의 ‘-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의 의미 중에서 ‘출발점’ 개념 공간 의미를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다.

(19) 가.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 서울에서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사 ‘-에서’는 (19가)처럼 ‘출발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19나)의 조사 ‘-에서’는 출발하는 장소인 ‘서울’을 가리킨다. 또는 (19나) ‘-에서’는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從’으로 번역되어 ‘출발점’의 공간 의미와 대응된다.

3) 조사 ‘-에서’의 공간 의미 종합

앞 논의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서’의 의미 중에서 공간 의미를 가진 것만을 개념 공간에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한 ‘가, 나, 다’ 등의 기호를 그대로 표시한다.

내부 위치	출발점	
가	나	출발점 방향
지점 위치	경유점	
		도착점 방향
접촉 위치	도착점	

〈표 43〉 조사 ‘-에서’의 공간 의미 개념공간

4.3 조사 ‘-에서’의 확장 의미 분석

1) ‘출처임, 근거, 단체 명사 주어’등의 확장 의미 표현 조사 ‘-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출처임, 근거, 단체 명사 주어’ 등의 확장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20) 가. 그는 모기업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나.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가) 조사 ‘-에서’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출처임’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출처’는 ‘사물이나 말 따위가 생기거나 나온 근거’이다.⁹⁾ (20가)에서 ‘그’가 조사를 받고 있는 근거는 ‘모기업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의 ‘-에서’는 장소인 ‘모기업’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돈을 받는 혐의’의 출처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의 ‘-에서’는 1차 실체 개념과 3차 실체 개념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다.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20가)에서의 ‘-에서’는 ‘출발점’ 의미를 가진 개사 ‘從’으로, 영어에서도 ‘from’으로 대응시킬 수 있어서 개념 공간 의미에서 ‘출발점’과 대응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나)에서의 ‘-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근거’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근거’는 추상적인 명제이고 3차 실체이다. (20나) ‘드리는 말씀’의 출처는 ‘고마워서 드리는 말씀’이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에서’는 1차 실체의 공간 의미로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0다)에서의 ‘-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체 명사의 주어’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20다)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힘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의 ‘학교’는 단체 주어로서 공간 의미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의 ‘-에서’는 1차 공간 의미로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비교의 기준’등의 확장 의미 표현 조사 ‘-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비교의 기준’ 등의 확장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21) 가.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 이에서 어찌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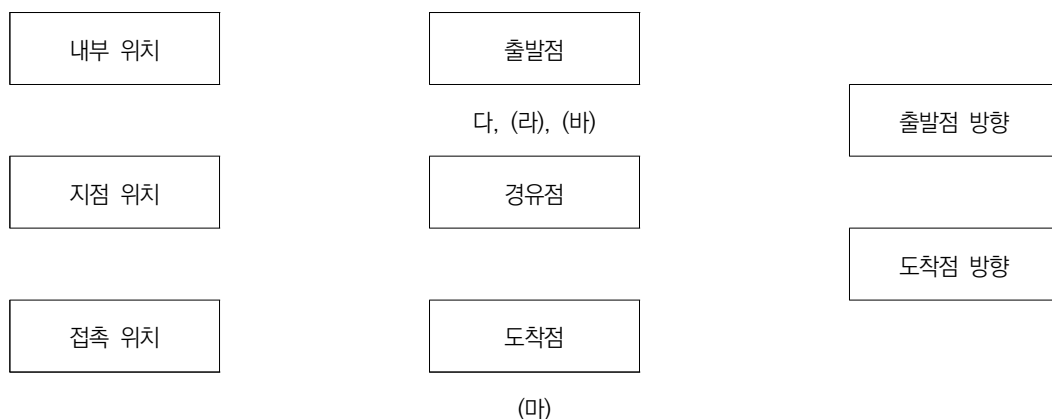
조사 ‘-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21가)처럼 ‘비교의 기준’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비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교, 기준'은 추상적인 명제라서 '확장 의미'로 파악된다. (21나)에서의 조사 '-에서'는 '이'에 비해 더 나쁜 상황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 '이'는 제일 나쁜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의 '이'는 1차 실체의 공간 의미로 대응되지 않는다.

3) 조사 '-에서'의 확장 의미 종합

앞 논의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서'의 의미 중에서 3차 실체 개념에서 1차 실체의 개념과 대응될 수 있는 것이 있고 1차 실체의 개념과 대응되지 않는 것도 있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서'의 의미 중에서 확장 의미를 가진 것만을 개념 공간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한 '가, 나, 다' 등의 기호를 그대로 표시한다. 그중에 '가, 나, 다' 등으로 3차 실체 개념은 1차 실체 개념과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가), (나), (다)' 등으로 1차 실체 개념과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표시한다.



〈표 44〉 조사 '-에서'의 확장 의미 개념공간

조사 '-에서'가 3차 실체 개념에서 1차 실체의 개념과 대응되는 것이 있고 1차 실체의 개념과 대응되지 않는 것이 있다. 조사 '-에서'의 확장 의미 중에 '출처임' 등을 가리킬 때 1차 실체 개념 의미와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근거, 비교, 단체 주어임' 등을 가리킬 때 1차 실체 개념 의미와 대응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 때 조사 '-에서'의 근거, 비교, 단체 주어임 등 확장 의미는 1차 실체 개념 의미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고 파생된 3차 실체 확장 의미에서 다시 새로운 파생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4.3. 조사 ‘-에서’의 공간 의미 확장 의미의 종합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술된 조사 ‘-에서’의 의미 중에서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를 개념 공간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한 ‘가, 나, 다’ 등의 기호를 그대로 표시한다. 그중에 ‘가, 나, 다’ 등으로 공간 의미를 표시하고 ‘(가), (나), (다)’ 등으로 확장 의미를 표시한다.



〈표 45〉 조사 ‘-에서’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의 개념공간

3차 실체 개념의 확장 의미에서 1차 실체 개념 의미와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때 개념 공간에서 대응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의 개념 공간 의미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6〉에서는 조사 ‘-에서’의 1차 실체 공간 의미와 1차 실체 공간 의미와 대응시킬 수 있는 3차 실체 확장 의미만 제시하였다.

4. 결론

생략함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라이언스, 강범모(2013), 『의미론2』, 한국문화사.

박진호(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회, Vol. 63 No.

박진호(2015), 「언어유형론이 한국어 문법 연구에 계시는 것들」, 日語日文學研究, 94.1, No.1.

이건식(2017),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조건’과 ‘양보’의 부사와 보조사에 대하여」, 구결학회, Vol.39 No.

Hardarik Blühdorn Mannheim(2010), 「A semantic typology of sentence connectives」, Harden, Theo/Hentschel, Elke(eds.): 40 Jahre Partikelforschung. Tübingen: Stauffenburg, 2010. p216.

G. 레이코프, M. 존슨, 노양진, 나익주(2022), 『삶으로서의 은유』, 박찬익.

〈토론문〉

순홍(2023), 〈현대 국어 조사 ‘-에, -에서’ 등의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에 대하여 -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

최성규(거레말큰사전)

순홍 선생의 발표문을 잘 보았습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은 현대 국어 조사 ‘-에’, ‘-에서’의 다양한 의미 항목을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라는 틀을 통하여 자세히 분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두 가지 내용이 더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에 관한 의문(또는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어의 介词(전치사) ‘在’, ‘从’ 및 문법화한 ‘上’ 등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토론자의 질문 및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 ‘-에서’의 의미 항목 분석

현대국어 ‘-에’, ‘-에서’의 의미 항목을 자세하게 살펴본 논의는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단행본으로도 남기심(1993) 등이 일찍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모든 논의를 다 활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중요한 논의들 몇몇은 더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논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더 발전되거나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이 글만의 독창성과 가치가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라는 틀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는 이 글에서 매우 중요한 분석 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박진호(2015), H. B. Mannheim(2010), 라이언스·강범모(2013) 등에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삼은 듯합니다. 토론자가 보기에 이 분석 틀의 출처는 밝혀져 있으나, 이 분석 틀이 기존의 다른 틀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뒷받침 설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단어든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데, ‘-에’와 ‘-에서’의 기본은 처소(또는 공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결국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라는 틀만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잘 짚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틀보다 더 뛰어난 장점이 무엇인지, 뒷받침하는 설명도 더 있었으면 합니다(바로 다음 항목과도 관련).

3. 현재 사전 처리의 타당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항목 분류와 배열에 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온 이병근(2000)에서도 아쉬운 점을 거론할 만큼 일찍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구분 비판은 그 나름의 타당성이 있겠으나 새로

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년)의 경우는 의미 항목을 더욱 자세하게 나누고, 분류에 층위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사전은 의미 항목 분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전이라 하겠는데, 이곳에서 ‘에’와 ‘에서’의 의미 항목을 보이면 아래와 같습니다(뜻풀이 중에서 “체언의 뒤에 붙어, 앞의 체언이……”라는 부분은 반복되므로 생략함).

예5 조사

- (1) (ㄱ) 어떤 사물이 존재하거나 나타나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ㄴ) 무엇이 발생하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ㄷ) 향하거나 다다른 지점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ㄹ) 그와 관련한 행위가 반복하여 일어나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ㄴ)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나타나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ㄷ)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나타나는 추상적인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2) (ㄱ)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ㄴ)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ㄷ) 목적하거나 목표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ㄹ) 도구, 수단, 방법 따위가 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3) 판단이나 비교의 기준 또는 기준이 되는 단위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4) ‘그치다’, ‘달하다’, ‘미치다’, ‘불과하다’, ‘이르다’ 따위의 용언과 함께 쓰여, 동작이나 상태가 미치는 한도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5) 맡는 자리나 역할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6)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행동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7) (ㄱ) 행동이나 동작의 원인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ㄴ) 주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또는 그런 원인이 되는 도구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8) 어떤 일의 조건, 상태, 상황 등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 (9) … (12)는 생략.

예서2 조사

- (1) (ㄱ) 일이나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ㄴ) 일이나 행동이 일어나는 추상적인 공간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2) (ㄱ) 일이나 행동이 비롯되는 출발점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ㄴ) 일이나 행동이 비롯되는 추상적인 상태나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ㄷ) 어떠한 사실이 비롯된 출처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3) 어떤 행동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 (4)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의 뒤에 붙어, 일이나 행동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대체로 ‘공간 의미’를 앞에 두고, ‘확장 의미’를 뒤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의 (2ㄱ)은 ‘공간 의미’에 해당되나(예문: 칠판에 글씨를 썼다, 벽에 몸을 기댔다 등), (2ㄴ, ㄷ, ㄹ)은 ‘확장 의미’에 해당됩니다(예문: 생각에 잠기곤 한다, 감기에 잘 듣는 약, 옷을 햇볕에 말려야겠다…).

비록 국가 기관에서 만든 사전은 아니라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또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사전이므로, 이 사전의 의미 항목 처리 또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에서 다룬 ‘공간 의미’와 ‘확장 의미’라는 구분이 다른 구분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년)의 분류 기준보다 더 좋은 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4. 한국어-중국어의 비교

비록 발표문의 중심 내용은 아니나, 군데군데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어의 경우 한 단어 내부의 의미 항목 정도로만 구분되는 것이, 중국어의 경우 아예 다른 단어로 나타난다는 설명이 보이기도 합니다. 발표문에 인용된 박진호(2015)의 의미 지도도 본래는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는 논의 속에서 나온 것인데, 한-중 두 언어를 비교하기로 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만, 한국어의 ‘에’, ‘에서’와 중국어의 ‘在’, ‘于’ 등을 비교한 논문은 한국에서 발표된 석사학위논문만 해도 여러 편이 이미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과 겹치지 않으면서 더욱 발전된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문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소 급하게 썼습니다. 토론자가 잘못 보아 서투르게 말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 및 참여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발표문에 이미 있었던 것은 제외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에’와 ‘-로’를 중심으로, 서광학술자료사.

이병근(2000)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정의(뜻풀이)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0-1.

《진언집》 ‘홍무운도’의 청탁체계에 대하여

- ‘훈민정음 표기’의 배열을 중심으로 -

이찬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

〈목 차〉

1. 서론
2. 《진언집》 훈민정음 표기의 실체
3. ‘실담운도 오음’의 청탁체계
4.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청탁체계
5. 결론

1. 서론

《진언집》(1800) ‘망월사본’¹⁾ 권두에는 ‘진언(眞言)’의 ‘梵-中-韓’ 대응 표기에 관하여 표기법 및 음가 등을 개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는 ‘洪武韻字母之圖(홍무운자모지도)’(이하 ‘진언집본 홍무운도’로 칭함.)가 있다. ‘홍무운도’는 《홍무정운》(1375)의 성모를 31개로 정리한 것인데 《사성통해》(1517)에 수록된 ‘洪武韻三十一字母之圖(홍무운삼십일자모지도)’를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이하 ‘원본 홍무운도’로 칭함.) 그런데 ‘진언집본 홍무운도’를 ‘원본 홍무운도’와 비교해 보면, 운도의 행렬 구분은 유사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청탁전차가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 먼저 아·설·순음에서 청탁전차 배열이 원본과 다르고, 차·후·반설·반치음의 배열에서도 아·설·순음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진언집》 권두의 청탁 관련 언급을 바탕으로 청탁전차를 분석하여, ‘진언집본 홍무운도’와 ‘원본 홍무운도’가 청탁전차의 배열에서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탁전차에 대하여 《진언집》 ‘망월사본’ 범례에서는, 청탁전차는 ‘언자(諺字)의 단복변(單複邊)’으로 분별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청탁전차의 사용법’은 ‘오음(五音)에 영시(影示)’ 되어 있고 이를 정리하여 ‘언자(諺字)로 명시(明示)’한다고 하였다³⁾. 이러한 언급에서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청탁전차 배열은 한자음이 아닌 ‘언자’ 즉, 훈민정음 기준에서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할 수

1) 이 글에서 주요 자료로 삼은 《진언집》(1800)은 동국대중앙도서관소장 관리번호 ‘213.19 용61x2 // D24303’ 본이다(동국역경원에서 영인본 확인 가능). 이를 《진언집》 ‘망월사본’이라 일컫기로 한다. 그 외 대표적인 《진언집》에는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이 있다.

2) ‘원본 홍무운도’는 《홍무정운역훈》(1455)에 실렸을 것이나, 《홍무정운역훈》은 해당 부분이 영본이라 ‘홍무운도’를 확인할 수 없다. 후대 최세진(1468-1542)이 지은 《사성통해》(1517) 권두에 ‘洪武韻三十一字母之圖’라는 명칭으로 실려 있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스캔본 부록 첨부.)

3) 범례에서 ‘언자로 명시’라고 한 부분은, 《진언집》 권두에서 청탁전차를 체계적으로 보이고 있는 ‘진언집본 홍무운도’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스캔본 부록 첨부.)

있다. 이처럼 《진언집》 범례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개념의 청탁전차를 소개하면서도, 그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언자의 단복변이 무엇인지와 오음에 영시되었다는 청탁전차의 사용법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진언의 ‘훈민정음 및 한자음’의 표기법, 음운 등에 관한 연구로는 심재기(1976), 박병채(1979)를 비롯하여 안주호(2002ㄱ), 안주호(2002ㄴ), 안주호(2002ㄷ), 안주호(2003), 변순미(2003), 이태승(2010), 강대현(2017ㄱ), 안영희(2018ㄱ), 안영희(2018ㄴ) 등이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청탁전차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한 연구로는 안영희(2018ㄴ)이 유일해 보인다. 안영희(2018ㄴ)에서는 《진언집》 실답장 자모의 청탁체계를 살펴면서 ‘진언집본 홍무운도’와 ‘원본 홍무운도’의 청탁체계를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실답 범어의 유성유기음, 한자의 탁음, 훈민정음 각자병서 표기의 대응 관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확대하여 《훈음중편》(18세기)에 나타난 청탁체계를 함께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범-중-한’ 대응의 표기법 및 음운 등에 대한 분석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본 홍무운도’의 청탁전차 배열이 ‘진언집본 홍무운도’에서 변동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그 변동 이유와 원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진언집》 훈민정음 표기의 실체

《진언집》 본문에는 진언의 ‘범-중-한’ 표기인 ‘실답자-한자-훈민정음’이 나란히 대응되어 있다. 먼저 이 장에서는 《진언집》 본문의 훈민정음 표기가 어떤 기준에서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진언집》 권두에는 훈민정음 표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언급이 있는데, 다음은 《진언집》 ‘만연사본’ 서문의 내용이다.

근세 선종에서 범자를 이해한 자가 많지만, 모두 모양의 호로에 의거하였다. … 이제 나(용암화상)와 백암이 제경의 언해와 홍무정운, 삼운성취 등을 널리 수집하여 그것을 참조하였다. … 여러 스승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오직 화상(용암)만이 열심히 살펴 그 뜻을 밝혔다. 사람들로 하여금 언자로 한자를 알게 하고, 한자로 범자를 알게 했다. (近世禪宗解梵字者多類 皆依樣畫胡蘆 … 今和尚與白巖廣菟諸經諺解 洪武正韻 三韻聲彙等參互讎勘 … 諸師不解基義 惟和尚熟覽而發明 令人因諺而弁漢 因漢而弁梵)<진언만연序:1ㄴ>

인용문의 밑줄 부분은 ‘범자는 한자음으로 알게 하고, 한자음은 언자로 알게 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해석을 《진언집》 본문의 ‘범-중-한’ 표기에 적용하면, 자음과 모음이 결합한 음절자 형식인 실답자를 일음절의 한자로 표기하고, 그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실답자-한자-훈민정음’ 표기는 음절 단위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바로 《진언집》의 권두 구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진언집》 ‘망월사본’ 권두 구성이다.

서, 발, 총론, 아자론, 음아우자론, 실담장해의총론, 진언집범례, 홍무운자모지도, 언문16자모, 범본오십자모실담장, 그림, 부적 4면, 진언집 목록.

《진언집》‘망월사본’ 권두의 ‘아자론, 음아우자론’, ‘실담장해의총론’ 등에서는 주로 실담자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범-중-한’ 대응 표기에 대하여 그 표기법과 음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는 ‘범본오십자모실담장⁴⁾’이 있는데, 실담자 자음과 모음에 대하여 한자음 및 훈민정음을 음소 단위로 대응시키며 그 예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경우에도 실담자 자음에 대하여 음소 단위의 대응 예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언집》본문의 훈민정음 표기는 실담자의 자음과 모음, 즉 실담자를 음소 단위로 파악한 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진언집》‘망월사본跋’에도 실담자와 훈민정음 표기가 음소 단위로 대응한다는 짐작을 할 만한 언급이 있다.

오직 우리 동언서와 서역 범문만이 가장 정교하여 초·중·청·탁이 찬연하니 가히 불만하다. 이 책은 범문으로 버리를 삼고 동언과 한자를 다시 반대로 서로 맺어 각각 그 취지를 다하였다. 이 책이 나라 가운데 행해지게 하여 자예지독에 반드시 은후로 하여금 변색하지 않게 하였다. (唯我東諺書 與西土梵文 最爲精巧 初終清濁聲狀可睹 是書 以梵文爲綱 以東諺漢字反覆相紐 各極其趣 使是書 行於中國 雌霓之讀 必不使隱侯變色焉)〈진언망월跋:1ㄴ〉

인용문은 ‘망월사본跋(1800)’에서 본문의 표기 순서가 ‘범-중-한’으로 대응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진언집》‘안심사본(1569)’과 ‘만연사본(1777)’은 표기의 대응 순서가 ‘한-중-범’으로 되어 있는데, ‘망월사본’에서는 범문이 기준이 되어 ‘한-중’의 배열이 바뀌면서, 결국 ‘범-중-한’의 순서가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동언서와 범문이 가장 정교하여 초·중·청·탁이 찬연하다’라고 한 것은 훈민정음 표기와 범문이 ‘초·중·청·탁’에서 1:1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범문이 기준이 된다는 점과 초·중·청·탁의 언급은, 실담자가 기준이 되어 훈민정음 자음 표기가 음소 단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언자로 한자를 알게 하고, 한자로 범자를 알게 했다.”라는 의미는 “한문을 통해서 실담자의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알 수 있었고, 그렇게 파악한 실담자 자모 음가를 바탕으로, 《진언집》 본문에서는 실담자를 자모 음소 단위로 읽고, 그것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자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본문에서는 실담자 본래 음과는 달리 훈민정음 표기된 부분이 소수 발견되는데(주로 모음), 이 부분에서는 한자음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진언집》 본문 및 권두의 ‘범본오십자모실담장’과 ‘홍무운자모지도’의 훈민정음 표기는 한

4) 《진언집》에서 ‘범-중-한’ 표기에 대하여 음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의 제목이 ‘실담장(범본오십자모실담장)’인데, 이 부분을 강대현(2017 7:208-210)에서는 ‘실담운도’라고 일컫고 있다. 실담자 자모에 대한 한자와 훈민정음 표기 및 음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담운도’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글에서도 ‘실담운도’라 일컫기로 한다.

자음이나 실담자를 음절 단위로 파악하여 표기한 것이 아니라⁵⁾, 실담자를 음소 단위로 파악하여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언집》 훈민정음 표기의 실체로 파악된다.

3. ‘실담운도 오음’의 청탁체계

《진언집》에서 청탁전차에 대한 직접 언급으로는, ‘진언집본 홍무운도’에는 ‘전청, 차청, 전탁, 차탁’의 체계가 나타나고, ‘실담운도’의 오음배열에는 ‘평청, 평탁’이라는 용어가 나타난다. 그러나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청탁전차 배열은 ‘원본 홍무운도’와는 다른 배열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담운도’의 ‘평청, 평탁’ 용어에서도 ‘평탁’의 ‘탁’은 탁음과는 관계없는 차청과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에서 《진언집》의 청탁전차는 기존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청탁전차가 ‘원본 홍무운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진언집》‘망월사본’ 범례 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청탁 전차는 언자의 ‘단, 복, 변’으로 분별하여 왔다. 고로 진언 구본 실담범자모를 쓴 언문은 그 예를 따라 사용하였다⁶⁾.(淸濁全次諺字單複邊辨之. 故眞言舊本悉疊梵本字母諺文依其例用之)<진언망월권두:13>

한어(漢語) 음운학에서 청탁전차는 한자음 성모의 [±유성성], [±유기성]의 분별, 즉 자음의 특정 자질을 분별하는 데 쓰인다.⁷⁾ 그러나 《진언집》 범례에서는 청탁전차는 언자의 단복변으로 분별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한자음의 청탁전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자 즉 훈민정음의 표기법적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청탁전차의 개념은 음운론적인 것이지만, 《진언집》의 청탁전차는 언자의 단복변이라는 표기법적 성격으로 쓰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⁸⁾.

- 5) 물론 실담자 복자음의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한자는 실담자 하나의 음소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6) 《진언집》(1569) ‘안심사본’ 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옛 청구에 <식모집> 한 질 있어 … 그 일부를 고쳐 씀에 있어서, 모두 옛 법에 따라 쓴 것으로 한 올이라도 임의로 쓴 뜻은 없다. (昔靑丘有識哀集一帙 … 故改書于一部, 皆以古法書之, 而無一毫自述之意)”, ‘안심사본’ 이후에 간행된 ‘만연사본’, ‘망월사본’ 등은 표기법에서 ‘안심사본’과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그 체계는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망월사본’ 범례에서 언자의 단복변으로 청탁전차를 구분한 원리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안심사본’을 시작으로 후대에도 지속 적용된 원리라 할 수 있다.
- 7) 청탁전차의 기존 개념은, ‘청탁’은 ‘유성성’, ‘전차’는 ‘유기성’에 대립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음 표는 최영애(2000:110-113)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重.*輕은 개합의 ‘경중’과 다름).

	청	탁		청	탁	청탁전차의 성격	
일반	맑음	흐림	음운학	高調	低調	全淸-不送氣淸塞(擦)音	次淸-送氣淸塞(擦)音
음악	短	長		陰	陽	全濁-濁塞(擦)音	次濁-流音(鼻音, 邊音, 零聲母)
	高	底		*重	*輕	全淸(又次淸)-淸擦音	全濁(又次濁)-濁擦音

- 8) 이 글에서 언자의 단복변은 훈민정음 제자해의 가획법으로 해석하는데, 가획법의 결과는 ‘음이 세진다’는 음운론적 결과와도 이어진다.

결국 《진언집》의 훈민정음 표기는 한자음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며, 또한 청탁전차의 개념도 기존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범례 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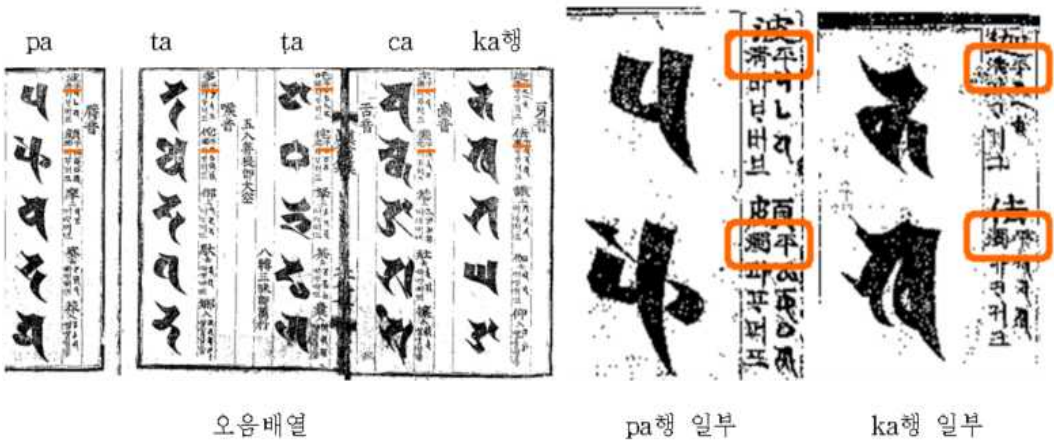
유독 청탁 전차의 사용법은 다만 오음에 영시되어 있을 뿐, 원문에서 상세히 논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 홍무정운의 자모 및 우리나라 제경의 언본 역해를 신증하여 언자를 명시하고자 한다. (惟清濁全次之法, 只爲影示於五音中. 而元文中終不舉論. 故今 依洪武正韻字母 及國朝諺本 諸經譯解新增 明示于諺字中)〈진언망월권두:13ㄴ〉

‘오음(五音)’은 실담 범어의 자음 25자를 말한다. 오음은 《진언집》 권두 ‘범문오십자모실담장’에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개념의 청탁전차가 쓰이는 것으로 위 인용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홍무정운》 등을 참고, 정리하여 언자로 명시한 것이 바로 ‘진언집본 홍무운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홍무운도’가 어떤 이유에 의해 청탁전차의 배열이 바뀌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진언집본 홍무운도’인데, ‘진언집본 홍무운도’만의 분석으로는 그 원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진언집》 범례 등의 설명에 근거하여 먼저 오음에 영시된 청탁전차의 사용법의 원리와 이유부터 파악하고, 이어서 ‘진언집본 홍무운도’에 그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로 한다.

3.1. 청탁전차 사용법

실담운도에서의 오음 배열은 실담 범어에서 사용하는 자음 배열순서이다. 다음 그림은 오음 배열 및 그 일부를 확대한 ka·pa행인데, 여기에 ‘청탁’을 표시한 ‘평청, 평탁’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오음 배열을 표로 재구성 한 것이다.



〈그림〉 ‘실담운도’의 오음 배열과 ‘평청·평탁’

〈표 1〉 ‘실담운도’의 오음배열⁹⁾

段	1단	2단	3단	4단 ¹⁰⁾	5단
성조·청탁	평청	평탁	상	거	입
아음	ka/迦/가	kha/佉/카	ga/誑/아	gha/伽/가(까)	ṇa/仰/앙
차음	ca/左/자	cha/差/차	ja/惹/사	jha/社/자(짜)	ṇa/攘/상
설음	ta/吒/다	tha/佉/타	ḍa/拏/나	ḍha/茶/다(따)	ṇa/囊/낭
후음	ta/多/다	tha/陀/타	da/那/나	ḍha/駄/다(따)	na/娜/낭
순음	pa/波/바	pha/頗/파	ba/摩/마	bha/婆/바(파)	ma/莽/망

9) 〈표 1〉의 성조·청탁은 실담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 청탁·사성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리고 아·차·설·후·순음은 실담장에서 조음 위치에 따라 나눈 다섯 그룹(데바나가리에서는 varga: ka-varge ... pa-varge로 일컫는다.)이다. 실담범어에서는 아·차·설·후·순음으로 일컫고 있지만, 실제 조음 위치는 순서대로 ‘연구개음, 경구개음, 권설음, 치조음, 양순음’이다. 한편 ‘段’은 ‘1-5’ 단으로 나누어지며, ‘prathama, dvitiya, tṛtiya, caturtha, pañcama’으로 불리는데 단순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라는 의미이다. 범어에서는 순서대로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유성비음’이다(토마스이진스저/김성철 역 2015), (전순환 2012)참고. 그리고 실담자는 ‘훈글프로그램’에서 입력이 불가능하여 로마자로 전환하여 연구에 사용한다.

〈표 1〉의 가로 행은 조음 위치에 따라 아·치·설·후·순음으로 구분되고, 세로 열은 음의 자질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그리고 오음 배열의 훈민정음 표기에는 방점이 있는데, 이 방점은 해당 한 자음의 성조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¹¹⁾.

청탁전차의 사용법이 오음에 영시되었다고 하나, 오음에서 청탁에 대해 명기한 부분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조·청탁’ 행의 1, 2단(회색 음영 부분)에 나타나는 ‘평청, 평탁’이라는 용어에서 ‘청탁’뿐이다. 이마저도 ‘평탁’의 ‘탁’은 탁음임에도 차청음 계열(ㄱ, ㅋ, ㆁ, ㆁ)과 대응하고 있다. 오음 배열에서의 ‘평청, 평탁’을 귀납적으로, ‘진언집본 홍무운도’에서 확인해 보면 각각 ‘차청, 전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원본 홍무운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는 청탁전차는, 오음의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청탁전차 배열 원리

이 절에서는 실담운도 오음 배열을 분석하여 청탁전차 배열 원리를 파악하기로 한다. 오음 배열을 음운의 [±유성성], [±유기성] 자질에 따라 분석하면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및 ‘비음’의 배열로 나타난다.

〈표 2〉 ‘실담운도’ 오음 배열과 [±유성성], [±유기성] 분석

조음방식 성조(*청탁)	무성		유성		비음
	무기	유기	무기	유기	
오음	평청(차청 ¹²⁾)	평탁(전탁)	상(전청)	거(차탁)	입
아음	ka/迦/가	kha/佉/카	ga/誡/:아	gha/伽/·가(까)	ŋa/仰/·향
치음	ca/左/자	cha/差/차	ja/惹/:사	jha/社/·자(짜)	ŋa/攘/·상
설음	ta/吒/다	tha/佉/타	da/拏/:나	dha/荼/·다(따)	na/囊/·낭
후음	ta/多/다	tha/陀/타	da/那/:나	dha/駄/·다(따)	na/娜/·낭
순음	pa/波/바	pha/頗/파	ba/摩/:마	bha/婆/·바(따)	ma/莽/·망

먼저 〈표 2〉를 보면, 오음 배열은 [±유성성]이 우선된 배열임을 알 수 있다. ka행 기준에서 보면, 무성음 ‘ka, kha’와 유성음 ‘ga, gha’ 조합으로 나누어진 후, 그 내부에서 [±유기성]에 따라 무기음·유기음 대응인 ‘ka : kha’와 ‘ga : gha’로 나누어진 것이다.

한편 ‘평청, 평탁’의 구분이 나타난 아음 ‘ka : kha’의 대응을 보면 ‘무기음 : 유기음’의 대응임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ga : gha’의 대응도 ‘무기음 : 유기음’의 대응이다. 이러한 ‘무기음 : 유기음’ 대응이 바로 ‘평청, 평탁’에서 말하는 ‘청탁’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곧

10) 유성유기음 계열의 훈민정음 표기는 실담운도와 본문에서의 사용법이 다르다. 실담운도에서는 ‘안심사본’은 단자음으로 표기되지만, ‘만연사본’과 ‘망월사본’은 쌍자음(각자병서)로 표기된다. 본문에서는 ‘만연사본’에서만 쌍자음으로 나타나고 ‘안심사본’과 ‘망월사본’에서는 단자음 표기로 나타난다.

11) 실담50자모에 대한 성조를 ‘광운, 홍무정운’과 비교하면 약 19자만 같은 성조로 나타난다.

12) 괄호 속 청탁전차 표기는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것을 인용한 것이다.

‘ka-kha-ga-gha’ 배열은 ‘청-탁-청-탁’ 순이 된다. 그러나 이는 오음 배열의 ‘평청, 평탁’이라는 용어와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청탁전차를 인용한 귀납적 분석일 뿐이고, 범례의 설명에서처럼 언자의 단복변으로 청탁전차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 설명을 위하여 먼저, <표 2>의 오음 배열을 언자의 단복변 원리로 재배열하기로 한다. 언자의 단복변이라는 개념은 해례의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ㄱ은 ㄴ에 비하여 소리가 나는 것이 조금 센 까닭으로 획을 더하였다. ㄴ에서 ㄷ, ㄷ에서 ㄸ, ㄴ에서 ㄹ, ㄹ에서 ㄺ, ㄹ에서 ㄻ, ㄹ에서 ㄼ, ㄹ에서 ㄽ, ㄹ에서 ㄾ, ㄹ에서 ㄿ으로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획을 더한 뜻(이치)은 다 같으나, 오직 ㄹ만은 다르다. (ㄱ비ㄴ 聲出稍厲 故加劃 ㄴ而ㄷ ㄷ而ㄸ, ㄴ而ㄹ, ㄹ而ㄺ, ㄹ而ㄻ, ㄹ而ㄼ, ㄹ而ㄽ, ㄹ而ㄾ 其因聲加劃之義皆同 而唯ㄹ爲異)<훈민정음 제자해>(강신항 2017:131-132 발췌)

해례의 가획법은 훈민정음 제자원리이고, 획이 더해짐에 따라 음이 세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언자의 단복변은 바로 이 가획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음으로 언자의 단복변을 설명하자면, ‘ㄴ-ㄷ-ㅌ’과 마지막에 ‘ㄸ’을 배열할 수 있다.(이렇게 배열하면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배열 순서와 같다.) 이 배열에서 언자의 단복변 개념은 ‘ㄴ-ㄷ’의 관계에서 ‘ㄴ’은 ‘單’이고 획이 더해진 ‘ㄷ’은 ‘複’이 된다. ‘ㄷ-ㅌ’의 관계에서는 ‘ㄷ’이 ‘單’, ‘ㄷ’이 겹쳐진 ‘ㅌ’은 ‘複’이 된다. ‘ㄸ’은 ‘ㄷ’의 ‘邊’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ㄷ’은 선행자와의 관계에서는 ‘複’이 되고, 후행자와의 관계에서는 다시 ‘單’이 된다.

실담운도의 오음 배열을 언자의 단복변 순으로 재배열하고, 이에 따른 ‘[±유기성], [±유성성]’ 자질을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음’ 열은 ‘홍무운도’에 배열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이하 같음).

<표 3> 오음 배열의 ‘언자의 단복변’ 원리에 따른 배열과 [±유기성], [±유성성] 분석

[±유기성]	무기		유기	
[±유성성]	유성	무성	무성	유성
單複邊	單	複 / 單 →	複	邊
아음(ka)	o/ga	ɳ/ka	ɰ/kha	ɳ(ɳ)/gha
차음(ca)	ʌ/ja	ʌ, ɰ/ca	ɰ/cha	ʌ(ʌ), ɰ(ɰ)/jha
설음(ta)	ㄴ/da	ㄷ/ta	ㅌ/tha	ㄷ(ㄷ)/dha
후음(ta)	ㄴ/da	ㄷ/ta	ㅌ/tha	ㄷ(ㄷ)/dha
순음(pa)	ㅁ/ba	ㅂ/pa	ㅍ/pha	ㅂ(ㅂ)/bha
청탁전차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언자의 단복변으로 재배열된 기준에서 실담자를 보면(ka행 기준), 선행 2자 ‘o/ga, ɳ/ka’는

무기성, 후행 2자 ‘ㄱ/kha, ㄴ/gha’는 유기성 자질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음 배열은 [±유성성]이 우선인 것에 반해, 언자의 단복변 배열은 [±유기성]이 우선인 것이 확인된다. 이 ‘유기성’은 해례에서 ‘음이 세진다’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며, [±유기성] 자질을 곧 ‘청탁’의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오음 배열에서의 범-한 대응: ka-kha-ga-gha(ㄱ-ㅋ / ㅇ-ㄱ(ㄴ)) ⇒ 유성성 우선 배열
 언자의 단복변의 범-한 대응: ga-ka-kha-gha(ㅇ-ㄱ / ㅋ-ㄱ(ㄴ)) ⇒ 유기성 우선 배열

오음 배열을 언자의 단복변 기준으로 재배열하면 유기성 특징이 나타나는데 [-유기성]의 ‘ga/ㅇ, ka/ㄱ’, [+유기성]의 ‘kha/ㅋ, gha/ㄱ(ㄴ)’로 우선 구분되어, 그에 ‘청’과 ‘탁’이 부여되었다. 한편 청음의 ‘ga/ㅇ, ka/ㄱ’와 탁음의 ‘kha/ㅋ, gha/ㄱ(ㄴ)’ 내부 배열에도 언자의 단복변 원리를 적용하는데, ‘ㅇ-ㄱ’은 ‘單-複’으로 여기에 전차를 부여하고, ‘ㅋ-ㄱ(ㄴ)’는 ‘複-邊’으로 여기에 전차를 부여한다¹³⁾. 이제 앞서 정한 ‘청탁’과 함께 ‘전차’를 결합하면 ‘ga/ㅇ-ka/ㄱ-kha/ㅋ-gha/ㄱ(ㄴ)’ 배열은 각각 ‘전청-차청-전탁-차탁’ 순이 된다. 이것이 곧 범례에서 ‘청탁전차는 언자의 단복변으로 분별한다’라고 언급한 부분의 의미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배열이 ‘진언집본 흥무운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언자 단복변’에 따른 청탁전차

실답 범어기준	ka/ㄱ - kha/ㅋ - ga/ㅇ - gha/ㄱ(ㄴ)				오음배열
언자 단복변 기준	ga/ㅇ - ka/ㄱ		kha/ㅋ - gha/ㄱ(ㄴ)		진언집흥무운도
	무기(청)		유기(탁)		청탁 부여
	單(전)	複(차)	複(전)	邊(차)	전차 부여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청탁전차 배열

4. ‘진언집본 흥무운도’의 청탁체계

2장에서는 《진언집》의 훈민정음 표기는 실답자나 한자의 음절 단위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실답자의 자음과 모음, 즉 음소 단위에 대응한 표기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실답운도 오

13) 오음을 언자의 단복변으로 재배열하면 1차적으로 선후행 두자씩 [±유기성]으로 구분되어 청탁이 부여된다. 다음 2차적으로 두자씩 구분된 내부를 배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1차적으로 [±유기성] 구분 후 남은 [±유성성]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자의 단복변 원리가 재차 적용된다. 한편 이 결과의 배열은 유성/무성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의 [±유성성]행의 ‘ㅇ(유성)-ㄱ(무성)-ㅋ(무성)-ㄱ(ㄴ)(유성)’을 보면 유성/무성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서, 《진언집》에서 청탁전차의 분별에는 오직 언자의 단복변이라는 원리만 적용되고 ‘유성성’은 청탁전차의 구분 기준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음의 분석으로 청탁전차의 사용법 및 변동 원리,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청탁전차 배열의 기본 원리는 언자의 단복변이며, 이는 싨답 범어의 유기성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방안으로 파악되었다.

언자의 단복변에 의한 배열은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배열과 같은데, 다만 이 원리대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설·순음 배열이다. 치음과 반치음에서는 치음과 반치음을 통합하여 배열한다면 아·설·순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후음, 반설음의 배열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원본 홍무운도’와 ‘진언집본 홍무운도’에 나타난 청탁전차 배열이 아·설·순·치·후·반설·반치에서 부분적으로 같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이유와 원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4.1. 청탁전차 사용법

다음 <표 6>과 <표 7>은 ‘홍무운도’인데, 각각 《四聲通解》(1517)와 《진언집》 ‘만연사본’(1777) / ‘망월사본’(1800)에 실린 것이다.

〈표 6〉 洪武韻三十一字母之圖 (《四聲通解》(1517))

五音	五行	七音	全清	次清	全濁	不清 不濁	全清	全濁
角	木	牙音	見 ㄱ·건	溪 ㅋ키	群 ㄱ·귄	疑 ㅇ이		
徵	火	舌頭音	端 ㄷ된	透 ㅌ틀	定 ㄷ·뎡	泥 ㄴ니		
羽	水	脣重音	幫 ㅍ방	滂 ㅍ팡	並 ㅍ뎡	明 ㅁ밍		
		脣輕音	非 ㅍ빙		奉 ㅍ·뎡	微 ㅁ뎡		
商	金	齒頭音	精 ㅈ징	清 ㅈ칭	從 ㅈ쥡		心 ㅅ심	邪 ㅅ씨
		正齒音	照 ㅈ·찰	穿 ㅈ쥡	牀 ㅈ쥡		審 ㅅ·심	禪 ㅅ·션
宮	土	喉音	影 ㅇ·잉	曉 ㅇ·향	匣 ㅇ·향	喻 ㅇ·유		
半徵	半火	反舌				來 ㄹ래		
半商	半金	半齒				日 ㄷ·싱		

〈표 7〉 洪武韻字母之圖 (《진언집》‘만연사본’(1777) / ‘망월사본’(1800))

五音	五行	七音	全清	次清		全濁	次濁	
角	木	牙音	疑 ㅇ의	見 ㄱ건		溪 ㅋ켜	群 ㄱ귄	
徵	火	舌頭音	泥 ㄴ니	端 ㄷ단		透 ㅌ투	定 ㄷ뎡	
羽	水	脣重音	明 ㅁ밍	幫 ㅍ방		滂 ㅍ팡	並 ㅍ뎡	
		脣輕音	微 ㅁ미	非 ㅍ비			奉 ㅍ뎡	
商	金	齒頭音		精 ㅈ징	心 ㅅ심	清 ㅈ칭	從 ㅈ쥡	邪 ㅅ씨
		正齒音		照 ㅈ쥡	審 ㅅ심	穿 ㅈ쥡	牀 ㅈ쥡	禪 ㅅ션
宮	土	喉音		喻 ㅇ유	曉 ㅇ효		影 ㅇ영	匣 ㅇ합
半徵	半火	反舌				來 ㄹ래		
半商	半金	半齒	日 ㄷ△					

‘홍무운도’의 가로 행은 조음 위치에 따라 7음(아, 설, 순, 치, 후, 반설, 반치)의 순서이고, 세로 열은 청탁전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교차점에 해당 자모를 배치하고 있다. 한편 ‘원본 홍무운도’와 ‘진언집본 홍무운도’는 그 형식과 내용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형식면에서,

① ‘원본 홍무운도’는 치음 ‘ㅅ, ㅆ / ㅆ, ㅆ’을 별도의 전청·전탁 칸에 배치하고 있으나, ‘진언집본 홍무운도’에서는 ‘ㅈ, ㅉ / ㅉ, ㅉ’이 배열된 차청·차탁 칸에 통합 배당되었다.

② ‘원본 홍무운도’의 ‘불청불탁’열은 ‘진언집본 홍무운도’에서 ‘차탁’열로 항목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③ ‘원본 홍무운도’에는 방점이 있으나 ‘진언집본 홍무운도’에는 방점이 없다.

④ ‘원본 홍무운도’에는 순경음 표기에 연서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진언집본 홍무운도’에서는 연서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외 종성 ‘ㄹ, ㅇ’ 등 표기법의 차이가 있다.

한편, 운도에 배치된 청탁전차 배열이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배열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네 항목에서 청탁전차 배열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원리로는 여전히 언자의 단복변을 적용하고 있다.

- ⑤ 아·설·순음 배열
- ⑥ 치음·반치음 배열
- ⑦ 후음 배열
- ⑧ 반설음 배열

4.2. 청탁전차 배열 원리

이 절에서는 앞서 분류한 ‘아·설·순음 배열, 치음·반치음 배열, 후음 배열, 반설음 배열’의 변동 원리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아·설·순음 배열 원리

다음 <표 8>은 ‘원본 홍무운도’와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아·설·순음 배열을 상·하단으로 보인 것이다. (순음은 순중음만 제시)

〈표 8〉 아·설·순음 배열

원본 홍무운도			
청		탁	불청불탁
전	차	전	
k/見/ㄱ	kh/溪/ㅋ	gh/羣/ㄲ	g/疑/ㅇ
t/端/ㄷ	th/透/ㅌ	dh/定/ㅍ	d/泥/ㄴ

p/幫/ㅂ	ph/滂/ㅍ	bh/並/ㅃ	b/明/ㅁ
g/疑/ㅇ	k/見/ㄱ	kh/溪/ㅋ	gh/羣/ㄲ(ㄴ)
d/泥/ㄴ	t/端/ㄷ	th/透/ㅌ	dh/定/ㄸ(ㅌ)
b/明/ㅁ	p/幫/ㅂ	ph/滂/ㅍ	bh/並/ㅃ(ㅅ)
전	차	전	차
청		탁	
진언집본 홍무운도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청탁전차 배열은 범례의 설명처럼 오음에 영시된 것을 정리하여 언자로 명시한 것이다. 오음에 영시된 양상을 언자의 단복변 원리로 재배열하면, 아음 기준에서는 ‘ㅇ-ㄱ-ㅋ-ㄴ’이 된다. 이를 먼저 [±유기성] 자질로 나누면 [-유기성]의 ‘ㅇ, ㄱ’, [+유기성]의 ‘ㅋ-ㄴ’이 되고 여기에 각각 ‘청탁’을 부여한다. 다시 그 내부에도 언자의 단복변을 적용하여 각각 ‘전차’를 부여한다. 이 결과 ‘ㅇ-ㄱ-ㅋ-ㄴ’는 ‘전청-차청-전탁-차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배열과 같다. ‘원본→진언집본’ 순서로 ‘불청불탁→전청, 전탁→차청, 차청→전탁, 전탁→차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진언집본 홍무운도’를 보면 ‘범-한-중’ 대응 표기의 음의 자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청탁전차의 구분 항목명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담 범어의 유기성에 주안점을 두면서, 실담 범어의 자음 체계를 운도 형식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나. 반치음, 치음 배열 원리

다음은 치음과 반치음의 배열이다. (치음은 치두음만 제시)

〈표 9〉 반치음·치음 배열

원본 홍무운도					
청		탁	불청불탁	전청	전탁
전	차	전			
精 ^ㅈ 징	淸 ^ㅊ 칭	從 ^ㅈ 쥬	[日△△]	心 ^ㅈ 심	邪 ^ㅈ 썩
[日△△]	精 ^ㅈ 정	心 ^ㅈ 심	淸 ^ㅊ 청	從 ^ㅈ 쥬	邪 ^ㅈ 썩

전	차	전	차	
청		탁		
진언집본 홍무운도				

먼저 반치음은 ‘원본 홍무운도’에서 불청불탁자이지만 ‘진언집본 홍무운도’에서는 전청자에 배치된다. 이는 아·설·순음에서 불청불탁자가 전청자에 배치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리고 치음은 ‘원본 홍무운도’에서는 ‘ㅅ/ㅆ, ㅈ/ㅊ’이 별도 칸에 배열되었지만, ‘진언집본 홍무운도’에서는 ‘ㅈ/ㅊ, ㅉ/ㅊ’ 칸에 통합 배치된다. 치음의 배열 원리는 아·설·순음과 같으나, 치음에는 불청불탁자가 없으므로 ‘진언집본 홍무운도’에서는 전청 칸이 빈칸으로 나타난다. 이 빈칸에 반치음을 배당하면 아·설·순음의 배열과 같은 구성이 된다.

다. 후음 배열 원리

다음은 후음 배열이다.

〈표 10〉 후음 배열 1

원본 홍무운도					
청			탁		불청불탁
전	차		전		
影ㅇ:힝	曉ㅇ:합		匣ㅎ:향		喻ㅇ:유
			影ㅇ형		匣ㅎ협
전	차		전		차
청			탁		
진언집본 홍무운도					

〈표 11〉 후음 배열 2

影ㄹ:힝	曉ㄴ:합	匣ㄹ:향	喻ㅇ:유
喻ㅇ:유	影ㄹ:형	曉ㄴ:효	匣ㄹ:협

후음 배열은 특이하다. 후음이 앞서 살펴본 아·설·순음의 배열 원리를 따른다면 하단 <표 11>과 같은 배열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상에서는 이와 다르게 상단 <표 10>처럼 나타난다. 후음이 일반적인 아·설·순음의 배열 원리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실담자 오음에는 후음 행이 없기 때문에 아·설·순음과는 다른 배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담 범어에서 후음은 거성의 ‘ha/賀/𪛗’ 한 글자뿐이다. 반면에 이에 대응하는 훈민정음 표기의 후음은 네 글자 ‘ㅇ, ㅎ, ㅎ, ㅎ’인데, 이들 모두 《진언집》에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아·설·순음 배열은 실담 범어의 유기음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배열인데, 후음에서는 ‘ㅇ’을 제외한 ‘ㅎ, ㅎ, ㅎ’이 모두 유기음이라 이를 분별하여 ‘진언집본 홍무운도’ 각 칸에 규칙적으로 배당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후음은 아·설·순음의 배열과는 체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진언집본 홍무운도’에서는 후음 배열은 청탁으로만 나누면서 ‘차’에 해당하는 칸에 배치되고 있다. 다만 배열이 아·설·순음과는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도 언자의 단복변이다.

후음을 언자의 단복변 원리로 재배열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후음은 ‘ㅇ(무기유성음) / ㅎ, ㅎ, ㅎ(유기유성음)’으로 모두 유성음이며, 내부에서는 ‘ㅇ(무기음) / ㅎ, ㅎ, ㅎ(유기음)’의 대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청탁을 나누면, 먼저 ‘ㅎ’은 다른 각자 병서자들처럼 ‘차탁’에 배치한다. 그러한 가운데 ‘ㅎ’은 ‘ㅎ’보다 유기성이 약함으로 상대적 자질에 의해 ‘청’이 된다. 그리고 ‘ㅇ’은 무기음으로 유기성을 가진 ‘ㅎ’과는 대립하므로 ‘ㅎ’은 상대적인 ‘탁’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ㅎ:탁 ↔ ㅎ:청 / ㅎ:탁 ↔ ㅇ:청] ⇒ 청탁끼리 모으면 ‘ㅇ, ㅎ: 청 / ㅎ, ㅎ: 탁’

이러한 원리에 의해 청탁은 ‘ㅇ-ㅎ-ㅎ-ㅎ’으로 배열된다. 다음은 배열내에서 전차를 정하는데 배열상 문제점이 있다. 후음을 언자의 단복변으로 배열하면 ‘ㅇ-ㅎ-ㅎ-ㅎ’인데 상대적 청탁 값으로 정한 배열은 ‘ㅇ-ㅎ-ㅎ-ㅎ’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 점이 아·설·순음 배열과는 다르다.) 후음의 상대적 청탁 배열 ‘ㅇ-ㅎ-ㅎ-ㅎ’의 내부에서 ‘ㅇ-ㅎ’, ‘ㅎ-ㅎ’은 단복변 배열이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언자의 단복변의 원리를 적용하여 ‘전차’를 붙이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¹⁴⁾. 따라서 더 이상 전차는 나누지 않고 청탁만 분류하여, ‘차’의 칸에 배치하게 되었다. 한편 이들이 ‘차’의 칸에 배당된 것은 탁음의 ‘ㅎ’이 ‘차탁’이기에, 이에 대응하여 청음의 ‘차’에 해당하는 칸에 배치한 것이다.

[ㅇ, ㅎ: 청 / ㅎ, ㅎ: 탁] ⇒ ㅇ, ㅎ: 차청 / ㅎ, ㅎ: 차탁

한편, 본문에서 후음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ㅇ’은 ‘ㅎ’과 함께 초성 자음에 쓰이고, ‘ㅎ’은 ‘ㅎ’과 함께 실담 범어 유기음 ‘ha’에 쓰인다. ‘ㅎ’은 ‘만연사본’ 본문과 ‘망월사본’ 실담장에만 나타난다. ‘ㅎ’은 ‘만연사본’ 본문에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한자와 훈민정음에서 [ㅅ유기성]으로

14) ‘ㅇ-ㅎ’의 단복변 배열은 ‘ㅇ-(ㅎ)-ㅎ’이고, ‘ㅎ-ㅎ’은 ‘ㅎ-(ㅎ)-ㅎ’인데, ‘(…)’부분을 건너 뛴 배열이 되었다.

청탁을 가리고 있으나 실답자는 ‘ha’ 하나뿐이다. 후음의 청탁전차를 가리는 것이 별 의미는 없어 보이나, 훈민정음 후음에는 초성으로 사용하는 ‘ㅇ’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반설음 배열 원리
 다음은 반설음 배열이다.

〈표 12〉 반설음 배열

원본 홍무운도			
청		탁	불청불탁
전	차	전	
			來ㄹ래
(ㄴ)	(ㄷ)	(ㄷ) 來ㄹ래	(ㅁ)
전	차	전	차
청		탁	
진언집본 홍무운도			

반설음은 來母로, 훈민정음은 ‘ㄹ’로 표기된다. ‘원본 홍무운도’에서 불청불탁자인 반설음은, 언자의 단복변 원리에 따르면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전청 칸에 배당되어야 하나(점선), 원리에 따르지 않고 전탁 칸에 배치되었다(실선). 한편 ‘ㄹ’ 표기로 나타나는 실답자에는 ‘ra/거성, la/평성, r/상성, ㄹ/거성, l/상성, ㄴ/거성’이 있다. ‘ㄹ’ 표기를 이 성조에 따라 운도에 배열할 수 있으나¹⁵⁾, 그렇게 배열한다고 하더라도 훈민정음 표기는 모두 ‘ㄹ’로 같으므로¹⁶⁾ 운도에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배열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표적으로 어느 한 칸(→전탁 칸)에 배치한 것이다. 이 결과 ‘ㄹ’이 배치된 칸은 음성·음운적 유사성이 없는 전탁 칸에 배치되었지만, 여기에도 어김없이 언자의 단복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반설음 ‘ㄹ’을 설음 배열 ‘ㄴ-ㄷ-ㄷ-ㄷ’와 비교해 보면, ‘ㄷ’의 ‘複’인 ‘ㄷ’의 자리에 배당된 것인데, ‘ㄹ’을 ‘ㄷ’의 다른 형태(‘ㄷ+ㄷ=ㄹ’)로 처리한 것이다.

15) 실답운도에서 오음에는 고유 성조가 표기된다. [±유성성], [±유기성]에 따라 오음 배열은 차례대로 ‘평-평-상-거-입’이 된다. 이렇게 부여된 성조를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자음에도 적용한다면, 운도에서도 [±유성성], [±유기성] 분별의 배열이 아닌, 성조 기준으로 자음을 배열할 수 있다.

16) 즉 청탁전차로 분류하여 배열하더라도, 표기는 앞서 살펴본 후음 열의 ‘ㅇ, ㅁ, ㅎ, ㅍ’처럼 다르지 않고, ‘ㄹ’ 하나로 동일하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청탁전차 배열이 ‘원본 홍무운도’와 달라진 이유와 그 원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진언집》 범례에서 청탁전차는 언자의 단복변으로 분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사용법은 ‘실담운도’ 오음에 영시되어 있고, 이와 함께 《홍무정운》 등을 신증하여 언자로 명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진언집본 홍무운도’를 일컫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글에서 분석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원본·실담운도·진언집본 홍무운도’의 청탁전차 분석

원본 홍무운도	전청	차청	차탁	전탁	홍무정운 한자음
실담운도 오음 배열	무성		유성		실담 범어 청탁 구분
	무기	유기	무기	유기	
	ka/ㄱ - kha/ㅋ		ga/ㅇ - gha/ㄱ(ㄴ)		실담범어 (오음 영시)
진언집 홍무운도	ga/ㅇ - ka/ㄱ		kha/ㅋ - gha/ㄱ(ㄴ)		언자 단복변 원리
	유성	무성	무성	유성	청탁 구분
	무기		유기		
	單	複/單→	複	邊	전차 구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실담 범어

실담운도 오음 배열은 실담 범어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비음’ 순으로 배열된다. ‘비음’을 제외한 이 배열은 [+유성성]이 우선된 배열이다. 한편 범례의 언급대로 이 배열을 언자의 단복변 기준으로 재배열하면 [+유기성]이 우선된 배열이 된다. 이는 곧 실담 범어의 ‘유기성’에 주안점을 둔 배열인데, ‘진언집본 홍무운도’의 배열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원본 홍무운도’는 《홍무정운》 한자음의 성모를 분석한 것이고, ‘진언집본 홍무운도’는 실담자의 오음을 분석한 것이다. 두 운도에서 청탁전차 배열이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원본 홍무운도’는 한자음의 유성성이 우선된 배열이고, ‘진언집본 홍무운도’는 범어음의 유기성이 우선된 배열이기 때문이다. ‘진언집본 홍무운도’ 청탁전차의 배열 원리는 언자의 단복변이고 이로써 실담 범어의 유기성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이유는 음운 체계가 다른 두 언어를 체계적으로 대응시키고, 한편으로 실담 범어의 자음 체계를 운도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자료

사성통해(1517), 학자원, 2017 영인본.
삼운성휘(1751), 홍문각, 2005 영인본.
실답자기(T. 54, No. 21320), 智廣撰.
진언집 만연사본(1777), 동국역경원
진언집 망월사본(1800), 동국역경원
진언집 안심사본(1569), 동국역경원.
홍무정운역훈(1455),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영인본.

참고문헌

강대현(2017ㄱ), 「조선시대 진언집 실답장의 범자음운 및 사상의 체계」, 규장각 50. 203-237.
강대현譯解/지광撰(2017ㄴ), 『중국 당대 실답자모의 음운론 실답자기역해』, 올리브그린.
강신항(2013), 『수증증보 훈민정음연구 7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박병채(1979), 「진언집실답장고」, 『국어문학』 20, 69-86.
변수미(2003), 「楞嚴心呪 悉曇梵字 한글 표기에 관하여」, 불교학연구, 7, 73-106.
심재기(1976), 「漢字의 眞言音寫에 대하여」, 김형규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256-270.
안병희(1971), 「十五世記의 漢字音 한글表記에 대하여」, 김형규박사송수기념논총, 일조각, 373-380.
안영희(2018ㄱ), 「진언의 한글 표기법 연구-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영희(2018ㄴ), 「『眞言集』 悉曇章의 清濁체계와 한글 대응의 분석」, 중국언어연구, 79, 1-26.
안주호(2002ㄱ),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 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 251-275.
안주호(2002ㄴ),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 연구」, 『배달말』 31, 175-196.
안주호(2002ㄷ), 「『眞言勸供·三檀施食文 諺解』의 진언표기방식 연구」, 국어학, 40, 89-113.
안주호(2003), 「만연사본 진언집(1777)의 표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33, 113-144.
이태승(2010), 「『진언집』 범자(梵字)한글음역 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그 해석」, 『인도철학』 28, 인도철학회, 171-197.
전순환(2012),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반야바라밀다심경 편』, 도서출판 지식과 교양.
최영애(2000),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菅沼晃(1986), 『サンスクリットの基礎と実践』, 平河出版社.(이지수 옮김(1990), 『산스크리트의 기초와 실천』, 민족사.)

唐作藩(2013), 『音韻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심소희 역(2015), 『한자 음운학』, 교육과학사.)

林光明編修(2001), 『新編大藏全呪』, 嘉豐出版社(臺灣).

Thomas Egenes(2003), 『Introduction To Sanskrit 01』,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김성철역(2015), 『산스크리트 입문 I』, 도서출판 씨아이알.)

검색사이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동국역경원 <https://kabc.dongguk.edu/>

SATaisho 新脩大藏經텍스트 데이터베이스 <https://21dzk.l.u-tokyo.ac.jp/SAT/>

[부록]

洪武韻字母之圖									
字母本三十六而如微澄孃併於照穿牀泥非今爲三十一									
五音	角	徵	羽	商	宮	半徵	半商		
五行	木	火	水	金	土	半火	半金		
七音	牙音	舌頭	唇音	唇音	齒頭	正齒	喉音	半舌	半齒
金清	疑 ^ㅇ	泥 ^ㄴ	明 ^ㅁ	微 ^ㅁ					日 ^ㄷ
次清	見 ^ㄱ	端 ^ㄷ	幫 ^ㅁ	非 ^ㅁ	精 ^ㅁ	心 ^ㅁ	審 ^ㅁ	曉 ^ㅁ	
金濁	溪 ^ㅋ	透 ^ㅌ	滂 ^ㅍ		清 ^ㅍ	穿 ^ㅍ			來 ^ㄹ
次濁	羣 ^ㄱ	定 ^ㄷ	並 ^ㅁ	奉 ^ㅁ	從 ^ㅍ	牀 ^ㅍ	匣 ^ㅍ		

○洪武韻三十一字母之圖									
五音	角	徵	羽	商	宮	半徵	半商		
五行	木	火	水	金	土	半火	半金		
七音	牙音	舌頭	唇音	唇音	齒頭	正齒	喉音	半舌	半齒
金清	見 ^ㄱ	端 ^ㄷ	幫 ^ㅁ	非 ^ㅁ	精 ^ㅁ	心 ^ㅁ	審 ^ㅁ	曉 ^ㅁ	
次清	溪 ^ㅋ	透 ^ㅌ	滂 ^ㅍ		清 ^ㅍ	穿 ^ㅍ			來 ^ㄹ
金濁	羣 ^ㄱ	定 ^ㄷ	並 ^ㅁ	奉 ^ㅁ	從 ^ㅍ	牀 ^ㅍ	匣 ^ㅍ		
次濁	疑 ^ㅇ	泥 ^ㄴ	明 ^ㅁ	微 ^ㅁ					日 ^ㄷ

〈토론문〉

《진언집》 ‘~~홍무운도~~’의 청탁체계에 대하여
- ‘훈민정음 표기’의 배열을 중심으로 -

안영희(운남민족대)

(별지 참조)

周本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 ㅁ -’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성우철(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 ㅁ -’의 모든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자료에서의 ‘- ㅁ -’의 기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점토석독구결 자료가 발견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으나, 이들을 한국어 문법사를 기술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점토석독구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밀하고 정확한 판독 및 해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련 연구자들의 신중한 태도도 이러한 경향에 한몫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文玄洙(2017)에 의해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어느 정도 일관된 판독 및 해독안이 마련된 만큼, 본 연구는 점토석독구결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사 연구의 한 시도로서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 ㅁ -’의 기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주본 『화엄경』 권6, 권22, 권31, 권34, 권36, 권57의 6종이며, 文玄洙(2017)에서 ‘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독한 7종의 구결점 21(·-), 23(·), 31(·), 34(·), 41(·), 41(·), 53(i) 가운데 21(·-), 41(·), 41(·)를 제외한 총 4종의 구결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1(·-)의 경우 3건 가운데 1건은 객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2건은 사실상 같은 예라는 점에서 해독의 결과에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41(·)와 41(·) 역시 둘 다 유일한 예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ㅁ’을 포함하는 구결점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文玄洙(2017: 221)에서 제안한 21(·-)의 판독안과 해독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 <주본화엄06, 02:04-05>

A: 云何[41(·)]了知諸[33(·)]佛地[41(·), 21(·-), 52(·)]云何[41(·)]觀察如來境[41(·), 21(·-)]佛[35(·)]所加持[12(l)]無有邊[25(·), 21(·), 31(·), 34(·)]願[15(·)]示此[24(l)]法[41(·), 24(l), 43(l)]令清淨[42(·), 23(·), 53(·)]

B: 云何[· 1 乙]了知諸[1]佛地[乙, ㅁ 1 丁, · ㅁ]云何[· 1 乙]觀察如來境[乙, ㅁ 1 丁]佛[失]所加持[而 ㅁ 1]無有邊[七, 而 1 丁, ㅁ ㅁ ㅁ, ㅁ ㅁ ㅁ]願[入 1]示此[ㅁ]法[乙, ㅁ, ㅁ]令清淨[ㅁ]ㅁ, ㅁ ㅁ, ㅁ 立]

C: 云何· 1 乙 諸 1 佛地 乙 了知(·)ㅁ ㅁ 1 丁 · ㅁ 云何· 1 乙 如來境 乙 觀察(·)ㅁ ㅁ 1 丁 佛 失 加持 而 ㅁ 1 所 邊 無有 七 而 1 丁 (·)ㅁ ㅁ ㅁ ㅁ ㅁ ㅁ 願 入 1 {此}ㅁ 法 乙 示 ㅁ (·)ㅁ 清淨 令 ㅁ ㅁ ㅁ 立

D: 어떤 것을 모든 佛地를 了知하는 것이라 하며, 어떤 것을 如來境을 관찰하는 것이라 하며, 부처의 加持하신 바 邊 없으신 것이라 합니까? 원컨대 이 法을 보여서 淸淨하게 하십시오.

나. <주본화엄57, 03:03-05>

A: 佛子是[41(·)]爲菩薩摩訶薩[44(·)]十種[25(·)]離生道[24(∣)]出離世間[41(·), 23(∣)]不與世[41(·), 25(·), 43(∣)]共[24(·), = 11(/)]而[33(·)]亦[33(·)]不雜二乘之行[41(·), 24(·), 21(·), 31(·), 55(·)]

B: 佛子是[乙]爲菩薩摩訶薩[尸]十種[七]離生道[リ]出離世間[乙, ヲ]不與世[乙, セ, ホ]共[冬, ナ]而[一]亦[一]不雜二乘之行[乙, 冬, 白 x 1 丁, ノ, ナ]

C: 佛子 是乙 菩薩摩訶薩尸 十種七 離生道リ 世間乙 出離 ヲ 世乙 與七(ヲ)ホ 共 不冬(ヲ)ナ 而 一 亦(ヲ)一 二乘之行乙 雜 不冬(ヲ)白 x 1 丁 {爲} ノ ナ

D: 불자여, 이것을 菩薩摩訶薩의 열 가지 離生道가 세간을 벗어나서 세상과 함께 하지 않지만 또한 二乘의 行을 뒤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21(·)를 ‘白’을 포함하는 구결점으로 해독하는 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나)이다. 文玄洙(2017: 221)에서는 21(·)가 현토된 서술어의 목적어에 일관되게 높임의 대상이 오고 있다고 하여 (1나)의 ‘二乘之行’을 높임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화엄경』은 초기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 가운데 하나이며, 대승불교에서 ‘二乘’, 즉 ‘聲聞乘’과 ‘緣覺乘’은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는 데에만 마음을 쓰고 다른 이를 구제하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二乘’을 버리고 ‘菩薩乘’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본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가. <주본화엄31, 05:15>

A: 永[24(/)]不發起二乘[25(·)]之心[41(·), 44(·), 52(·)]

B: 永[々]不發起二乘[七]之心[乙, 尸, ヲ]

C: 永々 二乘七{之} 心乙 發起尸 不 ヲ

D: 영원히 二乘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나. <주본화엄57, 02:14-15>

A: 樂二乘[25(·)]道[41(·), 24(∣)]退失佛法

B: 樂二乘[七]道[乙, 尸]退失佛法

C: 二乘七 道乙 樂尸 佛法 退失

D: 二乘의 道를 즐겨 佛法을 退失하며

다. <주본화엄57, 13:19>

A: 聞說二乘[41(·), 41(∣), 53(·), 23(/), 33(·)]不著[24(·), 22(·)]不求[24(·), 22(·), 52(·)]

B: 聞說二乘[乙, トロ 1 入乙, 乃, ロハ, 1]不著[冬, 冬]不求[冬, 冬, ヲ]

C: 二乘乙 說トロ 1 入乙 聞乃(ヲ)ロハ 1 著 不冬(ヲ)冬 求 不冬(ヲ)冬 ヲ

D: 二乘을 이르는 것을 들으나 듣고서는 집착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며

라. 〈주본화엄57, 18:04-05〉

A: 不退地[53(·), 25(l)]觀察減一切煩惱[41(·), 34(l), 34(·)]超出三界[11(·)]二乘[23(-)]地[11(·), 41(·)]故

B: 不退地[+, / ㄱ ㄷ]觀察減一切煩惱[ㄷ, ㄱ, ㄷ]超出三界[:]二乘[ㄷ]地[:] / ㄱ ㄷ]故

C: 不退地+ / ㄱ ㄷ 觀察 一切 煩惱 ㄷ 減 ㄱ ㄷ 三界: 二乘 ㄷ 地: / ㄱ ㄷ 超出 故

D: 不退地에서 하는 관찰이다. 일체 번뇌를 떨하고三界니 二乘의 地니 하는 것을超出하기 때문이다.

(2가)에서는 十廻向 가운데 아홉 번째인 ‘無著無縛解脫廻向’을 수행하는 보살이라면 영원히 ‘二乘之心’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법하고 있으며, (2나)에서는 마땅히 여의어야 할 ‘退失佛法’ 가운데 아홉 번째로 ‘二乘道’를 즐기는 일을 끊고 있다. (2다)에서는 ‘二乘’을 전해 듣더라도 그것을 집착하거나 구하지 않는 일을 보살의 열 가지 귀[耳] 가운데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으며, (2라)에서는 보살의 열 가지 관찰 가운데 여덟 번째로 ‘三界’, 즉 ‘欲界, 色界, 無色界’와 ‘二乘’, 즉 ‘聲聞乘’과 ‘緣覺乘’을 초월하는 ‘不退地’의 관찰을 끊고 있다. 요컨대 ‘二乘’은 (2)에 제시한 모든 예에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어느 것에서도 객체 높임의 ‘-ㅁ-’이 쓰인 예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1나)의 ‘二乘之行’ 역시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1가)는 각 서술어의 객체인 ‘佛地’와 ‘如來境’이 부처와의 관련성에 따른 간접적인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21(·-)가 같은 문헌의 같은 장의 같은 행의 같은 구성에 연속해서 쓰인 예라는 점에서 ‘ㅁ’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결정적 용례로 보기는 어렵다. (2나)의 객체인 ‘二乘之行’가 높임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주본 『화엄경』 권57의 21(·-)는 ‘ㅁ’을 포함하는 구결점이 아니며, 주본 『화엄경』 권6의 21(·-)는 ‘ㅁ’을 포함할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기는 어려운 구결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4종의 구결점 23(·), 31(\\), 34(-), 53(i)의 예 총 137건을 목록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ㅁ’을 포함하는 구결점의 목록

구결점	출전	용례	빈도
23(·)	권22	佛10:10:07, 相15:05:07	2
	권31	光19:01:07	1
	권34	地04:17:07, 名04:23:02	2
	권36	地01:04:17	1
	권57	佛05:22:04	1
31(\\)	권6	智01:11:15, 邊02:05:07, 邊02:07:07, 量02:09:07, 何02:13:07, 境13:09:17, 地13:11:17, 者13:13:17, 者13:15:17	9
	권31	道21:02:17	1

구결점	출전	용례	빈도
34(-)	권6	言01:21:11, 言03:06:08, 禮03:18:17, 見03:22:17, 說04:02:17, 覺04:04:01, 言12:21:15, 足14:14:03, 日15:21:01, 樂16:01:14, 見16:12:15, 力16:22:20, 佛16:23:20, 變17:01:20, 師18:10:20, 來18:18:20, 師19:05:20, 見19:22:11, 力20:02:20, 聞20:12:16	20
	권22	佛05:23:09, 值08:06:16, 見08:08:07, 佛08:10:11, 來09:24:15, 來10:08:09, 佛10:13:09, 遇10:14:08 來10:16:10, 佛10:20:14, 來11:16:07, 來11:17:11, 來11:19:02, 來11:20:06, 來11:21:13, 來11:22:15, 來11:24:04, 來12:02:07, 佛12:07:06, 佛12:20:09, 來13:03:03, 雄13:05:10, 見15:10:16, 見16:07:14, 身17:14:01, 佛19:14:01, 言19:14:06, 佛19:20:01, 佛19:20:12, 佛19:21:12, 言20:15:06, 佛21:13:03, 德21:14:06	33
	권31	佛01:09:05, 佛01:22:03, 佛01:22:15, 佛06:22:17, 佛09:14:01, 滿14:08:03, 見18:07:17, 佛21:05:07, 燈21:05:17	9
	권34	釋04:23:06, 日05:02:05, 說05:15:10, 言05:16:01, 佛05:18:01, 日05:22:06, 佛05:24:15, 事06:03:16, 言06:11:15, 日06:21:08, 言07:03:04, 說07:06:20, 法07:08:10, 佛09:23:04, 來10:02:02, 佛15:22:05, 佛16:03:01, 佛16:06:07, 佛18:15:08, 尊18:23:15, 佛19:21:10, 佛20:17:10	22
	권36	聞01:13:17, 言01:14:15, 佛04:11:04, 佛04:11:08, 佛04:11:13, 佛04:12:07, 佛05:11:01, 言07:04:07, 見07:10:17, 聞07:12:17, 養07:16:02, 養07:16:12, 佛07:17:17, 佛11:23:17, 佛11:24:06, 佛11:24:15, 佛12:01:09, 佛13:02:14	18
	권57	喜14:20:08, 來16:05:13, 法18:02:07	3
53(i)	권6	神15:20:10, 體18:12:05	2
	권22	者10:15:07, 散10:20:06, 來18:03:08, 力20:14:07, 力21:12:12	5
	권31	頂06:19:04, 力17:01:04	2
	권34	力02:17:11, 力05:20:04, 力07:23:07, 力08:19:08, 佛16:01:03	5
	권36	音01:11:17	1

〈표 2〉 주본 『화엄경』 점도석독구결 자료에서 ‘白’을 포함하는 구결점의 문헌별 빈도

구결점	권6	권22	권31	권34	권36	권57	합계
23(-)		2	1	2	1	1	7
31(\)	9		1				10
34(-)	20	33	9	22	18	3	105
53(i)	2	5	2	5	1		15
합계	31	40	13	29	20	4	137

〈표 2〉에 제시한 구결점의 빈도는 대체로 文玄洙(2017)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하나, 34(-)와 53(i)는 그렇지 않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34(-)와 53(i)의 빈도는 각기 105건, 15건이었으나, 文玄洙(2017)에서는 이 두 구결점의 빈도를 각기 104건, 16건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까지 진행된 공동 연구의 성과로 작성된 판독 및 해독안(장경준 2008 참고)을 기본 자료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文玄洙(2017)에서 예문으로 제시한 판독 및 해독안을 참고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文玄洙(2017)에서 기본 자료로 삼은 판독 및 해독안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이상 각 용례의 판독 및 해독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구결점에 대한 해독은 기본적으로 文玄洙(2017)를 따랐으나 일부 해독을 달리한 예도 있으며, 이 경우 각주를 통해 그 차이를 밝혔다.

2. 기능 유형별 빈도 및 분포상의 특징

자토석독구결 자료는 크게 주체 높임의 ‘-白-’이 쓰인 문헌과 그렇지 않은 문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흔히 화엄경 계통의 자료로 묶이는 『화엄경소』 권35와 『화엄경』 권14는 후자에 속한다(백두현 1995). 이러한 ‘-白-’의 용법상의 특징은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는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한 예에도 쓰이고 객체가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한 예에도 쓰이는 구결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文玄洙 2017: 79). 그러나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白-’의 용법은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적게나마 확인되는데, 이것은 이 용법이 객체 높임의 하위 유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성우철 2022).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 유형별 빈도(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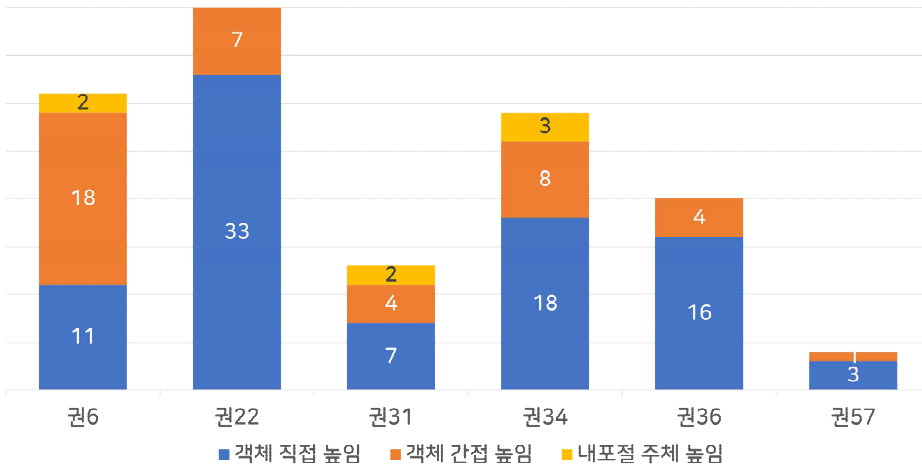
기능	권6	권22	권31	권34	권36	권57	합계
객체 직접 높임	11	33	7	18	16	3	88
객체 간접 높임	18	7	4	8	4	1	42
내포절 주체 높임	2		2	3			7
합계	31	40	13	29	20	4	137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객체 직접 높임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내포절 주체 높임은 소수의 예만이 나타나는, 자토석독구결 자료 『화엄경』 권14의 ‘-白-’이 보이는 용법상의 경향성을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白-’ 역시 그대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를 위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 유형별 빈도를 성우철(2022)에서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 유형별 빈도(성우철 2022)

기능	A류 문헌			B류 문헌			합계
	화소	화엄	자비	구인	금광	유가	
객체 직접 높임	4	21	5	4	10	1	45
객체 간접 높임		5	3	6	13	2	29
내포절 주체 높임		2		2		1	5
포괄적 주체 높임				6	5		11
배제적 주체 높임				3	1	1	5
기타				2		4	6
합계	4	28	8	23	29	9	101

자토석독구결 자료 『화엄경소』 권35와 『화엄경』 권14에서 ‘-白-’이 객체 직접 높임으로 쓰인 용례의 비율은 72.2%에 달하는데(총 36건 중 26건), 점토석독구결 자료 주본 『화엄경』 권22, 권31, 권34, 권36, 권57에서도 객체 직접 높임의 ‘-白-’가 이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본 『화엄경』 권6은 이러한 경향성에서 벗어나 있는데, 주본 『화엄경』 권6에서는 ‘-白-’이 객체 직접 높임으로 쓰인 용례보다 객체 간접 높임으로 쓰인 용례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를 시각화하여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의 기능 유형별 빈도

성우철(2022)에서는 『화엄경소』 권35와 『화엄경』 권14를 비롯하여 주체 높임의 ‘-白-’이 쓰이지 않는 문헌에서는 객체 직접 높임이 객체 간접 높임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구역인왕경』 권상과 『합부금광명경』 권3을 비롯하여 주체 높임의 ‘-白-’이 쓰이는 문헌에서는 객체 간접 높임이 객체 직접 높임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그림 1〉은 그러한 경향성

이 문헌의 계통에 따른 것이 아닌 개별 문헌의 내용상의 특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본 『화엄경』 권6은 주본 『화엄경』의 제2품인 ‘如來現相品’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엄경소』 권9에 따르면 ‘如來現相品’의 내용은 크게 ‘대중이 함께 청함, 치아 사이 광명으로 인연 중생을 불러 모음, 시방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상서를 나타내고 설법을 표현함, 佛德을 드날리고 공덕을 찬탄함, 결론적으로 무궁에 통함’의 6가지로 나뉜다.¹⁾²⁾ 이 가운데 1번째 ‘대중이 함께 청함’에서는 공양거리 구름이, 2번째 ‘치아 사이 광명으로 인연 중생을 불러 모음’에서는 부처의 광명이, 4번째 ‘상서를 나타내고 설법을 표현함’에서는 보살의 광명이, 5번째 ‘佛德을 드날리고 공덕을 찬탄함’에서는 11명의 보살이 제각기 계송으로 부처와 그 가르침을 찬탄하고 있는데, 이들 계송에서 부처와 그 가르침을 찬탄하는 수사적 표현에 객체 간접 높임의 ‘-ㅁ-’이 쓰이는 예가 많이 보인다.

〈표 5〉 주본 『화엄경』 권6의 계송에 쓰인 ‘-ㅁ-’의 기능 유형별 빈도

계송의 화자	객체 직접 높임	객체 간접 높임	내포절 주체 높임
공양거리 구름		4	
부처의 광명	2		1
보살의 광명	2	2	
관찰일체승법연화광혜왕		1	
법희혜광명		1	
향염광보명혜	1	2	
혜등보명	2	1	
화엄계보명지	1		
법계보명혜		2	
정진력무애혜		1	
합계	8	14	1

요컨대 주체 높임의 ‘-ㅁ-’이 쓰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문헌의 계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객체 직접 높임과 객체 간접 높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쓰이는지는 개별 문헌의 내용상의 특징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표 6〉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의 구결자 ‘ㅁ’의 사용 빈도(『자비도량참법』 권4 제외)

구결자	화소	화엄	구인	금광	유가	합계
ㅁ	4	28	23	29	9	93
전체 총합	4,802	6,995	2,620	4,095	9,603	28,115

1) 澄觀撰, 『大方廣佛華嚴經疏』 第9卷(T35, 562b), “今初一品大分爲六, 一衆海同請, 二光召有緣, 三所召雲奔, 四現瑞表說, 五稱揚佛德, 六結通無窮.”

2) 『화엄경소』 권9의 한문 원문에 대한 현대어 번역은 강기선(2021)의 것을 참고하였다.

선어말어미 ‘-ㅁ-’의 사용 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선어말어미 ‘-ㅁ-’가 사용되는 빈도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내용이 전개되는 문헌일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³⁾ 『구역인왕경』 권상, 『합부금광명경』 권3은 그러한 양상을 한눈에 보여준다. 반대로 瑜伽行派의 체험과 불교적 교의를 체계적 학설로 집대성한 문헌(백진순 2015)인 『유가사지론』에서는 선어말어미 ‘-ㅁ-’이 더 적게 쓰일 개연성이 높다. 공손성 표지는 다양한 화자가 참여하여 서로를 지칭하는 대화 장면에서 더 빈번한 쓰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智首菩薩’과 ‘文殊師利菩薩’의 대화를 통해 내용이 전개되는 『화엄경』 권14에 비해 ‘功德林菩薩’의 설법만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화엄경소』 권35에서 ‘-ㅁ-’이 현저하게 낮은 빈도를 보이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표 7〉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 유형별 빈도(구결점별)

기능	23(·)	31(\\)	34(-)	53(i)	합계
객체 직접 높임	2	2	80	4	88
객체 간접 높임	4	8	20	10	42
내포절 주체 높임	1		5	1	7
합계	7	10	105	15	137

한편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ㅁ’을 포함하는 구결점이 형태나 위치에 따른 기능상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4(-) 이외의 구결점에서 객체 간접 높임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눈에 띄기는 하나, 34(-) 이외의 구결점은 상대 빈도 자체가 현저하게 낮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변이를 이해할 만하다. 文玄洙(2017: 80)에서는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도를 고안한 사람이 선어말어미 ‘-ㅁ-’을 포함하는 어미 구조체를 표기하는 데에 ‘ㅁ’에 대응되는 구결점과 다른 구결점을 조합하는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34(-)이 다른 구결점보다 월등히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게 된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3. 개별 용례에 대한 기능 유형별 분석

3.1. 객체 직접 높임

주본 『화엄경』은 摩竭提國 阿蘭若法菩提場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7處 9會에 걸쳐 깨달음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행에 관해 설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주본 『화엄경』의 부처는 자신이 직접 대중에게 설법을 전하지 않는다. 주본 『화엄경』 권31에서는 ‘金剛幢菩薩’이, 권34와 권36에서는 ‘金剛藏菩薩’이, 권57에서는 ‘普賢菩薩’이 각기 說主가 되어 부처를 대신하여 설법을 전하고 있으며, 권6의 ‘如來現相品’과 권22의 ‘昇兜率天宮品’에서는 누군가가 대중에게 설

3) 전체 구결자의 사용 빈도는 자토석독구결 자료 6종 전산 입력본의 최신판(sktot_ 2022_09)을 참고하였다.

법하는 장면 자체가 묘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경우 성우철 (2022)에서 제안한 ‘부처S’와 ‘부처G’의 구분이 그리 유용하지 않다. 이 구분은 ‘부처S’의 발화 속에 ‘부처G’가 언급될 때 가장 유용하기 때문이다.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흔히 如來十號라고 불리는 10가지 칭호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이 부처를 지시하는 데에 쓰인다. 객체를 이루는 언어 표현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지시 대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객체 직접 높임으로 분류하였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가. 〈주본화엄06, 03:21-22〉

A: 如來[44(·)]一音[33(·)]無有量[25(·), 33(-), 경계선]能[24(·)]演契經[25(·)]深大海[41(·), 13(l)]普[24(l)]雨妙法[41(·), 24(l), 43(l)]應羣心[53(·), =23(\), 12(/), 21(·)]彼兩足尊[41(·)]宜往[34(l), 43(l)]見[34(-), 21(l)]

B: 如來[尸]一音[1]無有量[七, 口ハ而1]能[支]演契經[七]深大海[乙, 而イ尸ム]普[リ]雨妙法[乙, 리, 亦]應羣心[十, 号, 而口ト1, 四]彼兩足尊[乙]宜往[ろ, 亦]見[白, ナ尸丁]

C: 如來尸 一音1 量 無有七口ハ而1 能支 契經七 深大海乙 演而イ尸ム 普리 妙法乙 雨리 (ろ)亦 羣心十 應号(ッ)而口ト1(リ)四 彼 兩足尊乙 宜 往ろ亦 見白ナ尸丁

D: 여래의 一音은 한량없으시니, 능히 契經의 深大海를 풀어내시되 널리 妙法을 내려서 群心에 맞게 하시는 분이라서 (그대는) 저 兩足尊을 마땅히 가서 뵈어야 할 것이다.

나. 〈주본화엄22, 13:04-05〉

A: 爾時[53(·)]一切諸[33(·)]天[11(·)]及[25(·)]諸[33(·)]菩薩衆[11(·), 13(/), 33(·)]見於如來[24(l)]應[24(l), 51(·)]正等覺[24(l), 43(-)]不可思議[23(l), 24(\), 45(-), 35(·), 12(·)]人中[25(·)]之雄[41(·), 34(-)]

B: 爾時[+]一切諸[1]天[:]及[七]諸[1]菩薩衆[:, ノ今, 1]見於如來[リ]應[リ, 而カ]正等覺[リ, 而下]不可思議[ッろ, イ, 乙, 矢, 而1]人中[ろ七]之雄[乙, 白]

C: 爾 時+ 一切 諸1 天: 及七 諸1 菩薩衆: ノ今1 {於}如來리 應리 而カ 正等覺리 而下 思議ッろイ乙(可)可(セッ)乙 不失而1 人 中ろ七{之} 雄乙 見白(X)

D: 그때 일체 모든 天이니 및 모든 菩薩衆이니 하는 이는, 여래이자 應供이시며 正等覺이시어思議할 수 없으신, 사람 중의 영웅을 뵈었는데

다. 〈주본화엄31, 21:05〉

A: 常能[24(·)]憶念一切佛[41(·), 34(-), 43(l)]常[24(l)]見一切世間[25(·)]燈[41(·), 34(-), 51(·)]

B: 常能[支]憶念一切佛[乙, 白, 亦]常[リ]見一切世間[ろ七]燈[乙, 白, ナカ]

C: 常 能支 一切 佛乙 憶念(ッ)白(ろ)亦 常리 一切 世間ろ七 燈乙 見白ナカ

D: 항상 능히 일체 부처를 憶念하여서 항상 일체 세간의 등불을 뵈며

라. 〈주본화엄36, 07:07-10〉

A: 天[25(·)]諸[33(·)]采女[33(·)]奏天樂[41(·), 22(·)]亦[33(·)]以言辭[41(·), 34(l)]歌讚佛[41(·), 22(·), 12(\), 11(·)]悉[34(l)]以菩薩[44(·)]威神[41(·), 43(·), 33(·), 45(·)]故[24(·)]於彼聲[25(·)]中[53(·), 33(·)]發是言[41(·), 21(l)]佛願[33(·)]久遠[53(l), 34(·), 12(·)]今[24(·), 43(·)]乃

[43(·)]滿[45(-),51(·)]佛道[33(·)]久遠[53(l),34(·),12(·)]今[24(·),43(·)]乃[43(·)]得[45(-),51(·)]
釋迦文佛[24(l)]至天宮[53(·),33(-)]利天人[41(·),24(l),25(\)]者[41(·),21(l·)]久
[53(l),34(·),33(·)]乃[43(·)]見[34(-),24(/`),23(·),44(l),51(·)]

B: 天[七]諸[一]采女[一]奏天樂[乙, ㄱ]亦[一]以言辭[乙, ㄴ]歌讚佛[乙, ㄷ, ㄹ, ㅁ]悉[ㄴ]以菩薩[尸]
威神[乙, ㄴ, 一, ㅅ]故[支]於彼聲[七]中[十, 一]發是言[乙, ㅅ, ㅈ]佛願[一]久遠[ㄹ, ㅊ, ㅋ, ㆁ]今
[支, ㄴ]乃[ㄴ]滿[乙, ㅅ]佛道[一]久遠[ㄹ, ㅊ, ㅋ, ㆁ]今[支, ㄴ]乃[ㄴ]得[乙, ㅅ]釋迦文佛[ㄹ]至
天宮[十, ㅊ, ㅋ, ㆁ]利天人[乙, ㄴ, ㅅ]者[乙, ㅅ]久[ㄹ, ㅊ, ㅋ, ㆁ]乃[ㄴ]見[白, X, ㄹ, ㅊ, ㅋ, ㆁ]

C: 天七 諸一 采女一 天樂乙 奏(ㄴ) 亦(ㄴ) 一 言辭乙 以 佛乙 歌讚 ㅅ 悉(ㄴ) ㅈ 一 悉 ㅅ
菩薩尸 威神乙 {以} ㄴ ㅅ 故 支 {於} 彼 聲七 中 ㅈ 一 是 言乙 發(ㄴ) ㅅ, ㅈ 佛願 一 久遠
ㄹ, ㅊ(ㄴ) ㅊ, ㆁ 今 支 ㄴ 乃 ㄴ 滿 乙(ㅅ) ㅅ 佛道 一 久遠 ㄹ, ㅊ(ㄴ) ㅊ, ㆁ 今 支 ㄴ 乃 ㄴ 得 乙
(ㅅ) ㅅ 釋迦文佛 ㄹ 天宮 ㅈ 至 ㅊ, ㅋ, ㆁ 天人乙 利 ㄴ ㅅ 者 乙 ㅅ 久 ㄹ, ㅊ(ㄴ) ㅊ, ㆁ 乃 ㄴ
見 白 X ㄹ, ㅊ, ㅋ, ㆁ

D: 하늘의 모든 采女는 天樂을 연주하고 또한 言辭를 써 부처를 노래하여 찬탄하고 하니 다
보살의 威神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그 노랫소리 가운데서는 이런 言辭를 발하기를 “佛願은
久遠토록 하고서는 지금에야 채우시며, 佛道는 久遠토록 하고서는 지금에야 얻으시며, 釋
迦文佛이 天宮에 이르시니 天人을 이롭게 하시는 분을 오래되어서야 뵈며…”

마. <주본화엄36, 07:15-16>

A: 大牟尼尊[24(l)]現於世[53(·),13(l)]譬[15(·)]如須彌[24(l)]出巨海[53(·),12(·),24(·),12(l),51(·)]
供養[34(-),34(·),12(-),33(·)]能[24(·)]盡一切苦[41(·),34(l),51(·)]供養[34(-),34(·),12(-),33(·)]
必[23(·)]得諸[33(·)]佛智[41(·),51(·),31(·),21(·)]

B: 大牟尼尊[ㄹ]現於世[十, ㅅ, ㅅ, ㅅ]譬[ㅅ]如須彌[ㄹ]出巨海[十, ㅊ, ㅋ, ㆁ, ㅊ, ㆁ]供養
[白, ㅊ, ㅋ, ㆁ]能[支]盡一切苦[乙, ㅅ, ㅅ]供養[白, ㅊ, ㅋ, ㆁ]必[ㅅ]得諸[一]佛智[乙, ㅅ, ㅅ, ㅅ]

C: 大牟尼尊 ㄹ {於} 世 ㅈ 現 ㅅ, ㅅ, ㅅ, ㅅ 譬 ㅅ 須彌 ㄹ 巨海 ㅈ 出 ㅊ, ㆁ 如 支 ㅊ, ㆁ (ㄹ) ㅊ, ㆁ 供養
ㅅ ㅊ, ㆁ ㅊ, ㆁ 能 支 一 切 苦 乙 盡 ㅅ ㅅ 供養 ㅅ ㅊ, ㆁ ㅊ, ㆁ 必 ㅅ 諸 一 佛智 乙 得 ㅅ(ㄴ) ㅅ, ㅅ

D: 大牟尼尊이 세상에 나타나시되 비유하자면 수미산이 큰 바다에서 솟아남과 같으시며, (大
牟尼尊을) 供養하면 능히 일체 고통을 끝내며 (大牟尼尊을) 供養하면 반드시 모든 佛智를
얻으며 할 것이라

이외에 등장인물의 발화 속에 인용된 발화에 ‘-白-’이 쓰이는 예도 3건이 보인다.

(4) 가. <주본화엄34, 09:15-10:02>

A: 佛子[34(l)]菩薩[24(l)]住此歡喜地[53(·),24(/),12(-),33(·)]…復[42(\)]作是念[41(·),21(l)]…親
近一切佛[41(·),34(-),24(/),12(·),=55(·),45(ㅅ)]故[24(/)]生歡喜[41(·),24(l),51(·)]…見一切
如來[41(·),34(-),24(/),12(·),=55(·),45(ㅅ)]故生歡喜

B: 佛子[ㄴ]菩薩[ㄹ]住此歡喜地[十, ㅅ, ㅅ, ㅅ]…復[刀]作是念[乙, ㅅ, ㅅ]…親近一切佛[乙,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故[ㅅ]生歡喜[ㅅ, ㅅ, ㅅ, ㅅ]…見一切如來[乙,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故生歡喜

C: 佛子 菩薩 此 歡喜地 + 住(ッ)ホナ 1 1 … 復カ 是 念乙 作(ッ)ナフ 丁 … 一切 佛乙 親近(ッ)白ホイ 1(1) 3セ 1(ッ)ナフ 入… 故ホ 歡喜ノ 尸入乙 生リカ … 一切 如來乙 見白ホイ 1(1) 3セ 1(ッ)ナフ 入… 故 歡喜 生

D: 불자여, 보살이 이 歡喜地에 머물면 … 또 이런 생각을 하기를 … ‘일체 부처를 親近하였다.’ 하는 까닭으로 환희하는 것을 내며 … ‘일체 여래를 뵈었다.’ 하는 까닭으로 환희하는 것을 내며

나. <주본화엄34, 19:07-21>

A: 佛子[33(·)]始[25(·),24(\\)]發生如是[12(·)]妙寶心[41(·),12(·),53(·)]…恒[24(1)]起大願心[41(·),21(1)]願[15(·)]見於諸[33(·)]佛[41(·),34(-),33(\\),52(1)]護持諸[33(·)]佛法[41(·),33(\\),52(1)]攝取大仙道[41(·),33(\\),52(1),54(\\),51(·)]

B: 佛子[1]始[セ,イ]發生如是[ッ 1]妙寶心[乙,ッ 1,1 +]…恒[11]起大願心[乙,ナフ 丁]願[入 1]見於諸[1]佛[乙,白,イ,ロ Xカ]護持諸[1]佛法[乙,イ,ロ Xカ]攝取大仙道[乙,イ,ロ Xカ,ロ乙イ 1,ナカ]

C: 佛子 1 始セイ 是 如(支)ッ 1 妙寶心乙 發生ッ 1 1 + … 恒 11 大願心乙 起(ッ)ナフ 丁 願入 1 {於}諸 1 佛乙 見白(セ)イ(ッ)ロ Xカ 諸 1 佛法乙 護持(ッセ)イ(ッ)로 X카 大仙道乙 攝取(ッセ)이(ッ)로 X카(ッ)로乙이 1(ッ)ナ카

D: 불자는 처음 이 같은 妙寶心を 내면 … 항상 大願心を 일으키기를 ‘원컨대 모든 부처를 뵈고자 하며 모든 佛法乙 護持하고자 하며 大仙道を 攝取하고자 하며 하겠다.’ 하며

다. <금광03, 15:14-16>

A: 佛言[14~15(1)]善男子[22(·)]如是[51(·)]汝等[32~33(/)]應當[32~42(·)]精勤[45(·)#+45(·)]修行如此[33(·)]經典[34(·),42(·),=53(/)]則[21(·)#11~21(·)]法久[22(·)]住於世[44(·),23~24(·),22(·),22(·),+11(·),15(·),52(·)#51~52(·),41(·)]

B: 佛言[ニフ]善男子[3]如是[1]汝等[ッ 1 1]應當[ハ]精勤[カ]修行如此[ニ 1]經典[乙,X市セ,ッ 1 一]則[ノ]法久[3]住於世[+,ホリ,白3,丁,ノ牙,ナ 1 11 1,モハニ 1]

C: 佛 言(1)ニフ 善男子 3 是 如(支ッ)1 汝 等ッ 1 1 當ハ 精勤カ 此 如(支ッ)ニ 1 經典乙 修行X市{應}セッ 1 一 則ノ 法(乙) 久3 {於}世+ 住ホリ 白3(1) 丁ノ牙ナ 1 11 1(ッ)モハニ 1

D: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善男子여, 이와 같다. 너희들은 마땅히 精勤히 이 같은신 경전을 수행해야 하니, (그렇게 하면) 곧 ‘法을 오래 세상에 머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하셨다.

(4가, 나)에서 인용 화자는 모두 ‘金剛藏菩薩’이고 원 화자는 모두 ‘歡喜地菩薩’이며, 인용된 ‘歡喜地菩薩’의 발화에서 주체는 화자 자신이고 객체는 부처이다. (4다)는 (4가, 나)와 비견될 만한 『합부금광명경』 권3의 예로 등장인물의 발화 속에 인용된 발화에 ‘-白-’이 쓰인 것인데, 인용 화자는 부처이고 원 화자는 불특정하다.⁴⁾

4) (4다)의 판독 및 해독은 기본적으로 성우철(2023)을 따랐으나, E라인의 ‘世(3)+’에서 ‘3’를 補讀한 것은 補讀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잡았다.

3.2. 객체 간접 높임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등장인물이 계송을 발화하는 장면의 발화 동사에 ‘-白-’이 쓰인 용례는 총 8건이 확인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송을 통한 찬탄의 대상과 계송을 듣는 대상이 일치하지만, 계송을 통한 찬탄의 대상과 계송을 듣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예가 1건 있다. 이 경우 발화 동사에 통합한 ‘-白-’이 누구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계송을 통한 찬탄의 대상을 높이하고자 한 것이라면 직접 목적어인 계송이 ‘-白-’에 의한 간접 높임의 대상으로 분석되고, 계송을 듣는 대상을 높이하고자 한 것이라면 간접 목적어가 ‘-白-’에 의한 직접 높임의 대상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5) 가. <주본화엄06, 02:18-04:02>

A: 爾時[53(·)]世尊[33(·)]知諸[33(·)]菩薩[44(·)]心[42(।),25(·)]之所念[24(/),12(·),41(·),42(-)12(·),]卽[24(·)]於面門[25(·)]衆齒[25(·)]之間[53(·)]放佛刹微塵數[25(·)]光明[41(·),54(·)]…以佛[35(·)]神力[41(·)34(।)]其光[33(·)]於彼一切菩薩衆會[25(·)]之前[53(·),23(।)]而[45(·)]說頌[41(·),34(।)]言[34(-),14(-)]…毘盧遮那大智海[33(·)]面門[53(·)]舒光[41(·),13(।)]無不[24(·)]見[24(।)-중복선,12(·),43(-)]今[33(·)]待衆集[41(·),24(।),43(।)]將演音[24(/),23(·),12(!),21(·।)]汝[=33(·)]可往[34(।),43(।)]觀聞所說[14(।),41(·),34(-),44(-),42(।),25(·),55(·)-중복선]

B: 爾時[+]世尊[1]知諸[1]菩薩[尸]心[ㄷ, 七]之所念[ㄱ, ㄱ 1, 乙, 而, ㅅ 1]卽[支]於面門[七]衆齒[七]之間[+]放佛刹微塵數[七]光明[乙, x 而 x 1]…以佛[ㄷ]神力[乙, 3]其光[1]於彼一切菩薩衆會[七]之前[+, ㅅ 3]而[…]說頌[乙, 3]言[白, 나尸]…毘盧遮那大智海[1]面門[+]舒光[乙, 而 ㄱ 1 ㅅ]無不[冬]見[ㄹ, ㄱ 1, ㄹ, 而 下]今[1]待衆集[ㄱ尸 入 乙, ㄹ, 亦]將演音[ㄱ, ㅅ, 而 ㅅ 1, ㅅ]汝[1]可往[3, 亦]觀聞所說[而 ㄱ尸, 乙, 白, x ㄱ, ㄷ, 七, 나 1, 나 1]

C: 爾時+ 世尊 1 諸 1 菩薩尸 心 ㄷ 七 {之} 念 ㄱ ㄱ 1 所 乙 知 而 ㅅ 1 卽 支 {於}面門 七 衆齒 七 {之} 間 + 佛刹微塵數 七 光明 乙 放 x 而 1 … 佛 ㄷ 神力 乙 以 3 其 光 1 於 彼 一 切 菩 薩 衆 會 七 {之} 前 + ㅅ 3 而 … 頌 乙 說 3 言 白 나尸 … 毘盧遮那大智海 1 面門 + 光 乙 舒 而 ㄱ 1 ㅅ 不 冬 見 ㄹ ㄱ 1 無 ㄹ (ㅅ) 而 下 今 1 衆集 노尸 入 乙 待 ㄹ (3) 亦 將 演音 (ㅅ) ㄱ ㅅ 而 1 (ㄹ) ㅅ 汝 1 往 3 亦 說 而 ㄱ尸 所 乙 觀聞 (ㅅ) 白 (ㄱ) ㄷ 可 七 (ㅅ) 나 1 (ㅅ) 나 1

D: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의 마음의 생각한 바를 아시고는 즉시 面門의 여러 치아 사이에서 佛刹微塵數의 光明을 발하였다. … 부처의 神力을 써 그 빛은 저 일체 菩薩衆會의 앞에서 頌을 일러 말하기를 “…毘盧遮那大智海는 面門에서 빛을 퍼시되 못 보게 함 없이 하시어 이제 대중이 모이기를 기다려서 장차 演音하실 분이러서 너희는 가서 (부처가) 이르시는 바를 觀聞해야 한다.” 하였다.

나. <주본화엄06, 04:03-04>

A: 爾時[53(·)]十方世界海[25(·)]一切衆會[33(·)]蒙佛[35(·)]光明[45(·)]所開覺
[14(1),41(·),34(-),44(·)]已[43(·),34(·),12(·)]各[43(1)]共[25(·)]來[43(1)]詣毘盧遮那如來[44(·)]
所[53(·),34(1)]親近供養[54(·)]

B: 爾時[+]十方世界海[セ]一切衆會[1]蒙佛[心]光明[心]所開覺[心イ尸,乙,白,尸]已[シ,ロ,ソ1]各
[ホ]共[セ]來[ホ]詣毘盧遮那如來[尸]所[+,3]親近供養[セ1]

C: 爾 時+ 十方世界海セ 一切 衆會1 [佛心 光明心 開覺(ソ)心イ尸 所乙] 蒙白尸 已シ(ソ)ロ
ソ1 各ホ 共セ 來(ソ3)ホ 毘盧遮那如來尸 所+ 詣3 親近供養(ソ)セ1

D: 그때 十方世界海의 일체 衆會은 [부처가 光明으로 열어 깨우치시는 바를] 입기를 이미 하
고서는 제각기 함께 와서 毘盧遮那如來의 처소에 나아가 親近供養하였다.

다. <주본화엄31, 18:24-19:01>

A: 如來[24(1)]始[24(1)]坐道場[53(·),25(1)]時[11(·),53(·),33(·)]一切大地[33(·)]皆[25(·)]動搖[52(·)]
十方世界[25(·),33(1),33(·)]悉[34(1)]蒙光[41(·),23(·),12(-)]六趣[25(·)]衆生[33(·)]咸[25(·)]離苦
[41(·),24(·),52(·)]

B: 如來[11]始[心]坐道場[+,心1セセ]時[シ,+,1]一切大地[1]皆[セ]動搖[ソ3]十方世界[3セ,
子,1]悉[3]蒙光[乙,白ロ,ナ1]六趣[セ]衆生[1]咸[セ]離苦[乙,支,XセX3]

C: 如來11 始心 道場+ 坐(ソ)心1セセ 時:1+1 一切 大地1 皆セ 動搖ソ3 十方世界3セ
子1 悉3 光乙 蒙白ロナ1 六趣セ 衆生1 咸セ 苦乙 離支XセX3

D: 여래가 처음 도량에 앉으신 때에는 일체 대지가 모두 動搖하며, 十方世界에 있는 것은 다
(부처가 발한) 빛을 받으니 六趣의 중생은 다 고통을 여의며

(5가)에서 계송의 발신자는 부처가 치아에서 발한 빛이며, 이때 계송의 수신자가 보살대중이라
는 점은 계송의 내용 가운데 ‘汝1’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言白ナ尸’의 ‘-白-’이 높이는 대
상이 수신자인 보살대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나)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송의 발신자인 빛은 부
처가 설법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 설법하는 존재이다. (5다)의 화자는 ‘金剛幢菩薩’이고 주체는 十
方世界에 있는 만물이며 객체는 부처가 발한 빛이다. 불경에 속하는 문헌에서 부처는 대개 어떤
등장인물보다도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며, (5다)의 화자인 ‘金剛幢菩薩’이 법회에 참여
한 보살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가)에서 부처의 설법을 계송으로 대신 전달
하는 존재인 광명이 계송을 듣는 대상인 보살대중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등장인물이 계송을 발화하는 장면에서 발화 동사에 ‘-白-’이 쓰인 다른 용례의 경우 이러한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맥락상 계송을 발화한 주체가 계송을 듣는 대상보다 낮은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8건의 용례를 계송의 발신자, 수신자, 찬탄 대상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白-’이 계송의 발화 장면에 쓰인 예

연번	출전	장차	계송의 발신자	계송의 수신자	계송의 찬탄 대상
①	권6	01:21:11	공양거리 구름	부처	부처
②	권6	03:06:08	부처의 광명	보살대중	부처
③	권6	12:21:15	보살대중의 광명	부처	부처
④	권6	15:21:01	관찰일체승법연화광혜왕	부처	부처
⑤	권22	20:15:06	도솔타천왕	부처	부처
⑥	권34	05:22:06	해탈월보살	금강장보살	금강장보살
⑦	권34	06:21:08	해탈월보살	금강장보살	금강장보살
⑧	권34	07:03:04	보살대중	금강장보살	금강장보살

위의 〈표 ##〉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가)만이 계송을 통한 찬탄의 대상과 계송을 듣는 대상이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5가)를 제외한 나머지 예의 경우 계송을 통한 찬탄의 대상과 계송을 듣는 대상이 일치하므로 ‘-白-’의 기능을 객체 직접 높임으로 분석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표 8〉의 ⑧을 제외하면 발화 동사의 수신자가 직접 목적으로 실현된 예가 없기는 하지만, 계송의 내용을 통해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을 쉽게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송 자체도 수신자를 찬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발화 동사의 수신자를 ‘-白-’에 의한 직접 높임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이 맥락상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5가)는 그렇지 않다. 계송을 발화한 주체인 부처의 광명이 계송을 듣는 대상인 보살대중보다 낮은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白-’의 기능을 객체 직접 높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송을 통한 찬탄의 대상인 부처가 계송을 발화한 주체인 광명보다 높은 지위를 지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白-’이 쓰였다고 보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5가)에서 광명은 ‘毗盧遮那佛’의 화신, 즉 부처가 주체로 실현된 문장에서 일관되게 주체 높임의 ‘-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은 부처가 치아에서 발한 빛이 부처 자신보다는 낮은 지위를 가진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8〉의 용례 가운데 (5가)에서의 ‘-白-’의 용법만을 객체 간접 높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객체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대개 부처이다. 그러나 이외의 다른 인물이 객체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되는 예도 2건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모두 주본 『화엄경』 권34에 나타나며 ‘金剛藏菩薩’이 발화한 내용 또는 발화할 내용을 높이는 데에 ‘-白-’이 쓰인 예이다.

(6) 가. 〈주본화엄34, 05:15-16〉

A: 爾時[53(·)]解脫月菩薩[33(·)]聞是說[41(·),34(-),44(·)]已[43(·),34(·),12(·)]白金剛藏菩薩[44(·),53(·),34(l)]言[34(-),14(·)]

B: 爾時[+]解脫月菩薩[1]聞是說[乙,白,尸]已[シ,ロ,ソ1]白金剛藏菩薩[尸,十,3]言[白,而尸]

C: 爾 時+ 解脫月菩薩 1 是 說乙 聞 白尸 已: (ソ)ロソ1 金剛藏菩薩尸+ 白3 言 白而尸

D: 그때 解脫月菩薩은 이 말(=十地에 관한 金剛藏菩薩의 설법)을 듣고 나서 金剛藏菩薩에게 사죄어 말하시기를

나. <주본화엄34, 07:02-08>

A: 爾時[53(·)]諸[33(·)]大菩薩衆[33(·)]一[33(·)]時[11(·),53(·)]同[42(/)]聲[45(·)]向金剛藏菩薩[41(·),23(l)]而[45(·)]說頌[41(·),34(l)]言[34(-),14(·)]…我等[45(-)]亦[42(\)]如是[23(l)]願[15(·)]聞甘露法[41(·),34(-),33(\),24(/),23(·),44(l),55(·)]

B: 爾時[+]諸[1]大菩薩衆[1]一[1]時[3, +]同[11]聲[3]向金剛藏菩薩[乙, 3, 3]而[3]說頌[乙, 3]言[白, 而尸]…我等[乙]亦[刀]如是[3, 3]願[入1]聞甘露法[乙, 白, 乙, 乙, 乙, 乙, 乙, 乙]

C: 爾 時 + 諸 1 大菩薩衆 1 一 1 時 : + 同 1 1 聲 3 金剛藏菩薩 乙 向 3, 3 而 3 頌 乙 說 3 言 白 而尸 … 我 等 (3) 乙 亦 刀 是 如 (乙) 3, 3 願 入 1 甘露法 乙 聞 白 (乙) 乙 (3) 乙 乙 乙 乙 乙 乙

D: 그때 모든 大菩薩衆은 일시에 같은 소리로 金剛藏菩薩을 향하여 頌을 일러 사죄시기를 “…우리 또한 이 같아 원컨대 甘露法(=金剛藏菩薩이 설법할 十地の 수행법)을 듣고자 합니다…”

(6가)의 화자는 서술자이고 주체는 ‘解脫月菩薩’이며 객체는 ‘金剛藏菩薩’이 앞에서 발화한 ‘十地’에 관한 설법이다. (6나)의 화자와 주체는 모두 보살대중이며 객체는 ‘十地’의 수행법으로 그 내용은 이후에 ‘金剛藏菩薩’이 자세히 설법한다. 주본 『화엄경』 권34를 제외한 나머지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이처럼 부처 이외의 다른 인물이 ‘-白-’에 의한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되는 예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것은 현전하는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부처를 대신하여 설법을 펴는 이에게 보살대중이 법문의 자세한 내용을 묻는 장면이 주본 『화엄경』 권34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3.3. 내포절 주체 높임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선어말어미 ‘-白-’이 내포절을 객체로 취하여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예는 총 7건으로 각기 주본 『화엄경』 권6, 권31, 권34에서 확인된다. 이때 ‘-白-’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는 부처가 5번, ‘金剛藏菩薩’이 2번 출현한다.

(7) 가. <주본화엄31, 06:18-19>

A: 以無著無縛解脫心修習普賢菩薩[44(·)]行願[41(·),43(l)]得佛[35(·)]灌頂[41(l),53(i)]於一[33(·)]念[25(·)]中[53(·)]入方便地[53(·),52(·)]

B: 以無著無縛解脫心修習普賢菩薩[尸]行願[乙, 乙]得佛[乙]灌頂[而尸尸入乙, 白 3]於一[1]念[乙]中[+]入方便地[+, 3, 3]

C: 無著無縛解脫心 以 普賢菩薩尸 行願 乙 修習(3, 3) 佛 乙 灌頂 而尸尸入乙 得 白 3 {於} 一 1 念 乙 中 + 方便地 + 入 3, 3

D: 無著無縛解脫心을 써 普賢菩薩의 行願을 修習하여 [부처가 灌頂하심을] 얻어 한 念 사이에 方便地에 들어가며

나. <주본화엄31, 14:07-8>

A: 普[24(1)]見無量[33(·)]世界[25(·)]網[53(·)]無量[33(·)]諸[33(·)]佛[35(·), 24(1)]充滿[41(-), 34(-), 24(\\), 25(!)]{25(-)}心

B: 普[ㄱ]見無量[1]世界[ㄷ]網[+]無量[1]諸[1]佛[ㄷ, ㄴ]充滿[ㄱ 1 入 乙, 白, ㄱ, 今 七]心

C: 普[ㄱ] [量 無 1 世界 七 網 + 量 無 1 諸 1 佛 ㄷ ㄴ 充滿 ㄱ 1 入 乙] 見 白 ㄱ 今 七 心

D: 널리 [한량없는 세계의 그물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가 充滿하신 것을] 뵈는 마음이니

다. <주본화엄34, 07:06>

A: 定[11(·)]戒[11(·)]集正[12(·), 41(·), 14(·), 21(·), 25(·)]心[11(·), 13(/), 45(·)]離我[11(·)]慢[11(·)]邪見[11(·), 41(·), 24(·), 52(·)]此衆[53(·), 33(·)]無疑念[13(!), 51(·), 23(·), =14(·), 45(·)]唯[23(·)]願聞善說[41(1), 34(-), 25(·), 33(\\), 24(/), 23(·), 51(·)]

B: 定[:]戒[:]集正[ㄱ 1 入 乙, 노 尸, 丁, ㅅ 七]心[:], 노 今, ㅁ]離我[:]慢[:]邪見[:], 노 今 乙, ㅅ, ㄱ]此衆[+, 1]無疑念[今, ㅅ, ㅁ 七, 노 尸, 入 ㅁ]唯[ハ]願聞善說[ㄱ 1 入 乙, 白, 七, ㅅ, ㅁ, ㅁ 七, 노, ㅅ]

C: 定: 戒: 正 ㄱ 1 入 乙 集 노 尸 丁 (ㅅ) ㅅ 七 心: 노 今 ㅁ 我: 慢: 邪見: 노 今 乙 離 ㅅ ㅅ ㅅ 此 衆 + 1 疑念 (ㅅ) ㅁ 無 ㅅ (ㅅ) ㅁ 七 노 尸 入 ㅁ 唯 ㅁ 願 [善說 (ㅅ) ㄱ 1 入 乙] 聞 白 ㅅ ㅅ (ㅅ) ㅁ ㅁ 七 노 ㅅ

D: 定이니 戒이니 正한 것을 모으고자 하는 마음이니 하는 것으로 我이니 慢이니 邪見이니 하는 것을 여의며, 이 대중에게는 疑念할 바 없으며 하므로 오직 원컨대 [(金剛藏菩薩이) 善說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며

(7가, 나)의 화자는 ‘金剛幢菩薩’이고, 주체는 十廻向 가운데 아홉 번째인 ‘無著無縛解脫廻向’을 수행하는 보살이며, 내포절의 주체는 부처이다. 이들 예에서 ‘-白-’은 객체인 내포절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내포절의 주체인 부처에 대한 높임을 드러낸다. (7다)에서 모절의 생략된 주체는 화자인 보살대중이며, 내포절의 생략된 주체는 청자인 ‘金剛藏菩薩’이다. 바로 앞의 절에서 소유 구문의 주어 ‘衆’에 처격 조사 ‘+’가 통합하였다는 점도 눈에 띈다.

4. 기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용법

4.1. ‘-白-’과 ‘-ㅁ/ㅁ-’의 중복적 쓰임

성우철(2022)에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특히 『합부금광명경』 권3에서 ‘-白-’과 ‘-ㅁ-’가 같은 지시 대상을 함께 높이는 용례가 일부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白-’과 ‘-ㅁ-’의 중복적 쓰임이 15세기 한글 자료에 보이는 {-습시-}의 용례를 연상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8) 가. <금광03, 06:19-22>

善男子 菩薩 十地 是 相 前現ノム 如來ノ身 金色 晃耀ニ下 量 無 淨光
 悉 皆 圓滿ニ 量 無 億 梵王 圍遶 恭敬 供養 白トノ 無上微妙法輪 轉
 菩薩 悉 見ナシ

善男子여, 보살의 十地에서는 이 相이 前現하는데, 여래의 몸이 금색으로 晃耀하시어 한량없는
 淨光이 다 圓滿하시거늘 (부처는) [한량없는 億 梵王이 圍遶하여서 (부처를) 공경하고 공양하고
 하는] 분이시니 無上微妙法輪을 굴리시는 것을 菩薩은 다 본다.

나. <금광03, 09:07-10>

善男子 是 陀羅尼 名 一 恒河沙數 過 諸 佛 初地菩薩 救護 爲 人 非人
 此 陀羅尼呪 誦持 得 一切 怖畏 一切 惡 獸 一切 惡鬼
 人非人 等 災橫 諸惱 度脫 五障 解脫

善男子여, 이 陀羅尼의 이름은 [一 恒河沙數를 넘으신 모든 부처가 [(부처가) 初地菩薩을 救護하
 고자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신] 것이라서, 이 陀羅尼呪를 誦持하면 능히 일체 怖畏인 일체 惡獸
 니 일체 악귀니 人非人 같은 것이니 災橫이니 모든 번뇌니 하는 것을 度脫하여 五障을 해탈하며

(8가)와 (8나)는 모두 ‘-白-’과 ‘-ニ-’이 같은 지시 대상을 높이는 예이지만, ‘-白-’이 객체를
 높이는지 주체를 높이는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8가)의 ‘-白-’은 내포절에서 그 절의 생략된
 객체인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으며, ‘-ニ-’는 모절에서 그 절의 주체인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
 로 삼는다. (8나)의 ‘-白-’은 내포절에서 그 절의 생략된 주체인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으며,
 ‘-ニ-’는 모절에서 그 절의 주체인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⁵⁾ 요컨대 (8)의 ‘-白-’과 ‘-ニ-’
 는 서로 다른 절에서 서로 다른 성분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으나 결과적으로 각 성분이 지시하
 는 대상이 일치함으로써 중복적 쓰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 가운데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白-’과 ‘-無-’가 중복적
 쓰임을 보이는 예가 일부 확인된다. 이러한 예는 주본 『화엄경』 권22에서만 3건이 보이는데, 모
 두 등장인물이 부처를 만나는 일이 어려움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9) 가. <주본화엄22, 10:13-15>

A: 同[24(1)]興念言[41(·1), 21(1)]如來[44(·)]出世[14(1), 15(·)]難[43(·)]可値遇
 [34(-), 24(\), 25(·), 41(·)]{11(·)}⁶⁾我[33(·)]今[33(·)]{12(1)}⁷⁾得[43(1)]見具一切智

5) (8나)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성우철(2022)을 참고할 수 있다. 성우철(2022)에서는 (8나)와 같은 ‘-白-’의
 용법을 포괄적 주체 높임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바 있다. 객체인 ‘陀羅尼名’이 주체인 부처와의 관련성을 토대
 로 ‘-白-’에 의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文玄洙(2017: 285)에서는 11(·)을 판독에 반영하여 ‘値遇(·)白(·)可(·)得(·)見(·)’로 해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구결점을 판독에 반영하지 않았다. (9가)의 ‘如來出世難可値遇’는 명사구 접속 구문, 명명
 구문, 뜻풀이 구문, 호출 구문, 감탄 구문, 도치 구문 등 조사 ‘-·-’가 쓰일 만한 전형적인 환경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전기량 2018 참고). <금광03, 13:04>에 ‘ト1乙ニ’의 예가 보이기는 하나 해당 예는 도치
 구문에 ‘-·-’가 쓰인 예이므로 (9가)와는 구분된다.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통합대장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국역경원 번역문에서는 (9가)의 ‘如來出世難可値遇’를 ‘여래께서 출세하심을 만나기 어렵거늘’로 번역하였
 다.

7) 文玄洙(2017: 144)에서는 12(1)을 판독에 반영하여 ‘今(·)ト1’로 해독하고 이때의 ‘-·-’를 ‘出世’에
 조응하는 대동사로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구결점을 판독에 반영하지 않았다. 부처가 세상에 나오

[41(·), 24(\\), 34(|)] 於法[53(·)] 無礙[44(·), 25(/)] 正等覺者
[41(·), 53(i), 23(·), 12(·), 24(|), 55(\\), 23(|)]

B: 同[|]興念言[ノ尸入乙, ナ尸丁]如來[尸]出世[而イ尸, 入1]難[シ]可値遇[白, イ, セ, 而1乙]我
[1]今[1]得[ホ]見具一切智[乙, イ, ヅ]於法[十]無礙[尸, 而1ヒセ]正等覺者[乙, 白, ヅ, ロセ, ノ1,
|, ヅセ|, ヅ, ヅ]

C: 同| 念言ノ尸入乙 興(ッ)ナ尸丁 如來尸 出世(ッ)而イ尸入1 [難シ 値遇(ッ)白イ(ッ)可
セ](ッ)而1乙 我1 今1 得ホ 一切 智乙 具(ッ) {於}法十 礙尸 無而1ヒセ 正等覺者乙
見白(ッ)ロセノ1| (ッ) (ッ) (ッ)

D: 함께 생각하는 것을 일으키기를 ‘여래i가 出世하시거든 [(누군가가) 어렵게야 (부처i를) 만
나 뵈]’하시거늘, 나는 지금 능히 일체 지혜를 갖추어 法에 걸림이 없는 正等覺者를 뵈는
것이다.’ 하여

나. <주본화엄22, 08:06-08>

A: 百萬億少光天[33(·)]宣揚讚歎佛世[24(|)]難値[34(-), 31(|), 41(-), 52(·)]百萬億無量光天遙[34(|)]
向佛[41(·), 23(|)]禮[52(·)]百萬億光音天讚歎如來[24(|)]甚[24(|)]難[43(·)]得[43(|)]見
[34(-), 31(|), 41(-), 52(·)]

B: 百萬億少光天[1]宣揚讚歎佛世[|]難値[白, イ, 而イ1入乙, ヅカ]百萬億無量光天遙[3]向佛
[乙, ヅ]禮[3]百萬億光音天讚歎如來[|]甚[|]難[シ]得[ホ]見[白, イ, 而イ1入乙, ヅカ]

C: 百萬億 少光天1 佛世| [難 値白イ]而イ1入乙 宣揚 讚歎3 百萬億 無量光天 遙3
佛乙 向3 禮3 百萬億 光音天 如來| 甚| [難シ 得ホ 見白イ]而イ1入乙 讚歎3
カ

D: 百萬億 少光天은 佛世i가 [(누군가가) 어렵게야 (부처i를) 만나 뵈] 수 있으신 것을 宣揚 讚
歎하며, 百萬億 無量光天은 멀리 부처를 향하여 禮하며, 百萬億 光音天은 여래i가 [(누군가
가) 심히 어렵게야 능히 (부처i를) 뵈] 분이신 것을 讚歎하며

(9)에 보이는 ‘-白-’과 ‘-而-’의 중복적 쓰임은 (8가)에 보이는 ‘-白-’과 ‘-ニ-’의 중복적 쓰임
과 평행한 모습을 보인다. (9)의 ‘-白-’은 내포절에서 그 절의 생략된 객체인 부처를 높임의 대상
으로 삼으며, ‘-而-’는 모절에서 그 절의 주체인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9가)에서는 ‘-
可セ-’가, (9나)에서는 ‘-イ-’가 각기 가능성의 인식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쓰였는
데,⁸⁾ 이때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화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8가)나 (9)와 비슷한 {-습-}과 {-으시-}의 중복적 쓰임이 15세기 한
글 문헌, 특히 『법화경언해』에서도 적게나마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법화경언해』 권3
에 4건, 권7에 3건이 확인되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는 일은 이미 앞의 절에서 기술된 사태이므로, (9가)의 ‘我今得見具一切智於法無礙正等覺者’에서 그것을 구태
여 다시 대동사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통합대장경에
서 제공하고 있는 동국역경원 번역문에서는 (9가)의 ‘我今得見具一切智於法無礙正等覺者’를 ‘온갖 지혜를 갖
추시고 법에 걸림이 없는 정등각하신 이를 우리가 지금 만났도다’로 번역하였다.

8) 이때의 ‘-イ-’는 명사형 어미 ‘-尸’과 계사 ‘-|’의 결합형으로 분석될 수 있다.

(10)

- 가. 世尊ⁱ이 甚히 希有^ㅎ샤 [(누군가가 부처ⁱ를) 어루 시러 맞나^스오미] 어려우시니 無量 功德 이 마즈샤 能히 一切를 救護^ㅎ시느니(世尊이 甚希有^ㅎ샤 難可得值遇 | 시니 具無量功德^ㅎ샤 能救護一切^ㅎ시느니) <법화경언해(1463) 3:09b>
- 나. 世尊ⁱ이 甚히 [(누군가가 부처ⁱ를) 보스^스오미] 어려우샤 諸煩惱를 허르시니시니(世尊이 甚難見이샤 破諸煩惱者 | 시니) <법화경언해(1463) 3:120a>
- 다. 諸佛ⁱ이 甚히 [(누군가가 부처ⁱ를) 맞나^스오미] 어려우시니 우리 부터 좃즈와 비호^스와지 이다(諸佛이 甚難值시니 我等이 隨佛學^ㅎ스^스와지이다) <법화경언해(1463) 7:136a>
- 라. 부테ⁱ [(누군가가 부처ⁱ를) 시러 맞나^스오미] 어려우샤미 優曇鉢羅華 | 곧^ㅎ시며 또 흔 눈 거부비 뜬 나뭇 구무 맞남 곧^ㅎ시니(佛難得值 | 如優曇鉢羅華^ㅎ시며 又如一眼之龜 | 值浮木孔^ㅎ시니) <법화경언해(1463) 7:137b>

(8가), (9), (10)과 같이 내포절의 목적어가 인상되어 모절의 주어로 실현될 수 있는 구문을 흔히 ‘tough’ 구문이라고 부른다(박진호 1994: 65-69). 이영경(2003: 138-140)에서는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어렵다’가 (8가), (9), (10)와 같이 ‘NP이 VP호미 어렵다’의 문형을 취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특히 (10)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15세기 한국어 ‘어렵다’가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평가 형용사에 속한다는 점이다.⁹⁾ (10)에서 ‘어렵다’가 서술어로 쓰인 절의 주어로 실현된 부처는 모두 대상역(theme)을 수행하며, 경험주(experiencer)는 모두 화자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처럼 ‘어렵다’가 쓰인 절의 인상된 주어가 대상역을 수행하는 경우 ‘어렵다’에 주체 높임의 {-으시-}가 통합하기 어렵다.

(11)

- 가. 나는 [시아버님을 모시기가] 어렵다.
- 나. 시아버님이 모시기가 어렵다.
- 다. ??시아버님이 모시기가 어려우시다.
- 나. 시아버님이 스마트폰 쓰기가 어려우시다.

15세기 한글 문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등장인물이 부처를 만나는 일이 어려움을 밝히는 장면은 『법화경언해』 이외에 『석보상절』, 『월인석보』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월인석보』의 경우 비슷한 내용이 『법화경언해』와 마찬가지로 ‘tough’ 구문으로 실현되었음에도 모절의 서술어 ‘어렵다’에 주체 높임의 {-으시-}가 통합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9) 형용사의 분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경(2003)을 따라 15세기 한국어 ‘어렵다’를 평가 형용사로 분류하였다. 유현경(2000)에서는 현대 한국어 ‘어렵다’를 ‘대상 심리 형용사’로 분류한 바 있다.

(12)

가. 世尊이 甚히 [(누군가가 부처i를) 맞나스보미] 어려브며 妙法이 또 들즈보미 어렵거늘
〈월인석보(1459) 10:32b-33a〉

나. 이럴썻 父母ㅣ 우리를 出家케 흐쇼셔 엇데어뇨 흐란디 諸佛이 [(누군가가 부처i를) 맞나
스보미] 어려브며 時節도 맞나미 어려브니이다 〈월인석보(1459) 19:80b〉

내포절의 생략된 목적어가 모절의 주어로 인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12)의 통사 구조가 (10)와 유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10)의 ‘어렵다’에는 왜 {-으시-}가 통합하였고, (12)의 ‘어렵다’에는 왜 {-으시-}가 통합하지 않은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번역의 과정에서 구결문의 영향으로 일어난 일종의 부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견해는 특히 (10)과 같은 특이한 용례가 『법화경언해』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상욱(2006)에서는 이른바 관형사절의 주어적 속격으로 논의되어 온 예의 대부분이 구결문의 통사 구조에 영향을 받은 일반적 속격에 지나지 않음을 논증한 바 있으며, 이상욱(2007)에서는 이른바 속격 조사 중첩형으로 알려진 ‘내이/내의, 네의’ 가운데 특히 간경도감본 불경 언해 자료에 나타나는 예의 다수가 구결문을 거쳐 한문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지나친 직역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13)

가. 이 사르미 [스랑햐 헤아려 닐온] 마리 다 佛法이라 眞實 아니흐니 업스며(是人的 [有所
思惟籌量言]說이 皆是佛法이라 無不眞實흐며) 〈법화경언해(1463) 6:65a〉

가’. 이 사르미 스랑햐 헤아리며 말 닐오미 다 佛法이라 眞實디 아니흐 디 업스며 〈월인
석보(1459) 17:74a〉

나. 우흔 다 諸佛入 [머리셔 讚歎흐시느] 마리스니라(上은 皆諸佛入 [遙讚之]言이시니라) 〈법화
경언해(1463) 6:179a〉

나’. 우흔 다 諸佛이 머리셔 讚歎흐시는 마리라 〈월인석보(1459) 18:57b〉

(14)

가. 阿逸多야 흐다가 善男子 善女人이 내의 壽命 長遠 닐오믈 듣고 기픈 므스믄로 信解흐면
(阿逸多야 若善男子善女人이 聞我的 說壽命長遠흐고 深信信解흐면) 〈법화경언해(1463)
5:197a〉

가’. 阿逸多야 흐다가 善男子 善女人이 내 壽命 長遠 닐오믈 듣고 기픈 므스믄로 信解흐면
〈월인석보(1459) 17:34b-3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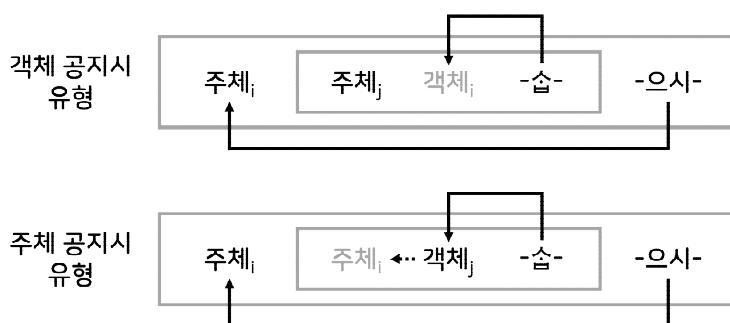
나. 또 能히 法다이 내의 虛妄흐 허믈 니르리 업스리라(亦無有能如法히 說我的 虛妄過者흐리
라) 〈법화경언해(1463) 5:159b〉

나’. 또 能히 法다비 내 虛妄흐 허믈 니르리 업스리라 〈월인석보(1459) 17:22a-22b〉

이러한 예가 대개 『능엄경언해』와 『법화경언해』를 비롯한 간경도감본 불경 언해 자료에 편중되

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10)에서 ‘어렵다’에 {-으시-}가 통합한 원인과 관련한 흥미로운 함의를 제공한다. 즉 (10)에서 ‘어렵다’에 통합한 {-으시-} 역시 (13)의 ‘-이/스’나 (14)의 ‘내의’와 마찬가지로 구결문의 통사 구조에 영향을 받은 일종의 번역투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석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ㅁ-’과 ‘-ㅁ/ㅁ-’의 중복적 쓰임과 15세기 한글 문헌에 보이는 {-습시-}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더 고민해 볼 만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ㅁ-’과 ‘-ㅁ-’의 중복적 쓰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8가)와 같이 모절의 주체와 내포절의 객체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8나)와 같이 모절의 주체와 내포절의 주체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유형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석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ㅁ-’과 ‘-ㅁ/ㅁ-’의 중복적 쓰임

위의 〈그림 2〉에서 ‘-ㅁ-’은 내포절에서 그 절의 객체나 주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으며, ‘-ㅁ/ㅁ-’는 모절에서 그 절의 주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객체 공지시 유형의 경우 내포절의 객체가, 주체 공지시 유형의 경우 내포절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으며, 생략된 내포절의 객체나 내포절의 주체는 모절의 주체와 같은 지시 대상을 가진다. 그러나 15세기 한글 자료에 보이는 {-습시-}는 이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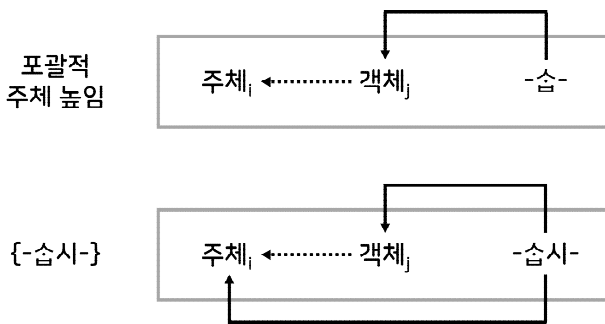
가. 주는 [(先王이) 내 ㅎ 습시논] 쓰디시니라 <훈민정음_언해본(1459) 2b>

나. 進上 ㅎ ㅁ 보니 (先王이) [(先王이) 보믈] 주ㅁ 오시고 곧 讚頌을 지스샤 일후를 月印千江이라 ㅎ시니(乃進上 ㅎ 보니 {隔}賜覽 ㅎ시고 輒製讚頌 ㅎ샤 名曰月印千江이라 ㅎ시니) <월인석보(1459) 서:12b-13a>

다. [(부처가) [조 ㅎ 琉璃ㅁ 가온디 안해 眞金像이 現 ㅎ신] ㄷ ㅎ 습신] 世尊이 大衆에 겨샤 기픈 法義를 퍼시며(如淨琉璃中에 內現眞金像 ㅎ신 世尊이 在大衆 ㅎ샤 敷演深法義 ㅎ시며) <개간법화경언해(1500) 1:34a-34b>

다'. 조 ㅎ 琉璃ㅁ 가온디 안해 眞金像이 現 ㅎ신 ㄷ ㅎ신 世尊이 大衆에 겨샤 기픈 法義를 퍼시며(如淨琉璃中에 內現眞金相 ㅎ신 世尊이 在大衆 ㅎ샤 敷演深法義 ㅎ시며) <법화경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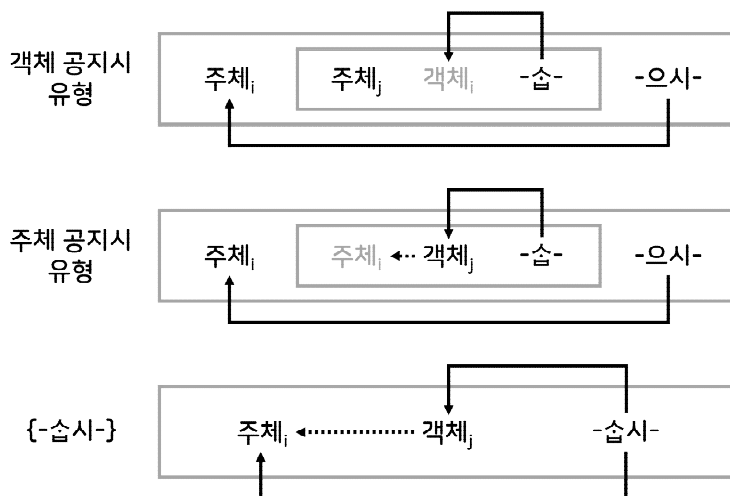
(15)의 {-습시-}는 모두 생략된 주체를 궁극적인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15가)의 생략된 주체는 선왕, 즉 세종이며 객체는 1인칭을 지시하는 선왕의 발화이다. (15나)의 생략된 주체 역시 선왕, 즉 세종이며 객체는 선왕을 행위주로 삼는 사태이다. (15다)의 생략된 주체는 ‘世尊’, 즉 부처이며 객체는 ‘眞金像’을 행위주로 삼는 사태이다. 이 지점에서 지적할 만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세 예 모두에서 객체가 주체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만하다는 점이다. 선왕의 발화는, 특히 그것이 1인칭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선왕과 더불어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며, 선왕을 행위주로 삼는 사태 역시 선왕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다. ‘眞金像’은 부처의 現身이 보이는 형상으로 흔히 三十二相에 포함되곤 하는 것인데,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통합대장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국역경원 번역문에서는 이것을 ‘참다운 모습’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¹⁰⁾ 즉 ‘眞金像’ 역시 부처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며, 실제로 ‘眞金像’이 주체로 실현된 내포문의 서술어에도 주체 높임의 {-으시-}가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습시-}의 용법은 성우철(2022)에서 논의한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림 3〉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과 {-습시-}의 비교

성우철(2022)에서는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ㅁ-’의 용법에서 내포절의 주체와 모절의 주체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교량 맥락을 거쳐 모절의 주체를 높이는 ‘-ㅁ-’의 용법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설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앞서 살펴본 ‘-ㅁ-’과 ‘-ㅁ/=-’의 중복적 쓰임 가운데 (8나)의 주체 공지시 유형임. 이 유형의 쓰임은 주체 높임의 {-습시-}와 상당한 친연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이 발달한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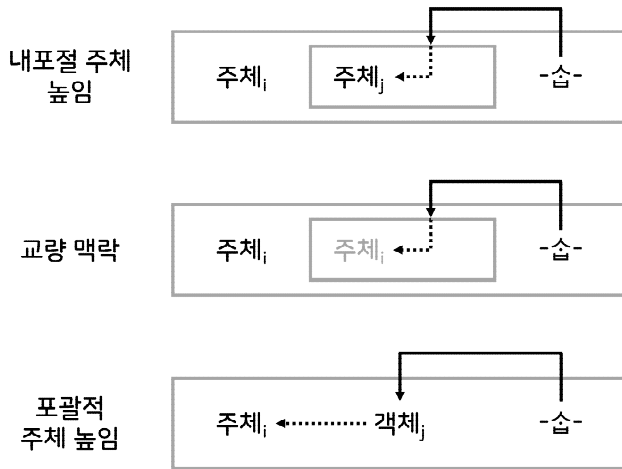
10) 이와 관련하여 貞元本 『화엄경』 권27에서 부처의 유모였던 ‘妙德林神’이 노래한 다음 계승의 내용도 참고가 된다. 般若譯, 『大方廣佛華嚴經』第27卷(ABC, K1262 v36, p.150c11-c12), “見彼離垢清淨身, 相好莊嚴甚微妙, 猶如妙寶眞金像, 歡喜自慶發淨心.” 여기에서 ‘妙寶眞金像’은 갓 태어난 부처의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한 모습을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ㅅㅍ-’과 ‘-ㅅㅍ시-’의 중복적 쓰임과 {-ㅅㅍ시-}의 비교

위의 〈그림 4〉를 살펴보면 객체 공지시 유형과 주체 공지시 유형과 {-ㅅㅍ시-}가 일정한 연속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객체 공지시 유형에 속하는 (8가), (9), (10) 가운데 (8가)를 제외한 나머지 예에서는 내포절의 주체와 객체 모두 실현되어 있지 않으며, 주체 공지시 유형에 속하는 (8나)에서도 내포절의 주체와 객체 모두 실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석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ㅅㅍ-’과 ‘-ㅅㅍ시-’의 중복적 쓰임과 한글 자료에 보이는 {-ㅅㅍ-}과 {-ㅅㅍ시-}의 중복적 쓰임이 모두 ‘tough’ 구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ㅅㅍ-’과 ‘-ㅅㅍ시-’이 중복적 쓰임을 보이는 예에서 내포절의 ‘-ㅅㅍ-’이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객체나 주체는 흔히 생략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쓰임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통사 구조에 대한 재분석과 더불어 ‘-ㅅㅍ-’에 통합하는 구성, 예컨대 ‘-ㅅㅍ시-’(8가), ‘-ㅅㅍ시-’(8나), ‘-ㅅㅍ시-’(9가), ‘-ㅅㅍ시-’(9나) 등이 탈락하면서 ‘-ㅅㅍ-’과 ‘-ㅅㅍ시-’가 직접 통합하게 될 수 있다.¹¹⁾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한글 문헌의 {-ㅅㅍ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11) 이 지점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8가)의 ‘-ㅅㅍ시-’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의 경우 모두 각 자료에서 하나의 구결점으로 표기되는 구성이라는 점이다. 『합부금광명경』 권3 점토석독구결에서 ‘ㅅㅍ시’와 ‘ㅅㅍ시’는 각기 22~32(·/)와 22~32(·/)에 대응되며,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 ‘ㅅㅍ시’는 31(·/)에 대응된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ㅅㅍ시’가 한문 원문의 요소를 개재하는 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가)가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가 된다는 점 역시 이해할 만하다. 이처럼 내포절의 명사형 어미와 모절의 계사를 하나의 구결점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로 널리 확인되는지, 나아가 이것이 당시 현토자의 문법 의식과 어떠한 관련을 맺었는지는 앞으로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5〉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의 발달 과정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포절 주체 높임 용법에서 내포절의 주체와 모절의 주체가 같은 대상을 지시할 경우 정보성이 낮은 내포절의 주체는 생략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도 내포절은 여전히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위는 내포절이 지시하는 사태의 행위주인 모절의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른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이 이처럼 내포절의 주체와 모절의 주체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맥락을 교량으로 삼아 발달했을 것으로 가정한다. 즉 ‘-ㅁ-’이 모절의 주체를 행위주로 삼는 사태를 지시하는 내포절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서 나아가, 모절의 주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사태, 개념, 사물 등을 지시하는 명사구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데까지 확장됨으로써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이 발달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재분석과 스키마의 확장에 따른 일반화는 언어 변화에서 흔히 관찰되는 일인데, 김태우(2016)에서는 타동사와만 통합하던 ‘-어 브리-’가 자동사와도 통합하게 된 사례를 예시로 든 바 있다.

4.2. 부정 구문에서의 ‘-ㅁ-’의 분포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부정 구문에 {-ㅁ-}이 쓰일 경우 하위절의 서술어와 상위절의 서술어 모두에 {-ㅁ-}이 통합하기도 하고, 둘 중 한쪽에만 통합하기도 하였는데, 하위절의 서술어에만 통합하는 예가 상위절의 서술어에만 통합하는 예보다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李賢熙 1994: 94-95). 반면에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부정 구문에 ‘-ㅁ-’이 쓰일 경우 (16라)의 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ㅁ-’이 하위절의 서술어에만 통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16) 가. 〈구인上, 14:02-04〉

幻諦七 法一 佛一 出世ㅁ 白一 尸 無七 二 一 七 七 前ㅁ 十 名字 無七 義七 名 無七 ㅁ ㅁ
 幻法: 幻化: ㅁ ㅁ ㅁ 名字 無七 體相 無七 ㅁ ㅁ ㅁ 三界七 名字 無七 善惡果報 ㅁ ㅁ

六道七 名字 無セリッナ |

幻諦의 법은 부처가 出世하심 없으신 전에 名字 없고 義의 名 없고 하며, 幻法이니 幻化니 하는 것은 名字 없고 體相 없고 하며, 三界의 名字 없고 善惡果報인 六道의 名字 없고 하다.

나. <유가20, 14:20-23>

佛若 諸 有智ッ 同梵行者リ 見聞疑ヒ 由リ 或 其 罪ヒ 擧ッ 或 憶念ッ 或 隨學ッ 請問ヒ 依ッ 入 故ノ 昔尸 聞白尸 未リッ 甚深 法義ヒ 聞カ

만약 여러 지혜 있는 동료 수행자[同梵行者]가 보고 들은 의문[見聞疑]으로 말미암아 혹 그 죄를 들추고 혹 기억하게 하고 혹 따라 배우게 하고 하면 … 청하여 물음을 의지한 까닭으로 예전에 듣지 못하였던 깊고 깊은 법의 의미를 들으며

다. <금광03, 14:03-07>

善男子 是 金光明經ヒ 聽聞ッ 受持ッ 入 故ノ 是 善男子 善 女人 常リ 得ッ 佛ヒ ①見白 世尊ヒ ②離 不冬ッ 常リ 妙法ヒ ③聞白 常リ 正法ヒ ④聽白ッ 不退地ノ 生ッ 師子勝人ヒ 而 得ッ ⑤親近ッ 相ノ ⑥遠離 不冬ッ

善男子여, 이 金光明經을 듣고 受持하고 한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이 善男子니 善女人이니 하는 이는 … 항상 능히 부처를 ①뵈고 世尊을 ②여의지 않고 하여 항상 妙法을 ③듣고 항상 正法을 ④듣고 할 것이며, 不退地에 나신 師子勝人을 능히 ⑤가까이하여 서로 ⑥멀리 여의지 않을 것이며

다. <금광03, 14:24-15:02>

是 時 世尊 而 偈ヒ 說 言 生死流ヒ 逆ニ 道 甚 深ッ 微 難 ①見白 貪欲 覆 衆生 愚 冥暗ッ ②見尸 不ハ 牙ナ 利 齒ハ 不 牙ナ 利 齒ハ

이때 세존은 偈를 說하여 말씀하시기를, “生死流를 거스르시는 道는 매우 깊고 微妙하고 하시어 어렵게야 ①뵈 수 있는 것이시니, 탐욕으로 덮인 중생은 어리석어서 어두운 까닭으로 ②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셨다.

라. <구인上, 14:20-23>

佛 大王 告 汝 於過去七佛 已 一 義 二 義 問 汝 今 聽 我 今 說 無 聽 無 說 無 入 卽 爲 一 義 二 義 故 諦 聽 諦 聽 善 之 思 念 法 如 修 行 七佛 偈 是 如 一 ッ

부처는 대왕에게 告하시기를 “그대는 과거의 七佛께 이미 하나인 것의 義이니 둘인 것의 義이니 하는 것을 물으신 이라서, 그대는 지금 들을 것이 없으며 나는 지금 말할 것이 없다. 들을 것이 없으며 말할 것이 없는 것을 곧 하나인 것의 義라 하며 둘인 것의 義라 하는 까닭이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이를 잘 생각하고 念하고 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라. 七佛의 계승이 이와 같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16다)이다. ‘-ㅅ’로 연결된 두 개의 절 가운데 (16다)-①에는 ‘-ㅁ-’이 통합하고 (16다)-②에는 ‘-ㅁ-’이 통합하지 않았으며, 같은 논항을 공유하는 두 개의 서술어 가운데 (16다)-⑤에는 ‘-ㅁ-’이 통합하고 (16다)-⑥에는 ‘-ㅁ-’이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ㅁ-’이 통합하지 않은 예인 (16다)-②와 (16다)-⑥가 모두 부정 구문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ㅁ-’이 주체 높임으로 쓰인 (16가)나 객체 높임으로 쓰인 (16나)에서도 ‘-ㅁ-’이 부정 구문의 하위절 서술어에만 통합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6다)-②와 (16다)-⑥에서 서술어에 ‘-ㅁ-’이 통합하지 않은 것 역시 부정 구문 자체의 의미적 속성과 일정한 관련을 맺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16다’)에서도 같은 대상을 목적어로 삼는 두 서술어 가운데 (16다’)-①에만 ‘-ㅁ-’이 통합해 있고 부정 구문에 해당하는 (16다’)-②에는 ‘-ㅁ-’이 통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라) 역시 흥미로운 예인데, ‘我 今 說 無 七 佛’에서 객체인 ‘說’은 그 자체로는 한정적인 지시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임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에도 서술어 ‘無 七’에 ‘-ㅁ-’이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성우철(2022)에서는 이 예에 대해 가능한 두 가지 해석을 제안한 바 있는데, 하나는 불경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說’이 한정적인 지시 대상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그것이 바로 뒤에서 말할 내용인 ‘七佛의 계승’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위절이 나타내는 사태의 수신자이자 생략된 논항인 ‘波斯匿王’을 높이기 위해 ‘-ㅁ-’이 쓰였다고 보는 것이다. (16라)에서 한문 원문의 ‘無’가 비교적 타동성이 강한 소유 동사의 용법으로 쓰인 것임을 고려하면 전자의 해석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ㅁ-’이 부정 구문에 쓰인 예는 모두 2건이 확인되는데, 이들 예에서도 ‘-ㅁ-’이 하위절의 서술어에만 통합해 있다.

(17) 가. <주본화엄34, 04:16-17>

- A: 佛子[34(1)]我[33(·)]不見有諸[33(·)]佛[35(·)]國土其[25(·)]中[25(·)]如來[24(1)]不說此十地[41(·),44(·)-중복선,13(1·),41(·),23(·),55(·)]者
- B: 佛子[3]我[1]不見有諸[1]佛[1]國土其[1]中[1]如來[1]不說此十地[乙,尸,而令,而令1入乙,尸,白口,口七ノ七七1]者
- C: 佛子 我 1 [諸 1 佛 國土 其 中 七 如來 11 此 十地 乙 說 尸 不(ッ)而令{者} 有而令1入乙] 見白口尸 不(ッ)口七ノ七七 12)
- D: 불자여, 나는 [모든 부처의 국토, 그 가운데에 있는 여래가 이 十地를 말씀하시지 않는 이가 있으신 것을] 보지 못했다.

12) (17가)의 경우 맥락상 ‘見尸 不(ッ)白口口七ノ七七 1’와 ‘見白口尸 不(ッ)口七ノ七七 1’의 두 가지 해독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ㅁ-’이 부정 구문의 상위절 서술어에 통합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후자의 경우 자토석독구결 문헌에서 부정 구문의 하위절 서술어에 ‘-ㅁ-’이 통합하는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부정 구문의 하위절 서술어에 ‘-ㅁ-’이 통합하는 예는 『화엄경』 권14에 2건이 확인된다는 점(滅ッ口 1 不七1入乙<11:15>, 増ッ口 1 不七1乙<15:09>),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ㅁ-’이 ‘-口七ノ七七 1’와 통합할 경우 ‘ㅁ’가 개재하지 않은 ‘-白口七ノ七七 1’의 형태로만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합리적인 해독으로 보인다. 文玄洙(2017)에서는 전자의 해독을 택하였다.

나. <주본화엄34, 04:22-23>

- A: 是時[53(·)]一切菩薩衆[33(·)]聞菩薩[44(·)]十地[25(·)]名[41(·)]23(·) 聞解釋
[41(i),34(-),44(·),42(-),12(·)]咸[25(·)]生渴仰[41(·),24(l),34(l)]作如是[12(·)]念[41(·),21(·)]
- B: 是時[+]一切菩薩衆[1]聞菩薩[尸]十地[七]名[乙,白口]不聞解釋[不トイ1入乙,白,尸,而,ッ1]
咸[七]生渴仰[ッ1乙,リ,3]作如是[ッ1]念[乙,而尸丁]
- C: 是 時+ 一 切 菩 薩 衆 1 菩 薩 尸 十 地 七 名 乙 聞 白 口 [解釋(ッ)不トイ1入乙] 聞 白 尸 不
(ッ)而ッ1 咸 七 渴 仰 ヽ 1 乙 生 리 3 是 如 (支) ヽ 1 念 乙 作 (ッ) 而 尸 丁
- D: 이때 일체 보살 衆은菩薩 十地의 이름을 듣고 [(金剛藏菩薩이) 解釋하시는 것을] 듣지 못
하시고는 다 渴仰함을 내어 이 같은 생각을 하시기를

(16), (17)에서 확인한 ‘-白-’의 부정 구문에서의 분포는 자연스럽게 ‘-白-’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선어말어미 ‘-白-’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인 객체 높임은 그 자체로 문장의 타동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때의 타동성은 단순히 목적어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를 기술하기 위해 요구되는 참여항의 수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은 ‘드외-’나 ‘곤ㅎ-’와 같이 둘 이상의 논항을 요구하는 자동사나 형용사뿐만 계사에도 통합하였다(김태우 2018: 49-53). 이러한 현상은 영향 입음(affectedness)에 대한 15세기 한국어 화자의 직관이 현대 한국어 화자의 직관보다 더 느슨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다음의 (18)과 같이 심리 형용사의 대상역(theme)을 수행하는 논항이 주격이 아닌 대격으로 표지되는 예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김태우 2013: 87-88).

(18)

- 가. 世尊하 우리 이제 부텨 威力을 님스바 藥師瑠璃光如來人 일후를 듣즈보니 々외야 惡趣를 저
픈 주리 업스니 <석보상절(1447) 9:39b>
- 나. 그저기 無量百千 大衆이 塔을 圍遶하야 이셔 舍利弗을 묻 니저 므스물 설버 미쳐셔 듣니고
正訢 念을 일허닐 <월인석보(1459) 20:32a>
- 다. 貢公이 깃거호믈 그스기 效則호고져 권마른 原憲의 가난호믈 들히 너규믈 어려웨라(竊效貢公
喜 難甘原憲貧) <두시언해(1481) 19:02b-03a>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白-’은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보다 통합할 수 있는 서술어의 범위가 훨씬 더 좁았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白-’이 자동사나 형용사에 통합한 예는 『구역인왕경』 권상의 ‘坐ッ-(2건), 出世ッ-, 無七-’, 『유가사지론』 권20의 ‘出世ッ-’로 모두 5건에 불과하며, 계사에 통합한 예는 101건의 용례 가운데 단 한 건도 보이지 않는다. ‘-白-’이 통합할 수 있는 서술어의 범위가 가장 전형적인 타동사로부터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고 가정할 때, 자토석독구결 자료, 특히 『유가사지론』 계통에 속하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는 그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白-’은 왜 부정 구문의 하위절 서술어에만 주로 통합하였던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부정 구문의 상위절 서술어, 즉 부정 용언이 본질상 지니는 낮은 타동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Hopper and Thompson(1980)에서는 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10가지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6번째 변인으로 ‘긍정성’ 변인을 제시하였다. 즉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은 긍정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보다 낮은 타동성을 보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변인은 ‘서법’ 변인보다도 깊은 관련을 맺는데, 어떤 사태를 부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태와 관련한 가능 세계를 상정하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참이 아님을 단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표 9〉 Hopper and Thompson(1980)의 타동성 변인

변인	높음	낮음
참여항	둘 이상의 참여항: A와 O	하나의 참여항
운동성	행위	비행위
상	유계(telic)	무계(atelic)
순간성	순간	비순간
자발성	자발	비자발
긍정성	긍정	부정
서법	현실	비현실
행위주성	A의 영향력이 큼	A의 영향력이 낮음
O의 피영향성	O가 전적으로 영향을 받음	O가 영향을 받지 않음
O의 개별성	O가 고도로 개별적임	O가 개별화되지 않음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白-’이 부정 구문에 쓰이는 예는 극히 드물며(총 101건 중 3건), 그나마도 『구역인왕경』 권상, 『유가사지론』 권20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 文玄洙(2011)의 부록에 따르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 구문의 예는 모두 218건에 달하는데,¹³⁾ 이 가운데 ‘-白-’이 쓰인 예가 3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의아하기도 하다. 이 점은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총 137건의 용례 가운데 주본 『화엄경』 권34, 그것도 같은 장에서만 2건의 용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문현수(2012)의 부록에 따르면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 구문의 예는 모두 87건에 달한다.¹⁴⁾

이러한 빈도상의 불균형은 ‘-白-’이 부정 구문에서의 쓰임에 적지 않은 제약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16다)와 (16다’)임. (16다)에서 ‘-白-’이 통합하지 않은 (16다)-②와 (16다)-⑥는 모두 부정 구문에 해당하며, (16다’)에서도 같은 대상을 목적으로 삼는 두 개의 서술어 가운데 부정 구문에 해당하는 (16다’)-②에는 ‘-白-’이 통합하지 않았다. (16다)-②, (16다)-⑥, (16다’)-②의 경우 대응되는 점토석독구결에도 ‘-白-’을 포함하는 구절점이 기입되어 있지 않다. 적어도 『합부금광명경』 권3의 현토자는 부정 구문에서의 ‘-白-’의 제약을

13) 이 빈도는 2016년에 처음으로 소개된 『자비도량참법』 권4(남권희·남경란 2016)와 흔히 어휘적 부정으로 분류되는 ‘無_ㄷ-’이 쓰인 구문을 제외한 것이다.

14) 文玄洙(2011)와 마찬가지로 ‘無_ㄷ-’이 쓰인 구문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꽤 강한 것으로 여긴 듯하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부정 구문에 쓰인 ‘-白-’이 (16라)를 제외하면 모두 하위절 서술어에만 통합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상위절 서술어인 부정 용언이 지니는 본질상 낮은 타동성이 ‘-白-’과의 통합을 저지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16라)에서는 왜 ‘-白-’이 부정 구문의 상위절 서술어에 통합한 것일까? (16라)의 경우 한문 원문의 ‘無’가 소유 동사의 용법으로 쓰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객체인 ‘說ノ尸’이 뒤에서 말할 내용인 ‘七佛의 계승’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서술어의 타동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실제로는 말할 것이 있으며 뒤에서 그것을 말할 테지만, 겉으로는 그것을 마치 말할 것이 없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불교의 진리를 더 명징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요컨대 (16라)에서 ‘-白-’과 부정 용언이 통합한 것은 존재의 비존재에 관한 특수한 佛家的 함의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은 이러한 제약이 덜했던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장형 부정 구문에 쓰인 {-습-}은 하위절의 서술어와 상위절의 서술어 모두에 통합하기도 하고 둘 중 한쪽에만 통합하기도 하였다. 李賢熙(1994: 94)에서는 이 경우 {-습-}이 하위절 서술어와 상위절 서술어 모두에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예는 『월인석보』의 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법화경언해』를 비롯한 간경도감본 불경 언해 자료에서만 나타난다.

〈표 10〉 15세기 한글 문헌의 장형 부정 구문에 쓰인 {-습-}의 문헌별 출현 빈도

출현 문헌	‘아니’ 장형 부정 구문			‘몰’ 장형 부정 구문		
	하위절에 실현	상위절에 실현	중복 실현	하위절에 실현	상위절에 실현	중복 실현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2	2		1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9	6		3	4	1
법화경언해	4	4	5	18	12	6
금강경언해		3		5	8	4
능엄경언해		1		2	6	3
원각경언해	1	1		3	1	2
두시언해	1			1	1	
금강경삼가해언해	1			4	1	
남명천계송언해	2			5		
영험약초				1		
삼강행실도				1	1	
진원권공		1				
소계	20	18	5	44	34	16
합계	43			94		
15세기 전체	6,899			4,609		

이러한 출현 문헌상의 편중은 15세기 한글 문헌의 부정 구문에 나타난 {-습-}의 중복 실현이 이상욱(2006, 2007)에서 논의한 속격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결문의 영향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15세기 한글 문헌의 부정 구문에서 {-습-}이 중복적으로 실현된 예 총 21건 가운데 상위절 서술어에 통합한 {-습-}이 구결문에 달린 토와 직접 대응되지 않는 예는 다음의 2건뿐이다.

(19)

가. 그지업서 몬내 혜스불 功과 德과 [사람들과 하늘들히 내내 (부처의 공덕을) 기리습디 몬흐 습논] 배시나라(無量功德이 人天所不能盡讚이시나라) <월인석보(1459) 1:釋詳序01b>

나. 솔오디 아니이다 世尊하 身相으로 如來를 시러 보습디 몬흐스오리이다 흐니라(言호디 不也 世尊하 不可以身相으로 得見如來이다 흐니라) <금강경언해(1464) 상:30a>

이외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습-}이 부정소 ‘아니’와 공기하는 예가 부정소 ‘몰’과 공기하는 예보다 현저하게 드물다는 점이다. 악장에 속하는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과 계송을 다수 수록하고 있는 『진언권공』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문헌에서 {-습-}이 ‘몰’과 공기하는 빈도가 ‘아니’와 공기하는 빈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11〉 15세기 한글 문헌의 부정 구문에 쓰인 {-습-}의 문헌별 출현 빈도

출현 문헌	‘아니’		‘몰’	
	장형	단형	장형	단형
용비어천가		4		1
석보상절	4	3	1	11
월인천강지곡		4		
월인석보	15	4	8	29
법화경언해	13		36	5
금강경언해	3		17	
능엄경언해	1		11	
원각경언해	2		6	
두시언해	1		2	
금강경삼가해언해	1		5	
남명천계송언해	2		5	
영험약초			1	
삼강행실도		1	2	2
진원권공	1			
합계	43	16	94	48
15세기 전체	6,899	792	4,609	789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선어말어미 ‘-ㅁ-’이 통합할 수 있는 구문의 범위가 긍정 구문에서 부정 구문으로, 부정 구문 가운데서도 특히 능력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못’ 구문에서 단순 부정이나 의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니’ 구문으로 확장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Hopper and Thompson(1980)에서 논의한 ‘자발성’ 변인과의 관련이 깊다. ‘못’ 부정 구문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주어는 그 행위를 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전자, 즉 주어가 그 행위를 할 의지는 있으나 내적 요인에 의해서든 외적 요인에 의해서든 그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 의지가 없는 후자보다 높은 타동성을 보일 수 있다. 반면에 ‘아니’ 부정 구문은, 특히 중립 부정이 아닌 의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보다 낮은 타동성을 보일 개연성이 크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ㅁ-’이 자동사나 형용사에 통합한 예와 부정 구문에 쓰인 예가 대개 『구역인왕경』 권상, 『유가사지론』 권22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두 문헌이 ‘-ㅁ-’의 일반화 또는 구문의 확장과 관련하여 그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화는 타동성 변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즉 타동성이 비교적 높은 구문에서 비교적 낮은 구문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었으리라는 것이다. ‘-ㅁ-’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인 객체 높임은 문장의 타동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세기 한글 문헌의 {-습-}이 부정소 ‘못’에 비해 부정소 ‘아니’와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 빈도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러한 일반화에 따른 일종의 흔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표 12〉 선어말어미 ‘-ㅁ-’의 타동성 확장 과정

준거		점토석독구결 자료	자토석독구결 자료		15세기 한글 자료
			A류 문헌	B류 문헌	
부정 구문 에서의 분포	하위절	○	○	○	○
	상위절	×	×	△	○
서술어의 품사	타동사	○	○	○	○
	자동사	×	×	△	○
	형용사	×	×	△	○
	계사	×	×	×	○

그러나 이 가설을 온전히 논증하기 위해서는 여말선초의 이두 자료나 음독구결 자료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유형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그만큼 제한된 함의만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결론

참고문헌

- 강기선(2021),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문학적 표현』, 『동아시아불교문화』 46,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39-265쪽.
- 김태우(2013), 「중세한국어 자·타 양용동사에 대한 기능·유형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태우(2016), 「역문법화에 대하여: 문법화와의 비교와 그 기제를 중심으로」, 『國語學』 80, 국어학회, 293-323쪽.
- 김태우(2018), 「{-습-}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남권희·남경란(2016),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연구』 22, 국어사연구, 199-250쪽.
- 文玄洙(2011), 「석독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기능 연구: 한문 부정소와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문현수(2012), 「점토석독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기능」, 『국어사연구』 14, 국어사연구, 133-165쪽.
- 文玄洙(2017),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백두현(1995),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ㄷ-’, ‘-ㅁ-’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語文論叢』 29, 경북어문화회, 45-114쪽.
- 백진순(2015), 「『유가사지론』 개관」,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13-26쪽.
- 성우철(2022),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습)-’의 기능에 관한 연구」, 『東洋學』 8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35쪽.
- 성우철(2023), 「『合部金光明經』 卷3의 ‘ㅁ’을 포함하는 口訣點에 대한 연구」, 『口訣研究』 50, 구결학회, 91-122쪽.
- 유현경(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國語學』 36, 국어학회, 221-258쪽.
- 이상욱(2006), 「主語的 屬格에 대한 再論」, 『형태론』 8(1), 형태론 편집위원회, 1-27쪽.
- 이상욱(2007), 「언해문에서 관찰되는 ‘내이’, ‘네의’ 형에 대한 관점: 15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0(3), 한국학중앙연구원, 203-225쪽.
- 이영경(2003),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장경준(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口訣研究』 21, 구결학회, 67-98쪽.
- 전기량(2018),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Hopper, Paul J. and Sandra A.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pp. 251-299.

토 론 문

김태우(부산대학교)

1. 이 발표에서는 모절의 주체와 내포절의 주체 또는 객체가 공지시적인 구문이 {-습시-}의 발달과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중복적 쓰임” 때문에 {-습-}의 기능에 대한 혼란(중의성)이 생겨 {-습-}의 주체 높임의 기능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논의로 읽힙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우철(2022)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1) 이 설명에는 언제나 두 개의 절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서술어가 등장하는 것이고 {-습-}과 {-(-으)시-}는 서로 다른 서술어에 결합할 것입니다. “중복적 쓰임”으로 제시된 예문들은 {-습-}과 {-(-으)시-}가 서로 다른 서술어에 결합해 있는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은 현토자들이 대체로 {-습-}과 {-(-으)시-}의 쓰임을 잘 구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습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절의 서술어가 없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위의 설명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 설명은 {-(-으)시-}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음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자리에 {-(-으)시-}가 나타났다면 위에서 말한 {-습-}과 관련된 중의성이 발생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소가 맥락상의 중의성에 의해 새로운 기능을 얻을 때는, 대체로 해당 맥락에서 그 의미에 해당하는 문법 요소가 없거나, 병존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중의성을 설명의 원인으로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3) 모절과 내포절의 주체가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8나)이 {-습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포절의 주체가 존대의 대상일 경우 {-(-으)시-}가 결합할 수 있고, 이 경우 내포절의 객체 또한 내포절의 주체와 관련된 존재이기 때문에 {-습-}이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내포절의 서술어에 {-습-}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용법” 또는 “외적 용법”이 이미 발달해 있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8나)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善男子 是 陀羅尼 名 一 恒河沙數 過 諸 佛 初地菩薩 救護 爲 人 白 之
1 이 1 이 4

⇒ 이 陀羅尼의 이름은 一 恒河沙數를 넘으신 모든 부처가 [(부처가) 初地菩薩을 救護하고자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신 것이라서::: 성우철(2022)와 이 논문의 해석.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제안하고 있는데, 아마 {-이-}에 결합한 {-(-으)시-}의 존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으)시-}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더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陀羅尼의 이름은 [一 恒河沙數를 넘으신 모든 부처가 初地菩薩을 救護하고자] (陀羅尼를) 說하신 것이지니라.

陀羅尼는 {-습-}에 의해 높임의 대상이 되므로 {-(-으)시-}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예문 (10)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석한다면 {-습-}과 {-(-으)시-}는 tough 구문의 일종이 됩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 논문의 논지를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광명최승왕경』에서는 이 부분이 “此陀羅尼是…”으로 되어 있음.]

2. 부정 구문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5세기 문헌에서는 부정문에서 {-습-}이 상위절이나 하위절에 비슷하게 실현된다면, 석독구결에서는 일단 부정문에 {-습-}이 잘 결합하지 않고, 결합하더라도 하위절 서술어에 주로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타동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습-}은 어느 정도 타동성이 확보된 서술어에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독구결에서는 대체로 타동사에만 {-습-}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찰은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타동성이 낮은 비현실 서법문에도 {-습-}이 통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를 화용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Brown & Levinson (1987)의 ‘체면(face)’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면 이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습-}은 객체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객체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습-}을 이용하여 그것이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나지 않은 일인 부정문에서는 상대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체면을 지키기 위한 {-습-}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용론적 요소이던 {-습-}이 점차 문법 요소화하면서 중세어에는 부정문에서도 {-습-}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과정을 상정하더라도 {-습-}이 하위절의 서술어에 먼저 결합하고 있는 이유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문장은 부정문이기 때문에 {-습-}의 결합 위치가 타동성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한문 부정문의 구조에 따른 현토 위치의 제약입니다. ‘不V, 未V’ 등의 어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의 서술어에 가서 토를 달아 주어야 제대로 의미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無, 不, 未, 非’ 등의 부정사를 자동사로 보았을 가능성입니다. ‘無’는 말음첨기를 통해 ‘없-’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고, ‘안들ㅎ-’, ‘안디ㅎ-’ ‘안이ㅎ-’ 등도 ‘명사 + 계사’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구성으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와 형성과정¹⁾

배진솔²⁾(서울대)

1. 서론
2.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
 - 2.1. 평가 비교 구문
 - 2.2. 선후행절의 평가 비교
 - 2.3. 통사적 특성
3.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역사적 출현 양상
 - 3.1.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 3.2. '-느니' 조사 결합 구성
 - 3.2.1. '-느니보다'
 - 3.2.2. '-느니만'
 - 3.2.3. '-느니만큼'
4.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기원
 - 4.1. '[NP1]이 [NP2]이 낫다'의 도치설의 검토
 - 4.2. 조사 결합 구성과의 비교
 - 4.2.1. '-느니보다'
 - 4.2.2. '-느니만'
5. 결론

1. 서론

현대 한국어의 '-느니' 중에는 아래와 같이 비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예가 나타난다.

- (1) ㄱ. 앓느니 죽겠다.
 ㄴ. 여기에 있느니 집에 가겠다.

(1)에서 나타나는 '-느니'는 '-느니'가 결합한 선행절과 그것의 후행절을 서로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 (1ㄱ)에서는 '앓는 것'과 '죽는 것'을, (1ㄴ)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과 '집에 가는 것'을 비

1) 본 발표문은 2019년에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연구"의 3, 4장을 재구성한 것이다.

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교하고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를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라고 하겠다.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서는 비교 의미뿐만 아니라 화자의 양태가 드러난다. (1)에서 ‘않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은 각각 ‘죽는 것’, ‘집에 가는 것’에 대응되는 비교 기준 대상일 뿐만 아니라 화자가 해당 명제를 꺼리고 있는 부정적 감정 양태가 드러난다.

본 발표문은 (1)과 같은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와 이와 밀접한 형태 및 의미 연관성을 지닌 ‘-느니만’, ‘-느니보다’, ‘-느니만큼’의 역사적 출현 양상과 통사 결합 관계를 관찰하여 ‘-느니’의 비교 의미의 획득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

2.1. 평가 비교 구문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 구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교 구문의 가장 기초적인 문장으로는 (2)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2) 철수는 영희보다 크다.
- (3) [철수]가 {큰 것}보다
[영희]보다 {크다}.

일반적인 비교 구문에서 비교는 주로 두 대상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 두 대상을 비교 대상이라 칭한다. (1)에서 ‘영희’는 기준점이 되며 ‘철수’는 비교의 중심이 된다.³⁾ (2)의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내용을 중괄호로 표기하면 (3)과 같다. 김정대(1993: 52)에서는 (3)에서 중괄호로 표시된 ‘크다’와 같은 서술어가 기저 복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평행성’이라고 지칭하고 ‘평행성’을 갖춘 것을 ‘순수 비교 구문’, 그렇지 못한 것을 ‘의사 비교 구문’이라고 하였다.

순수 비교 구문에서 비교 내용은 서술어를 통해 드러나며 [정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제약을 지닌다. 형용사는 동사보다 더욱 [정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구문에서 형용사와 동사 구문은 기저 문장이 다르게 상정된다.

- (4) ㄱ. 케이크보다 와플이 맛있다.
ㄴ.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든다.
ㄷ. 케이크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3) 오경숙(2003: 21)에서는 ‘영희’에 해당하는 기준점을 ‘비교 기준 대상’, ‘철수’에 해당하는 비교의 중심을 ‘비교 중심 대상’으로 지칭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크기’를 비교하도록 하는 ‘크다’와 같은 용언은 ‘서술어’라고 하였다. 서술어를 통해 이루어진 비교의 내용, [크기]와 같은 정도성 개념은 김정대(1993), 김정아(1998)에서 ‘비교 내용’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용어들을 그대로 따른다.

- (5) ㄱ. [케이크]보다 [와플]이 {맛있다}.
 ㄴ.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든다}.
 ㄷ. [케이크]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형용사가 결합하는 경우 형용사가 자체적으로 [정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단독으로 비교 내용을 지칭하는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으나, ‘만들다’와 같은 동사는 그럴 수 없기에 (4ㄴ)은 비교 내용을 찾기 어려운 어색한 문장이 된다. (4ㄷ)과 같이 비교 부사 ‘더’가 사용된 경우 완성 동사인 ‘만들다’의 어휘상에 의하여 [수량]이 비교 내용으로 이해되어 문장이 성립한다.

- (6) [케이크]보다 [와플]이 낫다.

[정도성]을 나타내는 서술어는 (6)의 ‘낫다’와 같이 평가 형용사일 수도 있다. 평가 형용사란 평가 양태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로 ‘낫다’, ‘좋다’, ‘쉽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부류의 비교 구문은 평가 비교 구문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7) ㄱ.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만드는 것]이 낫다.
 ㄴ.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이 낫다.

평가 비교 구문은 유사 비교 구문에 속한다. (7)와 같이 평가 비교 구문은 비교 대상으로 ‘-는 것’, ‘-기’와 같은 명사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길종(1999: 69)에서 다루듯 평가 비교 구문은 화자의 비교 과정에서 화자의 평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두 비교 대상의 속성 사이의 [정도성]을 비교하는 전형적인 순수 비교 구문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⁴⁾ 그렇기 때문에 (7ㄴ)과 같이 의미적 유사성이 희박한 두 문장 사이에서도 평가 비교 구문은 성립할 수 있다. (7ㄴ)에서 두 문장 사이에서 비교되는 것은 화자의 평가 가치로, “케이크를 만들다”보다 “잠을 자다”가 보다 더 마땅한 행동임을 이야기할 뿐이다.

- (8) ㄱ.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당위])
 ㄱ'.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ㄴ.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들 것이다. ([의도])
 ㄴ'.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만들-]{-ㄹ 것이다}.

평가 비교 구문의 특성 중 하나로는 앞서 다룬 순수 비교 구문과는 달리 동사의 결합이 더욱 자유롭다는 것을 들 수 있다.

4) 하길종(1999)에서는 이와 같은 비교 구문을 ‘의사 비교 구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김정대(1993)에서 정의한 ‘의사 비교 구문’과 용어가 유사하며 범주상으로도 ‘-기보다’, ‘-느니보다’ 등이 중복되지만 정의는 다소 다르다. 하길종(1999)에서는 비교 기준 대상이 “철수는 (똑똑하다기보다는) 멍청하다.”와 같이 생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사 비교 구문의 기준으로 두었다. 비교 기준 대상이 생략될 수 있느니만큼 의사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 내용보다는 비교 중심의 특징을 강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 (9) ㄱ. 그러기보다 죽는 게 낫다.
 ㄱ'. ?그러기보다 죽자.
 ㄴ. 앓느니 죽는 게 낫다.
 ㄴ. 앓느니 죽자.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형성하는 비교 구문은 이들 평가 비교 구문과 깊은 연관이 있다. 평가 비교 구문은 다음과 같이 화자의 평가가 후행절의 양태 어미로 나타나는 문장으로 각각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느니’ 비교 구문은 평가 형용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평가 비교 구문과, 평가의 의미가 양태 어미로 드러난 구문에서 모두 쓰이고 있다.

평가 비교 구문에서 비교 내용이 되는 것은 화자가 평가할 수 있는 [의도], [당위]와 같이 [정도성]을 지닌 평가 양태이다.

- (10) 케이크를 만들기보다 와플을 만들-
 {-지[요구], -자[청유], -어야겠다[의도], -ㄴ 것이다[의도/추측], -고 싶다[소망], -고자한다[소망] ... }.

(10)에서 보듯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치의 유형은 후행절의 양태 어미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령 ‘-ㄴ 것이다’가 [추측]의 의미로 쓰인다면 화자가 판단하는 가치는 가능성이 된다.

- (11) ㄱ. 날씨가 더우니 사람들은 해장국을 먹기보다 냉면을 먹을 것이다.
 ㄴ. 해장국을 먹기보다 냉면을 먹겠다.

(11ㄱ)의 문장에서는 ‘해장국을 먹는 사태’보다 ‘냉면을 먹는 사태’의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의 비교 내용은 각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다. 한편 (11ㄴ)의 문장에서의 비교 내용은 각 사태를 행하려는 의향의 정도가 된다.

평가 형용사 중 중에서 특히 ‘낫다’는 평가 비교 구문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어휘이기에, 더 나아가 평가 비교 구문의 의미 양상이 ‘낫다’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장경우(2011: 69)에서 ‘VP느니 VP’ 구문은 비교 의미로 ‘낫다’를 함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양진(2009: 93)에서는 ‘낫다’가 술어로 등장하는 비교 구문이 제일 먼저 등장하여 다른 서술어에까지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낫다’는 평가 형용사 중 하나일 뿐 평가 비교 구문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1ㄴ)을 ‘-느니보다’로 바꾼 것과 ‘낫다’가 쓰인 문장으로 바꾼 예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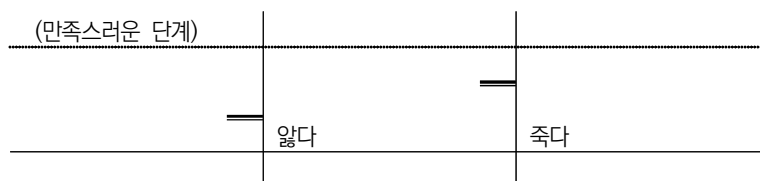
- (12) ㄱ. 해장국을 먹기보다 냉면을 먹겠다.
 ㄴ. 해장국을 먹기보다 냉면을 먹는 게 낫다.

(12ㄱ)을 (12ㄴ)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2ㄱ)의 상황과 (12ㄴ)의

상황이 유사한 것은 분명하지만, (12ㄴ)에서의 비교 내용은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이며 (12ㄱ)은 주관적인 의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장국을 먹는 것보다 냉면을 먹는 게 낫다. 그러나 나는 냉면을 먹느니보다 해장국을 먹겠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한다. 이때 선행절의 ‘낫다’의 비교 내용은 관찰된 사실에 따른 당위인 반면 후행절의 비교 내용은 화자의 주관적인 의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 선행절의 평가 비교

장경우(2014)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비교의 ‘-느니’는 단순히 비교를 뜻할 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선행절의 내용을 깎아내리는 ‘불만족’의 감정 양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⁵⁾ 가령 장경우(2011)에서 ‘않느니 죽지’의 의미를 표현한 그래프로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양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않느니 죽지’의 의미 그래프 (장경우 2011: 76)⁶⁾

위의 그래프에서 세로선은 ‘않다’와 ‘죽다’라는 각각의 동사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않느니 죽지’에서의 어미 ‘-지’는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비교 내용이 되는 가치는 의지가 된다. 장경우(2014: 110)에서는 ‘않느니 죽지’와 같은 평가 비교 구문⁷⁾은 후행절의 사태가 이미 불만족스럽고, 선행절의 사태는 그보다 더욱 열등해 선택하기 어려운 화자의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장경우(2014)에서 후행절의 사태가 이미 불만족스러운 예는 다음과 같다.

- (13) ㄱ. 너희들을 믿느니 동네 개를 믿겠다.
 ㄴ. 않느니 죽지.
 ㄷ. 그 사람과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겠다.
 (장경우 2014: 110)

5) ‘불만족’의 양태라는 용어는 장경우(2014)의 것으로 박재연(2006: 69-75)에서의 정보 양태와 행위 양태라는 범주에 따르면 행위 양태에 속한다고 하였다.

6) 장경우(2011)는 ‘않다’와 ‘죽다’의 선을 비스듬한 선으로 나타냈으나 가로축의 의미를 알기 어려워 세로축에 평행하는 직선으로 변형하였다.

7) 장경우(2014)에서는 “않느니 죽지”와 같은 문장에 대하여 ‘평가 비교 구문’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단지 “ ‘낫다’가 유평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느니’ 구문”이라고만 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부사 ‘차라리’와 공기되기 좋은 특성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는 《표준》에서 이미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마땅치 않을 때 상대적으로 나음을 나타낸다.” 기술되어 있어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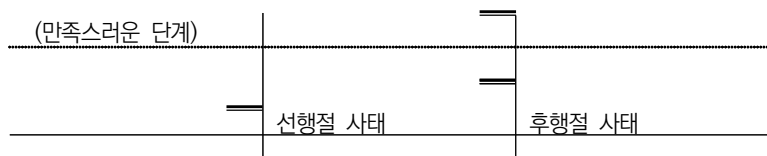
그러나 ‘-느니’ 비교 구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태가 모두 불만족스럽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세종말뭉치에서 추출한 ‘-느니’가 포함된 문장 가운데 후행절의 사태가 그다지 불만족스럽지 않은 예를 골라 보면 다음과 같다.

- (14) ㄱ. 그러나 지금 이 새끼 잉어 두 마리는 그렇게 약으로 먹느니보다 저녁 찬으로 먹기 위해 볶아 먹자고 했다. <한국 현대 수필을 찾아서>
 ㄴ. 이답에 결혼해서 이런 무덤 같은 집에서 사느니 애시당초 말고 너 갈 길 따로 찾거라. <여성 이야기 주머니>
 ㄷ. 그런 반박을 듣느니, 다비는 다른 길을 택하기로 했다. <오디션>

(14)의 문장에서 ‘-느니’ 혹은 ‘-느니보다’에 후행하는 문장은 불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13)과 (14)에서 나타나는 양태의 차이로 보인다. 장경우(2014)에서 후행절까지도 불만족스럽다고 예로 든 문장은 모두 ‘-지’나 ‘-겠-’과 같은 의지 양태를 표현한 문장이다. (14)에서도 선행절의 사태가 화자에게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동일하다. 의지 양태 문장은 많은 경우 화자가 1인칭으로 제한되기에 후행절에서도 주어는 동일하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며 화자가 의지를 발휘하기 어려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동일하게 이어진다면 후행절 역시 그나마 나은 차선택이 잇따르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럽다. 이는 ‘-느니’ 문장의 통사적인 특징이라기보기는 어렵다.

- (15) ㄱ. 그걸 믿느니 지금 주는 이걸 믿어라.
 ㄴ. 이렇게 끔끔 앓느니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
 ㄷ. 그 사람과 사느니 혼자만의 행복을 찾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15)의 문장에서 후행절의 양태 어미를 [명령]이나 [청유]의 문체법으로 바꾸면 (13)에서와는 달리 후행절의 사태가 화자에게 그다지 불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명령]과 [청유]에서는 주어와 화자가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의 사태로부터 한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느니’ 비교 구문에서 선행절의 사태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한편, 후행절의 사태는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기는 하나 필연적으로 그러한 필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앓느니 죽지’의 의미 그래프

이를 반영하여 그래프를 수정하면 <그림 2>와 같이 후행절 사태에 대한 화자의 가치 판단의 정도는 ‘만족스러운 정도’의 아래 혹은 위 모두 가능하다고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낮다’와 ‘-느니’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 관점에서이다.

- (16) ㄱ. 아침에는 시리얼보다 빵이 낮다.
 ㄴ. 아침에는 시리얼보다 빵이 좋다.
 ㄱ' 아침에는 시리얼보다 빵이 낮다. 그래도 기왕이면 밥을 먹어라.
 ㄴ'. ?아침에는 시리얼보다 빵이 좋다. 그래도 기왕이면 밥을 먹어라.

(16)의 예에서 (16ㄱ')은 자연스러운 반면 (16ㄴ')은 다소 어색함이 있다. (16ㄴ)이 단순히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 사태’보다 ‘아침에 빵을 먹는 사태’가 더 바람직함을 나타내는 반면, (16ㄱ)은 그러한 의미에 더해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 사태’는 만족스럽지 않음을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 ‘아침에 빵을 먹는 사태’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16ㄴ')과 같은 문장은 이미 ‘아침에 빵을 먹는 사태’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침에 밥을 먹는 사태’를 언급하여 어색해지지만, (16ㄱ')에서는 ‘아침에 빵을 먹는 사태’가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자연스럽다. 이처럼 ‘낮다’에도 선행절의 사태는 기본적으로 불만족스러우며, 많은 경우 후행절의 사태마저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 ‘-느니’ 비교 구문과 유사하다.

2.3.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통사적 특성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구문은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 ‘-느니’ 비교 구문은 언제나 “-느니 … 것이 (평가 형용사)”와 같이 ‘비교 기준 대상 - 비교 중심 대상 - 서술어’ 식으로 나타나며, “… 것이 … -느니 (평가 형용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때 비교 중심 대상은 생략되지 못한다. (17)은 이를 “않느니 죽는 게 낮다”로 나타낸 예이다.

- (17) ㄱ. 않느니 죽는 게 낮다.
 ㄴ. *죽는 게 않느니 낮다.
 ㄷ. *않느니 낮다.
 ㄴ. *않느니 낮겠다.

‘-느니’ 비교 구문이 형성할 수 있는 또다른 구문인 ‘-겠-, -자’ 등 양태성 어미가 후행하는 문장에서는 후행 문장의 어휘에 제약이 있다. 2.1.1에서 다룬 바와 같이 “-느니 … -겠-”과 같은 평가 비교 구문에서 ‘-느니’에 통합하는 용언과 ‘-겠-’에 통합하는 용언은 화자의 가치 판단 대상이 된다. 따라서 ‘-느니’에 후행하는 용언은 (17ㄱ)과 같이 ‘-느니’에 선행하는 용언과 대조되는 어휘여야만 한다. (17ㄴ)과 같이 평가 형용사가 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느니’와는 다른 ‘-느니’만의 특징이다.

‘-느니’의 통사적 특성은 유사한 비교 구문인 ‘-기보다’, ‘-는 것보다’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 (19) ㄱ. 케이크보다 와플이 맛있다.
 ㄴ. 케이크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ㄷ. 케이크보다 와플이 맛있는 게 낫다.
 ㄹ.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드는 게 쉽다.
 ㅁ. 케이크보다 와플을 더 만드는 게 낫다.
 ㅂ. 케이크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 (20) ‘-느니보다’
 ㄱ. *케이크가 맛있느니보다 와플이 맛있다.
 ㄴ. *케이크를 만드느니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ㄷ. *케이크가 맛있느니보다 와플이 맛있는 게 낫다.
 ㄹ. 케이크를 만드느니보다 와플을 만드는 게 쉽다.
 ㅁ. 케이크를 만드느니보다 와플을 더 만드는 게 낫다.
 ㅂ. 케이크를 만드느니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 (21) ‘-기보다’
 ㄱ. *케이크가 맛있기보다 와플이 맛있다.⁸⁾
 ㄴ. 케이크를 만들기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ㄷ. *케이크가 맛있기보다 와플이 맛있기가 낫다.
 ㄹ. 케이크를 만들기보다 와플을 만드는 게 {낫다, ?쉽다}.
 ㅁ. 케이크를 만들기보다 와플을 더 만드는 게 낫다.
 ㅂ. 케이크를 만들기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 (22) ‘-ㄴ 것보다’
 ㄱ. 케이크가 맛있는 것보다 와플이 맛있다.
 ㄴ.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더 만든다.
 ㄷ. 케이크가 맛있는 것보다 와플이 맛있는 게 낫다.
 ㄹ.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만드는 게 쉽다.
 ㅁ.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더 만드는 게 낫다.
 ㅂ.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와플을 만들어야겠다.

장경우(2011: 65)에서 언급한 대로 ‘-기보다’와 ‘-ㄴ 것보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정도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의미의 측면에서라기보다 통사 구조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기

8) “케이크가 맛있다기보다 와플이 맛있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하는 것은 “[케이크가 맛있다](고 하)기보다 [와플이 맛있다](고 할 수 있다).”와 같이 ‘-다’로 인하여 일종의 인용문 구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보다'는 'VP기보다 VP'의 구조로만 나타나며 반대로 '-ㄴ 것보다'는 '[VP1]NP1보다 [VP2]NP2 VP(서술어)'로만 나타난다.⁹⁾ 한편 '-느니보다'는 두 유형에서 모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으로 '-기보다', '-ㄴ 것보다'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22)에서 '-느니보다'가 결합한 예를 보면 (20ㄴ)에서처럼 설령 동사가 결합한 상태라 할지라도 가치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문장에서는 '-느니보다'가 결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느니보다'의 구문에서 형용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¹⁰⁾ [의도]나 [당위]와 같은 가치 판단과 결합할 수 없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설령 '-ㄴ 것보다' 구문이라 할지라도 [VP1]NP1보다 [VP2][의도/당위]의 형식을 갖춘 평가 비교 구문으로 쓰이는 경우 형용사가 결합하지 못한다. 하길종(1999: 78)에서는 이처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화자의 판단이 강조되는 것이 '-기보다'와는 대조되는 '-느니보다'의 특징이라 하여 형용사가 결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기보다'와 '-ㄴ 것보다'에서는 (21ㄷ, 11ㄷ), (22ㄷ, ㄷ)의 예에서와 같이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문장에서도 쓰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정 양태가 포함된 '차라리', '오히려'와 같은 부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3. '-느니'의 역사적 출현 양상

3.1.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출현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느니'류 어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은 허용(1975: 611)에서 제시된 다음과 같은 15세기의 예문이다.

- (23) 겨지비 보고 어버식게 講호되 느믹 겨집 드외노니 출처 더 고마 드외아지라 흐리 열히로되 마디 아니터니(婦人見之, 請於父母曰: '與為人妻, 寯爲夫子妾者, 數十而未止也) <法華經諺解2:28>

허용(1975: 611)에서는 (23)에서 등장하는 '-노니'의 기원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허용(1975: 6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 형용사의 공기 없이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노니'는 무척 적으며 허용(1975)에서도 (23)의 단 하나의 예만을 싣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현대국어의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로의 해석만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23)은 “남의 부인이 되는데, 차라리 그의 첩이 되고 싶다.”와 같이 선행절의 사태가 곧 일

9) (11ㄷ)과 (11ㄷ)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나 (11ㄷ)은 '케이크 만들기'와 같은 명사화가 일어나며, (11ㄷ)은 평가 형용사를 '낫다'로 바꾸어 '케이크가 맛있기보다 와플이 맛있기가 더 낫다.'라면 자연스럽다. 불완전하기는 하나 '케이크가 맛있기'가 '케이크가 맛있을 가능성'에 유사한 의미로 명사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결합한다면 '-느-'가 재제되지 않은 '-니보다'의 형식으로 결합했을 것이다.

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후행절에서 화자의 소망을 발화한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서 예로 드는 ‘-느니 … -겠-’ 식의 [의도] 표현과는 달리 ‘-어지라’와 같은 [소망] 표현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상호 배제적일 필요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의도] 표현이 후행하는 경우 화자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선행절의 사태로부터 후행절의 사태로의 [의도]를 표현하려면 선행절의 사태를 그만두어야만 한다. 한편 [소망] 표현은 후행절의 사태를 소망하더라도 선행절의 사태가 부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23)과 같은 문장에서 선행절의 사태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면 단순한 계기적 연결어미로서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 (24) 도적의게 더러이고 사느니 출하리 죽으리라 호고 꾸짓기를 그치디 아니흔대
〈五倫烈65b〉

(24)의 예를 지나 18세기에 이르면 (24)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이 역시 ‘-느니’류 어미를 모두 통틀어 조사한 가운데 유일하게 출현한 예로 앞서 든 15세기의 예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19세기 시기에 ‘-느니’류 어미의 수효가 3,365개 가량으로 막대하지만 대부분 내포문 종결어미 ‘-느니’에 속하며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는 찾기 어렵다.

- (25) ㄱ. 그곳에 가 그 눈치 그 구박을 밧느니 차라리 예서 죽으나 사나 견늬 볼가
〈松籟琴〉
ㄴ. 그 두 놈에게 잡히느니 그놈들을 우리가 죽여 업식자 〈雙玉笛〉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25)는 각각 1908년, 1911년에 발간된 신소설이다. 연결어미 ‘-(으)니’에 20세기에까지 ‘-노니’와 같은 ‘-오-’ 결합의 흔적형이 발견된 것과는 달리,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에는 ‘-노니’가 나타나지 않는다.

- (26) ㄱ.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팔병신이 되는 것이 조타! 〈동아일보1934.12.6.〉
ㄴ. 너두 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고생을 하느니 집에 와서 잇게 된 것이 되려
잘됐다 〈동아일보1938.05.19〉

(26)은 1921년도부터 자료를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발견되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예이다.

3.2. ‘-느니’ 조사 결합 구성

3.2.1 ‘-느니보다’

- (27) 오히려 嫦娥 사름의게 嫁치 아니호여 夜夜에 廣寒殿에 외로이 조오느니두곤 나으리로다

‘보다’가 등장하기 이전에¹¹⁾ 쓰였던 비교 조사 ‘두곤’, ‘이라와’, ‘에셔’의 경우 ‘-느니’와 결합한 예를 찾기 어려웠다. ‘-느니두곤’에 대해서는 (27)와 같은 예가 드물게 등장할 뿐이다.

- (28) ㄱ. 홀아비로 늙어죽을지라도 그런 년 장가 들어가지고 비명횡스 **ㅎ느니보다**는 나흘 터이니 결단코 그리 못 **ㅎ다** 〈金剛門〉
 ㄴ. 吾人是 政策實權者에 對하여 糾彈코저 하느니보다도 도리혀 우리들이 無能하고 自弱한 것을 嘆하는 바이니 〈동아일보1925.09.29〉
 ㄷ. 一般은 山本 個人을 信用하느니보담 大倉이란 會社를 信用한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1936.06.06〉
 ㄹ. 專任運轉하느니보담 좀더 圓滿하고 合議的이며 〈동아일보1936.05.29〉

‘-느니보다’ 역시 20세기 초부터 등장하고 있다. 예문 (28ㄱ, ㄴ)는 ‘-느니보다’, (28ㄷ, ㄹ)은 ‘-느니보담’의 예이다.

- (29) ㄱ. 허송세월을 **ㅎ난이보다** 잘하리 **넋디로** 건너가 공부를 **ㅎ고** 잇난 것이 올KET다 〈雨中行人〉
 ㄴ. 남편이나 몹시 만나서 고싱**ㅎ느니보담** **ㅎ썸** 호강이나 **ㅎ고** 그럭저럭**ㅎ** 세상 스는 거시 **꽤ㅎ지** 안이**ㅎ나** 〈秋天明月〉
 (30) ㄱ. 다시 싱각**ㅎ죽** 그밤에 아모도 안이 만나 소리업시 죽으니보다 관경에서 억울**ㅎ** 원정을 일々이다 **ㅎ야** 순검의 말과 갖치 설치니 시원이 **ㅎ는** 편이 도로혀 다**ㅎ**힐 **ㅎ가** **ㅎ야** 〈牡丹屏〉
 ㄴ. 어머님을 봉양**ㅎ는** 것이 오히려 나와 **ㅎ썸** 나아가니보다 나을 줄로 아**는**이다 〈琵琶聲〉
 ㄷ. 다른스름 열아달 두니보다 몇빅이**는** 더 귀**ㅎ**게 기르며 〈金剛門〉

(29ㄱ)은 1920년대의 예, 그밖에는 모두 1910년대의 예이다. (29)와 (30)는 각각 “느+이”로 분절되어 나타나는 것, ‘-느-’가 통합하지 않고 ‘-니보다’로 나타나는 예이다. 이 모두 ‘-느니’ 단독 구성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29)과 같이 분절되어 나타나는 예도 보인다.

11) ‘보다’는 1757년 《御製戒酒繪音》의 “그 님금과 그 신해 서록 더부러 술을 경계함이 쇼민**보다가** 비록 곤절 흠이 이시나(其君其臣之相與戒酒 | 視小民애 雖有切焉이나)”를 시작으로 늦어도 19세기에는 문법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일하게 용언으로부터 기원한 조사 ‘부터’와는 달리 출현 양상이 비교적 갑작스럽기 때문에 한문 표현의 번역차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박진호 선생님의 가르침에 힘입었다.

3.2.2 ‘-느니만’

- (31) ㄱ. 비록 七寶 布施호은 功이나 四句受持호미 더으니만 곧디 못호니라 <金剛經三家解序二4a>
 ㄴ. 男을 나호미 女 나호니만 ㄹ디 못호며 <女四書諺解4:18b>
 ㄷ. 속절업시 죽노니 北녀ㄹ로 가아 富貴호니만 못호니라(與其待死不若北去取富貴) <三綱行實圖忠:19>

김양진(2009: 9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느니만 못하다’는 ‘-(으)니만 ㄹ디 못하다’의 구문으로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며, 劉榮榮(2016)에 의하면 15세기에 이미 ‘-(으)니만 못하다’의 구문으로 출현하였다. (31ㄱ)은 15세기, (31ㄴ)은 18세기의 예이다.

(31)의 예에서 ‘-느니만’이 아닌 ‘-(으)니만’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유념해 둘 만하다. 15~16세기 예문에서의 ‘-니만 못호-’ 구문은 8개 예문이 모두 ‘-(으)니만’으로 나타나며 ‘-느-’가 게재된 ‘-느니만’의 형식은 나오지 않았다. 비교의 의미를 지닌 ‘-느니만’의 출현은 17세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보인다.

- (32) ㄱ. ㄹ춤내 탕약을 머기느니만 ㄹ지 못호니라(而終不如湯藥之爲愈也) <痘瘡經驗方16a>
 ㄴ. 당을 너무 밋디 말고 증을 쏘와 약을 잘호느니만 못호고¹²⁾ <痘瘡經驗方10b>
 ㄷ. 의를 어그릇고 사는 거슨 의를 덕회여 죽느니만 못하다 호고(越義而生不如守義而死) <五倫行實圖烈02a>
 (34) 차라리 죽으니만 못하다 하는 생각으로 나의 최후의 서신으로써 당신에게 부치노니 당신은 능히 이 회답을 부쳐주시겠소 <동아일보1936.1.28.>

(32ㄱ, ㄴ)은 17세기, (32ㄷ)은 18세기의 예이다. (34)에서처럼 ‘-느니’가 아닌 ‘-(으)니’로 나타나는 예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3.2.3. ‘-느니만큼’

‘-느니만큼’은 본 발표문에서 다루는 ‘-느니’와는 의미와 통사적으로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느니만큼’에서 ‘-느니’는 “느”으로도 나타나 ‘-느만큼’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본고에서 다룬 다른 ‘-느니’류 어미와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느만큼’의 형식일 때 ‘-느니만큼’은 ‘만큼’이 의존명사로서 관형사절 어미 ‘-느’와 결합한 ‘-느 만큼’과 형식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느니만큼’은 [이유/원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느 만큼’은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나타난다.

12) “무당을 너무 밋디 말고 증을 쏘와 약을 잘호느니만 못호고(又有甚焉者皆聽巫設)”에 선행하는 문장으로 한문 원문이 없이 언해 과정에 삽입된 문장이다.

- (33) ㄱ. 네가 좋아하는 만큼 먹어라. [정도]
 ㄴ. 네가 좋아하(느)니만큼/좋아하는만큼 그 정도는 해야지. [원인/이유]

김양진(2009: 100)에서는 후자의 정도 비교를 나타내는 ‘-는 만큼’은 의존명사 구성으로 ‘-느니만큼’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는만큼’만이 ‘-느니만큼’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 (34) ㄱ. 내수용으로 개발하느니만큼/개발하는만큼 아무래도 그것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다.
 ㄴ. 외교란 본래 양국의 필요에서 출발하느니만큼/출발하는만큼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 (35) ㄱ. 그 날 신입생 환영회가 즐거웠었던만큼, 신입생들의 우리 학과에 대한 처음 이미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유/원인]
 ㄴ. 네가 먹었던 만큼만 다시 채워놓아라. [정도]
- (김양진 2009: 100-101)

그러나 [이유/원인]의 ‘-는만큼’과 비교의 ‘-는 만큼’이 형식적으로 면밀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김양진(2009)에서도 (35)에서처럼 ‘-던만큼’에 대해서는 [이유/원인]의 의미로 나타나더라도 ‘-더니만큼’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36) 가련흔 형편을 당흔 후로 갱미너는 것도 피를 빨니느니문콀 곤난흔고 피폐흔 살넌인데
 <죽서루>
- (37) 그는 지나치리만큼 야무져서 빈틈이 없다. (김양진 2009: 99)

한편 반대로 20세기 초의 예에서는 ‘-느니만큼’으로 나타나면서도 정도 비교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1910년대 초 문헌인 (36)의 예는 “피를 빨리기 때문에” 피폐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피를 빨리는 것처럼 피폐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이는 ‘-느니만큼’으로 나타나면서도 ‘-는 만큼’에 더 가깝게 나타나는 예로 볼 수 있다.

‘-리만큼’, ‘-르만큼’과 같이 ‘ㄴ/ㄹ’ 대립이 나타난다는 것도 ‘-느니만큼’의 ‘-느니’가 과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느니’와 동일한 기원의 ‘-느니’일지 의심스러운 점이다. 또한 ‘-리만큼’에서는 (37)에서도 보듯 [원인/이유]의 의미가 나타나는 예가 드물어 ‘-느니만큼’과는 의미의 양상 역시 다르다.

4.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기원

4.1. ‘[NP1]이 [NP2]이 낫다’의 도치설의 검토

김양진(2009: 90)에서는 ‘보다’와 같은 비교 조사 없이 ‘-느니’가 비교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NP1]이 [NP2]이 낫다’와 같은 구성의 문장으로부터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형성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느니보다’는 이 방식으로 형성된 ‘-느니’에 강조 용법으로 ‘보다’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양진(2009: 93)에서는 보조사는 축약되기는 하지만 생략되거나 탈락되지는 않기에 ‘-느니’의 형성이 ‘-느니보다’보다 더 이르다고 보았다.

김양진(2009)의 논의에서는 ‘[NP1]이 [NP2]이 낫다’ 구성에서 ‘NP2’의 위치에 [VP]NP가 입력된 상태로 도치가 일어나 ‘[VP]NP이 [NP1]이 낫다’와 같은 분열문 구조가 산출된다고 하였다.

- (38) ?*[죽는 짓]NP1이 차라리 [바보가 되는 짓]NP2이 낫다
 → [바보가 되느니]NP2 차라리 [죽는 짓]NP1이 낫다 (도치)
 (김양진 2009: 91)¹³⁾

중세 한국어 시기에 ‘낫다’의 일반적인 통사 구문은 ‘NP1이 NP2의셔/에서 낫-’과 같이 더 ‘나은’ 대상, 즉 비교 주체인 NP1이 비교 기준 NP2에 선행해서 나타나기에, ‘[VP1]NP1느니 [VP2]VP2이 낫다’와 같이 비교 주체가 후행하는 문장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치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설령 ‘NP1이 NP2의셔/에서 낫다’가 ‘NP1이 NP2이 낫-’와 같이 ‘NP1’과 ‘NP2’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이’를 사용하여도 비교 주체는 ‘NP1이 NP2의셔/에서 낫다’와 마찬가지로 비교 기준에 선행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치되어 분열문을 형성했다는 견해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낫다’와 같은 차등 비교 구문에서 ‘NP1이 NP2이 낫다’와 같이 동일한 조사를 쓰는 것은 상당히 이질적이며, 중세 한국어 시기에서도 ‘NP1이 NP2의셔/에서 낫다’와 같이 서로 다른 조사를 사용한 문장이 더 일반적이다. 설령 이와 같이 동일한 조사를 쓰는 구문이 나타난다면 의미 해석에 있어 필연적으로 어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문장의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도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또 한편으로 ‘NP1이 NP2이 낫다’와 함께 ‘NP1이 NP2에서 낫다’로도 나타난다면 ‘NP1이 NP2이 낫다’보다 도리어 ‘NP1이 NP2에서 낫다’가 더욱 도치가 잘 일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P+는+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3) 김양진(2009: 91)에서는 (8)과 같은 예가 없고 본문에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8)은 그 과정을 본고에서 간략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39) ㄱ. 앓느니 죽는 게 낫다.
 ㄴ. *죽는 게 앓느니 낫다.

또한 도치의 관점으로는 ‘-느니’ 비교 구문에서 어순이 고정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NP1이 NP2이 낫다’에서 ‘NP2’에 ‘VP+는+이’가 입력되어 ‘NP1이 VP+는+이 낫다’가 되었다면 ‘VP+는+이’가 ‘NP1’에 입력되어 ‘VP+는+이 NP2이 낫다’를 형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4.2. 조사 결합 구성과의 비교

‘-느니’의 의미 발달의 기원을 ‘-느니’의 내부 형식만으로 찾기 어렵다면, ‘-느니’와 의미적으로 매우 가까운 ‘-느니만’과 ‘-느니보다’로부터 ‘-느니’의 의미가 획득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느니’ 단독 구성과 ‘-느니만’, ‘-느니보다’ 사이의 통사적 제약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4.2.1. ‘-느니보다’

‘-느니보다’는 현대 한국어에서 ‘-느니’와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견해가 많다. 《표준》에서도 ‘-느니보다’는 별개의 어미로 구별하지 않고 ‘-느니’에 ‘보다’가 결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김양진(2009: 94)에서도 기존에 형성된 ‘-느니’에 잉여적으로 강조를 위해 ‘보다’가 결합되었다고 보고 있다. 혹여는 반대로 ‘-느니보다’에서 ‘보다’와의 결합성이 약화되어 ‘-느니’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느니’와 ‘-느니보다’는 어휘·통사적 제약 측면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와 같이 문장의 길이가 극도로 짧은 경우에는 ‘-느니보다’로 대체하기 어렵다.

- (40) ㄱ. ?앓느니보다 죽겠다.
 ㄴ. 앓느니 죽겠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느니 -겠-’과 같은 구성이 더 일찍이 등장하여 굳어진 형태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느니’는 오래 전부터 넓은 의미에서의 비교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느니보다’에서의 ‘보다’는 이를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느니보다’가 먼저 나타난 상태에서 ‘보다’가 탈락함에 따라 전형적인 비교 구문이 갖추어야 할 제약이 한결 약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41) 오히려 嫦娥 사름의게 嫁치 아니호여 夜夜에 廣寒殿에 외로이 조오느니두곤 나으리로다 <古文眞寶/諺解>
 (42) 홀아비로 늙어죽을지라도 그런 년 장가 들어가지고 비명횡수 호느니보다는 나흘 터이니 결단코 그리 못혼다 <金剛門>

- (43) 허송세월을 흐난이보다 찰하리 다투니 건너가 공부를 하고 있난 것이 올케다 <雨中行人>
남편이나 몹시 만나서 고심흐난이보담 흔씩 호강이나 하고 그럭저럭흔 세상 스는 거
시 꽤흐지 안이흐나 <秋天明月>
- (44) 그녀에게도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고려대학교 교양 국
어 작문(교육학과)>

위와 같이 19세기 및 20세기 초 문헌에서는 ‘-느니보다 낫다’와 같이 나타나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통사적 제약을 따르고 있지 않은 예가 간혹 나타난다. (43)은 오늘날의 ‘-느니’ 비교 구문에서의 제약을 따르는 문장과 유사한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예이다. 더 나아가 (44)에서처럼 현대 한국어의 예에서도 통사적 제약을 따르지 않는 예가 등장한다.

- (45) ㄱ. 그 두 놈에게 잡히느니 그놈들을 우리가 죽여 업식자 <雙玉笛>
ㄴ. 그곳에 가 그 눈치 그 구박을 밟느니 차라리 예서 죽으나 사나 견디 불가 <松籟琴>
- (46) ㄱ.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팔병신이 되는 것이 조타! <동아일보1934.12.6.>
ㄴ. 너두 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고생을 하느니 집에 와서 잇게 된 것이 되려 잘
됐다 <동아일보1938.05.19>

반면 ‘-느니’에서는 20세기 초에 이미 통사적 제약이 나타난다. ‘-느니’에 후행하는 문장은 ‘-자’, ‘-가’와 같은 양태성 어미가 통합해 있거나 ‘것’과 같은 비교 중심 대상이 평가 형용사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 (47) 민수는 방안에 앉았느니보다 차라리 밖에 어떤 토굴 같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나가서
이 밤을 지내고 싶은 맘이 부쩍 들었다. <인간문제>

‘-느니보다’와 ‘-느니’는 선어말 어미 ‘-었-’ 결합 가능성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느니’에는 ‘-었-’이 결합하는 문장이 지극히 드물거나 없지만 ‘-느니보다’에서는 ‘-었-’이 결합하는 문장이 드물게 나타난다.¹⁴⁾

- (48) ㄱ. 所謂 小作人의 生存權確認이라는 것도 經濟的 同情으로 出하였다 하느니보다도 無
愛 形式的 宣言에 不過하여 <동아일보1923.9.25.>
ㄴ. 所謂 新式 文明의 攻撃을 受하여 日로 衰退되어가고 時로 破壞되어가는 것을 吾人
은 哀惜하다 하느니보다도 大히 遺憾으로 思하는 바이다. <동아일보1923.8.26.>
- (49) ㄱ. 아마 글 재조는 엮는 모양이데 글 재조가 엮다느니보다 사랑이 熱烈하지 못한 것
인가 봐 <동아일보1929.11.02.>
ㄴ. 제가 먹고 싶어 그런 일을 한다느니보다 사서 동무 나누어 주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러한 듯합니다. <동아일보1939.5.23.>

14) 세종말뭉치 121개 검색 결과 중 1개만이 등장하여 드문 예로 볼 수 있다.

‘-느니보다’에서는 간혹 ‘-다 하느니보다’, ‘-다느니보다’가 나타나지만 ‘-느니’에서는 ‘-다 하느니’, ‘-다느니’로 비교 의미를 지니는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느니보다’에서 ‘-다 하-’가 결합하는 것은 ‘-느니만큼’, ‘-느니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느니보다’만의 특징이다.

- (50) ㄱ. 所謂 小作人의 生存權確認이라는 것도 經濟的 同情으로 出하였다 하느니보다도 無愛 形式的 宣言에 不過하야 <동아일보1923.9.25.>
 ㄴ. 所謂 新式 文明의 攻撃을 受하야 日로 衰退되여가고 時로 破壞되여가는 것을 吾人은 哀惜하다 하느니보다도 大히 遺憾으로 思하는 바이다. <동아일보1923.8.26.>

- (51) ㄱ. 그래도 속이느니보다는 바로 말을 해야지. <인간문제>
 ㄴ. 보는 것 다르고, 웃는 것이 다르오니 나는 이렇게 대답하느니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할지언정 깊은 것을 묻는 자가 조롱을 당하고, 거짓으로 대답하는 자가 칭송을 받는 그런 짓은 아니하오리다. <왜 사냐고 물으면>

‘-느니보다’에서는 ‘-느니’와는 달리 보조사 ‘는’, ‘도’가 결합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장에서 ‘-느니’ 비교 구문의 의미상의 특징으로 선행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양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런데 선행절에서의 양태적 의미는 오로지 ‘-느니’ 단독 구성에서만 등장하며, ‘-다느니보다’, ‘-었느니보다’, ‘-느니보다’에서는 양태적 의미가 등장하지 않는 중립적인 비교가 등장한다.

- (52) ㄱ. 아마 글 재조는 엮는 모양이데 글 재조가 엮다느니보다 사랑이 熱烈하지 못한 것인가 봐 <동아일보1929.11.02.>
 ㄴ. 제가 먹고 싶어 그런 일을 한다느니보다 사서 동무 나누어 주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러한 듯합니다. <동아일보1939.5.23.>
 ㄷ. 잘그렸다느니보다 웃지 안코는 견딜 수가없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1935.09.24.>
 ㄹ. 몰랐다느니보다 봄을 질기어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동아일보 1935.02.04.>
 ㅁ.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심미적 이성의 탐구>

(52ㄱ, ㄴ)의 예는 오늘날의 불만족의 양태를 지니고 있는 ‘-느니’라기보다는 오히려 ‘한다기보다’와 같은 중립적인 비교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52ㄷ)은 ‘-다느니보다’가 아닌 ‘-느니보다’에서도 중립적인 비교 의미가 나타나는 예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는 20세기 초반 문헌에서는 흔하게 발견할 수 있으나 20세기 후반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4.2.2. ‘-느니만’

- (31) ㄱ. 비록 七寶 布施호은 功이나 四句受持호미 더으니만 곧디 못호니라 <金剛經三家解序二4a>
 ㄴ. 男을 나호미 女 나호니만 ㄹ디 못호며 <女四書諺解4:18b>
 ㄷ. 속절업시 죽노니 北녀ㄹ로 가아 富貴호니만 못호니라(與其待死不若北去取富貴) <三綱行實圖忠:19>
- (32) ㄱ. 只춤내 湯약을 머기느니만 ㄹ지 못호니라(而終不如湯藥之爲愈也) <痘瘡經驗方16a>
 ㄴ. 당을 너무 밋디 말고 증을 쏘와 약을 잘호느니만 못호고¹⁵⁾ <痘瘡經驗方10b>
 ㄷ. 의를 어그릇고 사는 거슨 의를 덕히여 죽느니만 못호다 호고(越義而生不如守義而死) <五倫行實圖烈02a>

3.2.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느니만’은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활발하기 등장하고 있다.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가 ‘-느니만’ 구성에서 왔다고 본다면, ‘-느니보다’와는 달리 조사 탈락 과정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상의 이점이 있다. (32)의 예에서 보듯 “-느니 … -느니만 못하다”의 구문에서 선행하는 ‘-느니’는 비교 조사를 지니고 있지 않다. 물론 중세 한국어 구문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느니’는 ‘-는+이+이’로 분석되는 것으로 주격조사 ‘이’가 있으나 표기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느니만’이 포함된 “-느니 … -느니만 못하다” 구문은 ‘-느니’의 통사적 제약 가운데 고정된 어순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점이 있다. 가령 ‘-느니’ 비교 구문의 기저가 되는 문장을 “A보다 B가 낫다”와 같이 “-느니보다 … -느니 낫다”로 보는 경우 어째서 후행하는 ‘-느니’만이 ‘-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한편 “-느니 … -느니만 못하다”를 기저 문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선행하는 ‘-느니’든 후행하는 ‘-느니’든 모두 ‘-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선행하는 ‘-느니’가 ‘-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 “… -는 것이 … -느니만 못하다”와 같은 ‘-느니만’ 구성의 문장이 되며, 후행하는 ‘-느니’가 ‘-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 “-느니 … -는 것만 못하다” 구성이 되어 ‘-느니’ 비교 구문의 일종이 된다. “-느니 … -는 것이 낫다”라는 문장은 아마도 “-느니 … -는 것만 못하다”의 문장을 통해 ‘-느니’의 위치가 고착화된 이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느니’의 양태적인 의미 역시 ‘-느니만’ 구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2.2에서 언급한 것처럼 “A보다 B가 낫다”는 ‘A’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자주 나타나기는 하나, ‘낫다’라는 평가 형용사가 늘상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가 B만 못하다”와 같은 문장에서 ‘B’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보통 수준이며 그보다도 못한 ‘A’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양태가 섞이게 된다. ‘-느니’에서 선행절은 항상 부정적이며 후행절도 대개는 부정적이라는 것은 “A가 B만 못하다”와 유사한 면이 있다.

15) “무당을 너무 밋디 말고 증을 쏘와 약을 잘호느니만 못호고(又有甚焉者皆聽巫設)”에 선행하는 문장으로 한문 원문이 없이 언해 과정에 삽입된 문장이다.

그러나 “-느니 … -느니만 못하다”로부터의 설명이 언제나 매끄러운 것만은 아니다. 가령 “-느니 … -느니만 못하다”에서 “-느니 … -는 것이 낫다”로 변화하는 경우 비교 구문으로서의 의미가 다소 변화하게 된다. “-느니 … -느니만 못하다”에서 ‘-느니’는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비교 중심 대상이었다. 그런데 “-느니 … -는 것이 낫다”에서는 ‘-느니’가 오히려 ‘보다’와 결합할 수 있는 비교 기준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느니’가 문법화되는 과정에서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었다는 사실이 인지되지 못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다.

또한 ‘-느니’의 또 다른 문장 구성인 “-느니 … -겠-”¹⁶⁾으로의 변화는 “-느니 … -느니만 못하다”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양진(2009: 93)에서 “-느니 … -느니 낫다”로부터 “-느니 … -겠-”을 설명했던 것과 같이, 초기에는 “-느니 … -느니만 못하다”, “-느니 … -는 것이 낫다”와 같은 구문으로 쓰이다가 ‘-느니’에 비교의 의미가 전이되어 “-느니 … -겠-”과 같은 용법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형식적 형성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다루고, 비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과 비교 조사가 결합한 것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느니’는 ‘-느니보다’와 의미가 유사하지만 통사적 제약에 있어서 ‘-느니보다’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느니보다’는 ‘-었-’ 결합이나 ‘-다 하-’ 융합 구성 등 내포문 종결어미 ‘-느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느니만큼’이 ‘-느니’와 의미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역시 이러한 발달 기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느니만’ 구성은 어순과 같은 통사적 제약이나 양태적 의미를 설명하기에 용이에 ‘-느니’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양진(2009), 특수어미 ‘-느니’의 형태통사론, 《한글》 284, 73-105.
 김정대(1993),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론,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정아(1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태학사.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오경숙(2003), 국어 후치사 비교구문,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장경우(2011), ‘보다’ 구문 연구 : 통사·의미적 비교양상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경우(2014), 비교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느니’의 양태성 연구, 《어문학》 124, 103-127.
 하길중(1999), 《한국어 비교 구문 연구》, 박이정.
 허웅(1975), 《15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16) ‘-느니’ 구문에서 후행절에 통합될 수 있는 양태성 어미로는 ‘-겠-’ 이외에도 ‘-자’, ‘-걸’, ‘-지’ 등 여럿이 있으나 본문에서는 편의상 ‘-겠-’을 대표로 지칭하겠다. “알느니 죽겠다” 류의 문장을 지칭한다.

〈토론문〉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와 형성 과정」

김경혜(인하대)

이 연구는 연결어미 ‘-느니’의 비교 의미가 어떻게 획득되었는지 그 획득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먼저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살펴 보고, ‘-느니’와 밀접한 형태 및 의미 연관성을 지닌 ‘-느니만’, ‘-느니보다’, ‘-느니만큼’의 역사적 출현 양상과 통사 결합 관계를 관찰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가 지니고 있는 비교 구문으로서의 의미가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느니’라는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는 어미들로부터 기원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여러 해석과 문제의식들에 깊이 공감하며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문의 2장에 따르면 평가 형용사는 평가 양태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평가 양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양태의 하위 범주 중의 하나로 ‘평가 양태’를 언급한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평가 양태’와 ‘감정 양태’는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발표자께서는 양태를 문법 범주로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 범주로 다루는 것인지 역시 궁금합니다.

둘째, ‘-느니’가 불만족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게 된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느니’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의 의미 이외에 화자가 해당 명제를 꺼리고 있는 부정적 감정 양태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발표문에서는 비교의 의미를 지닌 ‘-느니’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어 ‘-느니’가 부정적 감정 양태를 어떻게 획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느니’의 부정적 감정 양태 의미의 획득 과정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발표문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느니보다’는 현대 한국어에서 ‘-느니’와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표문에 따르면 ‘-느니보다’가 아닌 ‘-느니만’이 통사적 제약과 양태 의미적 측면에서 ‘-느니’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니보다’의 기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논외이긴 하지만 ‘-느니보다’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 된다면 연구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뿐 아니라 ‘-느니보다’ 역시 20세기에 들어서 사용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느니’와 ‘-느니보다’의 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